

한국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과 의의

金光載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1. 머리말
2. 한미공동작전의 전개와 변천
3. 한미공동작전의 의의
4. 맺음말

1. 머리말

1910년 日帝의 韓國併呑과 함께 면면히 이어져온 韓國獨立運動은 일제강점기의 3·1獨立運動을 거쳐 大韓民國 臨時政府(이하 臨政)의 수립을 보게 되었다. 전민족적 독립운동지도기관으로 출범한 臨政은 내부갈등 등으로 인해 초창기의 위상이 약화되어 갔다. 한동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임정은 그후 中日戰爭을 거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그리하여 1940년 9월 17일 임정 산하의 國軍으로서 韓國光復軍(이하 광복군)이 창설되고, 아울러 1941년 12월 太平洋戰爭 발발후 朝鮮民族革命黨(이하 民革黨) 등이 참여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임정의 위상은 전에 없이

강화되었다.

1940년대 전반기 對日戰 참여를 지상과제로 설정하고 있던 임정의 독립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광복군의 군사활동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광복군의 군사활동 가운데에서도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에 실행된 韓美共同作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광복군과 美國 戰略諜報局(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의 '독수리작전(Eagle Project)'으로 OSS와의 합작하에 광복군 대원들 가운데 적격자를 선발·훈련시켜 한반도에 투입, 첩보활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장차 對日戰에 참전한다는 원대한 계획의 실행이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라 훈련을 마친 요원들이 한반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때문에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은 일본의 항복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럴 경우 광복군 요원들이 국내에 파견되어 연합국의 대일작전 수행에 협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임정 혹은 광복군도 연합국의 전후 한반도문제 처리과정에서 일정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이다. 극단적인 경우 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과 국내진입작전 활동 자체를 신화화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선 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에 대한 연구사 및 문제점을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광복군의 활동, 특히 OSS와의 공동작전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 학문적으로 검증되기도 전에 미화되어 왔다. 특히, 해방 직후 간행된 독립운동사 관련 통사류에서 이러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蔡根植의 『武裝獨立運動秘史』(대한민국 공보처, 1949), 애국동지원호회의 『한국독립운동사』(1956)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 통사에서는 한미공동작전이 '本國上陸作戰' 혹은 '낙하산부대'의 훈련이었다든지 1945년 7, 8월에 낙하산부대를 선두로 국내진공을 계획하였다고 하는 등 당시의 상황과 매우 동떨어진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주장들에는 당시의 맥락에 근거한 사실 이

해나 평가라기보다는 해방을 주체적으로 개척하지 못한 울분, 회한, 보상심리 등이 짙게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의 『독립운동사』(제6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¹⁾ 물론 이 저서는 광복군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했던 광복군 출신들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미공동작전에 대해서는 집필 당시 자료의 한계로 관련자의 증언이나 회고 등을 집대성해 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1차 자료를 통하여 검증되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후 지금까지 선학들의 광복군 관련논문들이 많이 축적되어 왔다.²⁾ 그러나 한미공동작전에 한정하여 볼 때, 이들 대부분은 당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위의 통서류나 관련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대동소이한 내용과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당시 입정 및 광복군이 처하고 있던 중국·미국 등을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6권, 독립군전투사(下), 1975.

2) 한국광복군의 활동에 관련된 논문은 수십 편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그 주요한 것들만 제시하고자 한다.

朴成壽, 「광복군에 대하여 -소위 '準繩九項'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3, 1967(『독립운동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0에 「광복군과 임시정부」로 재수록됨).

秋憲樹, 「중일전쟁과 임정의 군사활동」, 『아세아학보』 11, 1975.

李鍾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 『한국사론』 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李延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盧景彩, 「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李炫熙, 「중경임정과 한국광복군연구(下) -그 활동과 국내진입작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 1992.

趙一文, 「광복군의 조직과 대일선전」, 『한국민족운동사연구논총』, 영남대출판부, 1988.

金祐銓, 「韓國光復軍과 美國 OSS의 共同作戰에 관한 研究」, 『朴永錫教授華甲紀念論叢』, 1992.

趙恒來, 「重慶時代의 大韓民國臨時政府和 韓國光復軍」,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歷史的 照明』, 국가보훈처, 1997.

朴成壽, 「한국광복군의 正統性 問題」, 『三均主義研究論集』 제21집, 三均學會, 2000.

김행복, 「한국광복군의 군사활동과 그 의의」, 『軍史』 제41호, 2000.

중심으로 한 냉혹한 국제환경 속에서의 임정의 고투상을 외면하고 주체적인 노력만 강조함으로써 임정 및 광복군 역사의 객관적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임정 및 광복군의 고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환경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韓詩俊에 의하여 이루어졌다.³⁾ 그의 저서는 광복군의 전반적인 역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학문적 연구업적이기도 하다. 곧 실증적 작업을 통해 광복군에 관한 여러 이견과 누적된 문제점들을 상당히 해결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공동작전과 관련하여도 그는 광복군의 활동 서술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미공동작전이 시작되는 시기, 대략적인 훈련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는 OSS문서 등 미국 측 관련문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한미공동작전의 전체적인 모습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광복군의 군사적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합작훈련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계기와 경위, 훈련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합작훈련에 대한 임정내부 각 세력의 입장, 중국 및 미국정부·OSS측의 입장이나 의도, 또한 해방 직후 한미공동작전을 둘러싼 임정 및 광복군 지도부, 나아가 OSS의 동향, 특히 해방 이후의 작전변천 등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하였다. 요컨대, 광복군의 전반적인 활동을 다루었다는 저서의 특성상, 또 당시의 자료적 한계로 한미공동작전의 실상과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3) 韓詩俊, 『韓國光復軍 研究』, 一潮閣, 1993. 그외에도 韓詩俊은 한국광복군 관련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韓國光復軍의 創設 背景』, 『東洋學』 22,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2; 『韓國光復軍과 中國軍事委員會와의 關係』, 『국사관논총』 제47집, 국사편찬위원회, 1993; 『大韓民國臨時政府와 韓國光復軍』, 『吳世昌教授華甲論叢』, 1995; 『한국광복군의 활동과 역할』, 『한국광복군의 창군과 역할』, 한국광복군동지회 주최 한국광복군 창설 59주년 기념학술회의자료집, 1999년 9월; 『한국광복군과 연합군의 공동작전』, 『중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2000.

따라서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선학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면서 새로운 자료들을 활용하여 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⁴⁾ 그럼으로써 임정 및 광복군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자의 연구가 다소나마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연구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전한 자료의 부족으로 훈련과정 각 단계마다의 세밀한 내용을 추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광복군 제3지대의 한미공동작전 문제에 대하여 위의 OSS문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으나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하였다. 또한 한미공동작전을 둘러싸고 임정내부의 갈등을 韓獨黨과 民革黨, 新韓民主黨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외에도 임정내 소수세력이었던 朝鮮民族解放同盟이나 朝鮮革命者聯盟 등의 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살펴보지 못하였다. 또한 한독당 내부에서도 각 계파별로 한미공동작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한미공동작전을 통해 당시의 국제관계를 고찰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깊은 천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제한점들은 향후 새로운 관련 史料—특히 미국내 OSS문서, 중국 국민당정부 문서—를 보다 많이 발굴·분석함으로써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선학과 필자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광복군과 미국 OSS의 한미공동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전개 및 변천, 민족운동사적 의의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4) 金光載, 『韓國光復軍의 活動 研究—美 戰略諜報局(OSS)과의 合作訓練을 중심으로—』,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9.

2. 한미공동작전의 전개와 변천

1) 한미공동작전의 추진 배경

1940년 9월 17일, 중국의 전시수도 重慶에서 臨政의 국군으로서 창설된 韓國光復軍은 처음부터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일전에 참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⁵⁾ 먼저 임정은 그 동안의 中國 國民黨政府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을 향하여 적극적인 임정승인 및 戰時參戰外交를 전개하였다. 임정은 연합국 특히 태평양전선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면서 부상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작을 중시하였다.⁶⁾

임정 및 광복군과 미국의 협작에는 '韓國光復軍行動9個準繩'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중국 국민당정부 군사위원회의 한국광복군에 대한 통제를 명문화한 '9개준승'은 그 폐단이 일찍부터 임정 내부에서 지적되고 있었다. 또한 연합국과의 본격적인 협작을 위해서도 이의 개정 또는 폐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⁷⁾

다만 중국 국민당정부와는 임정 및 광복군이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기존관계의 현상유지에 그치고자 하였다. 임정은 미국과의 협작이 대일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 한국에 돌아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미국측으로 기울고 있었다. 중국 국민당정부와의 몇 년에 걸친 힘든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1944년 8월 '9개준승'이 취소되었다. 그후 1945년 5월 초에는 광복군이 임정의 군대임을 명

5)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2, 東京: 原書房, 1967, p. 740.

6) Kim Ku → Syngman Rhee, 1944. 9. 21(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25, 臨政篇 X, 1994, pp. 430-431).

7) 秋憲樹 編, 『資料 韓國獨立運動』 1, 1971, pp. 248-249.

문화한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었다. 광복군의 지휘권이 임정에 귀속된 것은 OSS와의 합작훈련 실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⁸⁾

한편, 미국정부는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부터 이전의 한국 문제 ‘不提’ 원칙을 폐기하고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미국정부는 해외의 한인독립운동세력, 특히 중국 내의 임정, 또는 미국내 한인독립운동세력의 대일전 수행에의 참여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미국정부는 임정의 승인 요청을 거부하고 임정을 독립운동가들이 임의로 만든 단체로 간주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⁹⁾ 그러나 1945년에 들어가 대일전 승리가 임박하자 미국정부의 3성조정위원회(SWNCC)는 막 창설된 국제연합(UN)의 대의명분과 일제의 압박하에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약소민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일본을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한인들로 구성되는 ‘전투부대’ 창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정부는 ‘한인전투부대’의 창설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실행할 中國戰區 미군사령관 웨드마이어(Albert Wedemeyer)에게 그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웨드마이어는 중국에서의 대규모 한인부대 창설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미국정부에 통보함으로써 한인부대 창설계획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았다.¹⁰⁾

다만 중국전구 미군사령부는 중국내 한인들을 대일첩보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OSS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주중 OSS는 한국으로의 첩보침투를 목표로 하여 광복군과의 합작을 서둘렀다. 사실 OSS는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부터 중국에 진출, 華北·滿洲·韓國을 거쳐 최종적으로 日本에 첩보요원을 침투시키고자 노력하였다. ‘日本帝國’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유일한 ‘非일

8) 김광재, 앞의 논문, p. 25.

9) 鄭容郁, 『1942~47年 美國의 對韓政策과 過渡政府形態 構想』,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pp. 51-52;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p. 492.

10) ‘SWNCC 115-Utilization of Koreans in the War Effort’, 1945. 4. 23(申福龍 편, 『韓國分斷史資料集』 5, 원주문화사, 1993, p. 76).

본인'으로서 한인들이 그 임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한 OSS는 태평양전쟁 초기부터 대일첩보활동에 한인들을 동원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중국 내부의 복잡한 정세,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OSS를 비롯한 10여 개에 이르는 미국 정보기관의 격렬한 주도권 경쟁, 중국정부의 한인독립운동세력에 대한 통제강화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1944년 10월 중국주둔 미군사령관 스틸웰(Joseph Stilwell)이 蔣介石과의 불화로 웨드마이어로 교체되고 유럽의 대독전쟁이 연합국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OSS의 중국에서의 활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¹¹⁾ OSS도 태평양에서의 미군의 북진에 맞추어 중국 화북지방·만주·한국, 최종적으로는 일본 본토를 향한 대일첩보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하루빨리 한반도로 침투하여 적정보를 수집하고 적후방을 교란하여 연합군의 상륙에 배합하려는 광복군과 OSS는 서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1945년 초부터 합작훈련에 대한 교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¹²⁾

광복군과 OSS의 합작교섭과정에서 임정은 미국의 OSS와 광복군의 합동작전을 정부차원으로 공식화하고자 하였고, 이를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승인받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임정승인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 권한이 없었던 OSS는 임정의 요청을 회피하거나 군사합작과 임정승인 문제를 분리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 한미공동작전의 전개

광복군 第2支隊의 한미공동작전은 제2지대장 李範奭이 미국 OSS의 비밀

11) Maochun Yu, *OSS IN CHINA: Prelude to Cold War*,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6, p. 264.

12) 김광재, 앞의 논문, p. 54.

첩보과 책임자 싸전트(Clyde B. Sargent)와 교섭한 결과 1945년 4월 임정과 중국전구 미군총사령부의 최종적인 승인을 얻게 되었다.¹³⁾ 1945년 5월부터 西安 杜曲의 광복군 제2지대에서 이른바 '독수리작전'(Eagle Project)을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광복군 제2지대 본부에 韓美合同指揮本部(Korean-American Joint Command)를 설치하고 이범석과 싸전트가 양측의 지휘관으로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훈련을 진행하여 갔다. 그리고 임정과 광복군총사령부는 이범석에게 합작훈련에 전폭적인 후원을 보냈다. 또한 OSS측도 자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정승인을 유보하였지만 유능한 한인요원의 확보나 한반도에 대한 첩보침투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임정이나 광복군의 협조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밀접해졌다.¹⁴⁾

합작훈련 제1기 훈련생으로는 학병출신들과 기존의 제2지대 대원들에서 50명의 적격자들이 선발되었다. 주된 훈련내용은 장차 한반도에 침투해서 적의 중요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이를 무전으로 중국으로 타전하기 위한 첩보훈련과 통신(무전)훈련이었다. 그 밖에 일본에 대한 심리전 기술, 연합군의 공중폭격이나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기상학교육도 강조되었다. 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50명 가운데

13) 'The Eagle Project for SI Penetration of Korea', Prepared by SI Branch, OSS, CT, 1945. 2. 24(국편, 앞의 자료 22, pp. 243-272). 이 문서는 광복군과 OSS의 한반도 침투작전계획의 전모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전구 OSS 비밀첩보과에서 근무하던 싸전트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계획의 작성자(this writer)는 지난 3년 동안 임정 및 한인단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였으며...", "1945년 1월 이범석 장군의 초청으로 본 OSS장교(this OSS officer)는 서안 근처의 제2지대 본부를 방문..." 혹은 "本官(this officer)은 이 그룹이 OSS의 훈련과 작전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결론내리고..."(이상의 인용문은 국편, 위의 자료, p. 261) 등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이 계획서는 이범석과의 긴밀한 협의하에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내 모일간지에 의하면, 이 계획서의 작성자는 중국전구 OSS의 작전장교 윌리엄 데이비스(W. P. Davis) 대령으로 잘못 소개되기도 하였다(『미 육군정보전략본부 작성 1급비밀문서 공개』, 『東亞日報』, 1995. 8. 15).

14) 김광재, 앞의 논문, p. 70.

12명은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탈락하고 8월초 38명이 약 3개월 과정의 훈련을 수료하였다. 훈련과정에서는 昆明 OSS본부와의 직접 연계 문제, 언어소통 문제, 훈련생들과 교관 사이의 계급의 균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장차 한반도 내에서의 첩보활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서안을 공동작전 전개의 주가지로 하는 외에도 山東半島에 '독수리 제2기지'를 설치하고자 하였다.¹⁵⁾

1945년 7월부터 安徽省 立煌의 第3支隊에서도 지대장 金學奎와 버치(John M. Birch) 대위의 교섭으로 합작훈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제3지대의 합작훈련은 OSS와 '美 第14航空隊'(American 14th Air Force) 산하 정보기관(A-2)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관계로 서안의 제2지대보다 2개월 늦게 시작되었다. 훈련인원(20명)이나 규모도 서안의 제2지대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¹⁶⁾

중국에서 광복군과 주중 OSS의 합작과는 별도로 워싱턴 OSS본부에서도 1945년에 들어 미국내 韓人들과의 합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미국의 한인들은 이전부터 개별적으로 미군에 자원입대하여 대일전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찍부터 미국내 한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OSS 워싱턴 본부의 에이플러(Carl F. Eifler) 대령, 군펠로우(Preston Goodfellow) 대령 등은 柳一韓·張錫潤 등과 미국내 전쟁포로수용소의 한인포로들을 동원, 태평양 오키나와에서 잠수함으로 한반도에 침투, 첩보전을 수행한다는 '넙코작전(Napko Project)'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반도가 중국전구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전구 미군사령관 웨드마이어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웨드마이어는 이 문제를 주중 OSS에 넘겨 검토하게 하였다. 주중 OSS는 넙코작전이 한반도 실정을 정확하게 반

15) 'OPERATION REPORT & EAGLE PROJECT', 1945. 8. 6(국편, 앞의 자료 28, p. 253).

16) 광복군 제3지대의 한미공동작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3지대의 합작훈련은 제2지대와는 다른 경로를 거쳐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김광재, 앞의 논문, pp. 92-104 참조).

영하지 않았으며 최악의 경우 2개의 작전이 모두 위협하게 된다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그 계획은 중국에서 광복군과 진행하고 있는 작전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거나 독수리작전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독수리작전과 마찬가지로 작전실행단계에서 해방을 맞이함으로써 냅코작전도 끝나게 되었다.¹⁷⁾

서안의 광복군 제2지대의 제1기생 훈련이 끝난 직후인 8월 5일, 金九·李青天·嚴恒燮 등 임정 및 광복군 수뇌부로 구성된 시찰단은 서안에 가서 훈련생들을 사열하고 격려하였다.¹⁸⁾ 8월 7일 김구는 마침 서안에 와 있던 워싱턴의 OSS 총책임자인 도노반(William J. Donovan) 일행과 회담을 가지고 한미공동작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다.¹⁹⁾ 이 자리에서 도노반은 한미공동작전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임정의 후원을 받아 작전을 조속히 실행하고자 하였다.²⁰⁾ 도노반의 적극적인 태도에 고무된 김구

17) 방선주, 『美州地域에서의 韓國獨立運動의 特性』(『韓國獨立運動의 地域的 特性』, 光復節 제48주년 및 독립기념관 개관6주년 기념 제7회 독립운동사 학술심포지엄, 1993); 방선주, 『아이프러機關과在美韓人의 復國運動』(『제2회 한국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8). 2001년 국가보훈처에서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냅코작전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출간하여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NAPKO PROJECT OF OSS: 재미한인들의 조국 정진 계획』). 또한 이 자료집에는 정병준의 자세한 해제가 참고된다.

18) 『最近의 臨政動態』, 未詳→中國國民黨 中央執行委員會, 1945. 8. 15(秋憲樹 편, 앞의 자료, p. 406); 대한매일신보사 편, 『白凡金九全集』 7, 대한민국 임시정부 IV, 1999, p. 567. 시찰단은 임정 및 광복군 수뇌부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중경에서 모집된 OSS 훈련을 위한 제2기 훈련생 후보 1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19) 『大韓民國臨時政府 議政院文書』, p. 557. 1945년 8월 21일 오후 의정원에 출석한 김구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보고하였다. “... 그리고 다음날은(8월 7일-인용자) 西洋 사람(도노반을 가리키는 듯-인용자)이 나를 좀 보자고 하기에 갔는데 들어가며 보니 自己네 앉은 권은 美國 國旗를 띄웠고 우리 앉은 자리는 조선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자리는 매우 융성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앞으로 우리 정부와 당신네의 政府가 절실히 일하여 나가자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말이 그것이 卽 내가 말할 것인데 당신이 먼저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좀 있다 점심도 못먹고 나오는데 거기도 태극기와 미국기가 띄워 있고 나오는데는 모두 활동사진 기계를 가지고 찍습니다.”

20) ‘Morale Operations for Korean Targets’, Evans→Roland Dulin, 1945. 8. 9(국편).

는 회담후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내 지속적인 한미합작을 요청하였다.²¹⁾

(3) 국내진공작전의 실시

8월 9일, 서안 일대에 일본이 곧 항복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날밤 서안 두곡 제2지대 본부에서 이청천·이범석 등 광복군 수뇌부는 한미공동작전의 미국측 책임자인 싸전트와 긴급회담을 갖고 미군의 한반도 상륙시 광복군도 투입한다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종전을 앞둔 임정 및 광복군 수뇌부의 위기의식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제안은 며칠 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미처 구체화되지 못하였다.²²⁾

한편, 8월 9일 일본의 항복 소식을 접한 임정과 광복군은 한미공동작전 대원 및 제2지대 대원을 중심으로 약 100명에 달하는 '國內挺進軍'을 편성하여 한반도 진입을 서둘렀다.²³⁾ 그러나 정진군의 국내진입은 좌절되고 대신 해방 다음날인 8월 18일 선발대라고 할 수 있는 '挺進隊'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이범석 지대장 이하 4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광복군 정진대는 OSS측 미군사절단과 함께 한반도로 진입하였다.²⁴⁾

앞의 자료 28, p. 275).

21)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1945. 8. 18(국가보훈처 소장자료).

22) Sargent → Helliwell, 1945. 8. 10(국편, 앞의 자료 23, pp. 204-205). 이 자료는 싸전트가 회담에서 협의된 내용을 헬리웰 대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회담의 분위기와 당시의 절박한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

23) 國家報勳處, 『北美時報(THE KOREAN AMERICAN TIMES)』,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21), 美洲篇③, 1988, p. 240. "서안에 십일 동안 갔다 왔나이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 전보내용을 신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뒤의 "일간 중경으로 귀환하겠소"라는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다. 김구는 이 전보를 보내고 난 다음날인 17일 서안을 떠나 成都로 갔다. 『독립운동사』 6, p. 500.

24) 'Preliminary Report of Mission to Keijo, Korea, for the Relief of War Interned in that Country', Bird → Heppner, 1945. 8. 23(국편, 앞의 자료 23, p. 267). 이 보고서

이들의 표면적이고 공식적인 임무는 한반도의 연합군 전쟁포로를 구호하고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이면의 실제적인 임무는 한반도에 진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적의 중요문서를 압수하며 미군이 정식으로 진주할 때까지 그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그에 편승한 한국광복군 '挺進隊'의 임무는 임정과 광복군이 정식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내와 임정과의 연락을 담당하며 정치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8월 18일 서울 여의도비행장에 도착한 광복군 정진대와 미군사절단은 일본군의 위협으로 다음날 8월 19일 어쩔 수 없이 다시 중국 서안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⁵⁾

이즈음 한국이 중국전구 관할에서 태평양전구로 변경되고 미군이 곧 한반도에 상륙하게 됨으로써 광복군이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다시 한반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西安으로 귀환한 광복군과 OSS팀은 명령대기 상태에 들어가면서 작전은 사실상 정지되었다. 한편, 이범석 등은 중국전구 미군과 OSS, 맥아더사령부에 작전을 지속할 것과 임정 및 광복군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였다. 즉, 그는 광복군이 한국 국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군대로서 큰 가치가 있으며 소련 점령지역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항하여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OSS측에서도 광복군과의 합작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OSS 자체가 1945년 10월 1일 해체되면서 광복군과 OSS의 공동작전도 이와 종말을 같이 하게 되었다.

에 이들 22명(광복군 4명, 미국인 18명)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이범석은 이때 한국에 파견되었던 독수리팀의 규모가 미군을 포함하여 45명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착오로 보인다(李範奭, 『光復軍』, 『新東亞』, 1969년 4월호, p. 201).

25) 『大韓民國臨時政府 議政院文書』, p. 558. 의정원에서 김구는 중국으로 되돌아온 광복군 정진대가 "(일제가-인용자) 投降籤子하면 또 갈 것"으로 보고하였다.

3. 한미공동작전의 의의

(1) 임정의 대일군사활동과 한미공동작전

해방 직전 임정 및 광복군의 활동 가운데 OSS와의 한미공동작전과 국내 진입 시도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19년 임정은 수립 당초부터 일본에 대한 대규모 정규전의 전개를 지상목표로 설정하고 활동 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다만 이러한 목표의 실천은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이유, 나아가 광범위한 대중적 토대의 결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윽고 1940년 9월, 임정 산하에 정부군으로 광복군이 창설되면서 이러한 과제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임정은 임정과 합작하기 위하여 적극적이었던 미국의 정보기관인 OSS와의 합작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 국민당정부와 체결한 ‘韓國光復軍行動9個準繩’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연합국에 대한 參戰外交에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1945년 5월부터 곧바로 한미공동작전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임정과 광복군은 미국과의 합작을 정부나 단체간의 공식적인 합작으로 끌어올리고자 시도하였다. 일찍이 미국무성은 OSS에게 한인과의 합작시 이들을 개별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²⁶⁾ 따라서 OSS도 합작교섭 과정에서 광복군을 개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광복군은 그것을 기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임정 및 광복군의 협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때문이었다. 훈련이 진행되면서 임정 및 광복

26) McCune → Berle, 1944. 7. 31(미 국무성, 『미 국무성 한국관계 문서(1941~1944)』 IV, 원주문화사, 1993, p. 324).

군은 이전의 중국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경험하였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고 주체성을 견지하기 위해 훈련대원들의 정훈교육은 광복군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훈련과정에서도 광복군 제2지대 지대장 李範奭과 미국측 책임자가 ‘韓美合同指揮本部’(Korean-American Joint Command)를 설치하여 긴밀한 공조체제하에서 훈련을 이끌어 갔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²⁷⁾ 물론 현실적으로는 OSS가 자금 및 장비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측의 의지가 보다 결정적인 변수였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에서 한미공동작전을 진행했다. 또한 OSS가 임정이나 광복군을 ‘승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실체는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1945년 8월초 임정의 김구 주석과 OSS의 총책임자 도노반이 회담을 개최한 사실은 그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한편 한미공동작전을 통하여 임정 및 광복군의 대일전 참여가 가시화되면서 임정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임정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미국정부 혹은 주중 미군사령부에게 한인의 대일전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의하였다. 1945년에 접어들면서 미군의 필리핀 점령, 특히 6월말 오키나와 점령으로 임정요인들은 한반도 상륙작전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임정은 광복군을 태평양지역에서 북상하고 있는 미군에 파견하여 한반도 상륙작전시 배합하고자 시도하였다. 임정 주석 김구는 미국정부에게 미군이 제주도를 점령하면 모든 한국인들을 지도하여 대일전에 협조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²⁸⁾ 이러한 제의는 임정 및 광복군이 오랫동안 지향해왔던 ‘독립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OSS와의 협작을 통해 임정 및 광복군은

27) ‘Monthly Report for June, Eagle Project’, Sargent → Helliwell, 1945. 6. 29(국편, 앞의 자료 28, p. 112).

28) 『抄韓情近報』, 賀國光 → 吳鐵城, 1945. 7. 25(대한매일신보사 편, 『白凡金九全集』 5, 대한민국 임시정부 II, 1999, p. 649): 『最近의 臨政動態』, 1945. 7. 25(秋憲樹 편, 앞의 자료 1, p. 405).

제2차 세계대전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임정 및 광복군이 미국 OSS와 협력하여 한국 내에서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광복군 印緬戰區工作隊가 영국군과 협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 직전 광복군이 거둔 귀중한 성과였으며, 한국독립운동의 활동범위나 협력대상국을 확대시켰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질적으로 심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²⁹⁾

더욱이 한미공동작전은 일본패망후 解放政局에서의 임정, 특히 韓獨黨의 정치기반 조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한미공동작전을 통해 대일전 참전이라는 목적과 함께 조기에 국내로 진입하여 장차 임정의 활동기반을 만든다는 측면도 있었다. 일제패망후 국내에서의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문제는 대일전 참전만큼이나 절실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연합국의 한반도 정책이나 대일전의 추이는 임정에 대단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임정으로서서는 하루빨리 한반도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임정 및 광복군의 OSS와의 협력경험 혹은 인적관계는 8·15 이후 중국관내지역 일본군 내의 한국적 장병들을 광복군으로 編入·擴軍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임정 및 광복군 지도자들이 미국정부의 방침으로 개인자격으로 귀국하였으나 미군정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호의적인 인식을 받게 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한미공동작전이 임정과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협력이 아니라 OSS라고 하는 미국정부 기관과의 소규모 협력이었으며 또한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은, 해방을 3~4개월을 앞두고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임정 및 광복군 자체 역량의 한계이기도 했지만 미국정부의 임정 불승인 원칙의 고수 및 한인들을 개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중국 국민당정부의 임정 및 광복군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도 크게

29) 金昌洙, 『大韓民國臨時政府의 軍事活動』, 『한민족독립운동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0, p. 342.

작용하였다.

(2) 임정의 참전외교활동과 한미공동작전

태평양전쟁 발발후 임정의 지상목표는 연합국으로부터 승인받고 그 원조를 얻어 교전단체의 하나로 대일전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적 여건은 임정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미국정부는 한인독립운동 단체의 분열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한인독립운동 진영의 역량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임정의 승인요청에는 시종일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³⁰⁾

반면 중국 국민당정부는 임정 및 광복군에 통제를 가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임정의 승인을 요청하는 등 일관성없는 對韓政策을 펴고 있었다.³¹⁾ 중국정부는 한인으로 구성되는 전투부대 건설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만 反日이라는 정치적 선전효과를 위한 제한된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었다.³²⁾ 이는 미국정부도 마찬가지였다.³³⁾

임정 및 광복군과 OSS의 한미공동작전에 대한 교섭은 태평양전쟁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정 및 광복군이 1945년에 가서 한미공동작전을 성사시키게 되기까지는 안팎의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 외부의 가장 큰 장애는 역시 중국과의 관계였다. 중국 국민당정부가 광복군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강요한 '9개준승'은 임정 및 광복군이 연합국과 합작하고자 하는 시

30) Department of State, U.S.,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1947. 1950. 1951(한철호 역, 『미국의 대한정책(1834-195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p. 71).

31)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2, 역사비평사, 1995, p. 130.

32) 廉仁鎬, 『朝鮮義勇軍 研究-민족운동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 297.

33) 'SWNCC 115-Utilization of Koreans in the War Effort', 1945. 4. 23(申福龍 편, 『韓國分斷史資料集』 5).

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측 태도는 광복군 印緬戰區工作隊 파견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즉, 중국정부는 광복군의 추가 인도 파견을 거부하였으며, 심지어 이미 인도에 파견된 대원들에게는 인도에 있는 영국(군)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³⁴⁾

'9개준승'으로 대표되는 중국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고자 했던 임정의 노력은 연합국과의 협작을 통해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독자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중국정부도 전후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패권을 회복하려 한다는 국제여론의 악화, 임정을 위시한 한인들의 반발, 전후 한반도에 親中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정비 차원에서 광복군의 지휘권을 임정에 되돌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중국이나 미국정부는 임정 및 광복군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고 韓人戰鬥部隊의 조직을 통한 대규모 동원에는 소극적이었다.³⁵⁾ 이에 임정은 임정과 협작하기 위하여 적극적이었던 미국의 정보기관인 OSS와의 협작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광복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三民主義를 강요하면서 전후 동아시아의 패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하던 중국 국민당정부와 체결한 '韓國光復軍行動9個準繩'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연합국에 대한 參戰外交에 힘을 기울였다.

더욱이 1945년 5월 1일, 임정과 중국정부의 새로운 협정에 의한 광복군 통수권의 임정 귀속은 임정 및 광복군 활동의 폭을 그만큼 넓혀 주었다. 그럼으로써 이날 임정 주석 金九, 外交部長 趙素昂이 중국전군 미군사령부를 방문하여 미군의 임정과의 합작시 더 이상 중국측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천명하거나 광복군 총사령부 禮堂에 걸려 있던 중국의 青天白日旗를 끌어내릴 수 있었다.³⁶⁾ 심지어 5월 중순 임정내 親中人士였던 閔石麟

34) 'Chinese Treatment of the Koreans', John S. Service → Assistant Chief of Staff, G-2, 1944. 6. 7(『미 국무성 한국관계 문서』 IV, p. 306).

35) 'SWNCC 115 -Utilization of Koreans in the War Effort', 1945. 4. 23(『韓國分斷史資料集』 5, p. 76).

36) 『韓美關係와 臨政의 最近動態』, 未詳 → 中國國民黨 中央執行委員會, 1945. 5. 5(秋憲樹

이 중국국민당을 찾아가 중국과 미국의 광복군 원조를 비교하면서 중국의 對韓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사실은 OSS와의 합작추진 이후 임정요인들의 자신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³⁷⁾

사실 임정 및 광복군은 광복군이 중국 군사위원회의 '隸屬'을 벗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연합국과의 군사합작을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OSS도 중국 내 한인들과의 연대를 꾀하였다. 그 결과 일단 중국의 '예속'을 벗어나게 된 1945년 5월부터 곧바로 OSS와의 한미공동작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한미공동작전은 1945년에 들어가 갑자기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한미공동작전이 광복군이 중국정부의 예속을 벗어나던 1945년 5월부터 실행될 수 있었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미공동작전은 임정이 중국일변도의 외교관계를 탈피하고 미국 등 연합국과 보다 다양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했던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물이었다. 한미공동작전 교섭과정에서 중국정부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기관을 통하여 합작을 위한 교섭 및 이후 훈련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측 관련인사들은 광복군이 중국의 원조로 '대략적인' 규모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공동작전이 실시되면서부터는 미군의 원조를 더 중시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하기도 하였다.³⁸⁾ 심지어 임정이 남경의 汪精衛 괴뢰정권에 의해 조종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중국 정보기관의 우두머리 戴笠은 李範奭을 불러 광복군측에게 한미공동작전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기 까지 하였다.³⁹⁾

당시 임정은 합작상대로서 중국보다는 미국에 크게 기울어지고 있었다.

편, 앞의 자료, p. 432).

37) 『中國援助政策에 關한 意見』, 1945. 5. 14(秋憲樹 편, 위의 자료 1, pp. 693-694).

38) 『最近의 臨政動態』, 中國軍事委員會 → 吳鐵城, 1945. 5. 23(秋憲樹 편, 앞의 자료 1, p. 403); 『白凡金九全集』 7, p. 683.

39) 'A Visit from the British Military Mission', Sargent → Krause, 1945. 5. 26(국편, 앞의 자료 22, pp. 619-620).

중국정부와의 관계는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미국측과는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⁴⁰⁾ 이는 임정 및 광복군이 당시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결과 해방 직전 임정 및 광복군 수뇌부는 광복군을 파견하여 미군의 한반도 상륙시 함께 국내에 진입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대일전 참여, 그를 통한 전후 처리 과정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일정한 발언권을 행사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였다는 측면에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임정의 독립운동진영 통합과 한미공동작전

3·1독립운동을 거쳐 성립된 임정은 전 민족적 독립운동지도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그후 내부갈등 등으로 수많은 군소 독립운동단체들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1940년대에 들어가 중국국민당 지역에는 임정, 延安 및 太行山 일대의 중국공산당 지역에는 朝鮮獨立同盟, 소련 영내에는 만주빨치산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밖에 美洲에는 임정과 연계를 맺고 있던 독립운동세력들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建國同盟이 활동하고 있었다.

일제의 패망이 임박하면서 국내외의 독립운동세력들은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특히 임정은 국내외의 독립운동진영을 임정 산하에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1945년 임정이 獨立同盟에 張建相을 特使로 파견한 것,⁴¹⁾ 만주의 항일무장세력과의 연계를 계획하여 李忠模를 파견하기도 하였다.⁴²⁾ 또한 국내의 建國同盟도 연안의 독립동맹에 연락원을 파견하고 임정파도 연계를 모색하였다. 건국동맹은

40) Kim Ku → Syngman Rhee, 1944. 9. 21(국편, 앞의 자료 25, pp. 430-431).

41) 李庭植 面談, 金學俊 編輯·解說, 『혁명가들의 항일희상』, 민음사, 1988, pp. 209-211.

42) 김종항·안우생, 『남북연석회의와 백범 김구선생을 회고하여』(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이승만·김구 시대의 정치사』, 서울대출판부, 1997, p. 289에서 재인용함).

독립동맹 산하의 朝鮮義勇軍, 임정의 광복군과 연합작전을 시도하려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건국동맹은 1945년 4월 崔謹愚를 北京에 파견하여 중경 임정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呂運亨도 1945년 5월 이후 국내에서 탈출, 독립동맹·임정 관계자들과 만나 국내외 단체들의 연대연합을 시도하고자 했다.⁴³⁾ 물론 여운형의 이러한 시도는 정세의 급변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태평양전쟁 말기 국내외 한인독립운동단체들이 반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중요한 시도였다.

임정 및 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이 가지는 의미는 이것이 국내외의 한국 독립운동진영의 통합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매개수단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내외의 독립운동진영은 상호간의 연락이 매우 힘든 형편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OSS의 협조하에 보다 밀접한 상호연락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 또한 독립동맹은 연안에 주재하고 있던 美軍事顧問團의 OSS요원들과 접촉하고 있었다. OSS도 華北地方의 八路軍 및 독립동맹 산하의 朝鮮義勇軍 대원들을 활용한다는 ‘華北諜報作戰’(North China Intelligence Project)⁴⁴⁾을 계획하였다. 만약 이것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더라면, 임정이 독립동맹과 제휴하고 항일연합전선을 펴는데 OSS가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한편 임정은 金性洙·宋鎮禹 등 국내의 우파세력과의 연계를 모색하였다. 특히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회고록에서도 나타나듯이, 임정은 김성수·송진우 등 보수계열과의 연계를 도모했다.⁴⁵⁾ 일제의 패망이 1946년 말로 예상되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었다. 즉, 작전이

43) 李萬珪, 『呂運亨先生鬪爭史』, 民主文化社, 1946, pp. 173-174; 정병준, 『朝鮮建國同盟의 조직과 활동』, 『한국사연구』 80, 1993, p. 131.

44) 'NORTH CHINA INTELLIGENCE PROJECT', Draft proposal for a major OSS secret intelligence operation in North China and from North China into Manchuria and Korea prepared by Lieut.(sg) Guy Martin, Dr. Charles B. Fahs, Major Phillip K. Crowe, Major Joseph E. Spencer, Lieut. Thomas J. Davis, OSS New Delhi, India, 5 Jan 1945(국편, 앞의 자료 22, pp. 695-721).

45) 金俊樺, 『長征』 1, 나남, 1990, p. 430.

더 지속되었더라면 한국 독립운동진영은 국내외적으로 보다 밀접한 연계를 맺은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였을 가능성이 컸다.

더욱이 임정 및 광복군과 OSS의 한미공동작전은 미주지역 독립운동진영과는 밀접한 연계하에 진행되었다. 중국의 임정 및 광복군의 존재를 OSS에 가장 먼저 부각시킨 것은 임정 駐美外交委員部の 李承晩이었다.⁴⁶⁾ 이승만의 노력에 힘입어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 이미 OSS가 중국의 임정세력을 대일특수전에 동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張錫潤이 파견되어 태평양전쟁으로 연락이 끊어진 重慶 임정과 워싱턴의 주미외교위원부를 잇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⁴⁷⁾ 게다가 미국의 OSS본부는 미주지역의 한인을 활용한다는 ‘넙코작전’(Napko Project)을 수립하였는데,⁴⁸⁾ 중국 및 미주지역의 독립운동진영이 더욱 밀접한 연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4. 맺 음 말

1919년 임정은 수립 당초부터 일본에 대한 대규모 정규전의 전개를 지상 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다만 이러한 목표의 실천은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이유, 나아가 광범위한 대중적 토대의 결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0년 9월, 임정 산하에 정부군으로 광복군이 창설되면서 이러한 과제

46) Clarence N. Weems, "American-Korean Cooperation(1941-1945): Why Was It So Little and So Late?"(A Paper submitted to Columbia University Seminar on Korea, February 20, 1981).

47) 張錫潤, 「나의 回顧錄」, 『江原日報』, 1974년 1월 31일.

48) 'THE NAPKO PROJECT',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FIELD EXPERIMENTAL UNIT, March 30, 1945(국편, 앞의 자료 22, p. 423).

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임정 및 광복군은 대일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중국이나 미국정부는 그 역량을 낮게 평가하고 韓人戰鬥部隊의 조직을 통한 대규모 동원에는 소극적이었다. 임정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광복군이 미군 등 연합군과의 공동작전을 전개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던 '韓國光復軍行動9個準繩'을 폐기하기 위해 중국 국민당정부와 지속적으로 교섭하였으며 동시에 연합국에 대한 參戰外交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45년 5월 1일, 새로운 협정에 의해 광복군 통수권이 임정으로 귀속되었으며, 이는 임정 및 광복군 활동의 폭을 그만큼 넓혀 주었다. 이날 임정 주석 金九, 外交部長 趙素昂이 중국전구 미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임정과 협작을 원할 경우 더 이상 중국측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천명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1945년 5월부터 OSS와의 공동작전도 실시될 수 있었다.

미국과의 반일공동전선 구축은 OSS를 매개로 하여 시작되었다. 원래 미국정부는 OSS에게 한인과의 합작시 이들을 개별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OSS도 합작교섭 과정에서 광복군을 개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광복군은 단체간의 대등한 수준의 공동작전으로 한 차원 끌어올렸다. 그렇게 된 데는 OSS가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임정 및 광복군의 협조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도 작용하였다.

훈련과정에서도 광복군 제2지대 지대장 李範奭과 미국측 책임자가 '韓美合同指揮本部'(Korean-American Joint Command)를 설치하여 긴밀한 공조체제하에서 훈련을 이끌어 갔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광복군측은 훈련장소, 인원, 대일정보, OSS는 자금 및 장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면서 대등한 관계에서 한미공동작전을 진행했다. 물론 OSS가 임정이나 광복군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실체는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1945년 8월초 임정 주석 김구와 OSS의 총책임자 도노반의 회담 개최는 그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리고 임정

및 광복군은 이전의 중국군으로부터 삼민주의교육의 강요라는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훈련대원들의 정훈교육은 광복군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한편 한미공동작전을 통하여 임정 및 광복군의 대일전 참여가 가시화되면서 임정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임정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미국정부 혹은 주중 미군사령부에 한인의 대일전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의하였다. 1945년에 접어들면서 미군의 필리핀 점령, 특히 6월말 오키나와 점령으로 임정요인들은 한반도 상륙작전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임정은 광복군을 태평양지역에서 복상하고 있는 미군에 파견하여 한반도 상륙작전시 배합하고자 시도하였다. 김구 주석은 미군이 제주도를 점령할 경우 그곳에서 모든 한국인들을 지도하여 대일전에 협조할 것을 미국정부에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의는 임정 및 광복군이 오랫동안 지향해왔던 '독립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OSS와의 협력을 통해 임정 및 광복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함께 반일공동전선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임정 및 광복군이 미국 OSS와 협력하여 한반도내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광복군 印緬戰區工作隊가 영국군과 협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 직전 광복군이 거둔 귀중한 성과였다. 나아가 한국 독립운동의 활동범위, 협력대상국을 확대시켰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질적으로 심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미공동작전이 비교적 작은 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차적으로 임정 및 광복군 자체 역량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미국정부의 임정 불승인 원칙의 고수 및 개별적인 한인 활용방침, 중국 국민당정부의 임정 및 광복군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요컨대, 임정 및 광복군과 OSS의 협력경험은 일제의 한국강점 이후 韓·美 양측간에 전개된 최초의 조직적인 접촉이기도 하였다. 또한 더나아가

오늘날의 韓美關係를 바라보는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투고일 : 2004. 6. 30,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미전략첩보국, 한미공동작전, 독수리작전, 냅코작전

<ABSTRACT>

KIA(韓國光復軍)'s Independent Activities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 Focusing on the Korea and America's Cooperation -

Kim, Kwang-jae

This thesis aims to explain the background, the origin, the development, and the cooperation system in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 Independence Army(KIA: 韓國光復軍) and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 in China. Also, I will outline and review the full context, meaning, and limits of the Cooperation.

The KIA was founded on September 17, 1940 in Chungking(重慶). At that time, the Chinese Provisional Capital during Japanese Invasion at World War II was located at Chungking. The KIA was attached to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大韓民國 臨時政府). The KIA's top objective was to participate in the Allied armie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The KIA and OSS's military exercise at the KIA's Second Detachment was finally accepted by the upper American Military Commander in China. In May 1945, the KPG had started the so-called "Eagle Project" in Xian(西安), China. This project aimed at educating the military intelligence personnel. Also, the KIA and OSS founded the Korean-American Joint Command at the KIA's Second Detachment.

On the while, after the first Korean disciplines had been educated at the OSS, on August 5, the KIA's leaders went to exercise camps to survey and

encourage the disciplines. And on August 7, Kim Ku(金九), the KPG's chairman, met the OSS's General William J. Donovan and his members to discuss impending projects called the "Eagle Project" and requested again that the project should be implemented quickly. Donovan had consideration of Kim Ku's request and admitted that the project would be implemented at an earlier time. After receiving an optimistic response by Donovan, Kim Ku, in long letters, asked US President Truman to consider the project.

On August 9, in Xian, China, a rumor that Japan would soon surrender to the Allies had spread. That night, in Xian, the KIA's main officials asked Donovan to permit all the KIA's authorities passed into the US military to participate in the impending Korean Peninsular landing project. But the opportunity for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was never accomplished because a few days later, Japan gave up.

Key Words :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Korean Independence Army,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Korea and America's Cooperation, Eagle Project, Napko Project

1920년대 만주 독립군단체와 군자금

金 周 溶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1. 머 리 말
2. '간도출병'과 독립군의 동태
3. 독립단체의 군자금 모집
4. 군자금 모집의 성격과 특징 : 맺음말을 대신하여

1. 머 리 말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그것이 정규군이든 비정규군이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정규군의 경우 국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로 자금 수급·공급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 하지만 비정규군은 그것이 일정하지 않아 정상적인 루트로 수급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듯 군자금 문제는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 어려움의 강도가 더 크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단체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군자금 모금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1920년 일제는 '琿春事件'을 조작하여 대규모 병력을 간도에 파견하였다. '間島出兵'은 독립운동의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다시 독립군 병력의 이동과 재편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19년 11월 韓族會는 군사정부인 군정부를 서로군정서로 개칭하고 이청천의 지휘 아래 의용대를 안도현에 보내는 한편 홍범도 등과도 연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3·1운동의 국내외적 영향에 의해 독립운동에도 큰 흐름이 바뀔 정도였다. 일제가 '잠재적 저항집단'으로 인식할 정도로 간도지역의 독립운동은 치열하였으며 이는 공간적 용이성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일제의 간도 출병은 독립운동의 열기를 거세하고 자국세력을 확고하게 이식하기 위해 이루어진 만큼 그 강도는 탄압 이상이었다.

이렇듯 철저하게 탄압과 학살을 자행한 간도출병은 독립운동의 방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무장투쟁론과 외교독립론, 교전단체론 등이 당시 국제정세와 맞물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반면에 이러한 큰 틀에 대한 논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일본투쟁에 대한 부분은 통합되지 않은 채 개별적인 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개별단체의 독립운동은 재정능력, 인력, 자금문제 등 크고 작은 산적한 현안들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 가운데 조직을 이끌고 무장투쟁을 원활하게 전개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자금이었다. 즉 군자금은 독립군의 존재 자체를 가능케 하였던 중요한 인자였다.

지금까지 군자금에 대한 연구는 단독주체로서보다는 각 단체의 활동과 성격을 규명하는데 보조적 수단으로만 다루어졌다.¹⁾ 즉 선행연구에서는 군자금 모집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군자금 모집 시스템의 변화과정 및 그 실태를 추적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1) 신재홍, 『재만 항일독립군의 편성과 맥락』(『산운사학』 5, 1991); 박환, 『1910년대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의 성립과 활동』(『산운사학』 7, 1993); 張錫興, 『광복단결사대의 결성과 투쟁노선』(『한국근현대사연구』 17, 2001).

본고에서는 군자금 모집과정에서 나타난 단체 내의 갈등구조와 일제와의 충돌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1920년대를 그 범위로 한정하였다. 군자금 모집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간적인 측면과 주체와 객체의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당시 군자금 모집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군자금 모집의 절대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모집주체와 객체와의 갈등구조를 통해 독립운동과 군자금의 상관성을 일정한 패턴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간도출병과 독립군 부대의 추이에 대하여 군자금과 연관하여 살펴보고, 제3장은 각 단체 가운데 大韓獨立團과 參議府의 군자금 모집유형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제4장에서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참의부의 군자금 모집 사례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한계점도 미리 일러둔다.

2. ‘간도출병’과 독립군의 동태

1920년 10월 일제는 ‘琿春事件’을 조작하여 마적단 토벌과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대규모의 병력을 간도에 파견하였다.²⁾ 하지만 일제가 군대를 파견한 실질적인 목적은 간도지역에 대한 확고한 세력부식과 함께 항일 독립군에 대한 철저한 탄압에 있었다. 일제는 羅南에 주둔하고 있던 제19사단을 출병하여 간도에 거주하고 있던 이주한인에 대한 야만스러운 탄압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독립군은 군비의 절대적인 열세를 딛고 청산리대첩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독립군이 삼림과 계곡 등의 지형과 지세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뒤 접근해 오는 일본군을 향해 정확한

2) 훈춘사건과 간도출병은 한국독립군의 전술과 전략까지 전환시키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채영국, 『1920년 琿春事件 전후 독립군의 동향』(『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1991) 참조.

타격을 가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주한인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제는 이른바 토벌계획³⁾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독립군들은 근거지를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 일제의 간도침략으로 북만으로 이동하여 군비를 정비하는 독립단과 남만으로 이동하여 항전하는 독립단이 있었다. 興業團, 光韓團은 평안도 대안인 長白, 輯安 등지에서 1922년까지 수십 차례 이상 일제와 교전하였다. 한편 密山을 거쳐 연해주로 이동한 독립군들은 국제사회의 흑독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반추할 수 있는 쓰라린 경험을 갖게 된다. 1921년 8월 이후 북만지역에는 또다시 독립군세력이 형성되었다. 즉 金佐鎭이 이끄는 北路軍政署 병력과 具春善이 이끄는 國民會 병력, 新民團 등이 密山·敦化·東寧縣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었다. 이들 각 독립군단은 기존의 병력을 갖추기 위하여 독립군 양성에 진력하였다. 예를 들면 大韓國民會는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독립군을 배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⁵⁾ 하지만 이들 독립군들은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정규군인 일본군과 대결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만지역에 산재하여 있던 각 독립군단은 1922년 8월 통합운동을 벌여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였다.⁶⁾ 독립군

3) 간도지방 독립군 토벌계획은 일제가 봉천군벌인 張作霖과의 회의를 통하여 골격을 세웠다. 즉 1920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조선총독부, 조선군사령관, 관동군사령부, 시베리아 파견군, 봉천총영사 등이 3회에 걸쳐 봉천회의를 개최하고 반일무장단체에 대한 탄압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8월 경성회의를 개최하여 일본과 중국의 합동토벌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하여 그 계획이 완성되었다(金春善, 『庚申慘變 研究』, 『韓國史研究』 111, 142-145쪽).

4) 일제가 간도출병을 단행하면서 가장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하고 독립군의 근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통신시설을 설치하여 출병군대와 식민지 조선 및 관동군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독립군의 타격에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김주용, 『일제의 간도지역 통신지배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71, 2003 참조).

5) 張錫興, 『大韓國民會研究』(『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188-189쪽.

6) 채영국, 『경신참변 후 독립군의 재기와 항전』(『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3) 참조.

은 戰果를 뒤로 하고 추격하는 일본군을 피해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김좌진이 이끄는 대한군정서 독립군은 密山으로 집결하기 위해 북정을 단행하였다. 여기에서 독립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다. 즉 독립군의 인적·물적 토대였던 이주한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북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한편 1920년대 중반 만주에서 민족주의 운동단체는 大韓統義府 시기부터 민정기관이 군정기관보다 우위에 선 가운데 자치의 비중을 높여 갔다. 이때 자치는 봉천군벌의 테두리 속에서 한인만의 교육진흥과 식산흥업을 이룩하려는 반공개적인 자치였다.⁷⁾ 따라서 이 시기의 독립전쟁론은 외교론을 부정하였고 상황변화에 따라 무장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무장투쟁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일상적인 자치에 큰 비중을 두었다. 하지만 독립운동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자금이었다. 모든 독립운동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다.

주지하듯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경비문제였다. 즉 군자금이다. 만주의 독립군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규군과 싸워야 하는 가장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군자금문제가 독립단체의 존재양태와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당시 독립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군자금을 조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몇 단체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A : 1921년 8월 흥업단원은 장백현의 유력자 朴鳳練, 申斗順 등에게 흥업단 가입을 재촉하였으며 이들에게서 군자금 명목으로 150원을 모집하였다.⁸⁾

B : 軍政署 군수과장인 蔡伍와 인사과장 鄭信, 國民會 남부지방회장 馬龍河 등 6명은 寧安縣 寧古塔에서 목단강으로 이동하면서 “太平洋會議에 즈음하여 조선독립을 선언한다”라고 이주민에게 선전하면서 군자금을 모

7) 신주백, 『1920년 전후 재만한인 민족주의자의 민족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한국사연구』 111, 2000), 198쪽.

8) 『日本外交史料館文書-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滿洲ノ部』(이하 『不逞團』) 권 30, 『對岸不逞鮮人鮮地 侵入計劃ニ關スル件』 朝憲情 제565호, 1921. 10. 15).

집하였다.⁹⁾

- C: 義軍團 西地方部長인 李範模는 부하 약 100명을 이끌고 화룡현 이도구 삼림지대로 이동하였으며 군자금 3천원을 모금하였다. 또 李春官, 車道允, 李白益 등은 茂山間島 방면으로 이동하여 군자금 모집에 진력하였다.¹⁰⁾
- D: 서간도 방면에서 中江鎭 하류의 대안에서 불령선인단은 요즘 군자금 모집에 열중하거나 혹은 국경수비의 상황을 정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후방의 독립단과 통일을 협의하고 이를 실행하려 한다. 이는 경비상(일본에게: 필자) 절박한 상태가 도래할 수 있다. 상류 장백현 및 북간도, 노령 방면과의 연락을 통하여 불령단 통일을 꾀하고 있고 최근 김좌진 일파는 노령 각지의 불령단 통일을 위해 남하하고 있다.¹¹⁾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만주에 산재해 있던 독립단체들은 군자금을 모집하는데 진력할 수밖에 없었다. 위의 자료는 일본외무성 과전 관리나 밀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군자금을 모집하는 독립단체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나, 어찌되었든지 독립단체의 활동은 조직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특히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자주 국내 접경지역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다.¹²⁾ 또한 군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保民會와 같은 친일단체의 간부를 암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¹³⁾

이처럼 1921년을 전후하여 북간도를 비롯한 만주지역에서 각 단체들이 군자금 모집에 진력하였던 것은 당시 국제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축소를 위한 태평양회의가 개최되면서 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독립군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러시아와 만주지역에

9) 『不逞團 在滿洲ノ部』 권 30, 『間島地方不逞團ノ行動』 間警 제603호, 1921. 10. 11.

10) 『不逞團 在滿洲ノ部』 권 30, 『間島地方不逞團ノ情況』, 間警 제602호, 1921. 10. 10.

11) 『不逞團 在滿洲ノ部』 권 30, 『國境警備ニ關スル所見』 秘受 제12316호, 1921. 10. 25.

12) 『不逞團 在滿洲ノ部』 권 30, 『間島地方ニ於ケル不逞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 機密 제439호, 1921. 10. 22).

13) 『不逞團 在滿洲ノ部』 권 30, 『保民會員 暗殺』(제57호, 1921. 10. 26).

서 군자금을 모집하고자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였다.

독립군은 일본군의 침략에 따른 인적 손실 및 세력만회를 위하여 기존의 독립운동에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방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이는 각 독립단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였다. 義軍團에서는 연길과 함경도 회령을 오가면서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군정서에서는 李鴻來가 주축이 되어 태평양회의를 개최하는 틈을 타 군자금 모집에 진력하였다.¹⁴⁾

3. 독립단체의 군자금 모집

(1) 대한독립단

大韓獨立團¹⁵⁾은 의병장 출신인 朴長浩와 趙孟善, 白三奎에 의해서 1919년 3월말 柳河縣 삼원보에서 조직되었다. 무장투쟁단체의 형태를 띠고 출발하였다. 대한독립단의 조직은 총재 박장호, 부총재 백삼규, 총단장 조맹선, 군사부장 전덕원, 참모부장 조병준, 총무부장 김유성, 재무부장 강세현, 서무 김일, 고문 안병찬이며 단원은 4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은

14) 『不逞團 滿洲ノ部』 권 30, 『9月中間島地方情況ニ關スル件』(機密 제420호). 이 사료 곳곳에서는 군자금모집에 대한 일제측의 기록이 많이 나온다. 그만큼 독립단의 군자금 모집에 일제는 이를 폄하하는 논조로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15) 대한독립단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朴永錫, 『日帝下 滿洲・露領地域에서의抗日民族獨立運動에 관한 研究: 復의 民族主義系列의 脈絡과 政治理念을 中心으로』(『韓國史學』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愼鏞廈, 『洪範圖의 大韓獨立軍의 抗日武裝鬭爭』(『韓國學報』 43, 1986). 朴煥, 『大韓獨立團의 組織과 活動: 復主義系列의 獨立運動團體一事例』(『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1989). 蔡永國, 『3·1운동 이후 西間島지역 獨立軍團 研究: 大韓獨立團・大韓獨立軍備團・光復軍總營을 中心으로』(『윤병석교수화갑기념한국근대사논총』, 1990). 權大雄, 『大韓獨立團 國內支團의 組織과 活動』(『교남사학』 5, 1990).

이원체제 즉 都總裁部와 總團으로 운영되었다. 도총재부에는 도총재·부총재·자문부장·司翰長·총참모·부참모장·참모로 구성되었고, 총단은 총단장·부단장·총무부장·재무부장·사법부장·교통부장·선전부장·검찰장으로 구성되었다.

대한독립단은 남만주 및 국내에 지단을 설치하여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통해 무장투쟁 및 군자금 모집활동에 전념하였다. 남만주지역에 대한 지단 설치의 먼저 공화주의계열인 한족회의 세력이 미약한 홍경현·환인현 방면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집안현·관전현 등지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는 환인현·장백현·무송현·임강현·관전현·집안현·홍경현·통화현·유하현 등 9개 현에 지단¹⁶⁾을 설치함으로써 남만주지역 가운데 일본 봉천총영사관 관할지역과 특히 압록강 대안지역을 전부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¹⁷⁾ 이는 이주민의 루트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무대¹⁸⁾로서 중요한 지점으로 독립운동단체 활동토대의 마련을 위해 중요하

16) 지단 조직에 관여했던 중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관전지단장 윤창수, 관서총관 김중량, 관서재무 김희진, 관남총관 최형준, 흥본총관 문석관, 관동지단장 오인선, 본계호 지단장 박수양, 집북지단장 천종민, 본계호 총관 김경환, 집북총관 박창선, 집동총관 최일엽, 집서지단장 최석순, 집안환인총지단장 맹철호, 인서지단장 선우웅, 인서총관 승영준, 홍서지단장 이의주이다(金承學, 『韓國獨立史』, 324쪽).

17) 박환, 『大韓獨立團의 組織과 活動』(『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1989), 190쪽.

18) 19세기 후반에 한인의 유입이 증가하기까지 압록강 대안 일대는 무인지대로서 압록강의 항행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었다. 그런데 한인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단위가 설치되면서 압록강 항행도 자유롭게 되었고 상업 중심지도 발흥하였다. 이러한 도시로서는 압록강 유역에서는 집안, 임강, 장백, 지류의 혼강 유역에서는 환인, 통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도시에서는 상업활동이 행해지게 되었고, 압록강 유역의 시장은 소시장의 분립상태에 있었으며, 반드시 상업거래가 활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압록강의 하구 근처에 위치한 안동에 있어서 압록강의 수운에 의해 반출된 곡물 및 목재는 중요하며 안동에서 출하되는 곡물(주로 대두)의 80%는 압록강 유역으로 모집된 것이었다. 또 목재는 압록강 유역의 주요 산물이며, 안동 경유는 압록강 목재의 시세, 벌채량에 좌우되는 경우도 많았다. 압록강 유역은 안동의 상권에 속할 때가 많았지만 임강보다 상류가 되자 안동에서의 수운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육로에 의해 봉천과의 거래도 행해졌다. 압록강 최상류의 시읍 장백은 식민지 조선의 해산진과의 거래가 활발하였다(塚瀬進, 『中國近代東北經濟史研究』, 東方書店, 1993, 211-212쪽).

였다. 국내에도 지단을 설치하여 국내외의 연결고리를 완성하려 했던 독립단체는 먼저 서울에 전국의 중앙기관을 두고 각 도에는 총지단, 각 군과 각면에는 군과 면의 지단을 설치하고자 하였다.¹⁹⁾ 다만 황해도와 평안도지역에 지단을 설치하는데 성공하였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대한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북벽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²⁰⁾ 특히 이 단체는 부호의 집을 대상으로 군자금 모집을 강행하였으며 이는 임시정부 안동교통국과 경쟁적 입장에 서게 되었다.²¹⁾ 상해임시정부에서는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에 연통제를 실시하고 그 대상으로 부자를 지목하였기 때문에 대한독립단과의 마찰이 생겼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형식상 표출된 것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북벽과 공화정의 차이였다.²²⁾ 하지만 이러한 갈등도 임정과 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점차 해소되기에 이르렀다.

대한독립단은 주로 일제 기관을 파괴하거나 군자금 모집활동에 전념하였다. 이들은 3, 4명 조를 짜서 결사대를 조직, 무기를 휴대하고 평안남북도 일대에서 일본 경찰을 습격하거나 친일 주구를 처단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독립단 설립 초기 全德元은 李明瑞, 許承澤, 玉京俊, 金龍甫, 尹學天 등과 함께 평북의 지단을 통해 군자금을 모금하였다.²³⁾ 1920년 3월 12일 대한독립단에서는 독립군의 행동을 일본 경찰에 알려준 평안북도 臺山 면장을 사살하였다.²⁴⁾ 또 대한독립단 소속 결사대원 3명은 1920년 3월 15

19) 金承學, 『韓國獨立史』 上 참조.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2(原書房, 1967), 923쪽.

20)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대한민국 공보처, 1900), 55쪽.

21) 대한독립단 성립 초기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갈등은 정체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공화정과 북벽주의가 지닌 색채는 통합할 수 없는 간극이었는데도 모른다(박환, 앞의 글 참조).

22) 박영석, 『일제하 滿洲·露領地域에서의 항일민족독립운동에 관한 연구』(『韓國史學』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78-179쪽.

23) 金承學, 『韓國獨立史』, 328쪽.

24) 채근식, 앞의 책, 56쪽.

일 평안북도 의주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던 한인 순사 金明沃을 사살하였다.²⁵⁾ 특히 친일단체인 保民會에 대한 공격은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다.²⁶⁾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대한독립단은 독립운동의 의지를 강고하게 확인하였으며 일제로서는 저항집단의 극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방책 마련에 힘썼다. 특히 중국관헌과의 협의를 통해 한인의 독립운동을 제어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다 확고한 세력이식을 위해 진력하였다.²⁷⁾

군자금은 대한독립단 수뇌부가 가장 고민했던 문제였다. 특히 만주지역 이주민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척도가 군자금 모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과 국내와의 연계성을 얼마만큼 고려하느냐가 뒤따른다. 모금방법도 문제였다. 즉 강제성과 자발성인데 상당부분 강제성이 담보되어 있었다.

1921년 10월 독립단 총무단장 金利河는 군자금으로 매호마다 은 70전을 징수하여 은 130을 환인현 제2구 구관 대리 馬峻山에게 기증하게 하였다. 1921년 11월 안도현에 근거를 둔 대한독립단은 모연부대를 설치하여 모연대 50명을 선발하여 함경남도 삼수군·갑산군 지방 및 평안북도 방면에 분파하여 군자금 모집을 위해 노력하였다.²⁸⁾ 대한독립단은 위싱턴회의 종료와 함께 조선에 내진한다는 목표하에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21년 10월 27일 독립단 총재와 상해임시정부 파견원 등은 寬甸縣 三道溝에 집합하여 회의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임시정부와 대한독립단은 서로에 대한 견제를 중지하고 주로 일본 관헌을 습격, 암살하여 일반 동포의 기세를 높인다. 둘째 태평양회의의 결

25) 채근식, 위의 책, 56쪽.

26) 金承學, 『韓國獨立史』, 327쪽.

27) 金承學, 위의 책, 326쪽.

28) 『不逞團關係雜件-滿洲ノ部』 권 30, 『安圖縣地方ノ不逞鮮人團ノ情況ニ關スル件』(機密 제478호, 1921. 11. 19).

과는 독립을 승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만일 불행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전에 선언²⁹⁾ 발표한 것과 같이 우리 민족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혈전을 요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군자금의 제공 및 청년은 義單에 응모하는 결심을 요하는 뜻의 선전문을 인쇄하여 살포한다. 위 지원 청년 가운데 10명을 선발하여 폭탄실습을 한다.³⁰⁾

당시 이 회의에 참석한 대표적인 사람과 그 조직원은 다음과 같다. 李雄海(환인현지단장, 부하 45명), 맹철호(집안현 남구, 부하 30명), 조용준(환인현 이분구, 부하 80명), 박창렬(본계창, 부하 40명), 徐範善(환인현, 부하 20명), 조대능(관전현 小雅河, 부하 15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군자금 모집과 의열투쟁을 동시에 수행하였다.³¹⁾

1921년 대한독립단의 조직은 총재 朴華南이며, 단장에 이웅해, 총무 김원섭, 재무 전덕원, 참모부장 김유성, 사법 황병문, 검찰장 박우열, 북로사령관 맹철호이며 인원은 700명 정도이다.³²⁾ 한편 1922년 2월 봉천경무서장이 관동청경무국에 보낸 보고서에는 대한독립단이 군자금 모집과 함께 일제 기관의 습격 및 요인암살에도 적극적이었음이 나타난다.³³⁾ 대한독립단장 이웅해 부하 사법부장 황병문, 김효선은 권총 구입을 위해 서간도를 경유하여 길림으로 들어갔다. 또 鄭兼鎭, 金亨模, 鄭敬詢 등은 암살과 군자금 모집을 위해 각자 권총 1정, 폭탄 2개, 군자금 영수증 200매, 태평양회의에 관한 선전문을 휴대하여 1922년 1월 안동현을 통과하여 식민지 조선으로 향하였지만 관헌의 단속이 엄격하기 때문에 다시 관전현 이도구에 도착하였다. 1921년 4월 이웅해 부하 韓鳳朝, 金相律, 金亨模 등은 의주 白承瑞 집에 이르러 군자금 영수증 50매를 건네어 군자금 모집을 의뢰하였으나 일

29) 金承學, 앞의 책, 326쪽.

30) 『不逞團』 권 30, 『不逞鮮人行動ニ關スル件』(機密公 제73호, 1921. 11. 18).

31) 위와 같음.

32) 『不逞團』 권 30, 『管内不逞鮮人一覽表進達ノ件』(機密公 제75호, 1921. 11. 25).

33) 『不逞團』 권 31, 『不逞鮮人動靜』(關機高收 제1694호-1, 1922. 2. 20).

본관현에게 체포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공통점은 군자금 영수증을 지참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군자금 모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1922년 2월 23일 대한독립단원 李根洙, 金麗善은 通化縣 李鎭根 집에 들어가 通化현 保民會³⁴⁾ 분회장 朴元信에게 보민회원 및 일반인들에게 의연금 5천원을 할당하였다.³⁵⁾ 하지만 당시 이주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모집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1,500원으로 감액하여 조달받았다. 이렇듯 당시 독립단의 군자금 모집은 이주민 사회에 적지 않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 대한독립단에서는 군자금을 투자금 형식으로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1922년 3월 대한독립단원은 봉황성현 거주 이주 조선인 盧裕容 집에서 여러 명에게 군자금을 할당하였다. 예를 들면 盧右用에게 2백엔, 全京鶴에게 30엔, 崔承屹에게 1백엔, 朴魯學에게 20엔 등이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독립단 간부로 임명되었다.³⁶⁾ 이는 대한독립단이 본부 중심뿐만 아니라 지단 중심의 운영을 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즉 군자금 모금을 명목으로 하면서 이주 조선인에게 독립심과 민족정기를 고취시키는 선전활동도 아울러 전개하였던 것이다.

1922년 6월 관동청경무국의 보고에 의하면 흥경현, 환인현, 관전현, 통화현, 집안현에서 군자금 모집을 위해 이주 조선인에 대한 선전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였다.³⁷⁾ 특히 5월 이주 조선인에 대하여 추수기에 군자금을 모금하는 형식을 띠며 진행되었다. 유하현 哈蟆塘에 거주하는 朴承道는 독립자금 5원에서 50원까지 자발적 모집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즉 독립운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운용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

34) 保民會는 종교단체이면서 경제단체를 지향하였고 일제에게는 이주 한인을 이용하는데 매우 적합한 단체로 인식되었다.

35) 『不逞團』 권 32, 『不逞鮮人竝馬賊行動ニ關スル件』(機密 제14호, 1922. 2. 28).

36) 『不逞團』 권 30, 『不逞鮮人ノ行動』(關機高秘 제3846호-1, 1922. 4. 10).

37) 『不逞團』 권 33, 『興京方面不逞鮮人ノ狀況』(關機高收 제8134호-1, 1922. 6. 20).

에 박승도를 비롯한 5, 6명은 자신들의 재산 일부를 군자금으로 내놓았다.³⁸⁾ 이들은 독립단의 본부에 가서 단원으로 가입하고 군자금 모집과 보민회에 대한 공격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보민회원의 대한독립단에 대한 적대감은 상당히 컸다.

1922년 8월 28일 통화분관주임 本田選(혼다)은 내무대신에게 통화현 일대에서 군자금 활동을 한 대한독립단원 체포사실을 보고하였다.³⁹⁾ 이러한 보고는 통화현 통북 保民會 지부 부회장 李溶錫의 밀고로 가능하였다. 通北외무감독 元禧祚(白承一) 등 30여 명은 이주 조선인에게 군자금으로 특등 500元⁴⁰⁾ 내지 800원, 일등 300원, 2등 200원, 3등 60원으로 구분하여 모금하였다. 특히 추수기 수확물을 미리 정하여 모금하거나 가축을 매각하여 조달하였고 보민회 통북사무소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이때 보민회원의 밀고로 많은 독립단원들이 체포되었다. 원희조(대한독립단 집단지단 외무감독), 裴基俊(裴基元, 집단지단통신 겸 검찰), 許丙(외교원) 등이다.

그러나 군자금 모금의 또 다른 문제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독립단의 군자금 모집이 일방적이며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1922년 4월 25일 통화분관주임 本田選은 외무대신 內田康哉(우치다)에게 대한독립단원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였다. 환인현 거주 吉隱國은 金得華, 車忠甲과 함께 중국 관현으로 변장하여 장총을 휴대하고 보민회 지회에 대해 공격을 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길은국이 사망하고 나머지 단원들도 일제 관현에게 피체되었다.⁴¹⁾

1922년 9월 유하현 출장소 주재 순사의 보고에 의하면, 흥경현 五鳳樓에 소재한 대한독립단 사무소에서 단원 약 25명이 무기를 휴대하고 유하현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친일파와 조선인을 위협하여 한편으로는 일반 이주민에게 군자금을 강요하고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⁴²⁾ 이때

38) 『不逞團』 권 33, 『南山城子附近ニ於ケル不逞鮮人ノ狀況』(關機高收 제8114호-1).

39) 『不逞團』 권 33, 『不逞鮮人逮捕ニ關スル件』(機密公 제55호, 1922. 8. 28).

40) 元은 중국 은원으로 당시 봉천성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었던 것은 봉천표였으나 지나친 남발로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41) 『不逞團』 권 32, 『不逞鮮人行動ニ關スル件』(機密公 제24호, 1922. 4. 25).

독립단은 8, 9명이 한 조로 활동하였다. 유격모집의 형태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민회에 대한 강제적인 모금활동도 전개하였다. 1922년 12월 西豊縣 조선인민회 구장 洪承堯에게 군자금 명목으로 민회원에게 1천원을 요구하였다.⁴³⁾ 1922년 8월 27일 대한독립단원 申泰鳳, 許昌文, 文應伯 등은 모젤 권총을 휴대하여 통화현 黃正律 집에 침입하여 군자금 명목으로 2,500元을 자산 정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모금하였다.⁴⁴⁾ 이 외에 곡물과 가축도 군자금 명목으로 선매하였다.

1922년 8월 통화현 통남지단의 조직은 지단장 盧基柱를 비롯하여 재무 金泰眞, 都檢察 金炳學, 외교 田亨稷, 참의 金運聖이다.⁴⁵⁾ 이들은 본단 외 무출장원 崔東秀 주재로 군자금 모집과 그 활동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또한 구역경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통남지단장 노기주는 제6구총무 鄭柱化에게 국가의 광복과 동포를 원조하기 위해서는 태만한 사업태도를 지양하고 이주 조선인에 대한 주의를 각별히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주 조선인에 대한 엄격한 주의를 군자금 모집, 군사력 보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사안보다도 주의를 요하고 있다고 했다. 즉 단합, 비밀, 통신친목, 정탐은 단원이 이행해야 할 사항이었다.⁴⁶⁾ 왜냐하면 당시 대한독립단의 최대의 급무는 무기구입대금 조달에 있었기 때문이다.⁴⁷⁾

(2) 참의부

3·1운동 이후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여 항일독립전쟁을 효과적으로 전개

42) 『不逞團』 권 33, 『不逞鮮人ノ行動』(關機高收 제12529호-1, 1922. 9. 13).

43) 『不逞團』 권 35, 『不逞鮮人被害ニ關スル件報告』(機密公 제103호, 1922. 12. 19).

44) 『不逞團』 권 33, 『不逞鮮人行動ニ關スル件』(機密公 제59호, 1922. 9. 5).

45) 『不逞團』 권 33, 『不逞鮮人行動ニ關スル件』(機密公 제60호, 1922. 9. 5).

46) 『不逞團』 권 33, 위와 같음.

47) 『不逞團』 32, 『不逞鮮人ノ行動』(關機高收 제3846호-1, 1922. 4. 10)

하려는 민족적 염원에 따라 성립된 임시정부가 상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군사활동에 대한 능동적인 방침을 세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략에도 대처할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자체가 독립운동의 영도적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⁴⁸⁾ 또한 임시정부는 외교독립론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기본노선으로 삼은 재만무장단체들을 지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요컨대 임시정부는 그들이 택한 외교노선으로 인해 만주의 무장독립단체를 영도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좌절시켰다.

남만주지역 독립군단체들은 이처럼 경신참변과 자유시참변 이래 일시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던 독립전쟁 전선의 재정비와 투쟁역량의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남만주에 소재한 독립단체들은 아직 국지적인 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⁴⁹⁾ 이러한 가운데 독립단체들은 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단체간의 통합으로 요약된다. 이는 당시 독립단체들이 이전처럼 각 단체의 분산적인 독립운동으로는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1920년대 중반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독립단은 3부로 요약된다. 그 가운데 참의부는 輯安, 寬甸, 臨江, 長白, 撫松縣을 아우르고 있었다. 1922년 8월 조직된 大韓統義府는 독립군이 염원하였던 표현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 통의부는 여러 단체를 통합하였다기보다는 미봉함으로써 언제든지 분열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벽주의자들이 통의부에서 이탈함으로써 통의부는 성립초기에 지녔던 상징성이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통의부 의용군 제1, 2, 3중대와 유격대 및 독립소대를 분리시켜 1924년초 대한민국 임시정부 陸軍 駐滿參議府가 조직되었다.⁵⁰⁾

48) 유준기, 『참의부』(『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202-203쪽.

4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4, 164쪽.

참의부는 설립 당시 중앙부서에 중앙의회와 민사부를 설치하였지만 군단으로서 그 중심을 무장투쟁에 두었다.⁵¹⁾ 무장투쟁을 선도하였던 白狂雲, 崔碩淳이 제1, 2대 참의장이 되었고, 1925년 3월 고마령 전투에서 희생된 후 참의부의 투쟁방략에도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즉 1925년 8월 21회 행정회의 이후에는 종전의 체제를 탈피하여 행정조직과 관서를 정비하기 시작함으로써 무장우선투쟁에서 자치우선주의로 그 노선이 전환되었다. 특히 1927년 3월에 제3대 참의장 尹世葺이 사임한 후 金承學이 제4대 참의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군정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참의부는 산업의 진흥과 문화계몽 그리고 민족교육 방면에서도 자치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⁵²⁾

창립 초기 참의부는 간부진 밑에 약 500명 이상의 병력으로 남만의 압록강변 중국지역을 관할하면서 지역내 한인들에게 자치행정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독립군단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참의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1925년경 집안현 화전자에 본부를 정하였다. 창립 당시의 참의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⁵³⁾

참의장 겸 제1중대장 蔡燦(백광운)

50) 金承學, 『韓國獨立史』(獨立同志會, 1965) 참조. 채영국, 『1920년대 중반 남만지역 독립군단의 정비와 활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1994). 참의부의 성립 원인은 다음 성명서를 통해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났다. “1919년 3월 독립을 선언한 후 西路軍政署, 한족회, 靑年團聯合會, 義勇隊 등이 난립하여 각 간부간에 의견이 동일하지 않고 교민 호수 점령을 위하여 암투를 계속하였으나 1920년부터는 두 번에 걸쳐 통일되어 통의부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항상 내분을 일으켜 의군부의 병립을 보게 되어 제1차 동족전이 일어나 대대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이 동족전쟁을 불쌍하게 여기는 인사들은 통의부와외의 관계를 끊고 제1, 2, 3, 5중대에서 대표를 임시정부에 파견하여 정부의 직할이 되고 명칭을 참의부라고 하는 군단을 설립하였다”(蔡根植, 앞의 책, 130-131쪽).

51) 유병호, 『1920년대 중기 남만주에서의 ‘自治’와 ‘共和政體’』(『역사비평』 17, 1992), 252쪽.

52) 유준기, 앞의 글, 146-147쪽.

53) 김승학, 『한국독립사』, 350쪽 참조. 윤병석, 『참의, 정의, 신민부의 성립과정』(『백산학보』 7, 1969).

제2중대장 崔碩淳, 제3중대장 崔志豊
 제4중대장 金昌彬, 제5중대장 金蒼大
 독립소대장 許雲起, 훈련대장 朴應伯
 중앙의회의장 白時觀, 민사부장 金篠厦

참의부의 조직은 보다 안정적으로 대민활동과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으며 급기야는 유혈충돌로 나타나기까지 하였다. 즉 참의장 겸 제1중대장이었던 백광운이 1924년 겨울 통의부 유격대 白炳俊과 白世雨 등에게 참살당하는 비극을 겪기도 하였다.⁵⁴⁾ 또한 일제의 습격을 받아 제2중대장 최석순이 사망하였다.⁵⁵⁾ 본래 참의부의 창립취지는 남만지역 각 독립단체간에 알력의 악습을 막고 민족적 역량을 항일운동에 총집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통의부와 의군부에 대해서도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통의부에서는 이를 주도권 쟁탈전으로 몰고가 결국 백광운이 참살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⁵⁶⁾

한편 참의부는 또 한번 중대한 조직전환의 위기를 맞게 된다. 참의부는 1925년 국내진공작전을 펼치기 위해 輯安縣 古馬嶺에서 군사회의를 개최하고 있던 중 이를 탐지한 초산 주둔 수비대에게 기습을 받고 장시간 교전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참의장 崔碩淳을 비롯한 간부와 대원 29명이 전사하였다.⁵⁷⁾ 참의부는 조직의 붕괴를 막고 보다 발전적인 전환을 꾀하였

54) 김승학, 앞의 책, 350쪽.

55) 채근식, 앞의 책, 134쪽.

56) 大韓統義府는 남만주의 각 독립군을 총망라한 강력한 항일민족운동단체로 등장하여 독립운동의 통합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이념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즉 공화적 민족주의 계열과 복벽주의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제5중대장 김명봉과 부대장 조태현은 통의부를 불신한다는 이유로 피살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전덕원을 비롯하여 채상덕, 김평식, 박대오 등은 환인현에 새로이 항일군단을 조직하여 통의부에서 분립을 선언, 의군부를 편성하였다(유준기, 『1920년대 재만독립운동단체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 1988, 142쪽). 이렇게 백광운의 죽음은 그 이전부터 그 원인을 배태하고 있었다.

57) 김승학, 앞의 책, 351-352쪽.

다. 1925년 8월 행정위원회를 열고 행정조직과 관서를 정비하기 시작하여 군사와 민정을 통할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⁵⁸⁾

특히 민정부문을 강조하였다. 이는 독립군 양성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나아가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원활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되었다. 이처럼 각 근거지는 모두 압록강변을 끼고 있었으며 신속한 통신망을 유지하면서 일제의 동태에 주시하였다.⁵⁹⁾ 중앙조직 및 군사조직을 구성하면서 아울러 민사조직 역시 관할구역을 정하고 지방행정망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참의부는 관할구역 내의 한인을 천호 단위로 하여 백가장을 두고 그 밑에 십가장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한인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는 행정구를 설정하여 50명 전후의 경호대원을 육성하고 지방치안 유지, 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였다. 특히 각 근거지가 한반도와 밀접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진입 유격대와 함께 무장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보협대라는 특수조직이었다. 이 보협대의 임무는 각 중대 및 소속부대간의 통신은 물론이고 참의부 독립군들이 유격대를 편성하여 진입할 경우 안내의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참의부의 대일항전은 주로 국내진격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었다.⁶⁰⁾ 특히 1923년부터 25년까지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였다. 1923년 8월

58) 군정부로의 모습을 탈바꿈한 참의부는 1928년 조직을 마지막으로 재정비한다. 본부를 환인현으로 하고 있는 참의부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참의장 김승학, 군사위원 마덕창, 외교위원 김소하, 조직위원 김강, 선전위원 박대호, 재무위원 김진, 민사위원 이광명, 교통위원 최천주, 법무위원 맹성록, 비서장 김선풍, 중앙의회 의장 양하산, 상의회원 계추강·김윤석·백시관·박종수·백학세, 제1중대장 김광명 인원 50, 제2중대장 김현인원 50, 제3중대장 한세진 인원 30, 제4중대장 김상옥 인원 20, 제5중대장 박대호 인원 30, 중앙호위대장 처천리 인원 20(김승학, 『한국독립사』, 351쪽).

59) 채영국, 『1920년대 중반 남만지역독립군단의 정비와 활동』(『한국독립운동사』 8, 1994), 258쪽.

60) 유준기, 『참의부』(『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220-223쪽. 참의부가 국민부에 통합되는 1929년까지 약 7년 동안 500여 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국내진격에 주력하였다. 또한 일제의 군경과 밀정, 친일파 등을 살해하였으며 이주 한인에게

참의부가 성립된 직후 활동, 1924년 8월 齋藤實 총독 암살기도⁶¹⁾와 같은 일본 관리에 대한 암살시도는 참의부가 독립운동상에 처해 있는 위치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징표이다. 특히 이수홍의 군자금 모집과 그 활동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중대한 사건이었다.⁶²⁾

이수홍⁶³⁾은 독립단이 북만주에 근거지를 두고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1923년 3월부터 그곳을 목적지로 경성을 출발하여 남만주 봉황성까지 갔을 때 대한통의부원 李雲奉에게 일본의 밀정으로 오인되어 체포되고, 통의부 분대장 김용보에게 호송되었으나 통의부원 蔡相德⁶⁴⁾이 전에 이수홍의 부친인 李日瑩과 친밀한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수홍의 구명운동을 전개해 누명을 벗게 되었다. 그해 7월 하순경 대한통의부에 가맹하였으며 통의부가 경영하는 신명무관중학교⁶⁵⁾에 입학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1923년 8월 참의부가 성립된 직후 제3중대장 최지풍은 소속 대원들에게 국내진입을 명하였다. 이에 소대장 김용택은 소대원을 인솔하여 희천군 북면의 문창경찰관주재소를 점령하고 면사무소를 소각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궁지와 용기를 심어주었다고 한다.

- 61) 조선총독 사이토가 한반도 북쪽 방면을 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참의부에서는 제2중대장 장헌 지휘하에 제1소대장 참위 한형웅과 오장, 이춘하 등 10여 명을 파견하였고 이들은 위원군 강변에서 대기하다가 사이트 일행이 승선한 배를 향하여 사격하였다. 이때 사이트 일행은 재빨리 피해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이 사건 자체는 조선총독부의 통치에 큰 타격을 주었다(김승학, 앞의 책, 151쪽). 왜냐하면 사이트는 대외적으로 조선통치의 안정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북한지방 순시를 한 것인데 독립군에게 저격당하였기 때문에 무단통치기와 차이를 두었다고 선전하였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건으로 참의부 요원 2명이 피체되어 1명이 순국하기도 하였다.
- 62) 이하에서는 참의부의 군자금 모집활동 가운데 일제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참의부원 이수홍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63)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3-95쪽.
- 64) 채상덕은 북벽주의자였으며, 그는 이수홍의 만주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채상덕은 이미 독립군 내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으며, 1922년에는 대한독립군통일군단의 임시총장으로 추대되었다(『日本外交史料館文書-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滿洲ノ部』 권 33, 『間島接壤地不逞團統一ニ關スル件』, 機密受 제170호). 하지만 그는 고마령 전투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하였다(김승학, 앞의 책, 352쪽).
- 65) 신명학교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일제의 감시를 피하고 또한 중국 관헌과의 마찰을 줄

1년 6개월 동안 군대교육을 받았다. 졸업하자 대한통의부 민사부의 외무원으로 임명되었으나 2개월 정도 있다가 사임하고, 1924년 7월 조순경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참의부에 가입하고 그 곳의 제2중대 特務正士에 임명되어 환인현과 집안현의 경계에 있는 추자구에 주둔하고 그곳에서 내무를 관장하였다.⁶⁶⁾

이후 이수홍은 침체된 독립운동의 기운을 일신하고자 총독과 기타 대관을 암살하고 총독부 및 일제의 통치기관을 파괴하고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 朴東初에게 부탁하여 23원의 돈을 조달하고 1926년 음력 4월 15일경 만주를 출발하였다. 당시 참의부원들은 평안도 초산에서 군자금 모집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수홍은 이외는 별개로 단독으로 군자금 모집에 착수하였다. 그가 공술과정에서 밝혔듯이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의 발효로 운신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다. 이수홍은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고 신명무관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채상덕에게 축하선물로 받은 권총⁶⁷⁾을 소지하고 국내로 잠입하였다. 국내로 잠입한 이수홍의 목적은 군자금 모집과 고관암살에 있었다. 특히 군자금 모집이 주목적이었다. 그는 桓仁縣을 출발하여 평북 雲山, 평양을 거쳐 황해도 平山에 도착하였다. 1926년 7월 6일 이수홍은 군자금 조달을 위해 평산군 안성면 撥站里의 부호 威聖鎬의 집에 가서 군자금을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위협만 하고 경성으로 들어왔다.⁶⁸⁾

이기 위해서였다.

6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9, 193쪽.

67) 이수홍이 국내로 잠입할 때 휴대한 총기는 권총 2정(모델식, 브로우닝식), 실탄 각 147발, 29발이었다.

6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64쪽. 하지만 일제는 이 사건을 파렴치한 강도사건으로 몰고 가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재판기록을 보면 이수홍이 군자금 5백원을 요구하였으며 불응하면 사살한다고 하였는데 부호 함성호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일이 성립되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84, 866쪽). 이처럼 일제가 독립운동가의 도덕적 치명타를 가하여 민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이수홍이 경성에 들어온 시기인 1926년 7월 10일은 제2의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6·10만세운동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주지하듯 6·10만세운동은 제2차 조선공산당계의 거사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주도적 지도층이 완전히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의 독자적인 거사계획과 실천으로 인해 항일독립의 민족적 의지를 표현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도화선은 순종의 인산일이었다.⁶⁹⁾ 이러한 6·10만세운동의 분위기를 몸으로 느낀⁷⁰⁾ 이수홍은 총독부의 고관을 암살할 목적으로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柳南秀의 소재를 탐문하였으나, 그가 이미 조선총독부 급사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고 이천으로 향하였다. 이때 발생한 것이 東小門 사건이다. 이수홍이 7월 10일 밤 동소문파출소의 순경 德永勝次를 살해하였다는 것이 사건의 전모이다. 일제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⁷¹⁾ 이는 이수홍이 국내에 들어올 때 세웠던 고관 암살이라는 계획과 군자금 모집을 실행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즉흥적이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며 정확한 목적의식 속에서 행해진 일이었다. 이는 그의 신문조서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천으로 가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동소문으로 향하는 중에 덕영순사가 파출소로부터 나의 뒤를 따라왔으므로 나는 복부에 숨겨 가지고 있는 권총을 살펴보았더니 그 총신의 2, 3촌 가량 옷 밖으로 나와 있기에 혹시 덕영순사가 이것을 보고 나를 따라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조금 가서 어두운 곳의 술집까지 가서 권총을 꺼내어서 오른손에 휴대하고 뒤를 보았다. 그 때 순사는 파출소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기에 나는 이것은 반드시 그 순사가 본서에 나의 사실을 알리려 하기 위해 전화를 걸 생각으로

6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8(1990), 237-243쪽 참조.

70) 宋相燾, 앞의 책, 382쪽.

71) 『東亞日報』 1926. 10. 22 『東小門犯人 入國說』. 일제는 동소문사건의 범인을 李光珍, 崔干岡으로 생각하고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여 그들이 러시아에서 新民府를 거쳐 다시 국내에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갈 정도였다.

가는구나 생각하고, 소리쳐 독립단이라고 말하고 그 순사를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였다.……72)

이처럼 이수홍은 스스로를 독립단이라고 밝히고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경성을 빠져나와 자신의 고향인 이천으로 향하였다. 물론 목적은 군자금 모금이었다. 동소문 사건 이후 이수홍은 유남수에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대관을 암살하여 일본정부를 교란시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군자금 모집에만 동행하였다.⁷³⁾ 1926년 9월 9일 부로우닝 권총을 찬 이수홍은 모델 권총을 柳澤秀에게 준 후 함께 安城郡 一竹面 東里 朴承六의 집에서 군자금을 요구하였다.⁷⁴⁾ 당시 박승륙의 집은 때마침 건축공사를 하고 있어 이수홍은 그의 장남인 朴泰秉에게 “나는 조선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응분의 군자금을 제공하라”고 하였으나 박태병은 불응하였다.⁷⁵⁾ 따라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에 이수홍은 인근 부호의 집에서 군자금을 모집할 계획을 세웠다. 그 대상이 李敏應이었다. 이수홍은 단독으로 驪州郡 興川面 外絲里 李敏應에게 군자금을 요구하였으나 돈 4원을 내어주자 받지 않았다.⁷⁶⁾ 이러한 상황에서 이수홍은 이민응에게 “자신은 거지가 아니며 당신은 1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소액을 내는 것은 나에게 대한 모욕이다”라고 하였다. 이때 이민응은 자신도 조선민족을 위하여 玄方식

7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9, 165-166쪽.

73)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66쪽. 이수홍은 유택수와 동행하면서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번 안성에 가서 湖南銀行을 습격하여 군자금을 얻으면 먼저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단체에 가입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고 유택수도 동의하였다.

74) 宋相燾, 『騎驪隨筆』, 382쪽.

75) 이수홍은 자신의 신분을 숨김없이 드러냈으며 제공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었다. 이때에도 박태병에게 자신은 참의부원으로서 일본정부를 전복하는 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정확하게 그 동기를 밝혔다(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9, 168쪽).

76)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68-169쪽. 송상도, 『기려수필』, 382쪽에는 6원으로 되어 있다.

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다수의 빈민을 구제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므로 결코 조선민족을 생각하는 것은 타인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수홍을 감탄케 하였다. 하지만 뒤에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져 이수홍이 이천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민응의 집에서 돌아온 이수홍은 현방식산주식회사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조선인 빈민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19일과 20일 회사 금고를 탈취하기 위하여 회사의 동정을 탐지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먼저 주재소를 습격한 후 금고를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⁷⁷⁾ 먼저 이수홍은 주재소의 순사 2명을 사살을 목적으로 권총을 발사하였다. 하지만 실패하여 바로 식산회사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미 직원들이 퇴근하였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수홍은 일본 정부기관이라 여겼던 면사무소에 가서 공금을 군자금으로 제공받고자 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⁷⁸⁾

이수홍은 군자금 모집과 사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민응에게 군자금을 받으면 길림에서 혁명군 대본영을 조직하고 조선총독부, 기타 관아의 건물을 파괴, 총독 등의 대관을 암살하는데 쓰이는 총기와 탄약을 비밀리에 조선으로 반입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⁷⁹⁾ 또한 총독을 비롯한 고위관료를 암살하고 당시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일제의 국제적 입지를 협소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그는 스웨덴 황태자가 조선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암살하여 일본과 스웨덴 간의 국제문제를 발생시켜 전쟁 기운을 조성하려 했다고 하였다.⁸⁰⁾ 이처럼 이수홍은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까지도 독립운동에 이용할 정도로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판단력을 겸비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77)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69쪽.

78) 위의 책, 170쪽.

79) 위의 책, 190쪽.

80) 위의 책, 171쪽.

4. 군자금 모집의 성격과 특징

: 땀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1920년대초 남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단체의 군자금 모집 실태와 그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식민지 저항세력은 제국주의 군대와 의 대결에서 절대적인 약세를 면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군비나 군자금의 규모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1920년대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독립단을 비롯한 무장단체는 군자금 모집을 위해 일정한 마찰과 파열음까지 감수하면서 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단체의 활동을 요약하면서 땀을 대신하려 한다.

대한독립단이 전개한 군자금 모금활동은 의열투쟁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연부대를 조직하여 군자금 모집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적극적인 의열투쟁과 연결하고 있었다. 또한 참의부의 활동 가운데 이수홍이 전개한 독립운동의 특징을 보면 먼저 단독 의열투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수홍의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독립운동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다.⁸¹⁾ 이수홍은 이때 독립운동의 분위기를 일신시키고자 단독으로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신문조서에도 보이지만 그가 국내에 들어올 때 大韓駐滿 參議府員인 全泰京, 崔春京, 李永萬, 全振聲 등이 군자금 모집에 종사하고 있던 것을 평안북도 초산 산중에서 조우하였을 뿐 모든 활동은 단독으로 하였다.⁸²⁾ 이는 의열단원이 전개한 의열투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의열단원은 하나의 대상을 목표로 거사를 실행하였지만⁸³⁾ 이수홍은 군자금 모집이라는

81) 『독립운동사자료집』 10, 865쪽.

82)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4쪽.

83)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던 의열단의 대표적 활동은 박재혁의 밀양경찰서 폭파,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파괴,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목표하에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⁸⁴⁾

둘째, 대담성과 치밀함이다. 대한독립단은 군자금 모금을 위해 권총과 폭탄 등을 준비하는 대담함을 견지하였다.⁸⁵⁾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이면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참의부의 경우 특히 이천군 사건 당시에도 거사 당일 전 이수홍이 변장을 하여 식산회사의 동정을 탐지하고 순사주재소를 습격한 사건은 즉흥적인 거사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거사였음을 보여준다. 그가 안성사건 이후 신문기자로 가장하여 이천경찰서를 찾아가 동태를 살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의 대담한 성품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수홍은 조선총독부 검사 中野俊助에 의한 제2차 신문에서도 침착하고 뚜렷하게 자신의 거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지켜 나갔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조선의 독립운동과 2천만 동포의 해방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셋째, 친일단체와 조직을 적절히 이용하였다. 1920년대초 홍경현에 본부를 둔 만주보민회를 이용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민회원과 독립단 사이에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독립단 입장에서는 친일파에 대한 응징과 군자금 모집이라는 이중효과를 거두기 위해 줄기차게 이러한 모금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또한 조선인민회의 조직을 이용하여 군자금을 모집하기도 하였다.⁸⁶⁾

넷째,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와도 연계하여 군자금 모금을 전개하였다.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 군자금 모집은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만주의 이주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활동은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부에서 각 고에 소집전권 위원을 파견하여 독립운동 의무금 즉 군자금을 징수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자산이

84) 『東亞日報』 1926년 10월 30일자 기사에서는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 정황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할 정도로 이수홍 의거는 당시 정국을 요동치게 하였다.

85) 주) 34 참조.

86) 『不逞團』 권 35, 『不逞鮮人被害ニ關スル件報告』(公 제103호. 1922. 12. 19).

많은 부호에게 경고문을 보내 자산의 30%를 헌납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대한독립단의 활동 가운데 평안북도 지역에서의 모금은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⁸⁷⁾ 한편으로 평안도, 황해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내 모금활동은 3·1운동 이후 침잠되었던 독립운동의 실체를 명확하게 각인시켜 주는 효과를 주면서 진행되었다.

요컨대 군자금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거의 모든 독립운동단체들에게 조직의 존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비정규군인 독립운동단체에서 군자금 모금문제는 용이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충당한 경우도 있었다. 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는 이주민들에게 호소하는 막연한 방식보다는 체계적인 회비징수를 모델로 제시하여 전개하였으나 이 역시 그 본래의 목적을 충당하기에는 미흡하였다. 그 대안이 자산가를 비롯한 부호, 친일부호들에게서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반항일세력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한편으로는 독립군부대의 활동비를 충당하는 대안으로 많이 쓰였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때 군자금 모금실태의 전반적인 모습과 그 성격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4. 7. 2,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참의부(參議府), 이수흥(李壽興), 만주보민회, 군자금

87) 박환, 앞의 글, 200쪽.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s of the Independence Army in Manchuria and War-funds in the 1920's.

Kim, Joo-yong

The purpose of article is to analyze a case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feud within the organizations of the Independence Army and Japanese imperialism in the course of raising war contributions. The period is set to the 1920's. The ways of raising the sinews of war varied.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war funds was that there were a lot of main groups and subjects. Therefore, I inte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ar-contributions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rather than focus on the necessity of war fund-raising. The characteristics of raising war funds are as the follows.

First, the process of raising war-funds within the Daehan Doklipdan(大韓獨立團) was the same as that of Resistant(義烈鬪爭). For instance, the organization formed the raising groups, collected war-contributions, and deployed the Resistants. Also, the character of Lee Soo-heung(李壽興)'s struggle for independence was an individual fight.

Second, it was boldness and elaborateness. The Daehan Doklipdan(大韓獨立團) was bold enough to prepare pistols and bombs in order to raise the war-funds. And it took so much time to prepare those actions. In case of the Chamuibu(參議府), especially in the incident of Icheon-gun(利川郡), it was not an extemporary but an elaborate rebellion. The day before the

rebellion, Lee Soo-heung(李壽興) was disguised, watched the movement of the Company of Increasing Production(殖産會社), and attacked the police box.

Third, they made appropriate use of the Pro-Japanese organizations. In the early 1920's, they had raised war contributions from the Bominhoi of Manchuria(滿洲保民會) founded at Xingjinghyun(興京縣), China. Of course, even though there had been so many conflicts between the members of Bominhoi(保民會) and Doklipdan, the Doklipdan(獨立團) had continually collected war-funds to create a dual effect of punishment of the pro-Japanese groups and raising the contributions. The Residents' Community of Joseon(朝鮮人民會) was the same case.

Finally, they had developed collection of war-funds in the connection with Manchuria and their own country. Because raising war-contributions to figh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und-raising campaign to the emigrant of Joseon had in part limitations. So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had sent the fund-raising members and tried to collect war-contributions.

Key Words: Daehan Doklipdan, Chamuibu, Lee Soo-heung, Bominhoi of Manchuria, War-funds

한말의병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吳 瑛 燮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1. 머 리 말
2. 한말의병운동의 연합적 성격
3.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의 연대
4. 고종세력의 항일의병전략
5. 평민의병장의 근왕적 측면
6. 병사층의 지향과 군자금 문제
7. 맺 음 말

1. 머 리 말

1894년 6월 일본군의 무단적인 경복궁 강제점령부터 1905년 11월 불법적인 을사늑약과 1907년 7월 고종퇴위·정미조약·군대해산을 거쳐 1910년 8월 한일병합까지 일제의 대한침략은 예정된 수순을 밟아갔다. 이에 우리 민족은 국가와 영토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각기 중앙과 지방에서 총궐기하여 일제에 대항했다. 당시 일제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국권회복운동은 다

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일본군과 친일세력을 타도하고자 무장 봉기한 의병운동은 한말 구국운동의 여러 방략 중에서 가장 강렬한 반일운동이었다.

한말의병운동은 국가멸망의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생사와 명리와 성패를 돌아보지 않고 외세에 대한 애국세력들의 항일무장투쟁이었다. 이 운동은 교육과 산업 및 국혼의 진작을 강조한 애국계몽운동과 달리 반제국주의 투쟁의 선명성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또한 이 운동은 1910년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무대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의 인적자원을 마련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일제의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이 장기간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는 정신적 원천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므로 한말의병운동은 한국민족운동사의 原型이요, 한국독립운동사의 前史라고 평할 수 있다.

한말의병운동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의병운동의 참여세력 문제를 둘러싸고 의병장 중심의 민족주의적 연구경향과 평민층 중심의 민중주의적 연구경향으로 구분된다.¹⁾ 양자의 경향을 넘나든 연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자는 양반유생층과 전직관료와 해산군관의 활동을 중시한 견해로서

1) 대체로 전자의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上海: 維新社, 1920; 金義煥, 『韓國近代史研究論集』, 成進文化社, 1972; 金義煥, 『義兵抗爭史』, 博英社, 1974; 金義煥, 『抗日義兵將列傳』, 正音社, 1975; 朴成壽, 『獨立運動史研究』, 창작과비평사, 1980; 國防部 戰史編纂研究所, 『義兵抗爭史』, 1984; 金鎬城, 『韓末 義兵運動史 研究』, 高麗苑, 1987; 조동걸, 『한말 의병 전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윤병석, 『한말 의병장 열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洪英基, 『大韓帝國期 湖南義兵 研究』, 서강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柳漢喆, 『柳麟錫 義兵 研究』, 국민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金祥起, 『韓末義兵研究』, 一潮閣, 1997; 具完會, 『韓末의 堤川義兵』, 집문당, 1997; 朴敏泳, 『大韓帝國期 義兵研究』, 한울, 1998. 후자의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桂奉瑀, 『義兵傳』, 『(상해판) 獨立新聞』, 1920; 姜在彦, 『反日義兵運動의 歷史的展開』, 『韓國近代史研究』, 日本評論社, 1970; 金度亨, 『韓末 義兵戰爭의 民衆的 性格』, 『韓國民族主義論』 III, 창작과비평사, 1985; 오길보, 『조선근대반일의병운동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洪淳權, 『韓末 湖南地域 義兵運動史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金順德, 『京畿地方 義兵運動 研究(1904~1911)』, 한양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朴殷植의 의병관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며, 후자는 포군층과 해산군인과 농민층의 활약에 주목한 견해로서 桂奉瑀(계봉우)의 의병관을 계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전자는 특정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의병장의 항일활동과 의병사상에 대한 사례분석에 치중하며, 후자는 평민층의 사회경제적 지향과 반제·반봉건적 성격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양자는 한말의병운동을 재야세력만의 항일운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한말의병운동에 대한 전통적 연구경향은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첫째, 의병운동의 발발·전개·지향·특질과 직결된 중앙세력과 재야세력의 연대문제나 중앙세력의 의병진 내에서의 활약상을 주목하지 못했다. 둘째, 의병운동이 재야세력의 단순한 군사활동이 아니라 중앙세력의 황제파천운동·조선중립화운동·청원외교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정치적 민족운동'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셋째, 의병운동에 가담한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참여동기·노선차이·이해관계 등 대내적 지향성을 깊이 분석하지 못했다. 넷째, 지역적 사례연구에 치중함으로써 의병운동의 일반적 양상·성격·지향, 운동 내적 특성, 그리고 향후 의병운동에 끼친 영향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기왕의 연구에는 의병운동의 역동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의병운동의 구조와 특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이상의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한말의병운동을 연구할 경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앙세력과 재야세력의 연대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 장구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유교적 통치이념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왕조국가인 대한제국과 같은 나라에서 재야세력의 무장활동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중앙세력의 정치적·경제적 후원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재야세력의 항일무장투쟁은 중앙세력의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정통성과 적법성을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그 운동의 강렬성·연합성·전국성·지속성을 담

보하였다. 따라서 한말 항일의병운동시에 중앙세력이 재야세력의 활동에 어떻게 간여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깊이 파헤치는 것은 한국근대사의 특질을 구명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동안 필자는 한말의병운동을 재야세력만의 자발적·독자적인 반일민족운동으로 파악하는 기왕의 통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한말의병운동은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이 외세구축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굳게 뭉쳐 조직적·체계적으로 전개한 항일민족운동이다”는 새로운 의병관을 주장해왔다. 이를테면, 국가와 민족의 위난기에 高宗勢力(고종황제와 그 측근 인사)의 항일의지와 재야세력(유림의병장, 해산군인·포군층, 농민층 등)의 항일열기가 서로 맞물려 한말의병으로 승화되었음을 강조했던 것이다.²⁾ 이제 아래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한말의병운동을 연구할 경우 새롭게 주목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2. 한말의병운동의 연합적 성격

한말의병운동은 일반적으로 갑오변란·변복령·을미사변·단발령·아관파천을 계기로 일어난 1895~1896년간의 전기 의병운동³⁾과 한일의정서·

2) 이러한 문제인식이 반영된 연구성과로는, 오영섭의 일련의 논문(『乙未義兵運動의 政治·社會的 背景』, 『國史館論叢』 65, 1995; 『韓末 義兵運動의 勤王의 性格—密旨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 1997; 『甲午更張 中 高宗의 王權恢復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을미 체천의병의 참여세력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 2000; 『韓末 13道倡義大將 李麟榮의 生涯와 活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2002; 『한말의병운동의 발발과 전개에 미친 고종황제의 역할』, 미간행 논문, 2004 참조.

3) 金祥起의 주장(『朝鮮末 甲午義兵戰爭의 展開와 性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1989, 46-53쪽)에 따라 전기 의병운동의 기점을 1894년 가을 안동에서 봉기하여 서울진격을 목표로 곤지암까지 진출한 서상철의병으로 잡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僞東學軍’이란 칭호를 받은 서상철의병은 대원군계의 동학의병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具完會, 『堤川義兵에 관한 文獻資料의 檢討』, 『朝鮮史研究』 5, 1996.

을사늑약·군대해산·고종퇴위·경술국치 전후에 봉기한 1904~1914년간의 후기 의병운동을 포괄하는 말이다. 양차의 의병운동기에 한국의 충의세력들은 고려시대의 몽고침략과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때에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던 구국의병의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일본군과 친일파를 상대로 치열하게 항쟁하였다. 특히, 후기 의병운동기에 한민족은 고종세력과 재야유림이 주축을 이루었던 전기 의병운동기의 신분적·사상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종세력·재야유림·향리층·농민층이 대거 망라된 각계 각층의 민중이 참여하여 거족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다.

일제의 대한침략이 격화됨에 따라 거의 동시에 봉기를 준비중이던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은 극적인 연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들은 지위·신분·사상·지역·학통의 차이를 극복하고 친일파와 일본군을 물리치고 국가와 국왕과 강토를 구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충군애국론에 공감하여 연대하였다. 그들의 항일논리에는 만국공법의 수용, 동양평화론의 주창, 일본과 서양국가의 인정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소간 근대적인 국가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냉정히 말해 아직은 유교적 민족주의의 성격이 다소 강한 편이었다. 이때 강렬하면서도 이기적인 고종세력의 구국의지는 소박하면서도 생존권 확보를 중시하는 재야세력의 반외세 의식과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한말의병운동으로 승화되었다.

한말의병운동 당시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난 항일의병은 적게는 20명 내외로부터 많게는 1만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세를 이루었다. 이들 가운데 1~20명 정도의 소규모 부대로 각지에 출몰하며 부호층·친일파·개화관료를 상대로 반일성 토색활동을 벌인 이른바 假義와 대규모 연합의병이 해체된 다음 잔여의병이 새로이 設陣하여 게릴라성 반일활동을 전개한 소규모 의병들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의병들은 적어도 수백명 이상의 부대로 구성된 연합의진에 소속되어 의병장·중군장·선봉장·부대장의 지휘를 받았다. 환언하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한말의병은 사회·경제적 배경, 개인적 이해관계 등을 극복하고 특정 의병장 휘하에서 일원

적 통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말의병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연합적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말의 연합의병은 크게 지도부와 병사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때 지도부에는 고종세력(전주이씨·일부 민씨척족·친구미적 근왕파·전현직 보수관료·고종의 근시 내지 별입시)·재야유림(척사·혁신 유림)·전현직 관료·해산군관·이서층 등이, 병사층에는 해산군인·포군·동학군·농민·상인·임노동자·보부상·승군 등이 가담하였다. 이 중 지도부의 고종세력과 유림세력이 의병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축세력이었고, 병사층의 포군과 농민은 고종세력과 유림세력의 지휘를 받아가며 의병운동의 원활한 전개에 밑거름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말의병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세력들은 충군애국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중층적인 연합성을 이루었다. 먼저, 고종세력과 재야세력간에 그리고 지도부와 병사층간에 대연합을 이루고 있었고, 이러한 대연합의 근거에는 다시 계층간 사상배경과 이해관계에 따라 고종세력과 재야유림, 관료층·유림세력과 평민세력, 고종세력과 포군세력, 유생의병장과 평민의병장, 연합의병장과 군소의병장, 전직관료·전직무관과 해산군인·포군, 포군장과 일반포군·민군 사이에 소연합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말 연합의병은 지역·신분·지위·학통·빈부가 각기 다른 여러 세력이 모여 중층적 연합성을 이룬 조직상·편제상의 특성을 보였다. 이때 각 세력간의 중층적인 연합성의 강약 여부는 무기의 우수성, 병사들의 숙련도, 지도부의 통솔력과 함께 의진활동의 성과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의병운동의 주도세력 가운데 하나인 유림세력이 창외의 전에 이미 패배를 자인했던 것처럼 한말의병운동은 성패보다는 의리심과 애국심과 협동심을 중시한 항일구국운동이었기 때문이었다.⁴⁾

그러면 아주 다른 배경을 지닌 수 백명의 병사들을 특정 의병장의 휘하에 집결시켜 대규모 연합의병을 탄생시킨 동인 내지 매개체는 무엇이었는

4) 오영섭, 『을미 제천의병의 참여세력 분석』, 6-7쪽.

가? 현재 한말의병의 거의이념으로 위정척사의식·반개화의식·반제의식(항일의식)·반봉건의식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상논리는 한말의병의 무장활동을 촉발시킨 주요 요인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한말의병의 거의단계부터 활동단계까지의 여러 과정에서 부차적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척사·혁신유림, 포군영수와 해산군관을 제외할 경우, 비교적 사상성이 박약했던 것으로 파악되는 고종세력과 일반평민들이 과연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장활동에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것인가 하는 소박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외세침략기에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이 품고 있던 원초적 형태의 반개화·반일의식을 역사의 전면에서 분출시켰을 뿐더러, 그들을 특정 의병장의 휘하에 집결시킨 촉매제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

상기 질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국망기에 재야세력과 고종세력이 고종명제의 密旨(密勅·衣帶詔·哀痛詔)⁵⁾를 통하여 신분·지위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고종세력의 밀사들이 재야의 명망가와 유력자와 무용가들에게 전달한 밀지는 유교의 충군애국사상을 철저히 신봉하는 재야세력의 반외세·반개화 의식을 직접적인 무장활동으로 승화시켰다. 이로써 재야세력이 숭앙해 마지않는 고종의 권위를 상징하는 밀지와 그러한 밀지를 작성·전포한 고종의 근신들은 한말의병의 봉기와 연합을 가능케 만든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한말의병이 조직화·대규모화·장기화·전국화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⁶⁾

5) 민영환이 거의를 당부하며 文錫鳳에게 내려준 還刀, 을미 제천의병의 중군장 李春永이 차고 있던 육협포, 을사늑약 후 姜錫鎬가 閔宗植에게 전달한 마패, 고종의 측근 金升旼이 간도와 연해주에서 사용한 마패, 1908년 연해주에서 柳麟錫·李範允·安重根 등이 소지했던 馬牌 등도 모두 밀지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한 물품이었다.

6) 일정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 가운데 최초로 봉기한 의병장의 경우 고종세력으로부터 고종의 권위를 상징하는 밀지나 혹은 밀지에 준하는 내락을 받았는가의 여부, 뒤늦게 봉기한 의병장의 경우 밀지의 최초 수령자가 인근 각지에 전포한 복사본 밀지와 창의격문을 받거나 혹은 그에 영향받은 다음에 일어났는가의 여부, 연합의병 해체후 수십명 단위로

한말의병운동 때에 고종세력이 재야에 전포한 밀지의 사본들은 많이 남아 있다. 문집과 창의록을 살펴보면, 한말의병운동을 대표할 만한 연합의병장들은 거의 모두 고종의 밀지나 혹은 밀지에 준하는 내락을 고종세력에게서 직접 받은 다음에 창의의 깃발을 들었다. 당시 의병장들은 밀지나 내락을 받은 다음 짧게는 2~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나서 거병하였다. 이는 그들이 인근을 돌아다니며 동조자를 규합하고, 자기 측근을 보내 명망 있는 인사를 초청하고, 군사활동에 필요한 포군과 민군 및 병기를 확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군과 민군의 급료와 군량료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일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문제는 재야의 항일의병장들이 고종의 신물인 밀지를 매우 중시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말의병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인석은 일제의 황무지개척권요구 반대운동이 한창 진행중이던 1908년 (음)8월에 “속히 哀痛詔를 재야 충의지사에게 거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하였고,⁷⁾ 을사조약후 金福漢과 같이 상경하여 을사늑약 반대 및 토역 상소를 올린 林翰周는 “속히 哀痛詔를 내려 충의지사를 소모하고, 또 13도관찰사로 하여금 각기 관하 土民을 선발하여 종군케 하라”고 했으며,⁸⁾ 명망 높은 전직관료인 李南珪는 최익현에게 보낸 편지에서 “衣帶 속에 감춘 密詔만이 온 나라의 신민들이 우러러 바라는 바이다”고 하였고,⁹⁾ 근왕주의적 계몽운동가 겸 아나키스트로서 고종황제와 관계가 깊었던 李會榮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나키스트 李丁奎는 1913년경 이회영이 일시 귀국하여 항일운동을 벌일 때에 “지방 부호를 움직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궁중을 연락하여 高皇帝의 밀지를 받는 것이었다”고 말하였다.¹⁰⁾ 또한 일본의 침략아

분산되어 게릴라성 항일활동을 벌인 소규모 의병의 경우 밀지를 최초로 받은 의병장의 정통성을 승습하거나 내세웠는가의 여부 등이 충군애국을 모토로 활동한 의병과 반일성 화적활동을 일삼은 ‘假義’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점이다.

7) 柳麟錫, 『毅菴集』, 권35, 『漆室憤談』(1908. 음8).

8) 林翰周, 『洪陽紀事』, 『독립운동사자료집』 2, 288쪽.

9) 李南珪, 『修堂集』, 권3, 『答崔贊政益鉉』(1906).

육을 간파한 임병찬이 1904년 봄에 閔泳韶·李容植 등 고종세력에게 창에 필요한 밀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고종세력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응하지 않다가 1906년 3월에 가서야 비로소 그에게 밀지를 주어 거의하게 하였다.¹¹⁾ 심지어 정미의병장 盧炳大는 을사늑약후 거의할 목적으로 단신으로 상경하여 직접 고종세력을 찾아가서 밀지를 요청하였고,¹²⁾ 을미의병장 鄭漢鎔과 후기 호남의병장 李錫庸은 儒者로서 고종의 밀지를 받지 않고 일어났다는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¹³⁾ 이를 보면 재야세력은 고종세력에게서 밀지나 거의에 대한 내락을 받아야만 의병장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말의병장이 받은 밀지 가운데 전기 의병운동을 대표하는 밀지는 1895년 (음)12월 15일자 밀지이며,¹⁴⁾ 후기 의병운동을 대표하는 밀지는 1905년 (음)11월 22일자 밀지이다. 전자는 김하락·유인석·이소응·최문환·徐相烈·기우만·허위 등 유명한 을미의병장들이 소지했던 것이며, 후자는 전라도 의병장 최익현에게 내려진 것이다. 특히, 閔景植·閔丙漢·李正來·閔衡植 등 고종의 측근들의 성명이 말미에 부기되어 있는 후자는 최익현에 의하여 호남 각지의 무용가와 명망가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 중 후자를 훑어보면 밀지의 형식과 내용의 대강을 파악할 수가 있다.

10) 李丁奎, 『友堂 李會榮 先生 略傳』, 『又觀文存』, 三和印刷, 1974, 36쪽.

11) 林炳瓚, 『遜軒遺稿』, 권1, 『上閱輔國泳韶書』; 宋相燾, 『林炳瓚』, 『騎驢隨筆』, 국사편찬위원회, 1971, 106-107쪽; 林炳瓚, 『遜軒問答記』, 『독립운동사자료집』 2, 114-115쪽.

12) 宋相燾, 『盧炳大』, 『騎驢隨筆』, 130쪽.

13) 정한용은 고종에게 상소문을 올려 자신이 1894년 가을 영남 일대에 내려진 국왕의 밀지를 받고 거의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항변하였다. 『李錫庸』, 『騎驢隨筆』, 137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247-248쪽. 또 全海山은 광주관찰사에게 보낸 글에서 자신이 고종의 詔書가 없이 거의했음을 몹시 송구하게 생각하였다. 전수용, 『全海山陣中日記』, 『독립운동사자료집』 2, 375쪽.

14) 李正奎 編, 『倡義見聞錄』, 『독립운동사자료집』 1, 647쪽; 閔龍鎬 著, 李泰吉·閔驪植 共譯, 『復齋集』, 昭文出版印刷社, 1988, 216쪽.

아아! 애통하다. 나의 죄악이 크고 가득하여 하늘도 돕지 않고 많은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이로 인해 강한 이웃이 틈을 노리고 逆臣이 정권을 농단하고 있다. 4천년 예의의 나라가 나의 대에 와서 하루아침에 犬羊의 지역이 되고 말았다. 내가 무슨 낮으로 聖廟를 뵈옵는단 말이나. 나의 실낱 같은 목숨은 아까울 것이 없지만 오직 宗廟·社稷과 만백성을 생각하여 이에 哀痛의 密詔를 내려 전 參政 崔益鉉으로 都體察使를 삼아 7도에 보내노라.

湖西는 忠義軍으로, 湖南은 壯義軍으로, 嶺南은 奮義軍으로, 關西는 勇義軍으로, 關東은 強義軍으로, 海西는 扈義軍으로, 關北은 熊義軍으로 삼아 각기 의기를 세우고, 良家の 재주 있는 자제들을 모두 召募官으로 삼으라. 각 軍中の 印章은 모두 스스로 새겨서 사용하고, 觀察使나 郡守로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보고에 앞서 먼저 파직 처분을 내려서 그들의 마음을 단일하게 만들라. 京畿 1도는 朕이 그 군사와 더불어 社稷을 위해 殉死할 것이다. 옥새를 찍은 편지를 비밀히 내리는 것이니 이를 참작하라.

乙巳 11월 22일 밤 畿輔에서 발급함.¹⁵⁾

고종의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는 이러한 밀지는, ①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을 충군애국론으로 연결시켜 주는 매개물의 역할을 수행했고, ② 가부장적 유교이념이 지배하는 군주제 국가에서 재야세력에게 무단거병에 대한 합법적 명분을 제공해 주었으며, ③ 밀지를 처음 받은 의병장이 복사본 밀지나 창의격문을 인근 각지에 발송하여 창의를 독려함으로써 의병운동의 전국화를 가능케 하였고, ④ 병사소모, 군량확보, 군수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신물의 역할을 수행했고, ⑤ 재야의 무용가에게 의병장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해 주었고, ⑥ 밀지를 수령한 의병장이 밀지의 권위에 힘입어 인근 각지의 대소 의진을 통할함으로써 대규모 연합의병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고, ⑦ 다양한 의병참여세력에게 지위·지역·학통·당색·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국왕과 국가를 위해 함께 분투해야 한다는 사상적 일체감을 지니게 하였다.

15) 吳駿善, 『沈南一實記』, 『독립운동사자료집』 2, 927쪽.

3.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의 연대

한말의병의 참여세력 문제에 국한하여 논급할 경우, 기왕의 연구는 의병장 중심의 민족주의적(혹은 국수주의적) 연구경향, 평민층 중심의 민중주의적 연구경향, 그리고 양자를 절충한 연구경향으로 갈라진다. 따라서 기왕의 연구는 의병운동의 참여세력 가운데 재야세력에 해당하는 양반·평민 의병장과 평민 병사층만을 주목했을 뿐이다. 아울러 기왕의 연구는 다양한 재야세력들이 외세침략에 대응하여 자발적·독자적으로 창의하여 일정지역을 무대로 반제·반봉건 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한말의병운동의 항일민족운동으로서의 순수성과 이념성과 반제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상기 두 가지 연구경향에는 연구자 개개인들과 의병 후손들과 한말의병 관련단체들의 현재적 입장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의병운동 참여자들의 자부심, 자기 조상들의 의병활동을 중시하는 일부 의병 후손들의 자긍심, 자기존립의 근거를 한말의병의 애국정신에서 찾고 있는 소수의 의병관련 단체들의 당파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1970년대 이후 20대 초반의 나이에 열혈의 의분심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한국근대사 연구자들의 개인 경험 등이 무의식적 내지 무비판적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혀서 의병운동의 실상과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작 재야세력의 의병운동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후원한 고종세력의 경제적·인적 지원활동이나 의병진 내에서의 활약상에 관련된 사료들이 의병자료에 적잖게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연구경향에는 그러한 사료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고종퇴위 이후 서구의 계몽사상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유교의 충군애국론이 한국 재야신민들의 사고를 지배하였다. 아울러 1908년경까지는 전제군주제의 정점에 위치한 국왕 고종이 측근의 많은 신

하들을 통하여 여전히 재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1910년대 중반 이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등의 근대사상이 한민족의 민족운동 기본이념으로 자리잡기 전까지, 의병운동과 복벽운동을 비롯한 한국근대 근왕적 민족운동의 여러 조류들은 고종 및 그 주변세력과 긴밀한 연계하에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 수백년간의 강고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역사적 경험이 한말 의병운동의 전개와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유념해야 한다. 아래에서 논급할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의 연대문제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¹⁶⁾

1894년 6월 일제의 경복궁 강제점령 직후 그리고 1904년 2월 한일의정서의 체결 직후에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은 각기 중앙과 지방에서 거의 동시에 창의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양대 세력의 창의활동은 일본군과 친일파의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그들의 창의노력은 전기 의병운동기에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거치면서 표면화되었고, 후기 의병운동기에는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요구 반대운동과 을사늑약을 거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때 중앙의 고종세력과 재야의 유력가·부요층·武勇家들은 충군애국의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연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아울러 이들은 일제의 단계적 침략에 대응하여 점차 고조되고 있던 일반 인민들의 항일열기를 적극 수렴하여 의병운동으로 승화시켰다. 이처럼 한말의병운동은 국가멸망의 위기상황 속에서 국권과 군권과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의 연대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면 국망기에 하층민의 항일열기를 수렴하여 의병운동으로 승화시킨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연대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명성왕후 시해사건 후부터 경술국치 전까지 중앙과 지방 각지에서 재야세력과 연계하여 국권수호운동을 전개한 중앙인사들은 상당히 많았다. 범칭하여 고종세력에 포함되는 이들 중앙인사들은 국권과 군권 및 기득권을 수호하

16) 오영섭, 『을미 제천의병의 참여세력 분석』, 5쪽.

고자 반일운동에 종사한 강렬한 근왕 성향의 정치세력이었다. 고종세력의 정점에 위치한 고종을 제외할 경우, 이들은 한국측 자료에는 근시·別入侍, 일본측 자료에는 궁중과·궁정과·寵臣으로, 영·미측 자료에는 Royalist·Loyalist로 나온다.

그러면 고종세력의 범위는 어떠한가. 바꾸어 말하면, 특정 인사를 고종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한 기준으로는 첫째, 대한제국과 고종 부처를 적극 옹위하는 집단, 둘째, 고종의 전제적 황제체제를 지지하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을 극력 배척하는 집단, 셋째, 지방에 동족집단과 鄉第 등 일정한 세력기반을 지닌 채 중앙정계에서 활약하는 집단, 넷째, 궁내부에 소속되어 궁중을 무시로 출입하며 고종의 대내외 정책을 수행하는 집단, 다섯째, 고종 부처의 반일·친구미적 외교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집단 등을 들고자 한다. 한마디로 말해, 고종세력은 동도서기적 정치노선과 반일·친구미적 외교노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대한제국의 국권과 고종의 전제군주권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배적인 정치세력이었다.¹⁷⁾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경우, 1895~1896년의 전기 의병운동기에 활약한 고종세력으로는 高宗과 閔妃, 閔泳煥·閔泳綺·閔丙星 등 민씨척족, 金炳始·宋近洙·申應朝·李容直·崔益鉉 등 노론계 보수대신, 李範晉·李允用·李完用·李根永 등 親露親美 성향의 貞洞派, 沈相薰·李世鎭·洪秉晉·嚴尙宮·金鴻陸·李範允 등 고종과 민비의 측근(근시) 및 측근들의 수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갑오경장부터 아관파천까지 고종과 민비의 왕권회복운동, 춘생문사건, 을미의병운동, 아관파천 등의 반일운동에 관여한 중앙의 정치세력이었다.¹⁸⁾

1904~1914년간의 후기 의병운동기에 활약한 고종세력으로는 고종황제와 엄비, 의친왕 이강·李容泰·李容直·李容元·李範晉 등 전주이씨, 閔宗

17) 吳瑛燮, 『韓末 義兵運動의 勤王의 性格』, 48쪽.

18) 전기 의병운동에 관여한 고종세력에 대해서는 吳瑛燮, 『乙未義兵運動의 政治·社會的 背景』, 제2·3장 참조.

植·閔景植·閔丙漢·閔衡植·閔泳達·閔應植·閔泳喆·閔炯植 등 일부 반일 성향의 민씨척족, 沈相薰·申箕善·鄭煥直·姜錫鎬·李相天·李鳳來·李裕寅·金升旻·姜昌熙·元禹常·元用常·李紹榮·趙南斗·趙南升·朱錫冕·李會榮·韓圭高·許薦 등 고종의 측근과 별입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을사조약 전후, 군대해산 및 고종양위 전후의 시기에 재야세력과 연계하여 의병봉기를 추진하였다.¹⁹⁾

고종세력은 고종의 전제적 황제체제와 동도서기적 사회체제를 지지하는 중앙정계의 근왕세력이었다. 이들은 외교노선면에서 대체로 강석호·김승민·민경식·이범진·민영환·심상훈으로 대표되는 반일·친구미파와 허위·이상천·정환직·이유인으로 대표되는 반외세 자주파로 구분된다. 극소수 인사를 제외하면,²⁰⁾ 이들은 갑오경장 후부터 경술국치 후까지 일제에 추종하지 않고 강력한 반일운동을 펼쳤던 충의세력이었다. 이들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발발, 한일의정서 및 을사조약의 체결, 고종퇴위 및 군대해산을 전후한 시기에 직접 재야세력과 연대하거나 혹은 측근의 밀사들을 재야로 파견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아울러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종의 국권수호방략에 따라 항일의병운동과 청원외교활동과 애국계몽운동을 동시에 추진하였고, 1905~1909년간 '義兵干連' 내지 '치안방해' 혐의로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어 엄한 문초를 받고 몇 달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국망기에 고종세력은 자신들이 직접 재야로 낙향하거나 혹은 휘하의 문객이나 수하들을 재야로 내려보내 재야세력과 연대하여 거의를 추진하였다. 고종세력은 고종의 지시에 따라 혹은 자신들의 자의에 따라 재야세력과 연대관계를 맺을 때에 자신들의 문객이나 수하들을 밀사로 동원하였다. 당시 고종세력의 밀사들은 ① 고종 명의를 밀지를 재야세력에게 전달하여 그들에

19) 후기 의병운동에 관여한 고종세력에 대해서는 오영섭, 『한말의병운동의 발발과 전개에 미친 고종황제의 역할』, 제3장 참조.

20) 閔宗植·閔炯植(남작)·張承遠·李容泰(남작) 등은 경술국치후 일제에 대한 타협노선으로 돌아섰다.

게 거의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고,²¹⁾ ② 전국 각지를 유력하며 거의촉구 활동을 폈으며, ③ 직접 군사를 모집하여 의병장에 올라 항일전을 치르기도 하였고, ④ 대규모 연합의진의 전략·전술과 재정조달을 책임지는 총독장·모사장·참모장·중군장·참모·종사 등직을 맡았다. 따라서 한말의병운동은 재야세력만의 자발적·독자적 항일민족운동이 아니라 중앙의 고종세력과 긴밀한 연계하에 조직적·연합적으로 추진된 항일민족운동이었다.

고종세력의 창의활동의 결과 전기 의병운동기에는 文錫鳳·鄭寅義·柳麟錫·盧應奎·李昭應·閔龍鎬·金河洛·崔文煥·奇宇萬·許蔦·李麟榮 등 유명한 의병장들이 고종세력과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鄭喬는 아관 파천 직후 정동파 내각이 의병해산령을 발포하자 “이보다 앞서 각처 의진은 모두 밀착(밀지)을 받고 일어났다”고 설교하였다.²²⁾ 또한 후기 의병운동기에는 元容八·鄭雲慶·李康季·高光洵·金東臣·沈南一·安圭洪·奇參衍·蔡應彦·李範允·安重根·申丕石·柳麟錫·柳弘錫·崔益鉉·金道鉉·鄭煥直·鄭鏞基·朴箕燮·盧應圭·安重根·閔宗植·李麟榮·盧炳大·許蔦·李殷瓚·金賢峻·李紹榮·車晟忠 등 기라성 같은 항일의병장들이 고종세력의 창의독려 및 창의후원 활동의 결과로써 일어났다. 이들 항일의병장들은 향촌에 내려온 고종세력이나 그들의 밀사로부터 고종의 밀지나 혹은 밀지에 준하는 내락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거의하였다.

요컨대 갑오경장 후부터 경술국치 전까지 전국 각지에서 의리심과 애국심과 항일의식에 따라 거의를 준비중이던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중앙의 구국세력인 고종세력과 연대하여 창의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말의병운동은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의 합작품이었다.

21) 고종세력의 수하나 문객들이 소지한 밀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吳瑛燮, 『韓末 義兵運動의 勤王的 性格』, 68-72, 87-93쪽.

22) 鄭喬, 『大韓季年史』上, 國史編纂委員會, 1957, 139쪽.

4. 고종세력의 항일의병전략

한말의병운동 당시 고종세력은 재야세력의 창의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독려했다. 그리하여 지방 각지에서 수많은 항일의병장들이 고종세력과 연대하여 활동하였고, 나아가 고종세력의 밀사들이 의진의 직임을 맡아 직접 의병활동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이때 고종세력이 정략적 동기와 개인적 사유 때문에 재야세력을 봉기시켜 그들을 일본군의 총알받이로 내몰았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역사해석이다. 고종세력이 전투력과 조직력과 자금력이 빈약한 재야세력을 봉기시키려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그들 나름의 항일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강렬한 구국의지의 소유자들인 고종세력은 상비군이 부족한 대한제국의 사회현실을 타개하고 그들의 최종목표인 국권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병과의 연대활동에 주력하였다.

고종세력은 청국과 러시아를 연이어 격파한 신흥강국 일본의 강대한 무력을 간파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동학농민항쟁 때 근대식 연발총으로 무장한 2천여 명의 '東學黨征討軍'이 구식 화승총과 죽창으로 무장한 20만 명의 동학농민군을 무난히 진압한 사실을 직접 목도하였다. 따라서 일본군의 실력을 익히 알고 있는 고종세력이 무기와 훈련이 빈약한 수백명의 재야의병을 지방 각지에서 모집하여 의병진을 구성시킨 근본의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따져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고종세력은 중앙에서의 항일운동을 성사시키는데 필요한 유리한 분위기를 지방에서 조성하려는 聲東擊西戰略에 따라 재야의병과 연대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일본군과 친일파를 구축하고 왕권(황권)과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고종세력은 다양한 항일구국방략을 동원하였다.²³⁾ 이러한 항일방략은 외침의 강도가 약했던 전기 의병운동기에는 국권회복보다 왕권회복을 중시했던 반면,

23) 갑오경장기 고종의 왕권회복운동에 대해서는 吳瑛燮, 『甲午更張 中 高宗의 王權恢復運動』, 1-79쪽.

국가존망이 결판난 후기 의병운동기에는 왕권회복보다 국권회복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었다. 아쉽게도 실패로 끝난 고종세력의 항일방략의 핵심은 균세외교와 의병운동이었고, 대한제국 멸망 직후인 1910년대까지도 지속된 것은 파천운동과 의병운동이었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것은 고종세력이 수행한 핵심적 항일방략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각개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연관하에 거의 동시에 펼쳐졌다는 점이다. 이때 표리일체의 관계를 가진 외교투쟁으로서의 均勢政策과 무장투쟁으로서의 義兵戰爭은 고종세력의 항일방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국망기에 지방 각지에서 대규모 항일의병을 봉기시켜 일본군과 친일파를 구축하려 했던 고종세력의 항일의병전략의 궁극목표는 두 가지였을 것이다. 하나는 만국공법의 균세론에 따라 구미열강 상대의 국권수호외교를 성사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²⁴⁾ 다른 하나는 구미공사관으로 파천하거나 국내외 모처로 망명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항일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종과 그 측근들은 전국 각지에 밀사를 파견하여 의병을 봉기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동시다발적인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게 하였다. 이때 다양한 재야세력 가운데 의병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만이 고종세력과 연계하여 그들의 항일전략을 숙지하거나 파악한 상태에서 활동했을 뿐이며, 하층민을 포함한 나머지 대부분의 의병세력들은 고종세력의 항일전략과 상관없이 생존권 확보의 차원에서 의병활동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자의 만국공법의 균세론에 입각한 국권수호외교와 항일의병운동과의 관련성을 일제는 아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閔宗植은 1905년 11월 체결된 日韓新協約에 반대하여 지방에서 폭도를 일으켜 한국 全土를 소요의 불바다로 만들어 列國의 간섭을 불러일으켜 일

24) 고종의 만국공법에 입각한 균세외교에 대해서는 姜相圭, 『高宗의 對外觀에 관한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오영섭, 『개항후 만국공법 인식의 추이』, 『東方學志』 124, 2004.

본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획책했다.²⁵⁾

폭도 중 거괴 沈南一·姜武景·安桂(圭)洪·林昌模 등의 일당에 이르러는 약간 그 趣를 달리하여 엄히 부하의 비행을 계획하고 약탈을 금하여 오로지 韓民을 선동하여 폭동의 영속과 도당의 강대만을 힘쓴다. 이리하여 그 목적하는 바는 이 폭동의 영속·항구는 실로 일본의 대한정책의 실패를 가져오게 하고, 統監정치가 그릇됨을 분명히 알게 하여 마침내는 列國으로 하여금 이를 容喙케 해서 한국의 독립을 安固케 할 수 있다는 망상을 품고 있다.²⁶⁾

즉, 일제는 한국의 항일의병장들이 서구 열강으로 하여금 일본의 대한 침략을 저지케 하려는 의도에서 한국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치열한 항일전을 치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고종파천운동(고종망명운동)은 일제의 병탄정책과 고종의 항일운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문제였다. 일찍이 을미사변후 친로파의 거두 이범진은 고종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공사 베베르와 함께 고종의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을 주도하였다.²⁷⁾ 동시에 이범진은 그 전략의 성사를 위한 성동격서전략의 일환으로써 국왕의 밀지를 지닌 밀사를 각지에 보내 재야세력의 거의를 고무·격려하였다.²⁸⁾

이번 사변(아관파천)은 러시아공사관의 후원에 의해 貞洞派인 즉 李範晉 등의 음모에서 나온 것은 명료한 사실입니다. 애당초 이범진 등이 먼저 春川 폭도를 誘起해서 비밀리에 이들과 기맥을 통하여 크게 일을 벌리려는 경황을 나타냈습니다.²⁹⁾

25) 『독립운동사자료집』 3, 『朝鮮暴徒討伐誌』, 673-674쪽.

26) 『韓國獨立運動史』 1, 國史編纂委員會, 1968, 806쪽.

27)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 [이범진 공사에 관한 러시아 외교자료], 슈뵘이에르공사-로바노프외무장관(1896.1.30), 외교통상부, 2003, 142-143쪽.

28) 吳瑛燮, 『乙未義兵運動의 政治·社會的 背景』, 238-251쪽.

2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 『親露派 李範晉 등의 음모에 대한 보고』, 143-144쪽.

각처에서 봉기한 폭도들은 원래 이범진 등이 춘천의 폭민을 선동한 데서 시작되어 새로 각처에서 만연된 것이며,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모두 국모를 위한 복수 또는 단발령에 대한 반항 등에서 일어났고 나아가서는 일본인 배척에까지 이른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범진 등은 이 틈을 타서 謀計를 써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³⁰⁾

당시에 민간에 나돌던 서울은 춘천의병이, 인천은 충청도의병이, 부산은 경상도 및 강원 남부 의병이, 원산항은 영동의병이 내습하기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다는 풍설은 의병운동과 파천운동의 상관성을 여실히 보여준다.³¹⁾ 이처럼 을미의병운동은 고종세력의 은밀한 반일활동과 지방유림과 하층민민의 강렬한 반일활동이 서로 맞물려 역사의 전면에 표출된 것이었다. 그런데 재야세력의 의병운동과 중앙세력의 항일전략이 긴밀한 연관하에 동시에 전개된 것은 후기 의병운동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후기 의병운동기에 고종세력은 전기 의병운동기의 의병전략을 다시 확대하여 원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러일전쟁 발발 전후에 고종세력은 대외적으로 전시중립을 선포하고 대내적으로 황제의 파천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1904~1910년간 고종은 불란서공사관이나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과 러시아로의 망명을 원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러일전쟁 발발 전후에 내관 姜錫鎬는 춘천으로, 별입시 吉永洙는 평양으로, 李根澤은 러시아공사관으로, 李容翊과 玄尙健은 불란서공사관으로, 李載純은 러시아나 불란서공사관으로의 파천을 주장하였다.³²⁾ 또한 고종은 1898~1910년間に 크고 작은 변란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러시

3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 『新政府의 現況報告』, 154쪽.

3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0, 『江原道 春川府 暴徒 蜂起件』, 232쪽. 오길보, 『조선근대반일운동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43쪽.

32) 『日本外交文書』, 37-1, #349, 『京城中立…皇帝播遷…件』, 319-320쪽, #519, 『韓帝의 露國公使館播遷說 情報件』, 440-441쪽, #533, 『韓帝佛國公使館播遷說…件』, 448쪽, #540, 『露國公使…來報件』, 454쪽; 幣元坦, 『日露間之韓國』, 100-101쪽.

아공사에게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과 러시아로의 망명을 타진하고 있었다.³³⁾ 이러한 고종파천운동은 후기 의병운동기에 궁내부대신 沈相薰의 사자 金顯峻의 의병활동을 이면에서 지원한 李相龍(相義)이 동지 李圭洪에게 “접때 興州(順興의 金教林·李康季) 일행의 뜻과 같이 과연 御駕가 대궐 밖으로 출동했는가”라고 물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³⁴⁾ 고종측근들과 의병지도부간에 모종의 교감하에 추진되고 있었다.

고종파천운동과 관련하여 한말 대규모 의병진의 기본전략인 서울진공작전도 고종파천운동의 구도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³⁵⁾ 양차의 의병운동기에 고종세력과 연대한 연합의병장들은 대부분 서울로 진공하여 일본군과 친일파를 몰아내자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의 무력을 뼈저리게 체험했을 뿐더러 거사 이전에 이미 패배를 예상하고 있었을 만큼 현실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운 도성탈환전은 표면적인 목표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연합의병장들의 궁극 목표는 일본군을 서울 외곽으로 끌어내 궁성 수비를 약화시키고, 그런 사이에 고종의 파천이나 이어를 쉽게 단행하려는 성동격서전략을 지방에서 후원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³⁶⁾ 게다가 후기 의병운동기에 춘천·제천·해주·속리산·지리산 등 지방 요충지에서 봉기한 의병들이 13도창의군과 같은 대규모 연합의병부대의 후미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일본군 수비대를 붙잡아두는 지연전략을 구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연전략도 크게 보아 고종파천운동의 구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3) 朴鍾淳 편역, 『러시아 國立文書保管所 所藏 韓國 關聯 文書 要約集』,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32-33, 101, 105, 279, 388-389, 405-406, 733쪽.

34) 李相龍, 『石州遺稿後集』, 『與洗心軒』 六.

35) 한말 13도창의군의 결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愼鏞廈, 『全國 '13道倡義大陣所'의 聯合義兵運動』, 『韓國近代民族運動史研究』, 一潮閣, 1988; 吳瑛燮, 『韓末 13道倡義大將 李麟榮의 生涯와 活動』.

36) 의병활동 중에 경상도의 鄭煥直·申芑石, 전라도의 安圭洪 등이 위로부터 “속히 (군대를 몰아) 올라오라”는 전갈을 받았던 것도 고종세력이 그러한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방증해 준다.

전·후기 의병운동기에 고종세력과 연합의병장들은 하층 인민들의 피어난 혈전을 배경 삼아 외국공사들과 구미 열강들의 반일·반전 여론을 환기시켜 일본의 대한침략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구미공사관이나 국내·국외의 모처로 고종의 이어를 단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각개적·분산적·고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한말 대규모 연합의병의 항일활동은 고종세력의 연합적·입체적·전략적인 구상에 따라 추진되었던 셈이다. 한마디로 국망기에 고종세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중앙에서의 국권수호외교 및 고종파천운동과 지방에서의 항일의병운동은 고종의 항일전략의 중핵임과 동시에 표리일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³⁷⁾

5. 평민의병장의 근왕적 측면

기왕의 연구에 의하면, 군대해산 이후에 평민출신의 민중의병장이 대거 출현함으로써 의병운동의 주도층이 양반층에서 평민층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측 자료에 수록된 의병장들을 통계처리하여 도출한 이러한 연구결과가 역사적 실상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① 대규모 연합의병의 연합의병장과 그 휘하의 의병장(중군장·선봉장·후군장·소모장·유격장 등)을 동급으로 분류하였고, ② 연합의병장의 피체·전사로 연합의병이 해체된 후 1~30명의 군사로 게릴라 활동중인 부대장을 적어도 수백명의 군사를 거느린 연합의병장이나 1~2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린 의병장들과 동급으로 처리하였고, ③ 1~20명 정도의 군사로

37) 동학농민항쟁 때에 平壤의 淸軍을 남하시키고 三南의 동학농민을 북상시켜 중앙의 일본군과 친일개화파를 토벌하려던 대원군파의 南北挾擊戰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李相伯, 『東學黨과 大院君』, 『歷史學報』 17·18합집, 1962; Lew Young Ick, "Korean-Japanese Politics behind the Kabo-Ulmi Reform Movement 1894 to 1895,"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3, 1981.

써 의병인지 화적인지 실체가 불분명한 반봉건·반일성 토색활동을 벌인 부대장들을 모두 의병장으로 간주하였고, ④ 일제의 효과적인 탄압작전 이후 등장한 소규모 게릴라 부대장들은 평민층의 신분상승 욕구나 반제의식의 확대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의병운동의 해체과정 내지는 독립군으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임을 간과했으며, ⑤ 신분과 이력이 불명하여 통계에서 다루지 못한 의병장이 많을 뿐 아니라 일본측이 공판조서에 '平民'으로 기록한 경우에도 사실상 평민이 아니라 주경야독하는 양반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 등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유념할 경우에 한말의병운동 당시 평민의병장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국망기에 대표적 평민의병장들은 그들의 신분이 평민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의병장에 오르는 과정과 그들이 벌인 의병활동의 전과정이 반드시 평민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차라리 고종세력이 평민의병장의 창의와 활동에 미친 영향을 깊이 따져보는 것이 평민의병장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유의할 것이다. 그런데 평민의병장들은 거의 대부분 창의록류의 문건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력이나 활동상을 깊이 파헤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한말 평민의병장으로 널리 알려진 申堧石·安圭洪·洪範道 3인과 고종세력과의 관계만을 간략히 논급하겠다. 이로써 평민의병장 이해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왕에 평민으로 알려진 신돌석(申泰鎬)은 사실 평민이 아니라 중인층인 향리의 후예였다.³⁸⁾ 더욱이 그는 부친의 재력을 바탕으로 이웃마을의 진성 이씨가 설립한 양반서당에서 양반들과 같이 수학한 양반급 향리였다.³⁹⁾ 신돌석이 의병활동에 착수하자 부친 申漸柱는 처음에는 쌀 100섬을 가져왔다가 종내에는 전재산을 내놓았다고 한다.⁴⁰⁾ 이러한 사실들은 신돌석 가문이

38) 신돌석에 대해서는 김정미, 「한말 경상도 영해 지방의 의병전쟁」, 『大邱史學』 42, 1991.

39) 李炳國, 「挽申舜卿」, 『敬山文集』.

40) 김희곤, 『신돌석: 백년만의 귀향』, 푸른역사, 2001, 34쪽.

영해지방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남다른 호협성과 무용성 외에도, 바로 이러한 가문배경이 신돌석의 의병활동의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신돌석은 1906년 4월 6일 영해에서 100여명의 군사로 일어나 1908년 10월까지 영해·양양·평해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했다. 그런데 신돌석의 창 의는 고종세력의 구국의지와 영해지역 재야세력의 항일열기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였다. 즉, 신돌석은 고종세력인 정용기-정환직 부자와 金顯峻-李相龍의 양면적인 후원과 지도에 힘입어 거의했던 것이다. 을사늑약 후 어전에서 밀지를 받은 정환직은 아들 정용기에게 거의를 당부했고, 1906년 1월 귀향한 정용기는 측근 정순기를 통하여 인근의 우국지사인 신돌석에게 거의를 독려하였다. 1905년 8월 대궐에 들어가 고종의 밀지를 받은 김현준은 경상도로 내려가 이상룡·李圭洪 등과 거의를 도모했고, 안동의 이상룡은 주변의 무용가인 신돌석의 거의를 후원하였다.⁴¹⁾ 따라서 신돌석의진은 밀지를 소지한 연합의병장과 재야유력자의 독려와 후원을 받고 뒤늦게 일어난 군소의진이었다. 또한 신돌석의진에 신분과 권력이 신돌석을 능가하는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것도,⁴²⁾ 기왕의 주장처럼 영해지방에서 신분차별이 해소된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신돌석이 고종세력의 대리인인 정용기나 이상룡에게서 의병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인물이기 때문이었다.⁴³⁾ 따라서 앞으로는 신돌석의 평민성·豪勇성과 고종세력의 근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여전히 신화에 휩싸여 있는 신돌석의 의병활동을 사실 그대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41) 李圭洪, 『洗心軒日記』, 乙巳-己酉年條; 李濬衡, 『先府君遺事』, 『石洲遺稿後集』. 이상룡은 1909년 2월 안동경찰서에 끌려가 의병과의 연결을 호되게 추궁당하였다.

42) 신돌석의진에는 1901년 내부주사를 지낸 白南壽를 비롯하여 務安 박씨·載寧 이씨·大興 백씨 등 영해지방의 양반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김정미, 『한말 경상도 영해지방의 의병전쟁』, 49-52쪽.

43) 신돌석이 장가갈 때에 양반 복장을 했다는 이유로 인근의 양반들에게 봉변을 당한 일은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제가 호남지방의 '폭도 거괴' 가운데 전해산·심남일과 함께 첫째가는 인물로 꼽은 전남 보성의 安圭洪(안담살이)은 양반가에서 품팔이를 해가며 모친을 모신 평민이었다. 그는 을사조약의 체결을 개탄하며 거의를 도모하다가 주변의 머슴꾼들을 규합하여 1908년 2월 의병을 일으켰다.⁴⁴⁾ 그런데 안규홍의병의 결성과 활동은 보성의 유력자이자 우국지사인 安極과 朴南鉉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福內面의 참봉 안극과 彌力面의 참판 박남현은 무용이 뛰어난 안규홍을 적극 후원하여 거의시키고 배후에서 군수품을 제공하였다. 특히, 안극은 평소 도적방비를 위해 양성하고 고용한 家兵 100여명을 안규홍에게 주었고, 자가의 토지까지 팔아서 안규홍의병의 군수품에 충당하였다. 그래서 안극은 '숨은 의병'이라는 평을 받았다.⁴⁵⁾ 이때 안규홍은 후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극의 강학소인 一松亭에 불을 지르고, 안극의 가택을 습격하여 그를 포박하고 군수전을 탈취하며 거짓 협박을 가했다고 한다.⁴⁶⁾

안극은 전남관찰사를 지낸 다음 고종의 대외청원외교에 진력한 별입시 閔泳喆과 친한 사이이며 의병장 민공호와 죽마고우 사이였다.⁴⁷⁾ 그는 부인이 여흥 민씨 閔胄顯의 손녀였던 관계로 여흥 민씨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었다.⁴⁸⁾ 그가 1905년 10월 상경하여 민영철을 만났을 때에 민영철은 자신의 보검을 내보이며 사용할 곳이 없음을 한탄했는데,⁴⁹⁾ 사실상 이때 양인은 거의를 모색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상술하면, 민영철이 고종의 지시에

44) 洪英基, 『大韓帝國時代 湖南義兵 研究』,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129-132쪽.

45) 全羅南道史編纂委員會 編, 『全羅南道史』, 1956, 812쪽.

46) 『全羅南道史』, 812쪽; 『寶城群鄉土史』, 湖南文化, 1974, 278-283쪽. 또한 장흥의 嚴萬五, 고흥의 宣亨洙, 보성의 李元淑·李鎰 등이 안규홍에게 군수품과 군자금을 제공하였다.

47) 安極, 『晦隱集』, 권1, 『閔雲沙壽序』, “既切竹馬之交 又勳帛鷹之托”.

48) 安極, 『晦隱集』, 권4, 『行狀』.

49) 安極, 『晦隱集』, 권1, 『哀閔松西泳喆台疾逝于中國』. 을미의병운동 때에 민영환은 문석봉에게 자신의 보검을 내주며 거의를 당부했는데, 문석봉은 이를 소중히 품고 있다가 임종 때에 관에 넣어달라고 말했다. 文永井, 『家狀』, 『義山遺稿』, 권4.

따라 국내외에서 벌이고 있는 대외청원활동을 성원하기 위해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것이 안극의 임무였을 것이다. 朴南鉉은 1904년 8월에 설립된 충의사의 회원인데, 충의사는 허위·이상룡 등 항일의병장들이 여러 가담한 항일단체였다.

안규홍의병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吳周一과 최익현의 영향으로 거의한 廉在輔가 있었다. 전자는 서울에서 수십명을 거느리고 보성으로 내려와 안규홍이 창의한 직후에 합류하였다. 그런데 안규홍의병의 전략과 전술은 대부분 병법에 해박한 오주일의 지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⁵⁰⁾ 이를 보면 오주일은 고종세력이 군사학에 정통한 인사에게 자금과 군사를 주어서 특별히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오주일이 데려온 청년들의 군수비나 고용비는 보성의 부호나 서울의 고종세력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는 1906년에 곡성에서 최익현을 만나 거의를 맹세한 다음 최익현의병의 격문을 사방에 전달하였고, 1908년 봄에 안규홍을 主將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副將이 되었다.⁵¹⁾

홍범도는 1907년 11월경 차도선과 함께 관북지역의 삼수·갑산·북청 일대를 무대로 활동한 평민의병장이다.⁵²⁾ 관북지방의 의병운동은 군대해산 후 개성진위대 병사 출신의 尹東涉이 군인 27명을 거느리고 함남 영흥 황천면에 이르러 의병을 조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⁵³⁾ 이때 차도선이 운동섭의진에 일시 참여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차도선·홍범도의진은 서울에서 내려온 운동섭의 활동에 자극받아 일어난 의병이었을 것이다. 당시 일본측은 관북의병이 일어나기 직전에 강원·경남관찰사를 지낸 별입시 朱錫晷(회령인)이 강원·함경도 지역을 왕래하며 의병봉기를 부추긴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⁵⁴⁾

50) 安圭洪, 『澹山實記』, 『독립운동사자료집』 3, 325, 329, 338-349쪽.

51) 『寶城群鄉土史』, 279-280쪽.

52) 愼鏞度, 『洪範道 義兵部隊의 抗日武裝鬭爭』,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1986.

5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리인섭의 편지』,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洪範道篇』, 1995, 36쪽.

그런데 1908년 3월 12일(음2/10) 차도선·홍범도의병이 임강현의 대노야 앞으로 보낸 무기요청 서한의 말미에는 차도선·홍범도의병의 근왕적 성격을 알려주는 비밀이 담겨있다. 즉, 거기에는 “義陣. 謀事將 朴忠保·都大將 車道善·副大將 洪凡道·右大將 梁鳳翊·左大將 太陽旭” 등 의진의 직임과 임원의 성명이 부기되어 있었다.⁵⁵⁾ 이때 의병장 차도선·홍범도보다 상위 서열에 위치한 모사장 朴忠保는 미지의 인물인데, 그 직책으로 보아 북청 의병의 전략과 전술을 통괄하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마 그는 金顯峻(영남·충북)·金斗星(연해주)·劉秉淇(호남)의 경우처럼 고종세력의 밀사로서 관북지방의 의병을 이면에서 지도하고 후원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6. 병사층의 지향과 군자금 문제

한말의병의 다양한 참여세력들은 외세배격이 선결과제라는 민족적 위기의식에 공감하여 연대관계를 맺었다. 이때 다양한 의병세력을 대표하는 고종세력과 유림집단과 평민세력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지향을 보였다. 즉, 충군애국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그들의 표면적 연대관계의 이면에 깔린 궁극적 지향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체로 고종세력에게는 친일파를 척결하고 신정부를 수립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유림층과 해산군관에게는 강력한 의리심과 애국심에 따라 일본세력을 물리치려는 사상적 동기가, 평민층에게는 의병에 참여하여 급료를 제공받으려는 경제적 동기가 보다 강하게

54) 崔永禧, 『韓末 官人の 經歷一般』, 『史學研究』 21, 1969, 411쪽. 주석면은 별임시 閔景植의 문객이자 고종 측근인 李容翊과 결의형제 사이였다.

55)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1974, 1083쪽; 『統監府文書』 5, 『淸國에 舉事協助 要請 書翰』, 199쪽.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명한 항일의병장, 일부 척사·혁신유림, 전직 군관 등 비교적 사상성과 애국성이 투철했던 우국지사들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의병세력들은 다소간 권력욕과 공명심과 생존투쟁을 위해 거의 활동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⁵⁶⁾

한말의병운동의 실질적 무력기반은 포군과 해산군인들이었다. 이들은 전·후기 의병운동기에 친일개화파와 일제의 군대해산 조치에 따라 실직상태에 있다가 고종세력과 유림세력의 소모에 응하여 의병에 참여하게 되었다.⁵⁷⁾ 이들 가운데 일반 포군은 대체로 '포군명부'나 '포수안'에 등록되어 지방관아와 포군지도부의 통제를 받았고, 이들을 관리하는 포군지도부는 한말의병운동시에 고종세력의 집중적인 포섭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기왕의 연구와 달리 해산군인들이 후기 의병운동뿐만 아니라 전기 의병운동기에도 포군과 함께 병사층의 주축세력을 구성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이외에도 각지의 유력자들이 비적 방비를 위해 별도로 양성한 사병이나 家兵도 포군이나 해산군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말의병운동시에 병사층(해산군인 포함)은 일정한 의식의 정향이 없이 자신들의 전투능력의 대가만 주어진다면 그 보수에 따라 행동하는 용병적 성향을 지닌 군대였다.⁵⁸⁾ 물론 고종세력과 유림의병장의 애국정신에 감화되거나 혹은 일제의 대한침략을 규탄하는 의분심에 따라 일부 포군이나 해산군인들이 보수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의진에 가담하여 활동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대체로 병사층의 의병참여는 자발적 참여보다는 의병지도부의 강제소모와 징발에 의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렇지 않으면 다액의 급료를

56) 이러한 문제인식에 착목한 연구로는 이상찬, 『갑오개혁과 1896년 의병의 관계』, 『역사연구』 5, 역사학연구소, 1977; 吳瑛燮, 『華西學派의 思想과 民族運動』, 國學資料院, 1999, 제4장 제2절 참조.

57) 1895년 윤5월과 7월의 지방병 해산조치와 1907년 8월 군대해산, 9월 '총포급화약류단속법'의 제정은 해산군인들의 의병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58) 趙東杰, 『獨立運動의 韓國民族主義上的 位置(上)』,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지식산업사, 1986, 18쪽.

받기 위해 의병진에 투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이른바 의병정신은 평민 병사층의 민중성이나 반제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사·옥사한 항일의병장들과 척사·혁신유립 및 해산군관들의 충군애국론에 기반한 의리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말의병운동 당시 병사층이 자신들의 무장활동의 대가로서 일정한 급료를 받았던 사실은 일반적 현상이었다. 전기 의병운동기에 병사층은 정부가 의병운동 직전과 직후에 防盜를 위해 설치한 別砲軍들보다 상당히 많은 급료를 받았다. 1894년 9월경 경무청 구식포졸의 급료가 쌀 반가마였고, 12월경에 설치된 入直兵丁의 식료가 1인당 9냥이었고, 그리고 중앙군대인 제1훈련대의 급여가 1인당 9냥에 上白米 6말이었다.⁵⁹⁾ 또 1896년 3~6월경 각기 청도군수와 경주군수가 비도 방비를 위해 설치한 별포군들은 월 10냥 정도를 식료로 지급받았다.⁶⁰⁾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포졸들과 포군들은 대략 한달에 대략 10냥 정도를 급료로 받았다.

이에 반해 을미의병 가운데 노응규의 진주의병의 경우 일반 포군은 1인당 월 27~28냥 정도를, 요해처를 방수하는 포군은 월 54냥 정도를 받았고,⁶¹⁾ 청송의병의 포군은 매일 45냥 정도를 받았으며,⁶²⁾ 민용호의 강릉의병은 아마 민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한달에 약 18냥을 지급한다고 선전하였고,⁶³⁾ 제천의병의 민방위부대인 민군이 일률적으로 10냥을 지급받은

59) 『公文編案 要約』 1,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112·119·132쪽.

60) 『公文編案 要約』 1, 416, 647쪽; 『公文編案 要約』 2, 24·250쪽.

61) 진주의병장 노응규는 보통 포군들에게 한달에 엽전 2관문(20냥)과 쌀 6말을 급료로 지급했고, 또 요해처를 지키는 포군에게는 하루에 1냥 8전씩을 지급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249-250·265쪽.

62) 權大雄, 『1896년 靑松義陣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9, 1998, 59-60쪽. 청송의진의 포군은 매일 1냥 5전을 받았다.

63) 강릉의병의 포군들은 매일 쌀 두되와 엽전 30문을 받았다. 강릉의병장 민용호는 비용절감을 위해 武士廳을 폐지하려 했으나 武士들이 모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하에 급료를 30% 삭감하였고, 砲領將에게 포군급료의 50% 삭감을 제시하여 40%를 깎았다. 閔龍鎬 著, 李泰吉·閔驥植 共譯, 『復齋集』, 278-279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江原道 新坪場에 集合한 暴民의 情況』, 227쪽.

것으로 보아⁶⁴⁾ 유인석의 제천의병 포군들은 민군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높은 급료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을미 의병에 참여한 포군들은 군대해산 이전 및 아관파천후 지방 각지에 배치된 포군들에 비해 대략 3배 이상의 높은 급료를 받았던 것이다.

후기 의병운동기에도 병사층은 무장활동의 대가로 일정한 급료를 받았다. 호남의병장 가운데 최익현은 포수들에게 하루에 40전, 즉 한달에 12냥 정도를 급료로 지급하였고,⁶⁵⁾ 심남일은 병사들에게 1일 엽전 100문 즉 한달에 30냥의 급료를 지급했고,⁶⁶⁾ 전해산도 “(도주한 군사들에게) 이미 지급한 돈만 전후로 40냥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급료를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⁶⁷⁾ 황해도의 李鎭龍은 병사들에게 직임에 따라 6원부터 12원까지 급료를 차등있게 지급하였다.⁶⁸⁾ 그리고 맥켄지가 원주에서 만난 6명의 의병 가운데 3명은 ‘품팔이꾼’이었으며, 의병장은 각지의 부호가 회사한 군수 전으로 병사들을 모았다.⁶⁹⁾ 또한 허위는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 고종의 측근인 鄭煥直에게서 2만냥을 받아 우선적으로 떠도는 군인들의 생계유지비로 지급하였다.⁷⁰⁾ 이 외에도 수많은 의병들이 그들의 의병활동의 대가로 급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병사층의 급료수령 문제는 그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을미의병 당시 경북 청송의병들의 발언을 보면 병사층의 의병참여 동기가 경제적 동기에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본 읍이 창 의 초에 군인의 급료로 매월 1냥 5전을 준 것은 軍心을 수습하고 병정을 모집할 계책이었다. 그러나 이제 군대의 수가 10哨(1초 : 10

64) 張益煥, 『日記』, 112-113쪽.

65)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177쪽.

66)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12, 662-663쪽.

67) 全垂鏞, 『全山海陣中日記』, 『독립운동사자료집』 2, 503쪽.

68)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15, 569쪽.

69) F.A. 맥켄지 저, 이광린 역, 『韓國의 獨立運動』, 일조각, 1969, 116-117쪽.

70) 韓國學文獻研究所 편, 『國譯 許蔞全集』, 아세아문화사, 1985, 91쪽.

명)나 되니 용도가 날로 궁색해져 부득이 각 영에서 하나같이 급료를 감하여 軍料를 1냥으로 정하였다. 하루는 100여명의 포군이 일제히 나아가 호소하기를, “소인 등이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의진을 쫓은 것이 오늘로 한 달이 넘었는데, 약간의 日料에서 남는 것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양육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이처럼 급료를 감하여 소인들의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소인 등은 의거에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곧 행장을 꾸려 강을 건너 백사장에 結陣하였다. 그 때문에 군문 집사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타일러 돌아오게 하니, 또 解陣하여 곧장 靑雲으로 올라가 집사에게 총을 쏘겠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 죄상을 추궁하면 창끝을 돌릴 병정이 다수 있을 것 같으니, 가령 서둘러 경계할 일이 있을 때에 어찌 한 사람의 병정인들 우리를 따르려 하겠는가.⁷¹⁾

의병군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고종세력이나 재야의병장이 창의를 모색할 때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포군의 급료와 군수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전기 의병운동기에는 부호들이 희사한 자금과 관청에서 탈취한 公貨를 군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후기 의병운동기에는 고종세력의 군자금과 친일적 부호·관료·관청의 재산을 탈취하여 군자금으로 이용하였다.⁷²⁾ 이때 고종세력의 군자금은 일정 지역의 재야세력으로 하여금 의병부대를 모집·구성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그것은 장기간 무장군사활동을 지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그들이 내놓은 거액의 자금이 의병운동 발발 직전과 직후에 이미 병사모집비, 군수품 마련비, 병사급료 등으로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이었다.⁷³⁾ 이로 인하여 의병진이 구성되어 본격적

71) 金喜坤·權大雄 편, 『赤猿日記』, 『韓末義兵日記』, 국가보훈처, 2003, 322-323쪽.

72) 후기 의병운동기에 의병장 閔宗植·申堧石·金道鉉·鄭鏞基·林炳讚·梁漢奎 등은 가산을 기울려 군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73) 1908년 겨울 1만여명의 군세를 자랑했던 13도창의군의 군수비와 1909년 2월경 경기 북부의 이은찬·윤인순·정용대부대와 강화의 池洪一부대가 소지했던 550여정의 최신식 서양무기 구입비 등은 고종의 내탕금이나 고종측근들의 특별지원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統監府文書』 6, 『暴徒首領 李殷瓚…等 武裝出現 件』, 16-17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12: 義兵篇V』, 409, 625-626쪽.

군사활동에 돌입한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군사들의 유지비와 급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병사층의 급료 및 군수비 마련문제는 한말의병운동시의 수많은 의진들이 어찌하여 친일적 관군과 일본군에 대한 공격보다도 지방관아 및 친일파·요호가·벌열가에 난입하여 그들로부터 군수전을 탈취하는데 주력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나아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平時보다 적어도 2~3배 이상 지급하는 고액의 급료도 병사층을 의진으로 불러들이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해 병사층에게 들어가는 막대한 액수의 급료와 운용비를 먼저 확보해야만 의진의 운영과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고비용체제는 한말의병운동의 민중적 내지 반봉건적 성격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7. 맺 음 말

여기서 선보인 한말의병운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반영된 기본관점은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 장구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역사적 경험이 국망기의 민족운동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위에서 논급한 내용을 토대로 한말의병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계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간략히 짚어 보겠다.

첫째, 한말의병운동은 재야세력만의 자발적·독자적인 반일민족운동이 아니라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한 반일민족운동이었다. 기왕에는 민족주의적 연구경향과 평민주의적 연구경향을 막론하고 모두 유림층(혁신유림·척사유림)·해산군인·포군·농민·보부상·임노동층 등으로 구성된 재야세력이 의병운동을 주도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말의병운동의 태동과 전개에는 재야세력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권력주체인 고종

세력(고종황제와 그 측근)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한말의병운동은 갑오경장 이래 역사의 전면에 분출되기 시작한 재야세력의 항일의지와 국권과 군권 및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강렬히 항일활동을 펼쳤던 고종세력의 구국의지가 맞물려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말의병운동은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의 합작품이었다.

둘째, 고종은 한말의병운동을 이면에서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후원한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기왕에는 유림층과 민중층의 자발성과 순수성만을 강조하느라 의병운동의 발발과 전개에 미친 고종의 활약상과 영향력을 애써 무시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국가의 명운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일제의 협박과 감시에 대항해 가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고종은 구미 열강을 끌어들이어 일제를 견제하려는 중립화정책을 행하고, 구미 열강과 주한 외국공사관 및 국제회의에 청원특사를 파견하고, 주한 외국공사관이나 해외로의 망명을 추진하고, 측근을 파견하여 재야세력의 창의를 촉구하였다. 이처럼 고종은 외교투쟁·파천(망명)운동·의병운동 등 한말 민족운동의 주요 흐름들을 선도해 나갔다. 이때 여러 흐름들은 거의 동시에 다각도로 추진됐는데, 그 가운데 청원외교와 파천운동과 의병운동은 고종의 항일방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셋째, 고종세력의 항일구국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권수호외교나 국왕 파천운동을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고종세력은 일본군과 친일파를 한반도에서 구축하기 위해 밀지나 마패를 지닌 밀사를 지방 각지에 보내 재야세력의 거의를 촉구했다. 그들은 재야에서 봉기한 항일의병이 인근에 주둔중인 일본군 수비대의 적수가 못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방의병의 치열한 항일전을 배경삼아 열강 상대의 청원외교나 고종의 파천을 성사시킴으로써 일제의 대한침략을 막아내려는 그들 나름의 웅대한 항일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고종세력은 지방의병이 항일활동을 벌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중앙에서 고종파천운동이나 균세외교정책을 성사시키려는 聲東擊西戰略을 구사하고 있었다.

넷째, 고종 명의를 밀지와 고종세력이 파견한 밀사들의 활동은 한말의병운동의 연합화·전국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재야의 항일의병장들이 대단히 중시한 밀지나 밀사의 내락은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그것들은 유교적 전제군주제 국가인 대한제국에서 재야세력이 의병활동을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필수조건이었다. 그래서 전·후기 의병운동을 대표하는 수많은 의병장들이 모두 고종세력에 게서 밀지나 내락을 받은 다음에 거의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일정 지역에 창의소를 차려놓고 소모관을 통하여 창의격문과 밀지 사본을 인근에 보냄으로써 의병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였다. 나아가 밀지를 받은 의병장이 밀지의 사본이나 창의격문을 받고 뒤늦게 봉기한 주변의 군소의병장들을 통합함으로써 대규모 연합의진을 형성하였다.

다섯째, 한말의병운동 당시 이른바 평민의병장들이 고종세력과 밀접한 연관하에 활동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민의병장을 대표하는 신돌석·안규홍·홍범도 등은 모두 고종세력의 도움이나 지도를 받고 있었다. 신돌석은 정환직·정용기 라인과 김현준·이상룡 라인을 통해 이중으로 고종세력의 영향을 받았다. 안규홍은 민영철-안극·박남현 라인을 통해 고종세력의 지도와 후원을 받았다. 홍범도는 경성인으로 추정되는 박충보로부터 전략과 전술을 지도받았다. 이 외에도 문헌으로 확인 불가능한 많은 평민의병장들도 위의 인사들과 대동소이했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 의병장의 신분상의 평민성만을 가지고 그들의 의병운동 성격을 평민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해석이다. 차라리 고종세력의 근왕성과 평민의병장의 평민성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의병운동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첩경일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4. 6. 28,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한말의병운동, 고종, 고종세력, 밀지, 국왕파천전략, 국권수호외교, 평민의병장, 포군, 해산군인

<ABSTRACT>

The Influence of Gojong Forces on the Righteous Army Movement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Oh, Young-sob

This Research on the Righteous Army Movement (RAM), has been, by-and-large, divided into two tendencies. One is a nationalistic inclination, which focuses on the Chief of the Righteous Army, while the other is a popular-oriented one, centered on the commoner participants. There is, of course, research that alternates between the two tendencies. The two tendencies, however, constitute the mainstream, with the former mainly focusing on Yangban,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nd retired military officials; and the latter on mercenaries, retired soldiers and tenant farmers. There is another distinction between the two: the former with case studies on anti-Japanese activities of the Chief of the RAM, who was active in certain areas and the ideology of the Righteous Army and the latter with analysis on the socio-economic direction of commoners and their anti-imperialism and anti-feudalism. Despite the discrepancy in their perspectives, both studies focus on activities of people out of office and argue, with one accord, that it was the commoner chiefs who had led RAM since disbandment of the regular army.

The two research tendencies focusing on the RAM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have left behind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y have failed to pay attention to the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non-governmental forces in accounting for the genesis, evolvement, objective

and characteristics of RAM. Second, they have disregarded the fact that RAM was closely linked to such movements by central forces as the Emperor's Refuge, Neutralization of Korea, and Diplomatic Petition beyond simply armed resistance of non-governmental forces. Third, they have failed to analyze the discrepancy of policy lines and interests among different groups and strata participating in RAM. Fourth, by putting too much weight on regional case studies, they have not done an adequate job in uncovering the general evolution and characteristics of RAM and their impact on future RAMs. Fifth, they have overlooked the continuity and common characteristics of RAM by overrating changes in features of RAM that took place for a mere 20 years. Due to the above reasons, these two research tendencies have rarely examine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RAM.

This paper is a criticism of and supplement to these two research approaches; and, especially important, it has been discovered for the first time, that Emperor Gojong and officials around him, as well as people out of office, brought substantial impact on the initiation and development of RAM. It has also made clear that the renowned chiefs of RAM did not raise an army exclusively on their own initiatives, but through coordination with Emperor Gojong and his aids. Further, it reveals the depth to which an emissary or secret orders, the medium representing the authority of central force, could play such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forces. In sum, this paper provides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mechanism of initi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AM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 Righteous Army Movement, Emperor Gojong, Gojong Forces, Secret Orders, Emperor's Refuge Movement, Diplomatic Petition Movement, National Sovereignty Protection Movement

6·25전쟁 아나바시스

- 장군들의 회고록에 관한 연구 -

程 土 雄

(육군사관학교 교수)

1. 서 론
2. 전쟁회고록의 유래 : 『아나바시스』와 『갈리아 전기』
3. 6·25전쟁 회고록 현황
4. 네 장군들의 회고록 : 이응준, 이형근, 유재홍, 백선엽
5. 결 론

1. 서 론

回顧錄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일생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살아 온 행적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으로서 역사가들이 매우 귀중하게 취급하는 역사자료이다. 回顧錄은 비교적 잘 선택된 중요한 진실들과 다른 자료에서 찾기 힘든 역사적 사실들을 담고 있어 역사가들은 그것을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해 왔다. 이 논문은 韓國戰爭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회

고록 가운데서 특히 한국인 장군들이 남긴 회고록에 관한 연구이다. 목적은 전쟁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장군들의 회고록 가운데 몇 권을 선택하여 상호 비교조사하고 회고록의 특징을 살펴봄과 동시에 6·25전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있다.

회고록을 읽을 때 우리는 집필자의 생애와 업적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집필자가 주로 어디에 역점을 두고 집필한 것인지 그리고 집필자 자신이 균형감각을 갖고 역사적 사건들을 집필했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타진하면서 읽어야 한다. 역사 사건을 대할 때 우리는 狀況이 중요한가 아니면 人物이 중요한가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사건이 전개된 상황과 주요인물의 역할을 함께 놓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均衡感覺을 잃고 사건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회고록 집필자는 과연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자신이 취한 행동과 역할을 생생하게 기록했는가? 만일 집필자 자신이 상황을 대국적으로 또는 지엽적으로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또는 회고록을 집필하는 순간까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면 그의 회고록에서 우리는 사건의 본질과 정확한 진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쓴 회고록에 중요한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부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회고록은 일반독자 아닌 집필자 자신이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하여 답변하는 일기나 수필과 같은 성격이 다분해서 집필자의 주관과 가치관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못을 말하기보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고 자기 공적을 과시하려는 욕심이 앞서거나, 상황보다는 자기역할 위주로 사건을 관찰하기 십상이라는 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회고록을 읽을 때는 다른 사람 회고록과 그밖에 다른 歷史資料를 참고하고 교차 검증하면서 歷史的 事實을 정확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비판적인 역사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관심사항은, 어떤 상황이 왜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특정 인물이 내린 결정이 잘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평가하는 일이다. 주요인물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는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한 현명한 결정을 내렸는가, 아니면 상황을 악화시킨 우둔한 결정을 내렸는가, 아니면 운이 좋았는가, 아니면 불운이 겹쳤는가 등이다.

2. 전쟁회고록의 유래 :

『아나바시스』와 『갈리아 전기』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거 회귀본능이 있고 특히 노년기에는 그 경향이 강하다. 노인들은 체력과 정신력의 현저한 쇠퇴를 느끼면서 자신의 무력해진 현재보다는 '화려한 과거'를 생각하며 자기만족을 찾거나 위로 삼으려고 한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에게 과거 경험담과 함께 '왕년에' 한가락 했다는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한다. 뜻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말로써만 만족하지 않고 글로써 자기경험을 직접 집필하거나 또는 인터뷰를 통한 대필로서 회고록을 남겨왔다. 回顧錄을 집필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죽기 전에 감춰진 비밀을 폭로하고자, 왜곡된 이야기를 바로 잡고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뜻에서,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자기 행적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단순히 여생을 보내는 한 방법으로서 자기 과거를 회고하는 글을 쓰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동기를 갖고 회고록을 집필하기도 한다.

회고록은 글을 잘 모르는 文盲者가 많았던 고대에는 드물었으나 현대에 이르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현상은 회고록이 집필자의 만족 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로부터 소설처럼 흥미롭고 감동을 주는 읽을거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좋은 반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결국 집필자와 독자 양쪽을 만족시킴으로써 회고록은 출판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투스(Herodotus)와 투키디데스(Thucydides)는 각각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처음으로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인류역사의 主流는 戰爭史로 형성되어 있다고 믿었음에 틀림없다. 이 역사학 선구자들 눈에 전쟁만큼 중대한 사건은 없었다. 전쟁 결과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흥망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류역사를 쓰면서 전쟁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다.

고대사에서 전쟁사가 중시된 것과 거의 똑같은 이유로 개개인의 일생을 그린 회고록 가운데서도 전쟁 참여자가 남긴 전쟁회고록은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에 미국 역사학자 사무엘 하인스(Samuel Hynes)는 역대 전쟁 회고록 가운데 10대 최고걸작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기원전에 나온 『아나바시스』와 『갈리아 전기』가 있다.¹⁾ 전자는 고대 그리스인 크세노폰(Xenophon), 후자는 로마인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저술한 것으로서 둘 다 고대사 연구에서 최고의 古典으로 꼽히는 회고록들이다.

‘아나바시스(Anabasis)’는 그리스어로 ‘올라가기’를 뜻하는 단어로서 이 제목은 본래 소아시아 평원에서부터 티그리스(Tigris) 강과 유프라테스(Euphrates) 강 사이의 고원지대를 향하여 군대가 행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크세노폰이 다룬 실제 주내용은 역으로 고원에서 평원으로 내려가며 퇴각하는 행군중에 부딪친 상황과 전투체험을 주로 다룬 것이다. 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제목은 아니지만 그가 치른 전쟁이 자신의 군대가

1) Robert Cowley, Geoffrey Parker, ed., *The Reader's Campaign to Military History* (New York : Houghton Mifflin Company, 1996), pp. 297-299.

먼저 진격하기 시작함으로써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 추측되고 있다.

크세노폰은 그리스인으로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소크라테스와도 친분이 있던 지식인이자 군인이었던 그는 정파 싸움에서 패하고 조국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 추방후 그는 페르시아에서 傭兵 생활을 했으며 페르시아 왕위쟁탈전에서는 동생 키로스(Kyros) 2세 편에 가담하여 형 아르타크세르크세스(Artaxerxes) 2세를 왕위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내륙으로 진격하는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이 전쟁을 회고하면서 그는 진격하는 국면보다는 진격 실패후 퇴각하는 국면에서 더 극적인 山戰水戰 체험을 하였고 더 의미 있고 심각한 것을 배웠다고 느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많은 이야기거리를 기억해 내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회고록에서 기술하였다. 여하튼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반란군 용병으로서 활약한 이색적인 경험을 한 그리스 출신 지휘관 크세노폰은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싸우면서 사기가 떨어진 패잔병들을 이끌고 惡戰苦鬪하여 천신만고 끝에 무사히 귀환하게 되었는데 이 어려운 행군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아나바시스』이다.

저술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원전 401~400년에 벌어진 일을 크세노폰이 그의 생애 후기에 회고하면서 대략 기원전 371년경에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발생 약 30년 후, 즉 집필자가 대략 나이 30대 초반에 겪은 전쟁을 60대 초에 기억을 더듬어 회고록을 쓴 것이다.²⁾ 이것은 참전군인이 직접 쓴 것으로서 역사상 전쟁회고록이란 이름의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최초의 작품으로서 기념비적인 저술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당시의 시대정신을 잘 설명한 역사서적으로서, 지리와 행정 및 군조직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 유용한 자료로서,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심리에 의한 행동들을 잘 묘사하고 후세의 職業軍人들에게 리더십의 본질을 가르쳐준 훌륭한 지침서로서도 높은 평판을 받고 있다.

2) 크세노폰, 천병희 옮김, 『아나바시스』(서울 :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1), pp. 5-11.

『아나바시스』는 후세 군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멋있는 군인이란 전쟁에서 잘 싸워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후배 군인들을 위해서 전쟁체험담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전쟁에서 대부대를 지휘하고 큰 역할을 한 많은 장군들은 크세노폰이 한 것처럼 죽기 전에 전쟁회고록을 집필하는 것을 여생의 중요한 임무로 여기게 되었다. 특히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大帝國을 지켰던 로마 시대 장군들은 코멘타리(commentarii)란 제목으로 많은 회고록들을 남겼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회고록으로는 명장 카이사르가 저술한 『갈리아 戰記』(Commentarii de Bellio Gallico)를 들 수 있다. 『갈리아 전기』와 『아나바시스』는 고대 양대 전쟁회고록으로서 각각 로마와 그리스를 대표하는 고전이다.

『갈리아 전기』는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기원전 59년 執政官으로 선출된 이후 9년간에 걸쳐 6개 로마 군단을 이끌고 갈리아와 게르마니아, 브리타니아 등을 정벌했던 사업을 기록으로 남긴 자서전이다. 전부 8권으로 구성된 이 자서전 가운데 제1권부터 제7권까지는 카이사르가 갈리아 총독으로 지내면서 기원전 58년부터 52년까지 직접 집필한 것이고, 제8권은 기원전 51년에 부하 장군 아울루스 히르티우스(Aulus Hirtius)가 쓴 것이다.

카이사르가 남긴 기록 가운데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갈리아 전기』와 『내란기』 둘이다. 여기서 어쩌면 카이사르는 갈리아 征服을 다룬 『갈리아 전기』를 후세 사람들에게 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을지 모른다. 그가 로마에서 최고권력을 잡은 것은 루비콘(Rubicon) 강을 건너와 내전을 치르고 정적들을 제거한 뒤였지만, 그런 모험도 그러기 전에 로마 밖의 세계로 원정 가서 특히 갈리아 지방에서 실력을 쌓고 전쟁 천재로서 명성과 인기를 누리고 로마 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음으로써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갈리아 전기』는 평이하고 간결한 문체로 쓴 읽기 쉬운 회고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옥 같은 문장들은 文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라틴

어 사전에서 예문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고 라틴어 초보 교과서에서도 활용하고 있다.³⁾

『아나바시스』와 『갈리아 전기』 양대 전쟁회고록은 둘 다 指揮官 시각에서 전쟁경험담을 기술한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아나바시스』는 약 3세기 앞선 회고록의 원조라 할 수 있고 그 저자는 본래 문인이었으나 특별한 상황에서 용병 직업군인으로 신분을 바꾼 사람이었다. 반면에 『갈리아 전기』 저자는 武人으로서 유명한 장군이자 동시에 정치인이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쟁의 성격, 전장의 크기, 전투부대의 규모 등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방대하고 중요한 의미를 띠는 전쟁을 설명하고 지휘관의 명성면에서도 후자를 저술한 카이사르가 뛰어나게 유명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히 후자를 더 많이 읽게 되었다.

전쟁 체험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회고록을 쓰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는 『아나바시스』가 회고록 본질로서 더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갈리아 전기』는 카이사르가 전쟁을 겪은 뒤 전장현장에서 금방 생생한 기록을 남긴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회고록(memoirs)이라기보다는 일지 또는 일기(diary)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다만 학술적으로는 체험 경과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관계없이 본인의 체험과 삶의 발자취를 제법 장편의 이야기 형태로 쓴 自敘傳이라면 통상 그것을 회고록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고 『갈리아 전기』는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두 회고록은 두 훌륭한 지휘관이 보편타당성 있는 시각에서 전쟁 승패요인을 살펴보고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려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자기 經驗談이지만 견해 중심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기술하고 객관성을 지키려 애쓴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글을 쓰는 형식에서도 자기가 직접한 행동을 1인칭 대신에 3인칭, 예를 들면 “크세노폰은 다음과 같이 말

3) 카이사르, 박광순 역, 『갈리아 전기』(서울: 범우사, 1990), pp. 6-13.

했다” 또는 “카이사르는 결심했다”와 같이 표현하였다. 만일 이 책들을 어느 독자가 저자를 모르고 읽는다면 제3자가 쓴 전기로 착각하기 쉬운 형태의 글들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제3자가 기술한 것 같은 형식의 文章體를 사용한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글이란 어디까지나 客觀的인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실을 보다 충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널리 사용되었던 관행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많은 歷史哲學者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역사란 아무리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려 해도 역사가의 가치관과 주관이 개입되기 마련이고 엄밀히 말해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역사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⁴⁾ 하물며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옮기는 회고록의 경우 더더욱 객관적 관찰이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크세노폰과 카이사르의 회고록의 경우 둘 다 집필자는 지휘관으로서 군대의 집단행동을 카리스마적 지휘관 시각에서 살피고, 사실들을 자신들의 상황판단 기준에 맞추어 평가·해석하고 아무리 객관성을 지키려 노력했어도 자연히 자신의 역할과 공적을 강조 내지 과장한 부분이 있다. 한편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실패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변명으로 때우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나바시스』와 『갈리아 전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두 회고록은 무엇보다도 고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귀중한 역사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저자들은 비록 직업군인이지만 잘 훈련된 역사가들 이상으로 사건들을 예리한 洞察力과 객관적 시각으로 관찰하고 생동감과 박진감 넘치는 글로 표현한데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후세의 군인들에게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휘관은 어떻게 행동해야

4) 이 점을 가장 잘 밝힌 대표적인 역사철학 저서로는 E. H. Carr의 *What Is History?* (1961)를 들 수 있다.

하는가에 대하여 크게 일깨워 주었다. 위대한 전투지휘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선현 크세노폰과 카이사르가 남긴 회고록처럼 빛나는 회고록을 집필하고자 노력했다. 위대한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위대한 문필가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일종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다. 여하튼 회고록 집필은 자신의 이름을 보다 더 떨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 귀중한 역사자료를 물려주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게 됨으로써 오늘날 군인들은 많은 선배 군인들의 회고록을 접하게 되었다.

인간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에 따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쟁회고록이 나왔다. 전쟁회고록의 종류는 원조 『아나바시스』와 『갈리아 전기』처럼 참전군인들이 직접 쓴 것이 주종을 이루지만 참전하지 않은 민간인들 가운데서도 전쟁중에 목격했거나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매일 작성하는 일기 또는 일지 형태로 기록을 남긴 종류도 있다. 좋은 예로는 2차대전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은신처에서 유대인 소녀가 쓴 『안네의 일기』(*Diary of Anne Frank*)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회고록을 남긴 군인들은 크게 장교와 병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장교 회고록에 비하여 병사 회고록은 적은 편이다. 장교 회고록도 고급장교 특히 장군들이 남긴 회고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싸웠던 계급 높은 사람들이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회고록을 집필하고, 후세 사람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고자 한 강렬한 의지가 더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6·25전쟁 회고록 현황

1950~53년 6·25전쟁 회고록은 주로 전쟁수행에 직접 관여한 정치지도

자들과 군지도자들에 의한 회고록들로 주류가 형성되어 있다. 지도자급이 아닌 사람들에 의한 회고록은 드문 편이다.

미국의 경우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Harry S. Truman)이 1956년,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1963년, 국무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이 1967년, 그리고 군인 지도자로서는 미합참의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가 1983년,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가 1969년, 유엔군 사령관을 역임한 맥아더(Douglas MacArthur)가 1964년,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가 1967년, 클라크(Mark. W. Clark)가 1954년, 戰鬪 현장에서 최고사령관이었던 제8군사령관 테일러(Maxwell D. Taylor)가 1972년, 휴전협상 대표로 활약한 조이(Turner C. Joy)가 1955년에 회고록을 출간하였다. 이 가운데 책 한 권 모두를 6·25전쟁경험에 관한 이야기로 채운 회고록은 애치슨, 콜린스, 리지웨이, 조이 등이 남긴 회고록이다.⁵⁾

중국에서는 전쟁중 고위직책을 맡은 장군들의 회고록들이 특히 1980년대에 많이 출간되었다. 예를 들면 중공군 총참모장 대리 聶榮臻이 1984년, 지원군 총사령 彭德懷 1981년, 지원군 부사령 洪學智 1990년, 휴전회담 중공측 대표단 비서장 紫成文이 1989년에 각각 출간한 회고록이다.⁶⁾

5)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Garden City, N. Y. : Doubleday, 1956); Dwight D. Eisenhower, *The White House Years : Mandate for Change, 1953-1956, Vol. I*(Garden City, N. Y. : Doubleday, 1963); Dean Acheson, *The Korean War*(New York : Norton, 1967); Omar N. Bradley & Clay Blair, *A General's Life : An Autobiography*(New York : Simon & Schuster, 1983); J. Lawton Collins, *War in Peacetime : The History and Lessons of Korea*(Boston : Houghton Mifflin, 1969); Douglas A. MacArthur, *Reminiscences*(New York : McGraw-Hill, 1964);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Garden City, N. Y. : Doubleday, 1967);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New York : Harper & Brothers, 1954); Maxwell D. Taylor, *Swords and Plowshares*(New York : Norton, 1972); C. Turner Joy, *How Communists Negotiate*(New York : Macmillan, 1955).

6) 聶榮臻, 聶榮臻回憶錄(北京 : 解放軍出版社, 1984); 彭德懷, 彭德懷自述(北京 : 1981); 洪

한국에서 회고록 출간은 미국에 비하여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오늘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에서 기획하여 참전자들과 면담을 통하여 구술자료를 수집한 것은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나 참전자들이 직접 회고록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80년대 이후부터였다. 이렇게 늦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그럴듯한 이유로는 한국군의 경우 아무리 계급이 높은 참전자라고 하더라도 1960~70년대에 회고록을 집필하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로서 그들은 군과 사회에서 한창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고, 또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회고록 집필 요구와 자극을 별로 크게 받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6·25전쟁을 겪은 한국인들이 남긴 회고록 일람표를 출간된 연도순으로 저자, 책명, 출판사 등을 포함해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977년 : 김석원, 『노병의 한』, 육법사.
 1982년 : 이응준, 『회고 90년』, 산운기념사업회.
 1985년 : 차규현, 『전투 : 야전지휘관』, 병학사.
 1986년 : 정일권,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8년 : 전인식, 『백설의 장정 : 적 후방 300리의 혈투』, 건설연구소.
 1989년 : 백선엽, 『군과 나』, 대륙연구소.
 1993년 :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 인생』, 중앙일보사.
 문홍구, 『나의 군 나의 삶』, 서문당.
 1994년 : 박남표, 『국경의 벽 넘고 넘어』, 미리내.
 박정인, 『풍운의 별』, 홍익출판사.
 백행걸, 『미완성의 성취』, 팔복원.
 유재홍, 『격동의 세월』, 을유문화사.
 이한림, 『세기의 격랑』, 팔복원.
 채명신, 『사선을 넘고 넘어』, 매일경제사.

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 解放軍出版社, 1990); 紫成文, 板門店談判(北京: 解放軍出版社, 1989).

- 한 신, 『신념의 삶 속에서』, 명성출판사.
- 1996년: 강기천, 『나의 인생 여로』, 계몽사.
이건영, 『패자의 승리』, 진명문화사.
임부택, 『낙동강에서 초산까지』, 그루터기.
- 1997년: 김영선, 『백마고지의 광영 상·하』, 팔복원.
이병형, 『연대장』, 병학사.
- 1998년: 계인주, 『맥아더 장군과 계인주 대령』, 다인미디어.
손길남, 『내 생명 전차와 함께』, 청문각.
- 2001년: 공국진, 『한 노병의 애환』, 원민.
이치엽, 『번개장군』, 원민.
장도영, 『망향』, 숲속의 꿈.
정래혁, 『격변의 생애를 돌아보며』, 한국산업개발연구원.
- 2002년: 이근식, 『노해병의 어제와 오늘』, 신영.
정승화, 이경식 대필, 『대한민국군인 정승화』, Human & Books.

4. 네 장군들의 회고록 :

이응준, 이형근, 유재홍, 백선엽

여기서 필자는 모든 회고록을 조사하고 분류하기보다는 특별히 눈에 띄는 회고록 네 권을 선택하여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네 회고록은 전쟁발발 당시 사단장을 역임했던 장군들 회고록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충분히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회고록을 비교검토해보는 시도는 결코 네 장군의 리더십을 비교평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은 각각 회고록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기술했는가를 조사하고 회고록의 일반적 類型, 特徵, 問題點 등을 살펴봄과 동시에 나아가 6·25전쟁에 대한 理解의 폭을 증대시키는데 있다.

전쟁 발발시 국군 육군은 8개 사단을 보유하고 각 사단장은 제1사단장 백선엽, 제2사단장 이형근, 제3사단장 유승렬, 제5사단장 이응준, 제6사단장 김종오, 제7사단장 유재홍, 제8사단장 이성가, 수도사단장 이종찬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전쟁 초기뿐만 아니라 전기간에 걸쳐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전후에도 군과 나라 발전을 이끌었던 인물들이었다. 8사람 가운데 회고록을 남긴 장군들은 백선엽, 유재홍, 이응준, 이형근이었다. 나머지는 회고록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다만 이종찬, 김종오, 이성가의 경우 회고록은 없지만 제3자가 쓴 傳記(biography)들이 있다.⁷⁾

회고록을 남긴 네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회고록을 출간한 장군은 이응준이었다. 1982년 『회고 90년: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 자서전』이란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백선엽이 1920년생, 유재홍이 1921년생으로 두 장군은 생존인물이고 이형근은 1921~2002년 일생을 누렸고 이응준은 이들보다 약 1세대쯤 앞선 선배(1890~1985)였다. 6·25전쟁 발발시 이응준의 나이 만 59세였고 나머지 세 사람은 만 28~29세에 불과하였다. 이응준이 가장 먼저 회고록을 내놓은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응준 회고록 이후 백선엽 1989년, 이형근 1993년, 유재홍 1994년 순으로 회고록을 출간하였다.

(1) 이응준의 회고록 『回顧 90년』

이응준의 회고록 『回顧 90년』은 출생부터 사망 직전까지 90년간, 즉 일본 육사 유학시절부터, 일본군 장교, 해방후 美軍政廳 군사고문, 대한민국 독립후 초대 육군참모총장(당시 명칭은 육군 총참모장이었고 1954년 5월 30일 이후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 6·25전쟁중 사단장, 전쟁후 체신부장

7) 세 사람의 전기는 각각 강성재, 『참군인 이종찬장군』(동아일보사, 1986년), 유현중, 『백마고지: 김종오장군 일대기』(울지출판공사, 1985),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영천 대화전: 이성가 장군 참전기』(육군인쇄창, 1995) 등이 있다.

관, 반공연맹 이사장 등 다양한 경력을 역임한 파란만장한 생애를 다룬 일대기이다. 이 회고록은 총 15개 장과 670쪽의 글로 편성되어 있고 제8장은 6·25전쟁 참전경험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인생 일대기를 모두 충실히 취급하고 있지만 결코 6·25전쟁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분량은 단지 1개 장으로서 53쪽에 불과하다. 전쟁에서 그는 자신이 중요한 역할이나 큰 활약을 하지 않았었기에 어쩌면 그 정도 분량으로 만족했는지 모른다. 국군 창군과정에서 產婆役을 맡고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까지 역임했지만 그는 초창기 국군조직의 복잡다단한 정세 속에서 전쟁 발발시에 광주에서 제5사단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초기전투 실패 후 육군 재편성과과정에서 그는 전쟁 첫 해 가을까지 수원지구방위사령관, 전남편성관구사령관, 서남지구사령관 등을 맡았었다. 하지만 이런 직책들은 대부분 임시로 편성된 것으로서 사실상 그는 실병력을 별로 거느리지 못한 비교적 한직에서 맴돌았다고 할 수 있다.

이응준은 당시 군인사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최대의 국난을 당한 처지에서 군사적 경험이 풍부한 자신과 같은 사람이 요직에 기용되지 못하고 전쟁중에 이렇다할 만한 규모의 병력을 거느리고 전투를 지휘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였다. 특히 군사적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술수만 부리는 신성모와 같은 사람이 국방장관을 맡고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것은 당시 국가의 큰 비극이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결국 그는 閒職과 같은 中傷謀略을 버티지 못하고 전쟁발발 5개월 후인 1950년 11월 군복을 벗고 말았다. 그를 포함하여 신태영, 원용덕, 김홍일 등 예비역 원로장성들이 피난민 신세로 전락하여 부산에 남아 있을 때 이들에 대하여 1951년 봄에 신성모는 “…… 이 따위 늙은 사람들이 우리 군을 지휘했다라면 우리들은 벌써 저 부산 앞바다로 들어갔을 것이 아닌가?”⁸⁾라고 악담을 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군원로들과 국방장관간에 불화가 심했다는 점을 그는 밝히고 있다. 그는 신성모에 대하여 그런 사람이 다시는 국방장관에 기용되어서는

8) 이응준, 『회고 90년』(서울 : 산운기념사업회, 1982), p. 297.

안 된다고 말하면서 맹렬히 비난했다. 우여곡절 끝에 1952년 4월 다시 현역에 복귀하게 되지만 그는 육군대학총장과 제주도 제1훈련소장 직책 등을 맡고 있다가 휴전을 맞게 되고 그 후 1955년 64세의 나이에 예편하였다. 당시 젊은 총참모장을 기용하는 체제 속에서 나이가 이미 60대에 들어선 그에게 사실상 가능한 보직이란 후방에서 지원 및 교육부대 지휘관을 맡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군원로로서 대우를 받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전쟁 노력에서 그가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다른 장군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하튼 그는 전쟁중에 젊은 사단장들이 전투를 지휘하고 승승장구하는데 비하여 뒷전에 처져 있던 시절의 활동에 관하여 회고하면서 별로 흥미 있는 상세한 기록을 남기지는 못하였다.

이용준 회고록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중 그의 딱한 처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그의 회고록의 한계이다. 예를 들면 그가 5사단 병력을 광주에서부터 이끌고 6월 27일 오전 서울에 도착해서 미아리 방어전투를 지휘한 경험이나 그 후 수원지구 방위사령관이란 직책을 맡았던 것은 초기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고록에서 불과 한두 쪽 설명하는데 그쳤다. 회고록을 집필하면서 그는 패잔병과 오합지졸을 거느리고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싸웠던 경험을 별로 애써 회고하고 싶어 하거나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우리는 통상 위대한 장군들로부터 이순신의 백의종군과 같은 자세를 배우고자 하고 회고록에서는 크세노폰의 『아나바시스』에 가까운 것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이용준 회고록은 6·25전쟁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아쉬운 대목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용준보다 약 한 세대 정도 젊은 나이로 사단장을 맡았던 다른 세 장군 이형근, 유재홍, 백선엽은 달랐다. 이들은 전쟁중 승승장구하고 전투지휘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큰 활약을 하였으며 따라서 회고록에서도 전쟁과 전투경험을 보다 비중 있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2) 이형근의 회고록 『군번 1번의 외길 인생』

이형근은 회고록 구성을 이용준의 회고록과 비슷하게 일생의 삶을 두루 균형 있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총 7부로 나누어 제1부 출생에서 군인이 되기까지, 제2부 조선국방경비대 시절, 제3부 6·25전쟁, 제4부 합참 창설과 육군참모총장 시절, 제5부 군복을 벗고 해외 대사로, 제6부 공직을 통한 국가봉사, 제7부 여록으로 구성하였다. 6·25전쟁 부분에서는 특히 전쟁발발 당시 상황과 군단장 및 휴전회담 대표 시절을 중점적으로 회고하고 또한 전장지휘관으로서의 전투경험보다는 오히려 당시 한국군 首腦部가 작전지도와 인사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를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솔직히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대전지역에서 제2사단 사단장을 맡고 있었던 이형근은 육군본부로부터 의정부지역을 맡고 있는 제7사단을 증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비상소집을 걸고 흩어진 병력을 모아 대대별로 가능한 한 신속히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그는 채병덕 총참모장의 작전지휘 방법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채병덕은 2사단병력이 서울에 어느 정도 집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부대들을 도착되는대로 뚜렷한 대안 없이 축차적으로 전방으로만 내보내도록 지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병력운동에 대하여 이형근은 반발하고 급기야 항명까지 했다. 이 사실을 회고록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는데 그는 군수뇌부가 적정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너무 우왕좌왕했다고 비판하면서 6월 25, 26일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은 서울방어보다는 일찍부터 漢江선에서 방어를 전개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당시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히고 있다.⁹⁾

당시 의정부지역에서의 병력운동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크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채병덕이 병력을 逐次的으로 분산투입시킨 것은 분명히 전술상

9)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 인생』(서울 : 중앙일보사, 1993), pp. 50-52.

큰 과오였음에 틀림없다. 축차투입할 수밖에 없는 긴급상황이었지만 보다 현명한 작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저지선을 만들어 놓고 효과적으로 전투를 벌이며 방어하는 방법을 택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형근의 주장대로 서울을 포기하는 대담한 전략을 남침 당일에 택하는 것을 현명하다고 볼 수 있을까? 평소 육군본부는 전면전시에는 후방병력을 서울 북방으로 투입한다는 기본 방어계획을 갖추어 놓고 있었다. 따라서 총참모장이 우선 기존의 준비된 계획에 따라 지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당장 대통령으로부터 서울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달 받은 총참모장 입장에서는 일단 서울 북방에서 전투를 벌여 보고 그리고 난 뒤에 상황을 판단하고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기본상식이 아닐까?

이형근은 신성모 국방장관과 채병덕 육군 총참모장의 무능으로 인한 국군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한결음 더 나가 그는 당시 육군 지휘부에 “通敵분자” 즉 적과 내통한 자가 있었다는 심증을 회고록을 쓰는 순간까지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¹⁰⁾ 과연 그 통적분자는 누구일까? 이형근은 채병덕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은연중 그를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하튼 채병덕을 깊이 불신하고 인간적으로 전혀 존경하지 않은데서부터 이형근은 자주 육군본부와 좌충우돌했는데, 그런 돌출적인 행동은 모두 우국충정에서 나왔음을 회고록에서 당당히 밝히고 있다.

초기전투 후에 이형근은 전라남도 편성관구 부사령관, 육군훈련본부장, 제3군단장, 육군교육총감, 휴전회담 한국군 대표, 제1군단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상관에게 불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성품 때문에 매끄러운 관계를 갖지 못했다. 동료 장군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일본 육사 출신으로서 특유의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었고 만주군, 광복군, 중국군 출신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작전능력을 불신한 나머지 그들과 충돌이 잦은 편이었다.¹¹⁾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형근의 빼어난 군

10) 이형근, 위의 책, p. 55.

11) 이형근은 만주군 출신 작전참모부장 김백일을 용감하지만 할 뿐 작전능력은 뒤떨어진 사

인정신과 지휘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重用하였으며 전후에는 초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등 최고직책을 맡겼다.

휴전회담 한국군 대표로 있을 때 그는 한국측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려 노력했다. 특히 그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동부전선 일부를 주더라도 개성을 탈환해야 한다는 특별임무를 받았었다는 사실을 밝힌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休戰을 받아들이다라도 개성을 확보하고 난 뒤에 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개성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이 요구는 일단 협상을 성사시키는데 주관심을 갖고 있던 유엔군 협상 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협상 자체가 무산될지도 모를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형근은 8군사령관을 집요하게 설득했으며 그 결과 유엔군 지원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해병대 1개 대대로 하여금 개성을 탈환하려는 작전을 감행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개성 부근까지 진격하는 시도라도 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에게 최대의 충성심을 보였다. 이는 作戰權을 유엔군에게 이양한 대통령으로부터 유엔군 작전방침에 어긋나는 군사작전에 대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휘관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하여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좋은 사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제1군단장 시절에 그는 동해안 전방지역에서 작전임무뿐만 아니라 다른 군단에는 없었던 수복지구에 대한 군정임무까지 맡았었다. 이 특별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회고하였다. 그는 양양, 속초, 고성 등 수복지역 주민들을 통제하면서 그들의 경제, 교육, 문화활동 등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교량, 도로, 사찰, 고아원 등 각종 시설 복구사업에 군단공병단과 미군 장비 및 자재를 십분 활용하도록 하는 등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수복지역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람으로 평소에 편견을 갖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 이형근, 앞의 책, p. 58.

(3) 유재홍의 회고록 『격동의 세월』

유재홍은 전쟁중 사단장, 군단장, 참모차장을 역임한 전투지휘관이었다. 전투지휘관 출신답게 그는 전장에서 활약했을 때를 인생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시절로 회고하며 회고록 가운데 약 40% 이상을 6·25전쟁에 할애하였다.

머리말에서 그는 기존의 6·25전쟁 기록물 가운데 나타난 많은 잘못된 기록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부하들에게 무책임한 상관이 될 것이라는 절박한 사명감과 의무감”에서 회고록을 집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¹²⁾ 구체적으로 어느 자료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하여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1980년대 이후 좌익사관 서적이나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을 보고 주요 참전자로서 진실을 꼭 남겨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유재홍과 아버지 유승열 두父子는 다같이 일본 陸士出身이었고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들은 준장, 아버지는 대령 계급을 달고 현직 사단장으로 재직중에 있었다. 아버지는 3사단장 아들은 7사단장이었다. 이와 같이 부자가 동시에 사단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국군역사에서 유일무이했으며 전쟁이 끝난 뒤 1956년에 아버지가 예편할 때까지 두 부자는 현역장군으로서 함께 군대생활을 했고 아들은 중장, 아버지는 소장까지 승진했다. 항상 아들이 직책과 계급에서 아버지보다 한 단계 위에 있었던 관계로 화제를 모았던 장군들이었다.

유재홍은 북한군 남침시 주공격 대상이 된 동두천·포천지역에서 방어를 맡은 사단장으로서 초기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술회하였다. 여기서 그는 총참모장 채병덕의 功過에 대하여 이형근과는 정반대로 평가하였다. 채병덕이 남침 이후 6월 27일 저

12) 유재홍, 『격동의 세월』(서울: 을유문화사, 1994), p. 18.

년까지 의정부 전투현장을 다섯 차례나 방문하였고, 국회와 각료회의에 일곱 차례나 참석하여 전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결코 지휘를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채병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총참모장 자리에 있었어도 거의 똑같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하였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쟁준비가 안되어 있었던 데 있지 채병덕의 作戰指導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특별히 잘한 것 없지만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다고 평가하였다.¹³⁾

그러나 우리는 유재홍 주장대로 채병덕이 동분서주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의 작전지도는 문제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작전지도란 머리로 하는 것이지 결코 발로써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서도 최고지휘관은 부대를 잘 이끌고 최선의 방법으로 작전지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전방 방어부대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수도 서울이 불과 사흘만에 함락당하고 만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은 분명히 의정부와 서울 방어전투에서 총참모장과 사단장들이 무능하고 작전 지휘를 잘못한데 있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재홍은 역설적으로 채병덕이 서울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려 노력한 결과 그나마 파도같이 쇄도해온 적공격을 어느 정도 지체시킬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았으면 서울을 남침 당일에 잃는 더 큰 위기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강변하고 있다. 한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한강 이북에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¹⁴⁾ 서울 북방을 지키고 있었던 해당 사단장으로서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싸운 것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혹독한 비판만 해대는 전후의 일반 평가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同情的인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채병덕이 지시하고 그가 열심히 따른 전술적 조치가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당시 여러

13) 위의 책, p. 129.

14) 위의 책, pp. 139-140.

가지로 매우 열악한 군사적 상황에서 적의 주공목표가 된 지역에서 그가 사단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참으로 불운이고 재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유재홍은 초기전투후 국군 재편성 과정에서 창설된 제1군단 副軍團長을 역임한데 이어 7월 20일에는 제2군단장에 부임함으로써 전쟁 발발시 사단장들 가운데 가장 먼저 軍團長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다. 그 후 낙동강 방어전에서는 영천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전투지휘관으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9월초 적의 집중공격으로 영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육군본부는 제8사단을 제2군단에 배속시켜 주면서 유재홍에게 영천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유재홍은 휘하사단이었던 제1사단과 6사단에서 각각 1개 연대씩 빼내 제8사단을 증원토록 하는 과감한 조치를 신속히 했다. 대구지역도 중요하지만 당장 영천을 지켜야 한다는 정확한 판단과 함께 내린 결정이었다. 그리고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에게 공중지원을 요청하고,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Hobart R. Gay) 소장에게는 애걸복걸하다시피 하면서 전차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결국 그는 전차 5대 지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으며 즉흥적으로 직접 전차를 타고 전투를 지휘했다. 영천 시내를 질주하면서 彼我를 구분 못하는 미군 전차병들에게 “저쪽은 적, 이쪽은 아군”이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사격지시를 했는데 이때 그는 그야말로 凱旋將軍이 다 된 기분이 들었다고 술회하였다. 군단장의 이런 행동은 전차 없이 싸우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던 장병들에게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리하여 전세를 역전시키고 대반격을 실시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었다.¹⁵⁾

유재홍은 당시 군단을 지휘하는데 있어 어려웠던 점으로서 육군본부와 군단 그리고 미 제8군사령부간의 애매모호한 관계를 지적하였다. 당시 지휘체제는 미 제8군사령관이 한국군 作戰指揮權을 갖고 있고 한국 육군은

15) 위의 책, pp. 174-194.

한국 육군총참모장 지휘를 받게 되어 있었던 이원화체제였다.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미 제8군과 한국군 군단간 지휘선상에 단지 중계역할만 하는 육군본부가 끼어들어서 작전수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합작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고 술회했다. 예를 들어 M1소총 한 자루를 미 제8군으로부터 받아내는 것까지 육군본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군단 입장에서는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 유재홍은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이상 육군본부는 지휘 행세를 하지 않고 병력보충과 보급지원에만 충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¹⁶⁾

육군 총참모장이 미 제8군 작전명령을 크게는 아니지만 약간씩 위반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했다. 북진작전중에 평양은 작전명령상으로는 국군 제2군단 지역 밖이지만 정일권 총참모장은 특별히 지시하여 제7사단 일부 병력을 평양으로 전용시켰다. 국군이 먼저 平壤을 점령해야 한다는 정치적 효과를 의식한 나머지 취한 조치였다. 미 제1군단 속에 비록 국군 제1사단이 배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군단 차원에서 국군 소속 부대가 참여해서 국군의 공적을 과시하겠다는 것이었다.

유재홍은 자기 작전지역에서 미군이 공수작전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단장인 자신이 그런 계획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진격중에 타부대를 만나게 되어 당황했었던 점을 회고하였다. 그는 북진중에 순천에서 공수작전을 마친 미 제187공수연대장 보웬(Frank S. Bowen) 대령과 부딪치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보웬 대령의 거만한 태도에 실로 크게 기분 상할 수밖에 없었다. 보웬은 유재홍에게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 왔소, 내가 이 지역을 맡고 있는 지휘관인데 ……”라고 캐묻는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 유재홍은 “나는 2군단장으로서 순천 북쪽에 있는 내 병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여기를 들리게 된 것이오”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통보도 없이 자신이 담당한 작전 지역에 뛰어든 자가 그것도 직책상으로 두 단계 아래의 연대장이란 사람이 군단장에게 이렇게 오만불손할 수 있겠는가? 聯合作戰을 하면서 아무리 보

16) 위의 책, pp. 172-173.

안유지가 중요한 작전이라 하더라도 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군 군단장에게 알려주지 않고 작전을 실시한 것은 당시 미군들 태도가 협력 파트너인 한국군에 대하여 전혀 신경쓰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일권 總參謀長은 작전 3일 전에야 통보받았고 그 후 당시 통신망 미비로 제2군단장 유재홍과 휘하 사단장들에게 알려줄 새가 없었다고 한다. 여하튼 유재홍은 미군 공수작전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는데 만일 미군 군단장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공수연대장이 그런 행동을 했겠는가? 이는 당시 한국군 지휘관들이 얼마나 미군들로부터 무시당했던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에피소드이다.¹⁷⁾ 유재홍은 전 연합군 병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군이 작전지휘권을 미군에게 모두 이양한 채 싸우고, 그것도 미 제8군사령부 내에 국군을 대표하는 참모 한 사람도 두지 않은 채 전쟁을 수행한 것은 한미연합작전 체제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고 비판하였다.¹⁸⁾

청천강전투를 회고하면서 유재홍은 전혀 걱정을 모른 채 싸웠다고 솔직히 토로하였다. 당시 군단장이었으나 미 제8군사령부나 陸軍本部로부터 아무런 정보나 주의사항이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아무 정보도 얻은 것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북진작전에서 맹점은 미군이나 한국군은 단지 맥아더 원수의 정보판단에만 의존해서 싸웠다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맥아더도 정보부재 속에 작전을 지도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중공군의 동향과 전략에 대해서 그가 언급한 내용은 모두 40년이 지난 뒤에야 공개된 중공측 자료를 통해서 터득하게 되었다고 밝혔듯이 회고록 군대군대에서 그는 후세 다른 사람들의 기록이나 평가를 이용해서 과거를 해석하기도 하였다.¹⁹⁾ 이와 같이 회고록이란 자신이 직접 겪은 체험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건을 회고하면서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17) 위의 책, p. 215.

18) 위의 책, p. 227.

19) 위의 책, pp. 225-227.

야 알게 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야기를 엮는다는 점은 다른 회고록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4) 백선엽의 회고록 『군과 나』

전쟁발발시 제1사단장이었던 백선엽은 1989년에 회고록 『군과 나』를 발간하고 다시 1999년에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을 발간하였다. 사실상 백선엽의 첫 회고록 발간은 일본어판으로서 『韓國戰爭 一千日』이 1988년에 나왔으며 1992년에는 영문판 *From Pusan to Panmunjom*이 출간되었다.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룬 이 회고록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한국어판 『군과 나』이다.

백선엽은 3년간의 전쟁중에 사단장, 군단장, 휴전회담 한국대표, 백야전 전투사령관, 총참모장을 역임하였고 그에 따라 계급도 대령에서부터 국군 역사상 최초의 4성장군까지 올랐던 신화적인 인물이었다. 전투지휘관으로서 누구보다도 가장 명성을 떨친 그는 회고록 거의 대부분을 6·25전쟁 이야기로 채웠다. 앞에서 다른 회고록들이 이형근은 6·25전쟁 부분을 위하여 총 319쪽 가운데 43쪽, 유재홍은 총 528쪽 중 224쪽을 할당한데 비하여 백선엽은 총 367쪽 가운데 285쪽을 할애하였다.

전쟁중에 그는 특히 다부동전투와 평양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그야말로 위풍당당한 전쟁영웅이었고, 전반적으로 한국군 가운데서 최고의 명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서 회고록 제목 『군과 나』는 전혀 과장도 없고 어색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당당한 제목과는 달리 회고록에서 그는 매우 겸손하였다. 결코 성공사례만 대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식으로 회고록을 남기지 않았다. 전쟁중에 책임자로서 책임져야 할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하는 부분도 꽤 포함하고 있어서 회고록의 가치는 더 빛을 내고 있다.

6월 25일 일요일 아침 보병학교 파견근무중에 있던 백선엽은 남침소식을 듣자마자 곧 육군본부를 거쳐 부대에 복귀했지만 이미 개성이 함락되고 문산 방어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봉일천 전선을 지키기 위한 작전을 지휘했다. 봉일천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3일간을 버티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략적인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후방에서 서울이 함락되어 退路가 차단되고 결국 적 추격을 받으면서 1사단은 차량과 중장비들을 버리고 전장병들이 뿔뿔이 흩어져 한강 이남으로 탈출해야 하는 처절한 패배를 겪어야 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백선엽은 총참모장으로부터 사수명령만 있었을 뿐 철수명령이 없고 또한 의정부지역 전투 결과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은 독단적으로 철수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사단장으로서 자신이 전체적인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시적절하게 후퇴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 반성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²⁰⁾

낙동강전선에서 최대 격전 가운데 하나였던 다부동전투를 회고하면서 백선엽은 韓美聯合作戰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 나온 미군 연대장들 마이켈리스(John Michaelis) 대령 및 프리만(Paul Freeman) 대령과 특별한 신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연합작전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각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여 양국 지휘관들 간의 신뢰가 무너질 뻔했던 위기도 있었지만 백선엽 장군은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저돌적인 방법으로 돌격작전을 감행해서 전투에서 목표를 탈취하고 장병들 사기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미군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이후 제1사단은 미군과 연합작전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²¹⁾

6·25전쟁의 큰 특징은 한국군이 유엔군 특히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쳐 공산군과 싸워서 승리한 것인데 백선엽은 바로 이 연합작전을 가장 잘 수

20) 백선엽, 『군과 나』(서울: 대륙연구소, 1989), pp. 41-44.

21) 위의 책, pp. 69-70.

행한 한국군 장성이었다. 그는 미 제1군단장이었던 밀번(Frank Milburn) 장군을 “연합작전의 요령을 터득시켜준 스승”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다.²²⁾

1950년 9월 제1사단은 미 제1군단 소속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이후 백선엽은 다른 어느 국군 사단장보다 미군으로부터 화력지원을 용이하게 받는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그밖에 다른 국군 부대는 구경할 수 없었던 三色圖 작전지도를 미군들로부터 제공받고 작전을 한 것도 대단한 이점이였다.²³⁾

평양을 향한 북진작전에서 원래 미군작전계획에 의하면 제1사단은 미 제1군단 후미부대로서 잔적 소탕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은 사단장 백선엽은 군단장 밀번에게 한국군을 선봉부대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결과 선봉부대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적수도를 점령하는 상징적인 작전에서 후미에 따라 가는 것은 국군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니 최소한 미군과 똑같은 대열에서 진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킨 것이다. 미군과 국군이 서로 먼저 점령하려고 공명심이 크게 작용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여기에 추가하여 정일권 총참모장도 국군으로 구성된 군단을 참여시켜 한국군의 공을 세우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국군 제2군단 소속부대 가운데 1개 연대를 내보내, 즉 제7사단 제8연대를 평양작전에 투입시켰다. 이는 명백히 작전지역을 위반한 조치로서 우군끼리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으나 여하튼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⁴⁾

청천강전선에서 증공군과 전투를 벌이면서부터 전황이 급전직하로 몰리자 다른 모든 부대와 마찬가지로 백선엽의 제1사단도 고전을 면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적정을 전혀 모르고 방심한 상태에서 진격중에 기습을 당

22) 위의 책, p. 174.

23) 위의 책, p. 77.

24) 위의 책, p. 106.

해 피해가 컸었다. 더구나 중공군 개입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뚜렷한 대책 없이 무리하게 복진을 시도하다가 유엔군은 곳곳에서 중공군 인해전술과 ‘피리와 핑과리’ 전법에 부딪쳐 전부대가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임진강선까지 퇴각하게 되었다.

임진강선에서 제1사단 위기는 계속되었다. 중공군 신정공세로 제1사단 방어진지는 무참히 돌파되었다. 백선엽은 “반쯤 녀을 잃고”,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으로 제정신을 가누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장병들이 중공군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도 말라리아 재발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제대로 임무수행을 못하고 군사작전이라기보다는 거의 도주하다시피한 오합지졸 모습으로 1·4후퇴를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했다. 중공군 공격이 어느 정도 멈추고 사단이 안정전선에 이르렀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군기쇄신이였다. 그는 부하들을 문책하면서 당시 허용된 ‘즉결처분권’을 행사하지 않고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에 회부시켜 처리하도록 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전쟁 중 즉결처분권을 단 한 건도 행사하지 않고 부대를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기술했다.²⁵⁾

부하들 과오에 대하여 백선엽은 가능한 한 重罰보다는 용서와 改愆의 기회를 주면서 부하들을 지휘했던 德將이였다. 초기전투에서 철수하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서울탈환 후에야 1백여 명의 장병들이 부대에 복귀한 일이 있었다. 이때 제1사단 참모들은 그들의 부역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이에 대하여 그는 “우리가 엄청난 국난을 당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마당에 누가 누구를 탓하겠는가. 우리 과거를 임진강 물에 씻어 버리고 재단결하여 다시 나라에 충성하도록 하자. 적의 수도탈환에 맹진하기 위해 지난 일은 불문에 붙이겠다”고 말하며 결단을 내렸다.²⁶⁾

25) 위의 책, pp. 149-152.

26) 위의 책, p. 93.

백선엽은 부하들을 언제나 부드럽게만 대한 것은 아니었다. 1951년 여름 제1군단장으로서 동해안지역 전선을 맡고 있던 시절에 그는 직속 부하 사단장이었던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면을 보인 에피소드를 남겼다. 사단장이 병력부족을 이유로 군단 작전명령을 거부하려 하자 군단장은 권총을 차고 직접 사단장을 찾아가 힐책하였다. 심각성을 비로소 깨달은 사단장은 용서를 구하고 명령에 따르겠다고 빌었다. 이 대목을 회고하면서 백선엽은 “나는 참을 때까지는 참는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당시 고급지휘관들은 거의 30세 안팎의 젊은 나이였다. 서로 반말을 하는 사이였으나 차차 계급과 보직에 차이가 났으니 통솔상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상급자가 이를 단호히 극복하지 못하면 부대의 기강은 유지될 수 없었다”고 기술하였다.²⁷⁾ 당시 젊은 나이의 지휘관들이 혈기와 패기로 부대를 이끌었던 반면에 쉽게 감정적이고 즉흥적 조치를 했던 풍토에서 백선엽의 인내와 사려깊은 지휘는 실로 비범했었다. 전쟁 전에도 육본 정보국장직 시절 백선엽이 肅軍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左翼 조직 용의자였던 박정희를 구명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²⁸⁾

백선엽은 부하들에게 德將이었고 민간인들에게도 남다른 배려를 한 人道主義者였다. 당시 정부나 군대가 일반시민들과 피난민들에 대한 대책 없이 전쟁을 지도한 것에 대하여 회한을 갖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였다.²⁹⁾ 백야전전투사령부 사령관으로서 지리산 공비도벌작전을 했을 때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 전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입장을 백분 이해한 그는 “국군이 강하다는 것과 또한 국군이 그들을 아끼고 애호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노력했던 사령관이었다.³⁰⁾

27) 위의 책, pp. 189-190.

28) 위의 책, p. 347.

29) 위의 책, p. 172.

30) 위의 책, pp. 222-223.

백선엽은 전쟁중 제1군단장, 휴전회담 개막시 한국군 대표,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시 백야전투사령부 사령관, 총참모장 등 요직에 기용되고 1953년 1월 31일 국군 역사상 최초로 대장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뿐만 아니라 미군과 원만한 관계를 가진 데서 큰 도움을 받았었다. 한편 그는 미군과 협력을 기초로 하여 聯合作戰을 잘 수행하면서도 미군 작전방식에 대하여 결코 모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미군이 작전권을 행사하고 양군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국군 지휘관들은 자존심이 상하곤 했는데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주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부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 제8군사령관들은 “잘된 것은 미군 탓, 잘못된 것은 국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³¹⁾ 중공군 4차공세에서 국군이 횡성과 홍천지역에서 크게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그는 미 제10군단장 아먼드(Edward Almond)가 “국군을 앞세워 중공군 대공세의 예봉을 일단 저지하겠다는 복안이 아니었을까, …… 예상되는 미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작전을 구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전차와 포병부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군을 굳이 선두에서 공격하도록 하여 총알받이로 이용한 미군 작전방식에 대한 비판이었다.³²⁾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은 『군과 나』 발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출간된 책이다. 『군과 나』 개정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본문 내용은 그대로이고 다만 달라진 부분은 앞머리에 있는 추천의 글과 머리말이다. 그리고 책 제목은 제1장 “길고 긴 여름, 1950년 6월”에서 따온 것이다. 백선엽은 머리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나 전쟁에 대비하여 잘 ‘준비된 국민’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6·25전쟁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군과 나』가 출간된 후 10년 동안에 세계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우리가 北方外交를 통해서 중국 및 러시아와 국교정상화를 이루고 한반도도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1990년대 말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남북간에 화해

31) 위의 책, p. 154.

32) 위의 책, pp. 159-160.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북한 공산군 기습남침으로 비롯된 6·25전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백선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 당시 정부의 '북한포용정책'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대북 군사역량을 확고히 강화' 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정신을 갖추는데 그는 자신의 회고록이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였고 또한 북한남침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는 史觀들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출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³³⁾

5. 결 론

회고록은 역사자료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른 종류의 모든 역사자료와 마찬가지로 회고록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사건 당사자가 직접 증언을 함으로써 중요한 진실들을 분명히 밝혀서 제3자에 의한 억측이나 날조를 바로잡아 주고 때로는 양심선언과 告解聖事を 통해서 비밀 속에 숨겨진 중요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역사를 바로보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회고록은 집필자의 관점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연히 생길 수 있는 단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記憶力의 한계와 均衡感覺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떤 집필자는 스스로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빼거나 영원한 비밀로 숨겨 놓으려 할지도 모른다. 회고록에는 진실뿐만 아니라 과장, 가공, 변명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회고록을 읽을 때 집필자의 정직성을 검증해보려 노력해야 하고 역사가들은 다른 사람들의 회고록, 정부문서, 신문 등과 비교분석하고 여러 가지

33)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서울: 도서출판 지구촌, 1999), pp. 18-23.

자료를 통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회고록에 기록된 자료들 가운데는 그야말로 순수한 1차자료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꽤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집필자 자신이 당대에 만들어 놓은 기록물들 예를 들면 일기, 수첩, 비망록, 편지 등을 이용하여 회고록을 집필하더라도 그런 자료들 자체가 100% 정확한 사실들만을 다룬 것이 아니고 집필자 자신의 많은 주관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다. 대부분의 경험적 행동은 思考判斷 뒤에 이루어지므로 그 행동을 기록으로 남길 때는 자연히 먼저 전개된 사고판단 기준에 따라 즉 主觀的 判斷과 함께 사건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둘째, 집필자는 순전히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연루된 사실만을 집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소문 등 간접적인 체험을 기술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정확한 사실이 아닌 가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셋째, 회고록 내용이 모두 자신이 당시에 남긴 기록물에 근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집필하는 동안에 순전히 회상으로 더듬어 찾아내서 어떤 내용을 기술하기도 하는데 인간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특히 노년기에는 급속히 감퇴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록물을 참고하고 이용한다는 점을 가정하여야 한다. 넷째, 집필자 자신이 당시에는 사건 진상에 대하여 중요한 因果關係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쟁 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뒤 전문가들이 분석한 2차자료들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기도 한다. 이 경우 경험담은 사건 당대가 아닌 후대의 가치기준에 의하여 채색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회고록에는 집필자가 경험한 사실만이 아니고 집필자가 나중에 공부해서 알아내고 평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당사자지만 사건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을 사건 후에 여러 가지 리포트나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 많이 있다. 당시에는 자신이 몰두하고 있었던 枝葉的인 부분에서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었을 뿐이고, 大局的인 부분에서

는 나중에 공부를 통해서 비로소 이해하고 그 뒤에 회고록을 집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回顧錄은 생애 전반을 요약하는 회고록과 어느 특정 역사적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회고록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6·25전쟁 초기 사단장들이었던 네 사람의 회고록은 대체로 전자에 해당된다. 회고록 내용이 6·25전쟁만을 다룬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백선엽 회고록은 거의 6·25전쟁을 주 내용으로 다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단장, 군단장, 백야전투군사령관, 총참모장의 화려한 경력을 3년간의 전쟁기간에 모두 역임한 장군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다양하고 귀중한 경험을 했고 따라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이응준과 이형근은 전쟁중 군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유재홍은 여러 전투에서 따랐던 불운으로 말미암아 6·25전쟁에서 백선엽보다 훨씬 制限的인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

다른 종류의 회고록으로는 누가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다양한 경력을 두루 역임했는가와 같은 시각과는 달리 어떤 특별한 전투경험 위주 즉 직책고하에 관계없이 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여기는 전투를 집중적으로 회상하는 회고록이 있다. 이 종류를 별로 찾을 수 없는 것은 역사연구가들에게 딱 아쉽다. 예를 들면 이형근 장군의 경우 동두천·포천전투, 유재홍 장군의 경우 영천전투 또는 현리전투, 백선엽 장군의 경우 다부동전투 또는 평양전투 등을 위주로 집중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4. 6. 30,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전쟁회고록, 한국전쟁, 육군, 미 제8군, 사단장

<ABSTRACT>

Korean War Anabasis : A Study of Generals' Memoirs

Chung, To-woong

Because memoirs in general include many well-selected historical facts, historians often use them as valuable sources. This paper deals with memoirs written by generals who fought during the 1950~1953 Korean War in order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memoirs and to widen the understanding of the war.

The paper first surveys Xenophon's Anabasis and Caesar's Gallic Wars, the two classics of war memoirs, and then makes a list of war memoirs recollecting the Korean War. It also concentrates on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four specially chosen memoirs written by Korean generals—Lee Eung-joon, Lee Hyung-keun, Yu Jai-heung, and Paik Sun-yup, respectively. The four generals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their careers. They were all infantry division commanders at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During the war, however, each one of them had quite a different experience.

The value of memoirs is that the major actor concerned with the historical event tells true war stories vividly. Historians, however, should not regard them as a collection of primary sources but must understand that they include a lot of secondary sources. Although the writer of memoirs relies on his or her diaries, letters, notes, memoranda, etc., these kinds of sources are not all related to the cold hard facts, but can be subjective to personal judgment. The writer does not always deal with his or her own experiences, but sometimes deal with indirect ones with rumors which may

prove to be false later. While sometimes telling stories by pure recollections, due to the shortness of memory the writer often relies on or refers to other sources. Also, the writer sometimes does not understand the major factor in relations to the cause and effect of an important fact until he or she studies many secondary sources provided by professional critics. In this case, the writer obviously tells stories from a viewpoint of the present.

Memoirs can be classified largely into two different categories: one illustrating an entire life span of an individual and the other focusing on a particular event. The four Korean generals' war memoirs in this paper belong to the former in that the memoirs cover not just the Korean War but other events as well. However, Paik Sun-yup's memoirs include largely the Korean War. During the war Paik served as the Division Commander, Corps Commander, and Chief of Staff of the ROK Army, all within a three-year period. As a unique general who had war experiences in such a variety of positions, Paik might have wanted to tell more stories to the younger generation. On the other hand, Lee Eung-joon and Lee Hyung-keun discredited the Defense Minister and the Chief of Staff of the Army, and Yu Jai-heung thought that he was unfortunate in many battles he fought. So naturally, they told very limited stories about the war and their experiences in it.

The other kind of war memoirs, quite far from covering an entire life period, concentrates on the special battles that the writer thinks are of importance. However, there have been few memoirs of this kind and historians miss them. For example, we could expect such memoirs as Lee Hyung-keun's memoirs of Dongducheon · Pocheon Battle, Yu Jae-heung's Yeongcheon and Hyeon-ri Battles, and Paik Sun-yup's Dabudong and Pyeongyang Battles.

Key Words : War Memoirs, Korean War, ROK Army, Eighth US Army, Division Commander

6·25전쟁기 피아 지상무기의 운용

姜 昌 國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1. 서 언
2. 기동무기의 운용
3. 화력무기의 운용
4. 지상무기 운용분석과 영향
5. 결 언

1. 서 언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집단의 김일성이 기습적으로 38도선을 돌파 남침한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3년 1개월이나 계속되는 동안 쌍방은 38도선을 각각 3회씩이나 넘나들면서 남으로는 낙동강, 북으로는 압록강까지 오르내리며, 전국토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

“전쟁은 무기가 수행한다”는 말이 있듯이 6·25전쟁에서도 전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바로 武器(Weapon)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전

쟁이 진전되면서 한국군 및 유엔군과 공산군이 운용한 武器體系¹⁾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6·25전쟁은 전쟁사적 관점에서 현대전쟁의 성격을 띠지만²⁾ 핵무기가 개발되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在來式武器³⁾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制限戰爭(Limited War)⁴⁾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피아가 경제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하기도 하였다.

6·25전쟁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주로 정치외교사, 軍事史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⁵⁾ 이렇듯 무기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했다.⁶⁾ 그 이유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무기의 구조와 성능에 대한 연구와 전쟁사 연구를 접목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6·25전쟁기의 피아의 지상무기 운용사례와 전쟁에 미친 영향이 어떠

- 1) 최근에는 전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화기와 인원, 소프트웨어(Software), 종합군수지원(ILS :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등으로 이루어진 전체 體系(System)가 필요하기 때문에 武器體系(Weapon System)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최석철, 『무기체계@현대·미래전』(21세기군사연구소, 2003), p. 23 참조.
- 2) 김인주, “해병대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발전방향”, 『군사논단』 통권 제34호(한국군사학회, 2003년 봄), pp. 102~104 참조.
- 3) 在來式武器(Conventional Weapon)란 核武器,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총칭으로 통상 武器 또는 非核武器라고도 한다.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1999), p. 451; 합동참모본부, 합동참고교범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1998), p. 345 참조.
- 4) 制限戰爭(Limited War)이란 한정된 저이목적에 부합되도록 행동지역, 사용수단, 사용무기, 병력 및 달성해야 할 목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면서 수행하는 무력전을 말한다. 육군본부, 위의 책, p. 528; 합동참모본부, 위의 책, p. 421 참조.
- 5) 6·25전쟁에 관한 정치외교사 중심의 연구는 이호재, 『한국 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이승만의 외교와 미국』(법문사, 1975); 라종일, 『끝나지 않은 전쟁, 한반도와 강대국 정치(1950~1954)』(전예원, 1994);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I(나남출판, 1996); 김학준, 『한국전쟁-원인·과정·휴전·영향』(박영사, 1997);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참조. 6·25전쟁에 관한 군사사 중심의 연구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Ⅰ』; 국방부, 『韓國戰爭史』(1976);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1990);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1995) 참조.
- 6) 최석철, 앞의 책; 나종남, “한국전쟁에 사용된 피아 주요무기 비교”, 『국방과 기술』 2000년 6월호(방위산업진흥회) 참조.

<표 1> 6·25전쟁 초기 한국군과 북한군의 지상 무기 현황⁷⁾

지상 무기	한 국 군	북 한 군
전 차	0	T-34(85mm 포) 242대
장 갑 차	24대(37mm 포)	BA-64(37mm 포) 54대
장갑차주포	0	SU-76(76.2mm) 176문
곡 사 포	105mm(M3) 88문 91문 중 3문 고장	122mm 172문, 76.2mm(평사/곡사포) 380문
박 격 포	81mm 384문, 60mm 575문	120mm 226문, 82mm 950문, 61mm 1,142문
대전차무기	57mm 140문, 2.36" 1,900문	45mm 1,142문
대공 화기	0	85/37mm 36문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때로는 무기별로 구체적인 운용사례도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6·25전쟁 당시 한국군 및 유엔군과 공산군이 사용한 지상무기 가운데 기동무기 중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화력무기 중 소총, 기관총, 대전차무기, 박격포, 화포의 운용분석과 전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동무기의 운용

무기의 효과요소는 기동성(Mobility), 화력(Firepower), 생존성(Survivability)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기동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 사용되는 무기를 기동무기라고 한다. 기동무기는 전차, 장갑차, 기동지원장비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전차는 경·중(中)·중(重)전차, 구난전차 등의 장갑차량류로 구분한다.⁸⁾

7)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1권 요약통사(1990), p. 115 참조.

6·25전쟁 개전 당시 한국군과 북한군의 병력 비율은 2:1 정도로 북한군이 우세하였으나,⁹⁾ 무기와 장비의 상대적 전투력 비율은 병력의 격차보다 더욱 심하였다.¹⁰⁾ 북한군은 T-34전차¹¹⁾ 242대를 보유하는데 비하여 한국군은 전차는 전무하였고,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화기나 항공기를 공격할 대공화기도 갖추지 못하였다.

본장에서는 기동무기 중 6·25전쟁에서 사용된 전차와 장갑자주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전 차¹²⁾

전차란 무장 裝甲한 차체에 無限軌道(Caterpillar)를 갖춘 공격병기로서 타격력·방어력·기동력을 갖춘 병기로서 일반적으로 장갑차·자주포 등을 가리키며, 넓게는 裝軌式 전투차량을 말한다. 전차와 비슷한 것으로 장갑

8) 국방부, 『국방획득관리규정』(국방부 훈령 제727호, 2003.2.1), pp. 5~6.

9) 6·25전쟁 초기 한국군의 병력은 육군 8개 사단 등 94,974명, 해군 7,715명, 해병대 1,166명, 공군 1,897명으로 계 105,752명이며, 북한군의 병력은 육군 10개 사단 등 182,700명, 해군 4,700명, 육전대 9,000명, 공군 2,000명으로 계 198,400명이었다.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上)(1995), pp. 33, 59~60 참조.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 ①-戰爭의 背景과 原因』(2004. 6), pp. 680~681.

11) 소련제 T-34는 1944년에 대량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T-34의 85mm포 또는 SU-85의 85mm포, 85mm야포, 85mm고사포 M1939는 동일한 포탄을 사용한다. 이 전차는 궤도 지지롤러가 없고, 5개의 대보기륜이 있다. 동체의 장갑은 경사지고 사각형 모양의 전방 펜더(fender) 그 위로 동체가 보인다. 포탑은 밑이 잘록하고 사각형 모양의 포탑이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포신은 소염기가 없으며, 대공 기관총이 포신 위에 장치된다. T-34전차와 유엔군이 운용한 전차의 성능 및 제원 비교는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http://rt66com/~korteng/Smallarms/tanks.htm> 참조.

12)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위의 자료 참조. 6·25전쟁시 사용된 전차 및 장갑차의 종류 및 성능에 관한 내용은 Bert Kortegaard의 자료들을 활용하였으며, T-34전차에 대한 내용은 육군본부, 팸플릿 355-29-2 『적의 장비 식별』(1963)과 미 극동사령부, *History of the North Korea Army*, 1952, Appendix I 참조.

자주포는 화포를 트랙터 위에 실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한 것으로 전차와는 별개의 것이었지만, 장갑방어력의 부여와 기동력의 향상에 따라 구조상으로는 전차와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전차는 제1차 세계대전중 고착된 참호전을 타개하기 위하여 최초 출현한 이래 세계 각국에서 개량과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는 지상전투에서 주요한 무기체계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는 적진지를 돌파하여 목표를 점령하는데 있었다.

1950년 6·25전쟁 초기에 한국군과 유엔군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북한군의 T-34전차였다. 1950년 7월 미군의 소형 M-24 채피(Chaffee) 전차가 최초 투입되었으나 북한군 T-34전차에 맞서기는 힘들었다. 이후 미군은 부산항을 통해서 전투물자를 증강¹³⁾하던 8월과 9월 이후 90mm 주포를 가진 M26 퍼싱(Pershing)전차¹⁴⁾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명성을 날린 M4A3 셔먼(Sherman)전차¹⁵⁾가 투입되어 미군 전차부대의 주력을 이루었다. 미군 전차들은 비교적 구식 모델이라서 몸체는 크지만 장갑은 얇고 주포가 약하다는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전차 운용에 제한이 많은 한국지형에서 필수적인 신속한 기동성을 보유했기 때문에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영

13) 미 제8군은 주로 在日 재고품으로써 각종 지원을 시작하였고, 부족한 것은 미 본토와 일본에서 생산하여 지원하기도 하였다. 7월 10일경 3.5인치 로켓포와 4.2인치 박격포탄을 부산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였다. 도쿄 병기창에서는 재고 장비의 수리와 아울러 변형 제작도 하여 구형전차를 M4A3전차로 변형하고, 105mm 야포의 포차와 M15A1 반궤도 차량을 한국지형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였다.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上)(1995), pp. 243~244 참조.

14) M26 퍼싱(Pershing)전차는 낙동강 유역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 해병대가 운용하기도 하였다. 퍼싱 전차는 고장이 잘나고 운전하기가 불편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T-34전차를 제압하는 화력과 방어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6·25전쟁 기간중 약 300대가 운용되었다.

15) M4A3E8 셔먼(Sherman)전차, 일명 이지 에잇(Easy Eight)은 6·25전쟁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된 미군 전차(1950년 말부터 약 680대 도착)였다. 여기에 갖춰진 76mm 포는 T-34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데다 고장이 적고 운전하기 쉬워 전차병들은 오히려 강하고 튼튼한 퍼싱보다는 셔먼을 좋아했다.

국군의 M41 센추리온(Centurion)¹⁶⁾ 전차보다 큰 활약을 하였다. 미군은 대전차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적 전차를 견제 및 제압하려 하였을 뿐, 유럽전역에서와 같은 대규모 전차 운용은 시도하지 않았다.

공산군의 주력전차였던 T-34는 1944년에 완성된 비교적 최신 모델이었으며, 35톤의 중량을 가졌으나 시속 55km 정도의 신속한 기동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한국지형에 적합한 전차였다. 실제로 나중에 투입되었던 미군의 M46 패튼(Patton) 전차¹⁷⁾는 성능은 비슷했으나 한반도의 지형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 기갑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었다. 전차의 대부분은 창고에 보관중이었으며, 부대들도 상당수가 해체되어 있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이 즉각 파견할 수 있던 전차부대는 3개 대대뿐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군의 주력전차로 활약했던 M4A3 셔먼전차도 일본 도쿄 등지의 미군 창고에 보관중이던 것을 수리해야만 했다. 퍼싱전차는 원래 독일의 괴물 전차를 대응하기 위한 전차인만큼 T-34전차의 상대로 손색이 없었으며, 셔먼전차도 일단 T-34전차보다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나 최소한 정면대결은 가능한 장갑과 화력이 강화된 개량형, 일명 M4A3E8 ‘이지 에잇(Easy Eight)’이었다. T-34전차의 85mm포를 막아낼 방어력은 부족했지만 T-34전차에 파괴된 셔먼전차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1950년 8월 초부터 부산을 통

16) 戰車を 처음으로 실용화했던 영국은 1943년 7월부터 8월에 걸쳐서 신형전차의 개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그 결과로 개발된 것이 M41 센추리온(Centurion) AVRE(Armored Vehicle Royal Engineers) 전차이다. 6·25전쟁에는 주로 MK6 센추리온(105mm포) 전차가 투입되었다. 센추리온전차의 생산과 재생산은 1962년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4,423대가 완성되었다. (주)군사정보, 『세계의 전차』 1946~2000(2000), pp. 11~13 참조.

17) M46 패튼(Patton) 전차는 1948년에 10대의 시제차량(T40)이 발주되었으며, 1948년 7월 30일 M46중전차 패튼으로 정식 명명되었다. 1950년에는 M26 1,215대를 M46으로 개조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1951년 4월까지 360대가 새롭게 생산되었는데 M46A1으로 변경되었고 1950년 8월부터 6·25전쟁에 투입되었다. (주)군사정보, 위의 책, pp. 14~15 참조.

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셔먼전차는 8월 2일, 미 육군 제89셔먼 전차대대에 배치되어 낙동강선 방어작전에 투입되어 북한군의 45mm 대전차포에 8대나 격파당했다.¹⁸⁾ 북한군은 경사진 곳에 이 포를 배치하여 셔먼전차의 장갑이 약한 뒤쪽, 혹은 경사를 오를 때 전차의 바닥을 지향하여 공격하는 방법을 북한군이 사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반면에 북한군 기갑부대의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강력한 T-34전차였으나 적절한 운반수단 없이 자체 힘으로¹⁹⁾ 북한지역에서 경상도 지역까지 300km 이상 기동함으로써 마모가 심하여 상당수가 기동력 발휘에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유엔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공중공격으로 북한군 T-34전차 100여대를 파괴시켰음은 물론 전차의 예비부품이나 새로운 전차의 투입을 차단하자 전차의 기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왜관 지역에서 낙동강을 도하하던 북한군 전차부대가 공습으로 거의 궤멸되기도 하였다.

8월 17일, 마침내 북한군 전차가 전장을 지배하던 상황이 끝나게 되었다. 왜관 일대를 방어하던 미 해병대의 퍼싱 전차가 90mm 포탄으로 공격해오는 북한군 T-34전차를 파괴시켰다. 나머지 3대도 퍼싱전차의 포격과 3.5인치 로켓포의 공격을 받고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으며, 마지막 1대는 공습으로 파괴되고 말았다.²⁰⁾

9월 15일, 맥아더 원수는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진격이 주춤한 사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켰으며, 북한군은 내륙으로 진격한 한국군과 미군의 공세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기갑전력은 완벽한 열세였다.

9월 17일, 김포공항을 방어하던 T-34전차 6대가 미 해병대 제1사단의 퍼싱 전차부대와 교전 끝에 미군은 아무 피해도 없이 6대를 완파시켰으며,

18)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앞의 자료 참조.

19) 전차를 원거리로 이동시킬 때는 열차나 트레일러로 옮겨 마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전투 투입시 기동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20)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앞의 자료 참조.

이런 식의 전차 사냥은 전차부대뿐만 아니라 3.5인치 로켓포와 무반동총용 대전차 고폭탄 덕분에 보병들도 T-34전차를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²¹⁾

9월 말에는 사실상 경기도 일대의 북한군 전차 대부분이 사라졌다. 미군 전차들의 주임무가 대전차 전투에서 서울 시내의 시가전으로 바뀌었고, 제대로 된 대전차병기가 부족하던 북한군 보병으로서는 시가전에서도 미군 전차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가 어려웠다. 이처럼 상황이 역전되자 낙동강 주변의 북한군은 다시 북으로 패주하기 시작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았다. 특히 미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패튼 장군 밑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군인이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차부대를 선두에 앞세워 후퇴하는 북한군을 섬멸할 電擊戰(Blitzkrieg)²²⁾을 시작했다. 9월 21일, 서면전차를 주력으로 한 미 육군 제1기병사단 777특수임무부대 예하 린치(Lynch) 부대가 북서쪽으로 진격하던 중 북한군의 76mm 대전차포에 격파당하기도 하였으나, 불과 5일 뒤에는 수원에서 인천에서 내려온 맥아더 원수가 지휘하는 부대와 연결이 되었다.²³⁾ 이처럼 궁지에 몰린 북한군 전차부대는 사실상 최후의 도전을 하게 되었다. 9월 27일 밤, 린치 특수임무부대에 10대의 T-34전차가 공격해왔다. 두 대의 서면전차가 격파당했으나 다른 서면이 T-34전차 8대를 격파하였으며 도주한 2대마저 추격하여 파괴하였다.

21)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앞의 자료 참조.

22) 電擊戰(Blitzkrieg)이란 제1차 세계대전후 풀러(T.F.C. Fuller)와 리델하트(B.H. Liddel Hart)의 이론적 근거 위에서 후티어 전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습적인 기동으로써 공격을 실시하며 적을 격파하는 경이적인 급속작전이다. 이는 속전속결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동과 기습을 최대로 이용한 전법이다. 육군본부, 앞의 책, p. 465;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p. 355 참조.

23) 미 육군 제1기병사단 7기병연대 예하 1대대와 3대대로 주축을 이룬 777특수임무부대가 주공 선봉임무를 맡았다. 최선두의 린치(Lynch) 부대(3대대)는 1950년 9월 22일 08:00 시 경북 다부동 서쪽을 출발하여 낙동리-상주-보은-청송-천안-오산을 돌파, 9월 26일 22:26 미 제7사단 31연대와 오산 북방 약 6km지점에서 합류하였다. 린치 부대는 9월 26일 하루 동안에 보은으로부터 약 160km 이상을 진격한 셈이다.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부도』(일신사, 1981), p. 94 참조.

<표 2> 6·25전쟁에서 사용된 주요 전차 및 장갑자주포의 종류와 성능²⁴⁾

구 분	한국군·유엔군					북한군	
	M4A3E8 Sherman	M-24 Chaffee	M-26 Pershing	M-46 Patton	M41 Centurion (영국)	T-34/85	SU-76
등 급	中	輕	重	中	重	中	장갑차
중 량 (ton)	34.8	20	46	46	57	35	12.35
장갑두께 (mm)	15~100	10~38	13~102	13~102	17~152	18~90	10~35
주 포 (mm)	76.2	75	90	90	105	85	76.2
최대속도 (mile/h)	26	34	30	30	21.5	34.2	28
항속거리 (mile)	100	100	100	80	118	186	166
승무원 (명)	5	4~5	5	5	4	5	4

10월에 접어들자 북한군 전차부대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0월까지 파괴된 북한군의 T-34전차는 239대였으며, 6·25전쟁 초기에 보유하고 있던 242대가 사실상 궤멸된 것이다. 미군은 전차 1,300대를 한국 땅에 지원한 상태였다.²⁵⁾

(2) 장갑자주포

북한군은 전차 외에도 SU-76²⁶⁾이라는 뛰어난 장갑자주포를 보유하고 있

24)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앞의 자료 참조.

25)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위의 자료 참조.

26) 소련군의 대포 중에는 대전차포 또는 일반 야포로 사용할 수 있는 포가 여러 종류가 있었으며 '元祖'격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막대한 양이 생산된 76.2mm 사단포들이다. 1932년에 등장한 76.2mm 사단포 M1939와 그 개량형인 ZIS-3(일명 M1942)이다. 소련군

었는데, 이 장비는 76.2mm 주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력 지원면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²⁷⁾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에서 이런 대전차포 겸 야포의 임무를 독특히 수행한 무기체계가 바로 76.2mm 師團砲 M1939들이었다. M1939와 그의 개량형인 M1942(ZIS-3)는 평소에는 보통 대포처럼 곡사로 원거리의 적을 사격하지만, 유사시에는 그대로 대전차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포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직접조준²⁸⁾도 가능한 조준기가 달려있다. 단지 전차를 쏘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파괴시킬 수도 있다.

1942년까지만 해도 ZIS-3은 사실상 최고수준의 대전차포였으나,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효용성이 떨어지자 경전차 T-70의 차체에 얹어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장갑을 두껍게 하여 SU-70M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T-34전차와 같은 빛을 보지는 못했으나 전장에서의 효용성은 대단하였다. 적 전차에 대한 대전차포로서도 효용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병이 적의 기관총이나 방어진지 등에 막혀 진격하지 못할 때 화력지원을 하는 보병지원용 차량으로도 적격이었다.

전차가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이지만 전차는 원래 적진 깊숙이 돌파하는데도 수가 모자라는 것이 보통이고, 이럴 때 전차보다 훨씬 저렴하고 제작하기 용이한 SU-76M 같은 자주포가 제구실을 단단히 하는 것이었다. 주임무는 보병지원이었지만, 기갑부대를 위해서도 SU-76M은 쓸모가

의 중요한 곡사포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대전차포로도 사용할 수 있었으며, 특히 M1942는 중량 6kg의 포탄을 초속 680m로 높은 관통력을 자랑했다. 독일군도 이 두 포를 소련군으로부터 노획하여 76.2mm 대전차포 M1939 혹은 76.2mm 야포 ZIS-3으로 명명하여 실전에 투입했다. 무기 부족 상태에서 적 장비를 사용한 예이지만 그만큼 성능을 인정받은 것도 사실이다. SU-76M의 주요 제원으로 길이 약 5m, 높이 약 2m, 무게 10.6톤, 70마력 가솔린 엔진 GAZ202(원래는 트럭용, SU-76M에는 2개 장착), 최고시속 45km 승무원 4명, 무장 76.2mm ZIS 사단포 1문(다른 무장은 없음)이다.

27)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앞의 자료 참조.

28) 직접조준은 목표를 실제로 쳐다보면서 조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포병이 먼 거리의 적을 쏠 때는 표적을 직접 보지 않고 쏘는 간접조준으로 사격한다.

많았다. 전차처럼 돌파임무는 수행하기 어렵지만 전차부대와 함께 행동하면서 화력지원을 하는 고전적인 자주포의 기동전에 매우 유용하였다. 1945년 생산이 종료될 때쯤에는 약 14,000대가 완성되었다.²⁹⁾ 전쟁이 끝났다고 SU-76M이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T-34/85처럼 SU-76M이 많은 공산국가에 보급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5년 뒤인 1950년에는 당시 북한군의 주력장비 중 하나로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T-34/85와는 달리 쉽게 격파가 가능하였다. 화염병만 하나 제대로 던져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SU-76M도 우리 현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무기체계 중의 하나이다.

3. 화력무기의 운용

화력무기는 小火器(Small Arms), 대전차무기(Anti-tank Weapon), 화포(Gun), 탄약(Munition)으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³⁰⁾ 이 중에서 소화기는 권총,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유탄 기관총 등의 총기류³¹⁾이다. 소화기는 전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준사격 또는 지향사격으로 적으로부터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적을 제압하는 무기이다. 이러한 소화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자동화를 추구해왔다.

대전차무기는 대전차 로켓포, 대전차 유도무기, 무반동총 등 주로 대기갑

29)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앞의 자료 참조.

30) 최석철, 앞의 책, pp. 81~82.

31) 銃器란 사람이 한손 또는 양손으로 잡고 사격할 수 있는 구경 0.6인치 이하의 권총, 소총, 기관총과 같은 개인화기 및 소형 분대급 화기를 말하며, 휴대나 운반시 개인 또는 2인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화기 및 공용화기와 구분된다. 총기류의 발달사는 www.reportworld.co.kr/data/148/F147834.html 참조.

작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류를 말한다. 대전차무기의 임무는 전장에서 적 전차를 제압, 무력화 또는 파괴하는데 있다.

화포는 경·중(中)·중(重) 박격포류, 곡사포(견인, 자주), 평사포(견인, 자주) 등 지상작전의 화력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포류, 다련장, 무유도로켓 등의 로켓류, 해안에 설치하여 해상표적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포류, 함정에 장착하여 지상·대함·대공용으로 사용되는 함포를 말한다. 일반적인 화포 분류에서는 구경장을 사용한다. 즉, 포신의 길이와 구경의 비율에 따라 박격포(Mortar), 곡사포(Howitzer), 평사포(Gun)로 구분되는데 이와 같은 분류방법은 17세기 유럽에서 사용하던 개념이다. 박격포는 구경장이 10~20까지의 포이고, 곡사포는 구경장이 20~30까지의 포이며, 평사포는 구경장이 30 이상의 포를 말한다.

본장에서는 6·25전쟁에서 사용된 화력무기 중 소총, 기관총, 대전차무기, 박격포, 화포의 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소 총

소총은 전장에서 병사 자신을 보호하고 돌격사격, 방어사격 등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임무의 종결을 확인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

6·25전쟁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이 가장 많이 사용한 소총은 M1 계열의 개런드(Garand)와 카빈(Carbine)이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되던 소총들이며, 반자동이라서 사격에 많은 제한사항이 있었다.³²⁾ 개런드 소총은 타 소총에 비해서 훨씬 무거웠으며, 근접전투나 저격용 소총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한편 아군에게 가장 많이 보급되었던 카빈 소총

32) 개런드(Garand) 소총은 1936년부터 미군의 표준소총(standard rifle)으로 사용되었으며, 1957년에 M14소총으로 대체되었고, 카빈(Carbine) 소총은 베트남전쟁 전까지 사용되었다가 베트남전쟁 직전에 M16소총으로 대체되었다.

<표 3> 6·25전쟁에서 사용된 주요 소총의 종류와 성능³³⁾

구 분	한국군·유엔군		북한군·중공군			
	M1 Garand	M1A1 Carbine	M1891 Mossin-Nagant	M1938 Carbine	PPSh-41	SVT 40
구 경 (mm)	7.62	7.62	7.62	7.62	7.62	7.62
전 장 (inch)	43.6 (110.3cm)	36.55 (90.5cm)	48.5 (123.1cm)	40 (101.5cm)	33 (83.8cm)	48.27 (122.1cm)
중 량 (lb)	9.8 (4.37kg)	5.7 (2.48kg)	9.92 (4.51kg)	8.32 (3.78kg)	8 (3.64kg)	8.9 (3.97kg)
총 열 길 이 (inch)	24	18			10.5	24.02
최대발사속도 (발/분)			8~10	8~10	900	600
유효사거리 (yard)	440 (400m)	300 (273m)	440 (400m)	440 (400m)		
탄 창 용 량 (발)	8	15/30	5	5	35/71	10

역시 한반도의 혹독한 동계기간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장진호 전투에 대한 기록들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한국군의 경우 탄약의 거의 대부분을 미군지원에 의존하였는데, 개전 후 1년간 미군에 의한 탄약보급량은 카빈 소총 4천만 발, M1 소총 1억 400만 발, 50mm 기관총탄 6천만 발 정도였다.³⁴⁾

개전 초기 북한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소총은 소련에서 제작된 M1 계열의 M1891과 M1938 카빈 등이었다. 또한 일본군 무기들이 북한지역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널리 사용된 일제 7.7mm 99소총이 개전 초기에 많이 사용되었다. 공산군은 또한 소총 외에도 기관단총(Submachine Gun)을 널리 사용하였는데, PPSH 41과 SVT 40 등은 중량

33) 나중남, 앞의 논문, p. 25.

34) 전쟁기념사업회, 앞의 책, p. 459에서 재인용.

은 가벼웠으나 최대 발사속도가 600~900발/분이나 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났다. 특히 이 장비는 人海戰術(Human Wave Tactics)³⁵⁾이라고 알려진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서 수류탄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 장비로도 유명하다.

(2) 기관총

기관총은 탄환의 발사속도가 분당 500~1,000발, 탄환속도는 400~800m/s, 유효사거리는 2~5km이다. 탄환의 장전·발사, 탄피의 방출 등 동작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며, 방아쇠의 조작에 따라 연속·단발사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구경 11mm 이하의 것을 기관총, 그 이상의 것을 중기관총 또는 기관포라고 한다.³⁶⁾

한국군이 사용했던 가장 대표적인 기관총은 수냉식인 M1917A1이었는데, 이 총은 중량이 무겁고 기동성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공격전투에서보다는 방어작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장진호 전투와 같은 동계작전에서는 더욱 진가를 발휘하여 아군의 작전수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 수냉식인 M1917A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M1919A4 기관총은 공냉식으로 개발되었으나, 지속적인 화력지원 능력 및 정확도에서 M1917A1에 미치지 못했다. M1918A2 브라우닝 기관총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전역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브라우닝 기관총은 6·25전쟁에서도 뛰

35) 人海戰術(Human Wave Tactics)이란 병력제한이 없는 군대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피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파상적인 공격으로 수적으로 압도하는 돌파, 포위, 침투를 병행한 전법을 말한다.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하여 수많은 돌파구를 형성·침입하여 방어 지역을 분단, 고립시키는 일종의 제과 공격전법이다.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p. 319 참조.

36) 6·25전쟁시 사용된 피아의 기관총에 관한 내용은 육군본부, 야전교범 23-55 『브로닝 기관총, 구경30 M1917A1, M1919A4, M1919A4E1, M1919A6 및 M37』(1955); 팸플릿 355-29-2, 『적의 장비 식별』(1953); 미 극동사령부, 앞의 책, Appendix I 참조.

어난 화력과 성능을 발휘하였는데, 보병 및 해병 분대마다 1~2정이 편제된 장비였다. 그러나 총열이 쉽게 가열되어 수시로 교체하여야 했으며, 중량이 무거워서 기동성이 제한되었다. 이 외에도 적의 차량을 주 표적으로 하는 M2HB와 같은 중기관총도 사용되었다.

한편 북한군은 1910년에 제작된 이후 여러 전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 맥심(Maxim)류의 기관총을 사용하였는데, SG-43과 M1910 SPM 등이 그것이다. M1910 SPM은 대표적인 적군의 기관총으로 전면에 사수를 보호하기 위한 철제 방패막과 견인을 위한 U형 꼬리 및 바퀴가 특징이다. 이 기관총 역시 엄청난 무게에 의해서 기동성은 제약되었으나, 아군의 사격에 의한 방호와 안정된 사격이 가능했다. 특히 전쟁 초기에 많이 사용되었다. SG-43은 PM1910의 대체무기로 제2차 세계대전중에 개발된 비교적 최신 기관총이었다. 이 무기의 작동원리 및 설계는 비교적 복잡하지만 총열을 쉽게 교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화력지원이 가능했으며 고장률도 낮아서 북한군이 선호하던 기관총이었다.

<표 4> 6·25전쟁에서 사용된 주요 기관총의 종류와 성능³⁷⁾

구 분	한국군·유엔군				북한군·중공군	
	M1917A1	M1918A2	M1919A4	M2HB	M1910 SPM	SG-43
구 경 (mm)	7.62	7.62	7.62	12.7	7.62	7.62
전 장 (inch)	38.5 (97.8cm)	47 (119.4cm)	41 (104.1)	65.1 (165.4cm)	43.6 (111cm)	45.3 (115cm)
중 량 (lb)	93 (42.3kg)	18.5 (8.33kg)	41 (18.5kg)	128 (57.8kg)	61 (69kg)	152.2 (27.7kg)
발 사 속 도 (발/분)	400~600	550	400~550	400~550	500~600	300~350
유효사거리 (yard)	1,100 (1,000m)	600 (550m)	1,100 (1,000m)	2,500 (2,287m)	1,100 (1,000m)	지상 100m 대공 500m

37) 나중남, 앞의 논문, p. 26.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관총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화기의 전술적 운용방법에서 아군과 적군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기관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화기들을 특정 사거리에 집중하여 통합해서 운용하려고 노력하였던 반면에, 북한군은 각 화기의 최대사거리 도달 이전부터 화기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작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동은 탄약운반 및 보급지원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인데, 기관총의 경우에는 사격에서의 정확도보다는 아군에게 위협감을 주고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3) 대전차무기³⁸⁾

대전차무기는 노이만 효과(Neumann Effect)를 이용한 누두상(漏斗狀) 작약탄환의 출현으로 초속에는 관계없이 관통위력을 발휘하고 저초속의 경(輕)화포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반동총에 로켓 장치를 붙인 3.5인치 로켓포(Rocket)도 출현하게 되었다. 3.5인치 로켓포는 보병의 개인 휴대화기로서 전차공격을 가능하게 했으나 사정거리가 짧아 최근에는 유도병기로서 대전차 미사일이 유력한 화기로 등장하였다.³⁹⁾

6·25전쟁 초기 전투에서 아군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적의 장비는 T-34전차였다. T-34전차는 중량이 35톤 정도의 중(中)전차였는데, 개전 이전에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대전차무기인 57mm 대전차포와 바주카(Bazooka)포⁴⁰⁾로 알려진 2.36인치 로켓포로는 제압할 수 없었다.

38) 6·25전쟁시 사용된 여러 종류의 대전차무기에 대해서는 육군본부, 야전교범 23-80 『57mm 무반동총』(1980): 팸플릿 355-29-2 『적의 장비 식별』(1963): 미 극동사령부, 앞의 책, Appendix I 참조.

39) 최석철, 앞의 책, pp. 96~97.

40) 대전차공격용의 큰 위력을 가진 로켓탄 발사기이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6·25전쟁 당시 미군이 2.36인치 로켓포를 사용하였다. 가볍고 간단한 滑腔砲身の 발사통으로 포신의 앞 끝이 나팔모양으로 넓는데, 이것이 당시의 희극배우 B. 번스

그러나 2.36인치 로켓포가 적 전차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90m의 유효사거리 이내까지 접근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적 전차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라야만 가능했을 것이다. 개전 이전부터 적 전차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해 두었던 대부분의 대전차무기들이 서울의 함락과 함께 대부분 적에게 노획되었기 때문에 적 전차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⁴¹⁾

1950년 7월 중순에 6·25전쟁에서 처음으로 전장에 등장한 3.5인치 로켓포⁴²⁾에 의해 적 전차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2.36인치 로켓포가 T-30 계열의 전차를 제압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능이 강화된 새로운 종류의 대전차무기를 개발해오던 미국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3.5인치 로켓포를 투입하여 적 전차를 제압하려 했던 것이다. 대전전투에서 미 육군 제24보병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이 직접 이 장비로 적 전차를 제압했던 사실은 유명한 일화이다.⁴³⁾ 이를 통해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비로소 가졌던 전차 공

가 애용하던 나팔, 바주카와 비슷하였기 때문에 ‘바주카(Bazooka)포’라고 명명되었다. 병사 한 명이 어깨에 메고 다른 한 사람이 탄약을 장전하여 조준, 발사한다.

- 41) 개전 초기 한강방어선에서 철수할 당시 한국군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무기를 한강 이북에 남겨두었으며, 탄약 재고품도 80% 이상 유기하였다.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1권(1992), p. 459.
- 42) 6·25전쟁 초기 북한의 소련제 T-34전차가 38도선을 넘어 남침했을 때, 한국군에는 이들에 대항할 대전차무기가 거의 없었다. 당시 보유중이던 3.5인치 로켓포를 한국전선에 공수하여 배치함으로써 적전차를 막을 수 있었다.
- 43) As told to William L. Worden by Major General William F. Dean, *General Dean's Story*(New York: The Viking Press, 1954), pp. 33~35 참조; 1950년 7월 하순 대전전투시 딘 장군이 3.5인치 로켓포로 북한군 T-34전차를 격파하는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In the days before July 20, 1950 I was getting intelligence reports from Korean Army sources ... I don't think I'm normally a brutal man, but I had just one idea. I think I said, "Hit them again!" and pointed to a spot on the other side of the turret. The bazooka(3.5" Rocket Launcher) fired and more plaster cascaded, exposing the cornstalks to which most Korean plaster is stuck. A third time the bazooka fired, and the screaming finally stopped. Smoke rose from the tank(T-34 Soviet made tank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It was very quiet in the street ...”

포증은 해소될 수 있었다. 한편 6·25전쟁 말기에 배치되기 시작한 M20 75mm 대전차포는 약 440m 정도의 거리에서 움직이는 적 전차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의 대전차무기였다.

공산군 역시 여러 가지 종류의 대전차무기를 사용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Elephant Gun 혹은 Buffalo Gun으로 불린 14.5mm 1941년형 PTRD였다. 이 장비는 북한군 보병사단에 36정이 편제되었는데, 이 장비의 장갑관통력은 25mm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적군도 아군 전차를 제압하기 위해서 57mm 1943년형 대전차포를 새롭게 전장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산군은 이 외에도 85mm 및 100mm 구경의 대전차포들을 사용하였다.

<표 5> 6·25전쟁에서 사용된 주요 대전차무기의 종류와 성능⁴⁴⁾

구 분	한국군 · 유엔군				북한군 · 중공군	
	M18 57mm	M19A1 2.36inch	M20 3.5inch	M20 75mm	PTRD-1941 14.5mm	M1943 57mm
포 열 길이 (inch)	60 (150cm)	61 (152.5cm)	60.25 (150.6cm)	76 (190cm)	78.7 (196.8cm)	164 (410cm)
총 중 량 (lb)	45 (20.2kg)	15.14 (6.8kg)	15 (6.7kg)	114.5 (51.5kg)	38.2 (17.2kg)	2,535 (1,140kg)
최대사거리 (yard)	4,300 (3,930m)	400 (365.6m)	960 (877.5m)	7,000 (6,398m)		9,200 (8,409m)
유효사거리 (yard)		120 (109.7m)	150 (137.1m)			550 (502.7m)
장갑관통능력 (inch)		5 (12.7cm)	11 (27.9cm)		0.985 (2.5m)	5.6 (14.2cm)

44) 나중남, 앞의 논문, p. 29.

(4) 박격포⁴⁵⁾

미국 육군의 중(中)박격포인 60mm와 81mm 박격포는 독일군이 개발한 81mm 박격포로서, 목재 포판과 활강식 포열로 중량 52kg에 사거리 약 2km로서 그 위력이 대단하였으며, 그 후 점차 화력지원용으로 최일선에서 긴요하게 사용되었다. 현재의 박격포 형상을 갖춘 것은 1930년에 개발되었다.⁴⁶⁾

6·25전쟁 초기에 전장의 지형에 가장 잘 적응한 장비는 단연히 박격포였다. 소총중대부터 편제된 박격포는 중량에 비해서 월등한 파괴력을 지녔으며, 포병의 지원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보병이 운용한 포병(the Infantry's Artillery)'으로 불릴 정도였다. 특히 1950년 11월과 12월에 중공군은 공군 및 포병화력의 지원 없이 박격포의 화력만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한국군의 소총중대 편제장비인 60mm M19박격포는 M2박격포의 성능을 강화시켜 포구장전에 의한 직접사격(Drop Fire) 및 격발사격(Lever Fire)이 모두 가능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포열을 수평으로 놓고 적을 직접조준하여 사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거리는 탄의 종류에 따라 다양했으나, 고퍽탄의 경우 최대사거리는 3,500m 정도였다. 보병대대의 중화기중대에 6문이 편제된 81mm M1 박격포는 각종 주·야간 전투에서 최대사거리를 활용하여 후방에서 소총중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사용하였다. 4.2인치 M30박격포의 사거리는 약 5km이었으며, 보병연대의 편제장비였다.

북한군에는 중대급에 61mm 박격포 2~3문, 대대급에 82mm 박격포 9문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군의 60mm 및 81mm 박격포의 포탄을 노획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던 화기들이다. 북한군 보병연대에 6문이 편제된 M43

45) 6·25전쟁시 사용된 박격포의 종류 및 성능에 관한 내용은 육군본부, 야전교범 23-85-1 (초안) 『60mm 박격포』(1965); 육군본부 야전교범 23-85(초안) 『81mm 박격포』(1987); 야전교범 23-92 『4.2인치 박격포』(1975); 팸플릿355-29-2 『적의 장비 식별』(1963); 미 극동사령부, 앞의 책, Appendix I 참조.

46) 최석철, 앞의 책, pp. 114~115.

120mm 박격포는 소련에서 제작된 가장 대표적인 박격포로서 조작방법이 매우 간단할 뿐만 아니라, 아군의 81mm 및 60mm 박격포의 포탄도 사격이 가능한 전천후 장비였다.

일반적으로 박격포는 장비의 특성상 전장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적 직사화기로부터의 위협은 없었으나, 적과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능선 후사면과 같은 곳에 위치하여 최대한 근접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또한 효과적인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방에 관측자를 배치하여 사격을 유도해야 했으며, 중요한 표적에 대해서는 전투 이전에 미리 제원을 획득하여 기록사격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만 했다. 한편 60mm, 81mm, 4.2인치 박격포를 사거리에 맞게 운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상급부대의 포병화력과 연계하여 적절하게 분산 및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탄약의 보급

<표 6> 6·25전쟁에서 사용된 박격포의 종류와 성능⁴⁷⁾

구 분	한국군 · 유엔군				북한군 · 중공군	
	M2 60mm	M19 60mm	M1 81mm	M30 4.2inch	M1937 82mm	M43 120mm
구 경 (mm)	60	60	81	105	82	120
포 열 길 이 (inch)	28.6 (72.6cm)	32.25 (81.9cm)	51.2 (130cm)		48 (121.9cm)	
총 중 량 (lb)	42 (19.1kg)	45.2 (20.6kg)	136 (62kg)	626 (283.5kg)	468.2 (212kg)	1104.2 (500kg)
유효발사속도 (발/분)	30~35	30~35	30~35	10~20	25	15
최대사거리 (yard)	1,985 (3,500m)	1,985 (3,500m)	3,290 (4,737m)	6,500 (5,650m)	1,724 (3,040m)	3,233 (5,700m)

47) 나중남, 앞의 논문, p. 27.

지원이었다. 81mm M1박격포의 고퍩탄인 M43A1 1발의 무게가 4.2kg이었으며, 각종 전투에 적절한 화력지원을 위해서는 후방 전투근무지원부대 및 노무부대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5) 화 포⁴⁸⁾

곡사포는 견인포와 자주포로 구분한다. 견인포는 포를 이동시킬 경우 차량으로 견인하여 이동시키는 곡사포이다. 자주포는 포 자체의 기동력을 사용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곡사포이다.

최초 자주포가 등장한 것은 1920년에 독일에서 전차 자체에 야포를 설치함으로써 자주포가 등장하였으며, 자주포는 자체 기동력이 부여됨으로써 신속한 이동준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형과 기상에도 견인포보다 제한사항이 적어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다. 1959년 미국은 155mm 자주포를, 1960년에는 8인치 자주포를 개발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자주포를 포병의 주력 무기체계로 채택하여 개발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중에도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하여 최대사거리 150km 수준의 파리스건, 레일건 등 가공할 만한 화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자, 통신, 신소재, 레이저, 광학,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의 첨단기술이 자주포 분야에 적용되면서 획기적인 성능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의 <표 7>는 최근 세기의 화포 발달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48) 6·25전쟁시 사용된 포병화기의 종류와 성능에 관한 내용은 육군본부, 야전교범 6-75 『105mm 곡사포 : 견인 M101 계열』(1969), 야전교범 6-75 『105mm 곡사포 : M101견인』(1979); 『야전교범 6-88, 155mm 곡사포 : M109 자주』(1974); 야전교범 6-81-1(초안) 『155mm 곡사포』(1983); 주특기교범 131-130 『전포 : 105mm, 155mm, 8인치, 175mm 곡사포/평사포』(1989); 팸플릿 355-29-2 『적의 장비 식별』(1963); 미 극동사령부, 앞의 책, Appendix I 참조.

<표 7> 19세기 중반~20세기 중반의 화포 발달과정⁴⁹⁾

연 도	발 전 추 세	발 전 내 용
1856	○ 크리미아 전쟁 - 포병의 역할 강조	○ 포병의 질적 향상 연구 시작 - 강선포 채택, 철제포신 등장
1897	○ 주퇴복좌기 적용 곡사포	○ 프랑스 75mm 견인 곡사포 등장
1910	○ 탄막사격 개념도입 및 간접사격(전투지역: 2마일)	○ 제1차 세계대전 초기 - 프랑스 4문: 1개 포대 - 독일 1문: 1개 포대
1938	○ 장거리포 등장	○ 독일: 파리스건(150km)
~1941	○ 미국 독자적인 곡사포 개발 (전투지역: 10마일)	○ 105mm 곡사포(1938): 11km ○ 155mm 곡사포(1941): 14.7km
1947 ~1958	○ 자주포 등장(미국)	○ 155mm 자주포 M44개발: 14.6km ○ 105mm 자주포 M52개발(1950): 11.3km ○ 105mm 자주포 M108개발(1958): 11.5km

6·25전쟁 초기 북한군은 122mm 신형곡사포를 비롯하여 총 552문의 곡사포를 보유하는데 비해 한국군은 105mm M3곡사포 91문을 보유하고 있었고, 북한군은 120mm 박격포를 포함한 총 1,728문의 박격포를 보유하는데 비해, 한국군은 81mm 박격포와 60mm 박격포를 합하여 960문을 보유하고 있었다.⁵⁰⁾ 야포의 사거리면에서도 당시 한국군 화력의 핵심이었던 105mm M3곡사포는 북한군 포병의 주무기인 122mm 곡사포 사거리의 약 1/2정도였다.⁵¹⁾ 6·25전쟁 말기의 진지전을 상징하는 장비는 단연히 105mm, 155mm, 8인치 곡사포 등을 포함한 포병장비이다. 실제로 많은 양의 포탄이 적을 향해 날아갔으며, 또 아군의 진지를 위협하였다. 마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베르덩

49) 최석철, 앞의 책, pp. 104~105.

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pp. 680~681.

51)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1985), p. 327 참조.

(Verdun) 전투⁵²⁾를 상기하는 듯한 쌍방간의 포격에 의해서 각종 작전수행 및 기동형태 등에서 큰 변화가 뒤따랐는데, 이와 같은 6·25전쟁 말기의 전선교착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이 포병화기였다.

공산군 역시 포병화력의 우세를 점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장비 및 포탄을 투입하였다. 개전 초기부터 북한군의 포병화력은 대단한 수준이었다. 우선 사단에 122mm 곡사포 12문, 76mm 야포 24문, 76mm 자주포 12문, 45mm 대전차포 12정이, 예하 3개 연대에는 4문의 76mm 곡사포와 122mm 야포 등이 편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의 박격포들까지 포병화기로 분류하여 전투부대를 지원하였다. 특히 중공군과 북한군은 개전 초기부터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포병이 유일한 화력지원 수단이었으므로 포병화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다.

<표 8> 6·25전쟁에서 사용된 주요 포병화기의 종류와 성능⁵³⁾

구 분	한국군·유엔군			북한군·중공군	
	M105 105mm 곡사 견인	M109 155mm 곡사 견인	M115 8inch 곡사 견인	M1942 76mm 곡사 견인	M1938 122mm 곡사 견인
구 경 (mm)	105	155	203	76.2	122 (4.8inch)
중 량 (lb)	(2,300kg)	14,783 (6,855kg)	(13,500kg)	2,460 (1,107kg)	4,960 (2,300kg)
최대사거리 (yard)		19,793 (18,100m)		14,545 (13,236m)	12,904 (11,800m)
발사속도 (발/분)	3~10	2~4	1~2	25	5~6

52) 1916년 2월 독일군이 프랑스 파리의 동북방 약 200km 되는 베르딩(Verdun) 지역의 요새를 공격하여 함락하기도 하였으나, 프랑스군이 가을에 반격하여 12월 18일에는 이 지역을 되찾음으로써 프랑스군 542,000명, 독일군 434,000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쌍방이 출혈을 보면서 끝이 났다. 김행복 외, 『20세기 지구촌 전쟁』(병학사, 1996), pp. 36~37 참조.

53) 나중남, 앞의 논문, p. 30.

4. 지상무기 운용분석과 영향

(1) T-34전차의 운용과 전차의 도입 필요성 대두

한국군이 단 한대의 전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군은 76mm 주포를 가진 소련제 T-34전차 242대를 앞세운 보·전·포 협동공격으로 3일만에 수도 서울을 탈취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군이 보유한 대전차무기인 2.36인치 로켓포로는 이동하는 적 전차를 격파할 수가 없었다. 7월 18일 대전 전투에서 추가로 투입된 3.5인치 로켓포로 적 전차를 격파할 수 있었다. 북한군 T-34전차와 맞서기 위하여 1950년 7월 미군의 소형 M-24 채피전차를 투입하였으나 성능이 약하여 8월과 9월 이후 90mm 주포를 가진 M-26 퍼싱 전차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명성을 날린 M4A3 셔먼전차, 영국군의 M41 센추리온전차를 투입하였다. M-46 패튼전차도 투입하였으나 차체가 커서 한국지형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북한군의 주력전차인 T-34전차는 1944년에 완성되었으며, 35톤의 중량을 가졌으나 시속 55km의 신속한 기동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한국지형에 적합한 전차였으나, 유엔 공군의 제공권 장악으로 장거리 기동에 따른 이동운반체 미비 등 보급지원에 애로점이 있었다. 그러나 미군은 대전차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적 전차를 견제 및 제압하려 하였을 뿐, 유럽전역에서와 같은 대규모 전차 운용을 시도하지 않았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낙동강 전선에서 전차부대를 선두에 세워 후퇴하는 북한군을 섬멸할 전격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유엔 공군의 공습으로 적 전차의 전진속도를 늦추는데 효과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한국지형에 맞는 전차의 운용으로 적 전차의 제압이 가능했고, 대전차무기의 효과성도 입증된 계기가 되었으나 한계점이 있었으며, 한국군의 전차 도입과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SU-76 장갑자주포의 활약

북한군이 6·25전쟁 초기 176대를 보유했던 SU-76 장갑자주포는 76.2mm 주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력지원면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보병지원용 차량으로 효과적이었다. 전차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제작이 용이하며, 전차처럼 돌파임무는 수행하기 어렵지만 전차부대와 협동으로 화력지원을 하는 고전적인 자주포의 기동전을 수행하였다.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6·25전쟁 초기 자주포가 한 문도 없던 한국군에게는 T-34전차와 더불어 공포의 대상이 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T-34전차와는 달리 장갑력이 약하여 화염병만 하나 제대로 던져도 쉽게 무력화가 가능하였다. 이후에도 장갑력이 강하며 생존력이 높고 화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주포의 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3) 다양한 소총의 운용과 발전

6·25전쟁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이 사용한 소총은 M1계열의 개런드 소총과 카빈 소총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한 소총이었으며, 반자동식이라서 사격에 많은 제한사항이 있었다. 북한군은 소련제 M1계열의 M1891과 M1938 카빈 소총과 일본이 남기고 간 7.7mm 99식 소총을 많이 사용하였다. 공산군은 PPSH 41과 SVT 40 등 기관단총은 중량이 가볍고 최대발사속도가 600~900발/분이나 될 정도로 성능이 우수한 소총을 널리 사용하였으며, 특히 중공군은 인해전술로 공격시 수류탄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

(4) 기관총의 전술적 운용방법 차이

한국군이 방어작전시 많이 시용한 기관총은 수냉식인 M1917A1이었는데,

중량이 무거운 단점이 있으나 장진호 전투와 같은 동계작전시 사용되었다. M1919A4 기관총은 공랭식으로 개발되었으나, 지속적인 화력 발휘와 정확도가 낮았다. 따라서 M1918A2 브라우닝 기관총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전역에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은바 있고 6·25전쟁에서도 뛰어난 화력과 성능을 발휘하였는데, 보병 및 해병 분대마다 1~2정을 편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총열이 쉽게 가열되어 수시로 교체해야 했으며, 중량이 무거워 기동성에 제한이 많았다. 북한군은 PM1910의 대체무기로 SG-43 기관총을 운용했는데 총열을 쉽게 교환할 수가 있어 안정된 화력 발휘를 할 수가 있었다.

화기의 전술적 운용방법면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기관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화기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각 화기의 최대사거리 도달 이전부터 화기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작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은 탄약운반과 보급지원의 한계점을 드러낸 것인데, 기관총의 경우에는 사격에서의 정확도보다는 아군에게 위협감을 주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였다.

(5) 대전차무기의 효과성과 한계점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T-34전차를 제압하기 위하여 57mm 대전차포와 2.36인치 로켓포를 운용하였다. 2.36인치 로켓포로 적 전차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90m의 유효사거리 이내까지 접근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적 전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야 가능했을 것이다. 개전 초기 비축해 두었던 대부분의 대전차무기들이 서울의 함락과 함께 적에게 노획되어 적 전차를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1950년 7월 중순에 등장한 3.5인치 로켓포에 의해 적 전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공산군은 아군 전차를 14.5mm 1941년형 PTRD를 북한군 사단에 36정이

편제 되었으나 관통력이 25mm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57mm 1943년형 대전차포를 투입·운용하게 되었고, 85mm와 100mm 구경의 대전차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6·25전쟁에서 대전차무기의 운용 결과로 얻은 효과성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최신풀기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6) 박격포탄의 호환성과 전투근무지원

소총중대부터 편제된 박격포는 중량에 비해서 월등한 파괴력을 지녔으며, 포병의 지원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보병이 운용한 포병'으로 불렸다. 1950년 11월과 12월에 중공군은 공군 및 포병화력의 지원없이 박격포의 화력만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기도 하였다. 한국군의 연대급에 4.2인치 박격포, 대대급에 81mm 박격포, 중대급에 60mm 박격포를 편제하여 운용하였다. 81mm는 보병대대의 중화기중대에 6문이 편제되어 각종 주·야간전투에서 최대사거리를 활용하여 후방에서 소총중대를 지원하였다.

북한군은 중대급에 61mm 박격포 2~3문, 대대급에 82mm 박격포 9문, 연대급에 M43 120mm를 편제하여 운용하였으며, 아군의 81mm 및 60mm 박격포포탄도 사용이 가능한 전천후 장비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각종 전투의 화력지원을 위해서는 후방 전투근무지원부대와 노무부대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7) 포병화기의 집중운용과 전투부대 화력지원

6·25전쟁 말기 진지전을 상징하는 장비는 단연히 105mm, 155mm, 8인치 곡사포 등을 포함한 포병장비이다. 실제로 많은 양의 포탄이 적을 향해 날아갔으며, 또 아군의 진지를 위협하였다. 6·25전쟁 말기의 전선교착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이 포병화기였다.

공산군은 개전 초기부터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포병이 유일한 화력지원 수단이었으므로 포병화력의 우위를 점하고 전투부대를 강력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집중운용을 하였다. 북한군은 사단에 122mm 곡사포 12문, 76mm 야포 24문, 76mm 자주포 12문, 45mm 대전차포 12정이, 예하 3개 연대에는 4문의 76mm 곡사포와 122mm 야포 등이 편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의 박격포들까지 포병화기로 분류하여 전투부대에 화력을 지원하였다.

5. 결 언

지금까지 6·25전쟁에서 한국군 및 유엔군과 공산군이 사용했던 지상무기의 운용과 전쟁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기동무기의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필자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기동무기 가운데 전차와 장갑자주포의 운용에 대한 것이었다. 6·25전쟁 초기 북한군은 T-34전차(1944년 소련 제작, 주포 85mm, 중량 32톤, 시속 55km, 항속거리 300km) 242대를 운용하였다. 기동력이 우수하고 한국지형에 적합하였으나 운반수단 없이 300km 이상의 기동으로 가동률이 저하되었다. 유엔군은 개전 3일만에 제공권을 장악하고 적 전차를 격멸하기 시작했다. 1950년 9월말 전차부대를 앞세워 북한군을 섬멸할 전격전도 시행하여 10월 말에는 T-34전차를 사실상 궤멸시켰다.

유엔군이 운용한 전차는 미국제 M-24 채피(Chaffee), M26 퍼싱(Pershing), M4A3 셔먼(Sherman) 및 M46 패튼(Patton)전차와 영국제 M41 센추리온(Centurion)전차였다. 미군은 대전차무기를 사용하여 적 전차를 견제 및 제압하려 하였을 뿐 대규모 전차 운용은 시도하지 않았다. M41 센추리온과 M46 패튼전차는 한국지형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SU-76 장갑자주

포(주포 76.2mm)는 주로 보병을 지원했으며 전차와 같은 돌파임무에는 부적합하지만 전차부대와 협동으로 화력지원을 하는 고전적인 자주포의 기동전을 수행하였다. 장갑이 약하여 T-34/85와는 달리 쉽게 격파되었으나 많은 활약을 한 무기체계이다.

두 번째는 화력무기의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필자가 관심을 끈 것은 소총, 기관총, 대전차무기, 박격포, 화포의 운용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제2차 세계대전시 사용되었던 M1계열의 개런드(Garand)와 카빈(Carbine) 소총을 사용하였다. 개런드 소총은 반자동으로 타 소총에 비해서 무거웠으며, 근접전투나 저격용 소총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카빈 소총은 동계기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개전 초기 북한군은 소련제 M1891, M1938 카빈 소총과 일본제 7.7mm 99소총을 사용하였다. PPSH 41과 SVT 40 같은 기관단총은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공격시 수류탄과 함께 많이 사용되었다.

한국군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기관총은 수냉식인 M1917A1, 공랭식 M1919A4, 브라우닝(Browning)이었다. 북한군은 맥심(Maxim)류의 기관총 SG-43과 M1910 SPM을 사용하였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기관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화기들을 특정 사거리에 집중하여 통합해서 운용하였다. 북한군은 각 화기의 최대사거리 도달 이전부터 화기들을 개별적으로 운용하여 아군을 기선제압하였다.

한국군은 57mm 대전차포와 2.36인치 로켓포를 운용하였다. 2.36인치 로켓포는 성능이 부족하여 T-34전차를 제압할 수 없었으나, 75mm 대전차포는 약 440m 거리에서 이동하는 적 전차를 제압할 수 있었다. 북한군은 대전차무기인 14.5mm PTRD(1941년형), 57mm(1943년형), 85mm, 100mm 대전차포를 운용하였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60mm, 81mm, 4.2인치 박격포를 운용하였다. 81mm는 주·야간전투에서 보병임무 지원용으로 운용되었다. 북한군은 61mm, 82mm, 120mm 박격포를 아군의 60mm와 81mm 박격포 포탄을 노획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운용하였다.

6·25전쟁 말기 진지전 수행시 한국군과 유엔군은 105mm, 155mm, 8인치 고사포를 운용하였다. 북한군은 개전 초기부터 122mm 곡사포, 76mm 야포, 76mm 자주포, 45mm 대전차포를 운용하였으며, 대구경 박격포들까지 포병화기로 분류하여 전투부대를 지원하였다. 중공군과 북한군은 개전 초기부터 제공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포병이 유일한 화력지원 수단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상무기의 운용분석과 전쟁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았다. 북한군은 T-34전차를 앞세운 보·전·포 협동공격으로 3일만에 수도 서울을 탈취하였는데, 대전차무기로는 적 전차를 제압하는데 한계점이 있어 한국지형에 적합한 전차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SU-76 장갑자주포는 76.2mm 주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력지원면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보병지원용 차량으로 효과적이었다. 피아간에 다양한 소총이 운용되었으나 사격에 많은 제한사항이 있었다. 중공군은 인해전술로 공격시 수류탄과 함께 기관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화기의 전술적 운용 방법면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기관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화기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북한군은 각 화기의 최대사거리 도달 이전부터 화기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작전을 전개하였다. 박격포는 중량에 비해서 월등한 파괴력을 지녔으며, 포병의 지원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보병이 운용한 포병'으로 불렸다. 중공군은 공군 및 포병화력의 지원 없이 박격포의 화력만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기도 하였다. 북한군은 아군의 81mm 및 60mm 박격포의 포탄도 사용이 가능한 전천후 장비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각종 전투에 화력지원을 위해서는 후방 전투근무지원부대와 노무부대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공산군은 개전 초기부터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포병이 유일한 화력지원 수단이었으므로 화력의 우위를 점하고 전투부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집중운용을 하였으며, 대구경의 박격포들까지 포병화기로 분류하여 전투부대에 화력을 지원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6·25전쟁에 사용된 대부분의 한국군 및 유엔

군과 공산군의 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운용되었던 것들이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조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6·25전쟁은 대량의 무기가 투입·운용된 국제적 전쟁이었으며, 무기체계의 운용면에서도 제한전쟁의 성격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현지 지형에 적합한 무기의 도입·운용, 교리의 발전, 무기의 성능 개량·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 전쟁이었다.

(원고투고일 : 2004. 6. 21,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6·25전쟁, 무기체계, 전차, 소화기, 화포

<ABSTRACT>

The Employment of Ground Weapon System during the Korean War

Kang, Chang-kook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employment of ground weapon system of friendly or foe during the Korean War. During the Korean War from 25 June 1950 to 27 July 1953, friendly forces including the ROK Armed Forces and UN Allied Nations including the USA, and foe forces including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and Chinese Communist Forces (CCF), employed the various kinds of weapon system. Those weapons were used the Second World War. Some of them were modified when necessary.

The Korean War was the International War that executed the massive of weapon, and the Limited War in the employment aspect of weapon system. Major weapon system employed in the war, were the conventional weapons such as tanks, armored vehicles, small arms, machine guns, anti-tank weapons, mortars, and guns even though th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 had developed alread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ajor maneuvering weapons and fire power weapons of the ground weapon system employed during the Korean War, we can obtain the lessons and effects to the war as the followings :

Without of any warning, the NKPA led by 242 T-34 tanks made in USSR, struck all across the 38th parallel with synchronized preparatory field artillery and mortar fire, and occupied Seoul, the Capital, in three days.

The ROK Armed Forces could not destroyed the tanks due to its capability. Consequently, the ROK Armed Forces maneuverable in the Korean peninsula, needed strongly tanks. And the friendly forces' tanks such as M24 Chaffee, M26 Pershing, M4A3E8 Sherman, M46 Patton, and M41 Centurion were employed.

The NKPA's 176 SU-76 Armored Vehicles equipped 76.2mm gun, were employed with the tanks and 211 fighters by the NKPA during the Korean War. Its major role was fire support for ground troops with its main gun, and its firepower was effective to the infantry units. Various types of small arms such as M1 Garand and Carbine, M1891 and M1938 Carbine, were employed, but those weapons had limitations for firing. The CCF used PPSH-41 sub-machinegun with hand grenades when they were execution the human wave tactics. In the dimension of employing fire weapons, the ROK Armed Forces and UN Allied Nations employed various small arms separately, but the NKPA and CCF used various types of small arms in separate before reaching their effective ranges.

Mortars called 'the Infantry's Artillery' had strong destructive power comparing their weight, and employed in the mountain areas where howitzers could not support their fire power. The CCF employed mortars without howitzers, and turned out favorable for them. The NKPA employed 61mm and 82mm mortars which could use the friendly shells of 60mm and 81mm mortars. The combat service support and civilian service corps' support in the rear area, were essential in order to fire support for various combats.

The reason why the communist forces lost the air supremacy in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the sole means of fire support was the artillery including 122mm howitzers, 76mm guns, and 45 anti-tank guns. To obtain superior in fire, and support combat units, the communist forces concentrated and employed various fire weapons such as howitzers, guns, and mortars, and even they classified the large calibered mortars as the fire weapon, and supported fire power for the combat units.

Throughout the Korean War, we can hav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at the weapon suitable to the Korean peninsula need to introduce and employ, the doctrine need to develop, and the performance of weapon system need to modify and develop, too.

Key Words : Korean War, Weapon System, Tank, Small Arms, Howitzer

周留城·白江의 位置比定에 관하여

- 軍事史學的 研究方法에 의한 考察 -

李 鍾 學

(서라벌군사연구소장)

1. 머 리 말
2. 종래의 諸見解
3. 軍事史學的 研究方法에 의한 考察
4. 맺 음 말

1. 머 리 말

7세기 후반의 한반도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대립의 최종단계에 이르렀다. 백제의 攻勢에 의해 위기에 몰린 신라는 唐의 협력을 얻어, 660년 먼저 백제를 항복시켰다. 그러나 옛날부터 백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倭國은, 백제 부흥군의 활동을 지원하여 출병했으나, 663년 白江¹⁾海戰

1) 『三國史記』에는 『白江』, 『白沙』로, 『日本書紀』에는 『白村江』, 『唐書』에는 『白江』, 『白江口』로 표기되어 있다.

에서 참패를 당했다.

羅唐聯合軍과 百濟復興·倭軍에 의한 白江·周留城²⁾을 무대로 하는 백제 최후의 결전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地名比定에 혼선이 있고, 그것이 현재의 어디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定說이 없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古戰場의 位置比定의 究明에는 軍事理論을 바탕으로 하는 軍事史學的 研究方法³⁾을 전연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軍事理論의 필요성을 조금이라도 시인한 것은, 今西가 “나는 軍事에 무식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여…….”⁴⁾ 하는 정도이고, 많은 연구자들은 古戰場의 位置比定에 軍事理論의 필요성,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兵法에 의하면, 『싸우는 場所, 싸우는 日時를 적보다 먼저 알고 있다면, 가령 천리의 길을 원정해도 적에게 승리할 수 있다』⁵⁾고 했고, 또 나폴레옹은 『전쟁이란 위치의 업무이다』⁶⁾(War is a business of Positions)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戰略地點의 占有는 戰爭·作戰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대사이며, 새삼스럽게 戰例를 소개할 필요는 없으리라.

필자는 周留城·白江의 位置比定에 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동안 현지답사의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금년(2003) 6월초,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의 林 吉永戰史部長과 부안군청의 문화재전문위원 金鍾云 박사의 안내로 함께 조사·답사를 했는데, 이것은 그 결과이며, 軍事史의 研究方法에

2) 『三國史記』에는 『豆良尹城』, 『豆陵尹城』, 『豆率城』으로, 『日本書紀』에는 『州柔城』, 『疏留城』으로, 『唐書』에는 『周留城』으로 표기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1530)의 扶安縣에 의하면, ·禹陳巖: 변산 꼭대기에 있다. 바위가 몸은 둥글면서 높고 크고, 바라보면 눈(雪)빛이다. 바위 밑에 3개의 굴이 있는데…·〔備考〕 禹金城: 禹金巖 기슭에 있다. 둘레는 10리인데, 妙香寺가 그 안에 있다.

그 후, 『禹陳古城』, 『遇金山城』, 『位金岩山城』으로 불렸으나, 1994년 3월 발행 이후의 國立地理院 5만분의 1 지도에는 『周留山城』으로 기재되어 있다.

3) 拙著, 『韓國軍事史序說』(경주: 서라벌군사연구소, 1989), pp. 11-77.

4) 今西 龍, 1930『白江考』, 『百濟史研究』(東京: 國書刊行會, 1970), p. 358.

5) 孫武, 『孫子』(513 B.C.?) 虛實 第6.

6) Alfred T. Mahan, *Naval Strategy* (Westpoin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11), p. 127.

의한 周留城·白江의 位置比定에 관한 시도이다.

2. 종래의 諸見解

1) 安鼎福에 의하면 豆良尹城은 지금의 定山(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이고 … 古沙比城은 지금 未詳이라 했다.⁷⁾

2) 津田左右吉에 의하면, 周留城의 位置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금강 하류의 西岸에 있는 것 같다. 『舊唐書』에 後年 周留城을 함락시킨 모습을 기록하여 『劉仁軌…率水軍及糧船, 自熊津江往白江, 以會陸軍, 同趨周留城, 仁軌遇扶餘豐之衆於白江之口, 四戰皆捷, 楚其舟四百艘, 賊衆大潰, 扶餘豐脫身而走』라 말하고, …文武王의 書에 『行至周留城下, 此時倭國船兵來助百濟, 倭船千艘停在白沙, 百濟精騎岸上守船, 新羅驍騎爲漢前鋒, 先破岸陣, 周留失膽, 遂卽降』이라 말한 것도 이를 가르킨다. 이러한 글에서 미루어보아, 周留城 함락의 원인은 白江의 패전에 있었으니, 따라서 周留城의 위치가 白江의 연안임을 알 수 있으리라. 白江은 濟紀에 伎伐浦의 別名이라 하니, 금강의 하구 또는 하구에서 멀지 않은 하류일 것이다. … 州柔가 周留이어야 하는 것은 『日本書紀』에 이것을 가지고 福信이 豐璋을 翁립하여 據守시킨 백제군의 근거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白村江은 소위 白江으로서, 또한 그것이 금강의 하구 부근이라는 것은 일본군이 海路로 곧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白江의 패전에 의해 곧 함락한 州柔, 즉 周留城의 위치가 금강의 하류이어야 한다는 것, 『書紀』도 또한 이를 증명하고 있다. … 또 文武王의 書에 『福信起於江西』라 했는데, 소위 江西의 근거지는 周留城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7) 安鼎福, 1778『東史綱目』第4 上, 辛酉年.

… 나는 여전히 周留城을 가지고 韓山附近이라 하고, 또 이것을 豆良尹城이라 기록했다는 가정설을 유지한다.⁸⁾

3) 小田省吾에 의하면 白江, 이 江名은 종래 보통의 책에는 錦江 즉 熊津江의 하류라 부르고 있지만, 나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금강의 江口는 『三國史記』에 熊津江口 또는 熊津江이라 하고, 白江의 河內는 별도로 白江口로 기록되어 있고, 결코 동일한 하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同書 周留城包圍의 條에 『劉仁軌 등 水軍 및 糧船을 이끌고 熊津江으로부터 白江으로 나아가, 거기서 陸軍과 만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唐의 수군은 熊津江口를 나와 白江으로 향한 것이 틀림없다. 두 강은 분명히 각각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白江은 어느 강에 해당하는 것일까? 다행히 『三國史記』에 『白江 혹은 伎伐浦라 한다』고 되어 있다. … 생각건대, 周留城攻擊 때, 劉仁軌의 唐水軍은 熊津江口를 나와 白江口, 즉 東津江口로 향했으리라. 따라서 나는 白江口, 즉 伎伐浦를 현재의 東津江河口로 比定하고자 한다. … 이미 東津江口를 白江으로 시인한다면, 나는 지금의 扶安邑 혹은 그 부근의 古城址를 周留城으로 比定하는 것을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⁹⁾

4) 池內 宏에 의하면, 이들 兩說을 보건대 津田氏가 『通鑑』 및 『舊唐書』에 唐軍이 熊津江口에서 白江으로 향했다는 것은, 상류에서 下航했다는 뜻이며, 熊津附近을 熊津江이라 말하고, 河口附近을 白江이라 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小田氏는 『唐의 水軍은 熊津江口를 나와 白江으로 향한 것이 틀림없다. 두 강은 분명히 각각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견해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여기에 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면 나는 前說의 타당함을 믿는다.

8) 津田左右吉, 1913『百濟戰役地理考』, 『津田左右吉全集』 第11卷(東京: 岩波書店, 1964), pp. 172-173, p. 177.

9) 小田省吾, 1927『朝鮮史大系』(上世史)(東京: 原書房復刻版, 1975), pp. 194의 1-196.

前掲의 『舊唐書』百濟傳에 「道琛 등이 熊津江口에 兩柵을 세워 官軍을 막았다.」고 하는 이상, 소위 熊津江은 금강의 하류를 가르키는 것이어야 한다. 즉 熊津江의 명칭은 금강의 하류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熊津江의 하류에 대해 白江의 명칭도 있었던 것은, 龍朔 3年の 周留城攻擊에 관하여 百濟傳에 「劉仁軌…自熊津江往白江, 以會陸軍,」이라 하고, 『通鑑』에는 「仁軌…自熊津入白江, 以會陸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도 안다. … 나는 周留城의 위치를 扶安邑 혹은 그 부근이라는 小田氏의 說을 부인하고, 津田氏의 견해에 따라 이 名城의 古址를 금강 하류의 右岸 가까운 데서 찾고자 한다.¹⁰⁾

5) 今西 龍에 의하면 周留城의 위치는 어디인가. 먼저 얘기한 바와 같이, 그것은 古阜附近에 있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龍朔 3年(663), 이것을 공격하는 데, 熊津都督府로부터 水陸路로 나누어, 水軍이 熊津江(지금의 錦江)을 내려와 白江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는 방법을 택한 것, 周留을 평정하자 곧 군대를 돌려 任存을 공격한 것을, 『南方已定, 廻軍北伐,』이라 기록한 데서도 그 위치의 대강을 추측할 수 있다. … 그렇다면 古阜附近에 山城을 구한다면, 古阜에 가깝고 그 東南에 위치하는 斗升山城과 그 서쪽 약 16킬로미터에 있는 遇金岩山城이다. 이 斗升山이야말로 周留城이다.…¹¹⁾

邊山の 동쪽 한 봉오리에 거대한 바위가 서 있으며, 아무데서나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 이 바위가 곧 位金巖이며, 이 바위를 한 모퉁이로 해서 山城址가 있다. 즉 位金巖古山城이며 내가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周留城이다.¹²⁾

만약 唐羅의 陸軍이 주로 扶安方面으로부터 周留城으로 향했다면, 白江은 小田教授가 比定한 것처럼 東津江이 되어야 하지만, 만약 唐羅軍의 陸

10) 池內 宏, 1934『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史研究』(上世第二冊)(東京:吉川弘文館, 1960), pp. 113-115.

11) 今西 龍, 1930『周留城考』, 『百濟史研究』(東京:國書刊行會, 1970), pp. 346-348.

12) 上掲書, pp. 513-514.

軍이 주로 古阜方面을 근거로 하여 周留城으로 향했다면, 前記의 두 江 외에 變山반도의 남쪽에 있는 苗浦內浦도 가해야 한다. … 나는 萬頃江·東津江을 白江의 후보지로 하는 외에, 이 內浦도 여기에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¹³⁾

6) 申采浩에 의하면, 唐將 蘇定方은 白江口의 伎伐浦에 이르러 數里 진 풀(泥海)에 행군할 수 없어 草木을 베어다가 바닥에 깔고 간신히 들어오는데 … 義直이 衆軍을 호령하여 격전하다가 죽으니 … 신라인이 義直의 죽은 곳을 이름하여 釣龍臺라 하니 … 白村江은 『海上雜錄』에 보인 바, 義直의 죽은 곳이라 함이 可하니라.¹⁴⁾

周留城(金庾信傳의 豆率城이니 今燕岐의 元帥山?)을 …¹⁵⁾

7) 李丙燾에 의하면, 福信·道琛 등은 … 任存城으로부터 南下하여 周留城(韓山)에 據하고 熊津江口(白江) 沿岸에 兩柵을 세워 …¹⁶⁾

周留城은 첫째 險高하다는 것과 또 泗泚城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점, 熊津江(錦江)口 부근에 있어 倭國과의 교통이 편리한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흔히들 말하는 바와 같이 이를 지금 舒川郡 韓山面의 乾芝山城에 比定하고 싶다.¹⁷⁾

이러한 견해는 그 후 李弘植,¹⁸⁾ 李基白,¹⁹⁾ 李基東,²⁰⁾ 鄭孝雲,²¹⁾ 金昌錫²²⁾ 등에 의해 수용되었다.

13) 上揭書, pp. 357-359.

14) 申采浩, 1931『朝鮮上古史』(서울: 鐘路書店, 1948), p. 354.

15) 上揭書, p. 359.

16) 李丙燾, 『韓國史』(古代篇)(서울: 乙酉文化社, 1959), p. 514.

17)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國譯篇)(서울: 乙酉文化社, 1983, 4版), p. 429.

18) 李弘植 編, 『國史大事典』(서울: 知文閣, 1963)(上), p. 558 및 (下) p. 1455.

19) 李基白, 『韓國史新論』(서울: 一潮閣, 1967), pp. 86-87.

20) 李基東, 『百濟史研究』(서울: 一潮閣, 1996), p. 35.

21) 鄭孝雲, 『七世紀代의 韓日關係의 研究—白江口戰에의 倭軍派遣 動機를 中心으로—』(下), 『考古歷史學志』 第7輯,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1, pp. 219-220.

8) 全榮來에 의하면, 周留城은 沿岸地方인 白江口에 伎伐浦 海岸이 있고, 이 일대에 古沙比城, 避城 등이 서로 이웃하고 있다고 前提하고, 기별포를 백제의 皆火縣으로 후의 扶寧地方으로 보아, 古沙比城은 古沙夫里로 現 古阜地方이고, 白村 곧 白江은 百濟 所良買縣인 現 扶安郡 白山面 一帶이며, 避城은 百濟 碧骨郡으로 現 金堤地方이라 하여, 周留城(豆良尹城)의 위치를 現 苗浦灣을 거느린 扶安郡 上西面에 있는 位金岩山城과 그 주변에 比定하였다.²³⁾

9) 盧道陽에 의하면, 周留城이란 地名은 661년대에는 지금의 忠南 靑陽郡 定山面の 豆陵尹城을 지칭하였고, 662년대에는 支羅城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는 663년 8월에 唐羅軍에게 함락된 백제부흥군의 최후의 근거지 周留城을 말한다. 이 周留城의 위치를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에 있는 位金岩山城으로 比定한다. 白江·伎伐浦·白江口를 지금의 금강의 하류로 보는 데는 동의할 수 있으나, 『日本書紀』의 『白村』 및 『白村江』과는 서로 확실히 다르며, 또 『白村江』은 扶安郡의 西部를 흐르는 『斗浦川』이라 주장했다.²⁴⁾

10) 金在鵬에 의하면, 『日本書紀』에 나타나는 疏留城을 周留城으로 보고, 이의 기록을 주안점으로 하여, 이 周留城(疏留城)의 百濟軍 때문에, 唐人들이 그들의 당시의 근거지인 泗泚, 熊津으로부터 北上하여 高句麗 南界를 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신라가 서쪽에 있는 城에 物資를 수송할 수 없었다고 보아, 安城川을 白江 또는 白村江으로 보고 安城川 河口인 白石浦를 白村으로 파악하여, 周留城을 全義地區一帶에 比定하고 道率城을 道薩城의 異稱이라 하여, 高麗山城에 比定하였다.²⁵⁾

22) 金昌錫, 『唐의 東北亞戰略과 三國의 對應』, 『軍史』 第47號,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2, p. 252.

23) 全榮來, 『周留城·白江 位置比定에 관한 新研究』, 1976, p. 65.

24) 盧道陽, 『百濟 周留城考』, 『明知大論文集』 12輯, 1979~1980, pp. 26-33.

25) 金在鵬, 『全義 周留城 考證』, 1980, pp. 17-18, pp. 30-36.

『日本書紀』에 전하는 白村江은 安城川 河口에 위치한 白石浦이며, 白村江으로表記하고 『日本書紀』에서 〈ハクスキのエ〉로 읽는 것은 白石浦를 日本語의 음으로 읽고 뜻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ハクスキ〉는 白石에 대한 日本人들의 발음이지만, 〈스키〉는 日本古語에서 〈村〉이었다. 그리고 〈エ〉는 江·浦를 의미하는 말이다.²⁶⁾

11) 沈正輔에 의하면, 제2기 이후에는 부흥군의 중심 거점으로, 周留城이 任存城에 대신하여 중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周留城이 금강 하류에 위치하였으며 唐水軍의 進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필자의 연구로서는 韓山 乾芝山城說이 가장 유력시된다. 그리고 白江口, 즉 伎伐浦의 위치에 대해서도 역시 금강 하구로 比定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믿게 되었다.²⁷⁾

12) 鈴木 治에 의하면, 白村江은 白江이라고도 하고, 公州를 흐르는 부근을 옛날에는 熊津江이라 했다. 금강의 종류이다. 조금 내려가면 웅진 다음에 수도가 된 扶餘가 있다. 옛날에는 泗泚라 했다. 이 부근에서부터 水流가 바위에 부딪쳐 흰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白馬江의 이름이 있다. 白馬江은 수직으로 남하한 후, 江景으로부터는 거의 直角으로 흐름을 바꾸어, 서해안을 향해 흘러 群山의 북쪽으로 빠진다. 이 사이의 40킬로, 이것이 금강의 하류, 즉 白村江 혹은 伎伐浦이다.²⁸⁾

백제군은 秦田來津의 戰略에 따라 周留城을 근거지로 했다. … 『周留城』이 어디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으나, 白村江 江口 北岸의 韓山에 比定된다.²⁹⁾

13) 鬼頭清明에 의하면, 劉仁軌는 … 水軍을 이끌고 熊津으로부터 하류의

26) 金在鵬, 『百濟周留城의 研究』, 1995, p. 24.

27) 沈正輔, 『百濟復興軍의 主要據點에 관한 研究』, 『百濟研究』 14輯, 1983, p. 178.
追記: 8)은 이 논문에서 재인용함.

28) 鈴木 治, 『白村江』(東京: 學生社, 1972), p. 37.

29) 上掲書, p. 50.

白江(錦江)으로 나아가 陸軍과 합류하여 州柔城(지도에 의하면 韓山으로 比定되어 있음-필자)으로 향했던 것이다.³⁰⁾

14) 小林惠子에 의하면, 伎伐浦=熊津江(錦江), 白江=牙山灣으로 추정하지만, 唐軍이 山東半島로부터 黃海橫斷의 最短水路를 택하여 牙山灣의 德物島에 도착, 德物島로부터 아산만 남쪽의 唐津附近에 상륙하는 것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백제에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 말할 수 있다.³¹⁾

15) 川崎 晃에 의하면, 8월 唐·新羅의 聯合軍은 부흥군의 거점인 周留城(州柔城·忠淸南道 錦江下流)에 水陸으로 압박했다. 금강 하류의 白村江(白江)에서 唐水軍과 日本水軍이 조우했으나...³²⁾

필자는 周留城·白江의 位置比定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검토하면서, 연구자의 견해가 엇갈리고 또 定說이 없는 原因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가) 周留城·白江의 地名이 各國의 史書에 따라 相異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머리 속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周留城은 『三國史記』에는 「豆良尹城」, 「豆陵尹城」, 「豆率城」으로, 『日本書紀』에는 「州柔城」, 「䟽留城」으로, 『唐書』에는 「周留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同一한 史料(漢文)에 대한 연구자들의 相異한 이해·해석이다. 예컨대 『舊唐書』의 「劉仁軌…率水軍及糧船, 自熊津江往白江以會陸軍, 同趨周留城」 등이다. 史料의 選擇·批判·解釋은 歷史學研究의 알파요 오메가(alpha and omega)인 동시에, 이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며, 大家의 이해·해석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개인의 능력, 史料의 이해·해석방법 그리고 연구대상과 연구방

30) 鬼頭清明, 『白村江』(東京: 教育社, 1981), p. 150.

31) 小林惠子, 『白村江の戰いと任申の圖』(東京: 現代思潮新社, 1987), p. 75.

32) 川崎 晃, 『白村江の戰い』, 『日本古代史事典』(東京: 大和書房, 1993), p. 266.

법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예컨대, 오늘날 日本과 韓國의 古代史學界에서는 津田左右吉의 學說이 主流를 형성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研究對象에 대한 方法論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 다) 周留城과 白江의 위치는 서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上述한 史料에 의해 모든 연구자들은 同意하고 있다. 그렇다면 史料로 그 위치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쪽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 白江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周留城의 位置解明을 위한 先決問題라 하겠다.³³⁾』고 했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필자는 周留城이 位置比定에 필요한 확실한 史料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다.
- 라) 周留城·白江이라는 古戰場의 位置比定을 究明함에 있어서, 여러 연구자들은 文獻史學的·考古學的·地理學的 그리고 音韻學的 研究方法 등을 구사해 왔다. 그런데 軍事史學的 研究方法, 즉 軍事理論과 歷史學을 통합한 학문으로써 군사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歷史學的方法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필자는 이 방법으로 문제의 究明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3. 軍事史學的 研究方法에 의한 考察

(1) 制海의 관점에서

海上勢力(sea power)과 制海(control of the sea)가 역사의 흐름이나 정치, 국가의 변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알려

33) 沈正輔, 前掲論文, p. 172.

져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미국 해군의 마한 大頌(1840~1914)의名著『해상세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1890)이었으며,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역사가는 대체로 바다의 사정에 어둡다. 그들은 바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해상력이 커다란 諸問題에 있어서 깊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해 왔었다. …

여기서 말하는 넓은 뜻의 해상세력이란, 무력에 의한 해상 혹은 그 일부분을 지배하는 해상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通商 및 海運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평화적인 통상 및 해운이 있어야만 비로소 해군의 함대가 자연스럽게 또 건전하게 태어나고, 그것이 함대의 건설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³⁴⁾

마한 大頌은 해상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으로서, ① 지리적 위치, ② 자연적 형태, ③ 영토의 범위, ④ 인구의 수, ⑤ 국민성, ⑥ 정부의 성격(국가의 여러 제도도 포함)을 다루며 상세하게 설명했으나,³⁵⁾ 制海에 관해서는 명확한 定義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는, 전시나 비상사태에 임하여 自國이 필요로 하는 해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동시에, 적으로 하여금 자국을 공격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海域을 자유롭게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진실로 해상을 관제했다 하여도, 制海란 전과 탐지기가 없는 시대에 있어서 적의 단독행동의 함선이나 작은 戰隊도 살며시 항구에 잠입 혹은 탈출할 수 없다거나, 긴 해안선상의 무방비의 지점에 대해 적을 괴롭히는 습격도 가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인 성질을 가진다. 어느 국가가

34)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 Little, Brawn and Company, 1890), Preface and p. 28.

35) 上揭書, pp. 29-89.

해상 병참선을 이용하여, 혹은 적에 대해 그 이용을 거부할 능력이 전반적인 전략의 견지에서 거의 만족한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制海가 확립되었다'고 말하고, 적의 위협에 의해 그 국가의 해상 병참선을 이용할 수 없거나 혹은 적의 사용을 거부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그 결과로 그 국가의 전략적 요구가 만족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을 '制海를 상실했다'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制海를 획득하는 것이 해군의 사명이며 또 武力에 의해 해상 혹은 그 일부분을 지배하는 해상의 군사력, 즉 우세한 해군력을 확보·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制海를 획득할 것인가? 마한 大領에 의하면, 전쟁에 있어서 해군의 주요 목표는 적의 해군을 격멸하는 데 있다. 적은 散在하는 전략지점간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그 해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한다는 것은, 즉 적의 전략지점에 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격이다³⁶⁾라고 말했다. 그가 만약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1832)을 읽었더라면, 해군의 주요 목표를 더 상세히 체계화했을 터인데.

唐의 수군이 바다를 건너왔을 때, 백제로서는 해상에서 요격하는 것이 최상책이며, 그 다음은 상륙군의 반수가 상륙했을 때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며,³⁷⁾ 그 다음은 상륙군이 교두보를 설치하고, 전비를 갖춘 연후에 공격하는 것으로 이것은 최하책이다.

660년 6월, 13만의 唐軍이 德物島에 왔을 때, 太子 法敏은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蘇定方을 맞이했는데, 663년 8월 倭水軍이 白江에서 패배할 때까지 백제 수군이 전연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한 大領의 해상 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을 비교했을 때, 신라보다는 백제가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성격(⑥), 즉 백제 의자왕은 酒色에 빠져 수군의 육성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唐의 城山으로부터 신라의 德物島 그리고 熊津江(錦江)을 통하여

36) Alfred T. Mahan, *Naval Strategy*, p. 199.

37) 『孫子』行軍 第九에는 「승半濟而擊之利」라고 했다.

泗泚城(부여)에 이르는 당의 해상 병참선은 안전했으며, 또 唐軍의 制海가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周留城이 熊津江口 左側의 韓山에, 혹은 아산만의 동남에 周留城(燕岐郡 全義面)이 소재한다면, 다음 史料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史料 1) 齊明 6年(660) 10月, 백제의 佐平 鬼室福信이 佐平 貴智를 보내, 唐의 포로 100여 인을 바쳤다. …또 군사를 빌고 구원을 청하였다. 아울러 王子 余豐璋을 되돌려 줄 것을 청하였다. …(『日本書紀』 卷第26)

(史料 2) 7年(661) 8月, 前軍의 將軍 大花下 阿曇比羅夫連…들을 보내,

- 백제를 구하게 하였다. 무기와 식량도 보냈다.
- 9월, 小山下 秦造田來津을 보내 軍士 5,000을 거느리고, 본국에 돌아가는 길에 호위를 하게 했다.

(史料 3) 天智 元年(662) 春正月, 백제의 佐平 鬼室福信에 화살 십만 축, 실 500근, 솜 1,000근, 피륙 1,000단, 다룬 가죽 1,000장, 종자용 벼 3,000석을 주었다.

- 3월, 百濟王(豐璋)에 피복 300端을 주었다. …그래서 장군을 보내 疏留城에 응거하게 하였다.
- 5월, 大將軍…수군 170척을 거느려서, 豐璋 등을 百濟國에 보내고 칙하여, 豐璋에 그 위를 계승시켰다.
- 12月, 州柔(周留)에서 避城(金堤)으로 도읍하였다.
天智 2年(663) 春2月, 신라인이 백제의 남부 四州를 불태우고 …이때 避城은 적에게 너무 가까웠다. 그래서 거기에 있기가 어려워, 도로 州柔로 돌아왔다.
- 3월, 前軍 將軍 上毛野君稚子…를 보내, 27,000명을 거느리고 新羅를 치게 했다.
- 8月 27日, 日本의 수군 중 처음에 온 자와 大唐의 수군과 대전하여 일본이 져서 물러났다.
28日, …진을 굳건히 한 大唐의 군사를 나아가 쳤다. 大唐은 좌우에서 수군을 내어 협격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관군이 패적하였다(『日本書紀』 卷第27).

당시의 周留城은 백제부흥군의 王城·作戰基地 그리고 倭로부터 兵員·戰略物資의 보급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63년 8월 白江海戰 때까지 唐水軍과의 충돌이 전연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은 周留城이 唐水軍의 制海圈外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리라. 필자는 처음부터 周留城의 韓山(乾芝山城)說에는 의문을 가졌었다. 그 이유는 泗泚城으로부터 韓山까지는 한나절의 행군거리 내에 소재하고, 難攻不落의 지리적 특징도 없는데, 어떻게 3년간이나 버티고 있었을까? 軍事作戰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최근 乾芝山城의 城壁斷面調査의 결과에 의하면, 고려 말기의 축조로 보이며, 백제시대까지는 거슬러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韓山乾芝山城』 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忠淸南道 舒川郡, 2001年).

그렇다면 周留城의 位置는 唐水軍의 制海圈外의 어디일까? 663년 8월의 白江海戰과 周留城戰鬪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史料 4) 이에 孫仁師·劉仁願과 新羅王 金法敏은 육군을 이끌고 진격했고, 劉仁軌 및 別帥 杜爽·扶餘隆은 水軍과 糧船을 거느리고 熊津江으로부터 白江으로 나아가 陸軍과 합류하여 함께 周留城으로 향하였다. 仁軌는 白江의 입구에서 扶餘豐의 무리들을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적선 400척을 불태웠으며…(『舊唐書』 百濟)

(史料 5) 龍朔 3年(663)에 총관 孫仁師가 군사를 거느리고 熊津府城을 來救할 때에 신라의 兵馬도 출동, 함께 가서 周留城下에 다다랐다. 이때 倭國의 船兵이 와서 백제를 도울 새, 倭船 1,000隻은 白沙³⁸⁾에 停在하고 백제의 精騎는 岸上에서 그 선함을 수호했다. 신라의 駑騎兵이 唐의 先鋒이 되어 백제의 岸陣을 깨뜨리니, 周留城은 실망하

38) 白沙는 白江 근처의 모래사장을 두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東津江 하구와 연결되는 下西面의 모래사장은 짧지만 지금도 규사가 많아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희게 보인다. 『三國史記』의 白沙는 어디를 말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규사가 있는 모래사장은 扶安郡 下西面 長信里밖에 없다(卞麟錫, 『白江口戰爭을 통해서 본 古代韓日關係의 接點—白江·白江口의 歷史地理的 考察을 중심으로—』, 『東洋學』 第24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4, p. 124).

여 드디어 곧 항복하였다. 남쪽이 이미 평정되자, 군을 돌이켜 북쪽을 칠 새, 任存城만이 완강하게도 항복치 아니하므로…(『三國史記』新羅本紀 第7 文武王 11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劉仁軌는 … 水軍과 糧船을 거느리고 熊津江으로부터 白江으로 나아가 陸軍과 합류하여 함께 周留城으로 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唐의 水軍은 熊津江을 나와 白江으로 갔다는 것이며, 이것을 최초로 주장한 것은 小田省吾로서, 卓見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周留城의 위치와 방향은 作戰日誌를 조사하면 명백해지리라.

新羅軍과 唐軍은 熊津(公州)에서 육군의 연합군을 편성했으며, 663년 7월 17일에 출발하여 8월 13일에 豆率城(周留城)에 도착했고,³⁹⁾ 17일에 州柔(周留)에 와서 王城을 포위했다. 27일과 28일의 白村江의 海戰에서 倭水軍은 패배했고, 9월 7일 百濟의 州柔城(周留城)은 항복했다.⁴⁰⁾ 10월 21일부터 任存城을 공격했으나 승리하지 못했다.⁴¹⁾ 남쪽(周留城)이 이미 평정되자 군을 돌이켜 북쪽(任存城)을 쳤다⁴²⁾(南方已定, 廻軍北伐)고 했으니, 周留城은 남쪽에 소재하고, 公州로부터 26일간의 행군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全榮來는 周留城陷落 이후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羅唐聯合軍은 9월 7일 周留城陷落後 10월 21일 任存城을 공격하기까지 자그마치 44일이 흘렀다. 扶安·周留城으로부터 大興까지는 444里(177.6km)라는 엄청난 거리이다. 燕岐로부터 大興까지는 公州를 거친다 해도 138里(55.2km)에 불과하다⁴³⁾고. 이것은 金在鵬의 周留城의 燕岐說에 대한 반론이다.

39) 『三國史記』 卷第42, 列傳第2(金庚信 中)

40) 『日本書紀』 卷第27, 天智天皇 2年.

41)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6, 文武王 3年.

42) 上揭書, 新羅本紀 第7 文武王 下.

43) 全榮來, 『周留城·白江戰鬪에 관한 研究』(全州: 2001), p. 12.

(2) 作戰基地 또는 橋頭堡의 관점에서

전쟁의 준비·수행에 있어서 基地·根據地(base), 作戰基地(base of operation) 그리고 橋頭堡(beach-head)는 육·해군에 의해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이들의 기능은 동일하다. 기지는 진군·공격을 개시하고 또 사태가 불리한 경우에는 철수할 수 있는 자기소유의 영토이며, 이곳은 군대의 인적·물적 힘의 원천, 즉 병력, 무기와 장비, 보급품, 그리고 식량을 구비하고 있는 장소이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신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과 동일하다.

그래서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작전하는 군대는, 작전기지 부근에 본국의 기지와 동일한 조건을 구비한 제2기지를 설치하고, 또 확실한 병참선(line of communication)에 의해 양편을 연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만약 이를 무시하면 패배하는 것이다. 예컨대, 태평양 전쟁중 솔로몬群島의 가달가달島 전투에서 일본군의 패배이다. 제17군의 百武中將 휘하 약 3만명의 장병 가운데, 적의 포화로 죽은 자는 약 5,000명, 굶어죽은 자는 약 15,000명, 약 10,000명만이 구출되었다.⁴⁴⁾ 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상작전에 대해 미국의 마한 大領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본국으로부터 먼 해역에서의 작전은, 다만 일반작전의 특별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전쟁목적에 대해 유용한 지점을 곧 보유하고, 또는 아직 보유치 않은 遠洋에서 실시하고, 또 그러한 지점을 보유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세적 행동을 취하며, 또한 적의 영토를 점령하고 혹은 적어도 이것을 관제하기를 바라는 해상원정이다. … 먼저 합리적으로 안전한 본국 국경과, 적과 제해권을 다룰 수 있는 해군의 근본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다음에 취할 조치는 遠征目的의 달성상 가장 적절한 작전계획을 책정하는 일이다. 작전계획에 있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基地(base), 目

44) 今村 均, 『私記・一軍六十年の哀歡』(東京:芙蓉書房, 1971), p. 413.

標(objection), 그리고 作戰線(line of operation)이라는 모든 작전에 존재하는 세 가지이다.⁴⁵⁾

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渡海上陸作戰에 있어서 교두보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전쟁목적, 군사목표, 작전선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며, 또 작전의 성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文獻史料에 의하면, 唐軍의 교두보는 白江(伎伐浦)이지만, 거기는 현재의 어디일까?

(史料 6) 600년 백제를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蘇定方は 城山(中國山東省)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熊津江口에 이르렀다. 적병은 강을 따라 진을 치고 있으니, 定方は 동쪽 강기슭으로 올라 산 위에 진을 치고 이와 싸워 크게 이겼다. 돛을 달고 바다를 덮으며 꼬리를 물고 들이닥치니 적병은 무너지고 수천 명이 죽어갔고, 나머지는 흩어졌다. … 도성 밖 20여 리를 남기고 적은 온 힘을 기울여 막았으나, 크게 이겨 이를 물리치고 만여 명을 사로잡았다(『舊唐書』列傳 蘇定方).

上述한 史料에 의해, 定方は 13만의 대군을 이끌고 城山으로부터 곧바로 熊津江口로 상륙하여 적병을 패주시켰다고 해석하는 연구자도 있다. 예컨대, 今西 龍에 의하면 德物島로부터 나와 錦江에 들어가 王都 扶餘로 향하는 唐水軍이 萬頃江 혹은 東津江에 들어가 다시 금강에 들어간다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⁴⁶⁾ 小林惠子에 의하면, 熊津江을 錦江으로, 白江을 東津江으로 하는 說을 취한다면, 『百濟本紀』에 唐軍이 白江을 지났다는 것을 듣고 서둘러 熊津江을 방어하기 위해 出兵했다고 했는데, 唐軍이 德物島에 도착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熊津江(금강)을 지나서 東津江에 가서 다시 북상하여 熊津江에 들어간 것이 된다. 따라서 白江을 錦江의 남쪽에 比定

45) Alfred T. Mahan, *Naval Strategy*, pp. 204-205.

46) 今西 龍, 前掲書, p. 361.

하는 說은 모두 成立될 수 없다⁴⁷⁾는 것이다.

바다를 건너온 상륙군이 최초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어디에 교두보를 설치할 것인가이며, 今西·小林 양인은 이것을 전연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필자는 (史料 6)에는 定方이 德物島에서 太子 法敏을 만난 것과 교두보 설치에 관한 사항이 생략된 것으로 해석한다.

(史料 7) 6월 21일, 王이 太子 法敏으로 兵船 100척을 이끌고 德物島에서 定方을 맞게 했다. 定方이 法敏에게 이르기를, “내가 7월 10일에 백제 남쪽에 이르러 大王의 군사와 만나 義慈의 都城을 무찔러 破하려 한다” 하며 … (『三國史記』 新羅紀 太宗王 7年)

蘇定方이 신라와 합류하는 날짜와 장소를 제시했다는 것에는 唐軍의 깊은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도 德物島에서 금강 하류까지는 일주일간이면 충분히 기습적 상륙작전의 실시가 가능한데, 13만의 병력과 병선 1,900척(鄉記에 의하면 병력 122,711명, 병선 1,900척, 『三國遺事』 卷第1 太宗 春秋公)이 20여 일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계획일까? 클라우제비츠는 그의名著 『戰爭論』(1832)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쟁에 의해 또한 전쟁에 있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서 전쟁을 개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당사자로서 현명하다면 전쟁을 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질문의 첫째는 戰爭目的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作戰目標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주요 사항에 의해 군사적 행동의 일체의 방향, 사용해야 할 수단의 범위, 전쟁을 수행하는 힘의 정도가 규정된다. 그리고 전쟁계획은 군사적 행동의 극히 사소한 말단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⁴⁸⁾

47) 小林惠子, 前掲書, p. 75.

48) 이종학 편저, 『전략이론이란 무엇인가-손자병법과 전쟁론을 중심으로-』(경주:서라벌 군사연구소, 2002), p. 237.

蘇定方は“義慈의 都城을 무찔러 破하려고 한다”고 함으로써 作戰目標은 명시했지만, 전쟁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戰爭目的은 명시하지 않았고 또 명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唐의 戰爭目的을 알지 못하고 작전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는 일이다.

648년 신라가 백제의 침략에 의해 위기에 직면했을 때, 金春秋(후의 武烈王)가 唐에 가서 원군의 파견을 요청했을 때, 唐太宗은 “짐이 지금 고구려를 치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그대 신라가 백제·고구려에 꺾박되어 매양 그 침해를 입어 편안할 때가 없음을 애달피 여김이니, 山川土地는 나의 탐하는 바가 아니며… 내가 양국을 평정하면, 평양 이남, 백제 토지는 다 그대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려 한다”⁴⁹⁾고 말했다.

그러나 定方は 백제를 무찌르고 백제왕 및 중신 93명과 병 2만명을 포로로 잡아 660년 9월 귀국하여 천자에게 포로를 바쳤다. 천자는 그를 위로하면서, “어찌하여 이내 신라를 치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더니, 定方は “신라는 왕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 섬기기를 父兄과 같이 하니, 비록 나라는 작지만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고 하였다.⁵⁰⁾ 唐은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키고는 각각 熊津都督府·安東都護府를 설치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援軍으로 바다를 건너온 唐軍의 戰爭目的은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마저도 토벌·정복하는데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以夷制夷』의 計略에 의한 한반도의 정복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 신라와 고구려를 처음부터 싸우게 하여 서로 약화·피로케 만들어 그것을 이용해서 전쟁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었다. 定方の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행동과정에 관해서는 상세한 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다음 史料에 의해 추정이 가능하리라.

49)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7 文武王 下.

50) 『三國史記』 列傳 第2 金庾信 中.

(史料 8) 蘇定方이 군사를 거느리고 城山(中國 山東省)에서 바다를 건너 德物島에 이르니, 신라왕이 김유신 장군을 보내어 정병 5만을 거느리고 백제 방면으로 가게 하였다. 義慈王은 이 정보를 듣고 群臣을 모아 攻·守勢의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물었다.

佐平 義直은 말하기를 “唐兵은 멀리 바다를 건너왔으므로, 물에 익숙지 못한 자는 배에서 반드시 피곤할 것이니, 처음 육지에 내려서 士氣가 안정치 못할 때에 급히 치면 가히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먼저 唐兵과 결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

佐平 興首가 말하기를, “唐兵은 수가 많고 軍律이 엄격하고 … 만일 平原廣野에서 대전하면 승패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白江(혹은 伎伐浦)과 炭峴(혹은 沈峴)은 我國의 要路입니다. … 唐兵으로 하여금 白江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인으로 하여금 炭峴을 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大王은 방어를 굳게 하여 적의 軍糧이 다하고 士卒이 피로함을 기다려서 이를 습격한다면 반드시 적병을 깨뜨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大臣들은 말하기를 “唐兵으로 하여금 白江에 들어와서 흐름에 따라 배를 整列할 수 없게 하고, 신라군은 炭峴에 올라서 小路를 따라 말을 整列할 수 없게 한 다음, 이때를 당하여 군사를 놓아 치면, 마치 조롱 속에 있는 닭을 죽이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 습니다”라고 하니, 의자왕은 대신들의 의견에 찬성하였다.

그러던 중 唐·羅의 군사가 이미 白江과 炭峴을 거쳤다는 말을 듣고 장군 계백으로 하여금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黃山(連山)에 나아가 신라병과 싸우게 하였는데, 네 번 싸워 모두 이겼으나 병력이 적고 힘이 꺾이어서 드디어 패하고 계백도 전사했다.

이에 여러 군사를 소집하여 熊津江口를 방어하기 위해 강변에 군사를 布陣케 했다. 定方이 江의 좌측 언덕으로 상륙하여 산에 올라 陣을 치니 我軍이 싸워서 大敗했다. … 定方이 步騎를 거느리고 都城으로 直向하여 30리되는 곳에 머물렀다. 我軍은 모든 병력을 다 하여 막았으나 또 패하여 死者가 만여 명이 되었다. 唐兵은 勝戰하

여 城으로 육박하니 王은 면하지 못할 것을 탄식하여 말하기를 …
 (『三國史記』百濟本紀 第6 義慈王 20年)

蘇定方은 德物島로부터 직통으로 熊津江口의 左側에 상륙한 것이 아니라, 白江(伎伐浦)에 상륙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義慈王이 대신들을 모아 攻·守勢의 대책을 논의하여 끝날 무렵, 唐軍은 白江을, 신라군은 炭峴을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자, 계백 장군을 먼저 黃山에 파견했다는 것은, 白江이 더 멀고 또 위협이 적었기 때문이었으리라. 계백 장군의 군대가 패배하고, 그가 戰死한 후에 백제는 여러 군대를 모아서 熊津江口를 방위하기 위해 군대를 布陣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唐軍의 교두보는 白江이며, 熊津江과는 별도의 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 663년 『劉仁軌는 … 水軍과 糧船을 거느리고 熊津江으로부터 白江으로 나아가 육군과 합류하여 함께 周留城으로 향했다』(史料 4)는 기록을 보아도 명확하며, 白江은 周留城의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만약 定方이 6월 21일 태자 법민과 만나, 일주일 후에 熊津江口에 교두보를 설치했다면 백제의 주력군과 최초로 전투를 해야만 했으며, 이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戰爭目的에도 위배되는 조치이리라. 따라서 白江은 泗泚城의 입장에서 본다면 熊津江口보다 더 먼 위치에 있어야만 했다.

全榮來에 의하면, 蘇定方이 다소라도 군사 상식이 있는 장수라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여 일간을 13만 대군을 만제한 1,900척의 대선단을 그대로 서해 바다에 명칭히 띄우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 ① 德物島에서 보급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柴糧이 충분치 못하였을 것이며, 특히 여름철에 식수·채소류 등을 20여 일간이나 저장·비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선상의 병사와 말은 佐平 義直이, “물에 익숙지 못한 자는 배 위에서 필시 피곤할 것”이라 한 대로 대부분이 승선에 익숙지 못하므로 하선 즉시 전투한다는 것은 어려움으로 반드시 상륙후 충분한 휴양과 육상

에서의 정비가 필요하다.

- ③ 음력 6월 하순~7월 상순까지는 태풍 전선에 들어있으므로 폭풍우가 내습하는 기간에 한 척당 65명을 태울 정도의 소범선 1,900척을 그대로 해상에 방치해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⁵¹⁾

고 주장했는데, 渡海上陸軍에 있어서 교두보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이主題의 연구자에 있어서 최초이며 탁見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史料 6)의 『定方は 城山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熊津江에 이르렀다. …』(定方自城山濟海 至熊津江口)의 내용은, 定方이 城山으로부터 德物島에 와서 신라의 법민에게 7월 10일 王都의 남쪽에서 합류하자는 것을 통고하고, 거기서 白江에 들어가 교두보를 설치하고, 병사들의 휴양과 전투준비를 갖추고, 백제·신라의 주력군이 치열한 전투를 개시했으리라는 것을 계산하면서, 천천히 白江에서 熊津江에 도착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한다.

660년 9월 3일, 劉仁願이 唐兵 10,000명, 新羅兵 7,000명과 泗泚城을 지키게 되었다. 蘇定方は 백제왕과 왕족·중신 등의 포로를 이끌고 泗泚에서 배를 타고 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벌써 23일부터 백제의 부흥군이 泗泚城에 침입하여, 항복한 백제인들을 약탈해 데리고 가고자 했다. 留守役의 劉仁願은 唐軍과 新羅軍을 동원하여 그들을 격퇴했다. 당시 백제의 부흥군이 각 지역에서 거병을 했기 때문에 신라군은 그들을 진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史料 9) 661년 2월, 백제의 殘賊이 泗泚城을 공격하므로 王이 伊滄 品日을 大幢將軍에任하여 … 가서 泗泚城을 구원케 하였다. 3월 5일, 中路에 이르러, 品日이 휘하 군대를 나누어 먼저 가서 豆良尹城 南에서 陣營(作戰基地)할 곳을 살피게 하였던 바, 城中의 백제군이 羅陣의 정돈되지 아니함을 바라보고 갑자기 나와 기습을 가하매 아군은

51) 全榮來, 『白村江에서 大野城까지』(全州: 新亞出版社, 1996), pp. 30-31.

놀라 도주했다. 3월 12일, 大軍이 古沙比城外에 주둔하여 豆良尹城을 공격하였으나, 한 달 엿새가 되도록 이기지 못하였다(『三國史記』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이 내용(史料 9)은 泗泚城을 공격하는 백제부흥군의 소굴이며 근거지인 豆良尹城(周留城)을 공격하기 위해 신라군은 그 城의 남쪽, 古沙比城外에 作戰基地를 설치하고 공격했으나 실패했다는 기록이다. “3월 5일 中路에 이르러”(至中路)에서 『中路』란 무슨 뜻인가? 百濟都城附近에 도착한 것을 中路에 至하다고 기록했고,⁵²⁾ 661년 당시 中部라고 하면 熊津城을 의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어서 『中路에 至하다』라는 것도 『百濟都城(熊津城)附近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⁵³⁾ 『中路』란 말이 어떤 루트를 뜻하는 게 아니고 『中方』이란 지방을 달리 적은 표현에 불과하고, 『中方古沙城』은 『國南二百六十里』라 한 거리상으로 보아도 지금 古阜가 틀림없다⁵⁴⁾는 諸見解가 있다. 필자는 新羅의 主力軍이 3월 12일 古沙比城外에 作戰基地를 설치하여 豆良尹城을 공격했으니, 古沙比城이 古阜라면 『中路』는 古阜, 아니면 그 부근의 地名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작전기지는 전쟁목적·군사목표·작전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작전의 목적·목표는 豆良尹城의 타도·격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작전기지는 가능한 한 豆良尹城의 주변, 즉 1일 행군거리인 20km⁵⁵⁾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古沙比城의 위치를 究明한다는 것은 豆良尹城의 位置比定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52) 今西 龍, 前掲書, p. 311.

53) 金在鵬, 前掲論文, p. 12.

54) 全榮來, 『白村江에서 大野城까지』, p. 70.

55) 步兵의 一日行軍距離는 부대의 규모, 휴대무기와 장비, 도로의 사정, 계절, 기상 및 장애물(도보로 건널 수 없는 河川)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기란 어렵지만, 예컨대, 나폴레옹이 지휘한 프랑스軍의 우수성은 20만의 대병력이 하루 평균 20km씩 행군을 계속하여 800km의 유럽 大陸을 횡단한 그 기동력에서도 알 수 있었다. 李鍾學 外, 『綜合世界戰史』(서울: 博英社, 1968), p. 157.

津田左右吉에 의하면, 인용한 羅紀(史料 9)를 보건대, 羅軍의 선봉이 豆良尹城 南에 屯營하니 城兵의 출격을 만나 먼저 패하고, 다음에 本軍이 古沙比城外에 오는 것을 기다려, 다시 豆良尹城을 공격하였으니, 豆良尹城은 古沙比城과 멀지 않은 지점에 있는 것 같다. … 古阜는 錦江의 남쪽에 있고, 지금은 全羅道에 속한다. 그런데 古沙比城을 古阜라 하고 豆良尹城을 定山이라 한다면, 두 城의 위치가 너무 떨어져, 羅紀가 나타내는 것과 같은 관계는 아닌 성 싶다.⁵⁶⁾

池內 宏에 의하면, 신라의 先鋒軍 및 잇따라 古沙比城外에 주둔한 本軍의 작전목표인 豆良尹城은, 의심할 바 없이 『熊津江口の 兩柵』의 本城인 周留城 그것이다. … 新羅本紀의 古沙比城은 『通鑑』의 古泗에 해당하고, 『三國史記』(卷36) 地理志에 『古阜郡, 本百濟古眇夫里郡』으로 설명하고 있는 古眇夫里-夫리는 城邑을 뜻하는 百濟語-즉 扶安의 남쪽에 위치하는 지금의 古阜이다⁵⁷⁾라고 했다.

필자도 古沙比城은 지금의 古阜라 하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津田·池內 兩者의 견해는 豆良尹城(周留城)을 定山과 마찬가지로 금강 하류의 右岸(韓山地方)으로 비정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신라군의 作戰基地와의 거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 신라군이 周留城(韓山 혹은 定山)을 공격하기 위해, 일부러 먼 古阜에 作戰基地를 설치하고, 또 東津江·錦江은 도보로 도강할 수 없으니 배를 만들어 운반해서 강을 건너 공격했을 것인가?

周留城이 古阜(全北 井邑郡 古阜面)의 주변(20km 이내)에 있다는 것은 신라군의 作戰基地의 위치에 의해(史料 9) 수수께끼를 푸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56) 津田左右吉, 前掲書, p. 175.

57) 池內 宏, 前掲書, pp. 118-119.

(3) 軍事地理의 觀點에서

필자가 발표한 논문, 『軍事學의 理論體系』(1980)에 있어서, 軍事地理란 군사작전 및 전쟁 전체의 준비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장에서, 여러 국가, 전장, 각 지역의 정치적·경제적·자연적 그리고 군사적 조건의 현황을 연구하는 軍事學의 한 구성분야이다. 군사지리는 군사학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연구하고, 또 영토와 지형 등의 자연지리적 여러 조건이 전쟁 및 군사작전의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정한다.⁵⁸⁾

전쟁·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해 지리적 조건을 고려한다는 것은 전쟁술(전략과 전술)과 거의 같은 시기의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리라. 예컨대, 한 장수가 부대를 지휘하여 전투를 하고자 한다면, 적의 부대 혹은 요새의 위치와 그 지형, 접근로, 공격에 유리한 고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孫子』에는 지형에 의한 행군·전투의 수행법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 高地에 진을 치고 있는 적에게 정면공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
- 무릇 地形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한 곳이 있다.
 - 절간絶間 - 절벽에 둘러싸인 깊은 계곡
 - 천정天井 - 사방이 높고 가운데가 낮아 물이 괴는 분지.
 - 천뢰天牢 - 험준한 산에 둘러싸여 좁은 길이 하나만 있는 곳.
 - 천라天羅 - 초목이 뺏뺏하여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곳.
 - 천함天陷 - 수렁이 된 늪지대로 통행이 어려운 곳.
 - 천극天隙 - 길고 좁으며, 땅은 울퉁불퉁한 곳.
- 대저, 地形이라는 것은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보조수단이다. 적군의 정세를 헤아리고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형이 험하고 좁고 멀고 가까움을 헤아리는 것은 장수의 용병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알

58) 拙著, 『軍事論文選』(慶州: 徐羅伐軍事研究所, 1991), pp. 55-56.

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알지 못하고 싸우면 패배하는 것이다.⁵⁹⁾

周留城과 白村江은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周留城을 공격하기 위한 作戰基地가 古阜에 위치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史料에 의해 地形·位置를 더 많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周留城이니, 이에 관련된 史料를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

- (史料 10) 이 州柔(周留)는 전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가 척박하다. 농작할 땅이 아니다. 방어하고 싸울 장소이다. 여기에 오래 있으면 백성이 기근이 들 것이다. 避城(金堤)으로 옮기자. … 지금 적이 함부로 오지 않는 까닭은 州柔가 산협에 가리어 있어서 모든 것이 방어하기에 적합하다. 산이 험준하고 계곡이 좁으니 지키기 쉽고 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낮은 곳에 있으면, 무엇으로 굳게 지켜 동요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겠는가(『日本書紀』卷第27, 天智天皇 元年).
- (史料 11) 福信은 거짓 병을 칭하여 窟室에 숨고 扶餘豊이 병문안 오기를 기다렸다가 기습하여 왕을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를 먼저 눈치챈 扶餘豊은 심복을 이끌고 복신을 끌어내어 살해했다(『舊唐書』百濟).
- (史料 12) 변산은 봉오리들이 백여 리를 빙 둘러 높고 큰 산이 첩첩이 싸이고 바위와 골짜기가 깊숙하며 … 우진암은 변산 꼭대기에 있는데, 암체는 등글고 높고 거대하며 눈처럼 눈부시다. 바위 기슭에는 3곳의 굴이 있어 저마다 승려들이 기거하곤 한다. 바위 정박이는 평탄하여 올라가서 조망할 만하다(『東國輿地勝覽』扶安山川條).
- (史料 13) 9월 7일(663), 百濟의 州柔城이 마침내 唐에 항복하였다. … 드디어 전부터 枕服岐城에 있는 처자들에 가르쳐, 나라를 떠나갈 것을 알렸다. 11일, 牟弓를 출발, 13일 弓禮에 도착하였다. 24일에는 일본의 수군 및 佐平 余自信 … 아울러 국민들이 弓禮城에 이르렀다. 다

59) 『孫子』九變 第8, 行軍 第9 그리고 地形 第10.

음 날 배가 떠나서 처음으로 일본으로 향하였다(『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2年).

全榮來에 의하면, 周留城의 지리적 특징을 정리한다면, 그것이 어디인가 하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한다. 周留는 전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 방어하고 싸울 장소이다. 산이 험준하고, 계곡이 좁으니, 지키기 쉽고 치기 어렵다. 이런 周留의 지리적 조건을 설명한 『東國輿地勝覽』扶安縣 山川條에는, 『변산은 봉오리들이 백여 리를 빙 둘러 높고 큰 산이 첩첩이 싸이고, 바위와 골짜기가 깊숙하며 …』라고. 거기에다 周留城 안에는 窟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周留城의 위치를 밝혀주는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우진암은 변산의 꼭대기에 있는데, 바위 기슭에는 3곳의 굴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9월 7일 周留城이 함락되고 탈출한 亡命軍이 牟婁에 도착한 것은 13일이다. 만약 周留城이 錦江以北에 소재한다면, 걸어서 강을 건너지 못하는 금강·만경강 등이 있어서 적어도 7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리라⁶⁰⁾고 했다.

上述한 내용은 지리적 조건에 의한 周留城(扶安郡 上西面 甘橋里)의 位置比定으로는 참으로 卓見이며, 필자도 수용하는 입장이다. 今西 龍은 만경강·동진강을 白江의 후보지로 하는 외에, 苗浦도 여기에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줄포 방면에는 커다란 강이 없다는 것이 결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상으로 보면, 倭로부터 援軍이 周留城으로 가는 길은 苗浦가 근거리이기 때문에 안내자 金鍾云 박사에게 질문했다. 그는 “지금은 아스팔트길이 되어 자동차로 가면 알지 못하지만, 苗浦~周留城의 길은 험해서 옛날에는 별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扶安~周留城의 길은 평탄하여 잘 이용되고 있었다”라는 대답이었다.

661년 3월 신라의 品日將軍이 古阜에 作戰基地를 설치하고 36일간 전투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은 地形, 즉 작전선이 험준한 산길(天牢)을 택한 것이

60) 全榮來, 『白村江から大野城まで』(全州: 新亞出版社, 1996), pp. 109-110, 118, 140-141.

주요 원인이라 생각했다. 만약 作戰基地를 扶安에다 설치했다면?

663년 8월 羅唐聯合軍의 육군은 扶安을 통하여 周留城으로 가서 포위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 이유는, 倭船이 白沙에 정박하고 백제의 기병대가 그 선단을 지키고 있는 것을 신라의 기병대가 岸邊의 진지를 격파했다(史料 5)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白江은 東津江으로 比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맺 음 말

663년 羅唐聯合軍과 百濟復興·倭軍의 국제적 결전장인 白江과 周留城의 位置比定의 문제가 연구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相異한 근본적 원인은, 軍事理論에 바탕을 둔 軍事史學的 研究方法을 도외시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함으로써, 그 방법에 의해 究明을 시도해 보았다.

- ① 制海의 관점에서 中國 山東城의 城山으로부터 德物島, 남하하여 熊津江口를 통과하여 泗泚城의 海路는 唐의 해상 병참선이기 때문에, 周留城은 唐의 制海圈外, 즉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羅唐의 陸軍聯合軍은 663년 7월 17일 熊津(公州)을 출발하여 8월 13일 豆率城(周留城)에 도착·포위하여 9월 7일에 백제부흥군을 항복시켰다. 『남쪽이 이미 평정되자 군을 돌이켜 북쪽을 치다』(南方已定, 廻軍北伐)라고 함으로써 周留城은 남쪽에, 公州로부터 26일간의 행군거리 내에 소재한다.
- ② 作戰基地 또는 橋頭堡의 관점에서,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渡海上陸作戰에 있어서, 전쟁목적·군사목표·작전선을 고려하여 최초로 교두보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唐軍의 최초의 교두보는 白江(伎伐浦)이었다. 661년 3월 신라군은 豆良尹城(周留城)을 공격하기 위해 古沙比

城外에 作戰基地를 설치했다. 古沙比城은 古阜이기 때문에, 周留城은 古阜의 주변(20km 이내)에서 찾아야 한다.

- ③ 軍事地理의 관점에서 戰爭·軍事作戰의 준비·수행을 위해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周留城과 白江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古阜의 주변에서, 또 文獻史料에 의한 周留城의 지형적 조건과 일치하는 것은 周留山城(扶安郡 上西面 甘橋里)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참고하면서, 軍事史學的 研究方法에 의해 周留城은 周留山城으로, 白江은 東津江으로 位置比定을 하는 바이다.

(원고투고일 : 2004. 7. 1,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주류성, 백강, 군사사학적 방법, 작전기지, 해상 병참선

<ABSTRACT>

On Comparative Positioning of Juryu Castle
and the Baek River
- An Approach Based on the Methodology
for Military History -

Lee, Chong-hak

On comparative positioning of Juryu Castle and the Baek River as the sites of the decisive battle between the Combined Forces of Silla-Tang and the Baekje-Japan Armed Forces for revival there has not been a definitive opinion for several reasons. The main reason is, I suppose, that scholars have not taken into account the methodology for military history based on military theory. Therefor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n argument on comparative positioning of Juryu Castle and the Baek River, employing the methodology for military history.

First, in terms of control of the sea, Juryu Castle must have been outside of Tang's command of the sea, that is, south of it, because the sea route from Chengshan(城山) in China and Deokmul Island to the Ungjin River and Sabi Castle constitutes the Sea Line of Communications of Tang. The Combined Forces of Silla-Tang departed from Ungjin(Gongju) on July 17, 603 A.D., arrived at and laid siege to Juryu castle on August 13, and caused the Baekje Armed Forces for revival to surrender on September 7, 663, A.D. Therefore, Juryu Castle must have been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especially at the distance of 26-day march from Ungjin(Gongju).

Second, in terms of the base of operations, in March, 661, the Silla Forces set up a base of operations in order to attack Juryu Castle. Since the present site of old Sabi Castle turns out to be Gobu, Juryu Castle must have been located around Gobu.

Third, in terms of military geography, it is a well-known fact that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geographical condition in preparing and waging a war or a military operations. Juryu Castle is only a little way from the Baek River and, judged from the written historical materials, the topographical conditions of Juryu Castle are in accord with those of Juryu Mountain Fortress in Gamgyo-ri, Sangseo-myeon, Buan-gun, Jeollabuk-do. Therefore, I make a comparative positioning of Juryu Mountain Fortress for Juryu Castle and of the Dongjin River for the Baek River.

Key Words : Juryu Castle, Baek River, Methodology for Military History, Base of Operations, Sea Line of Communications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국의 안보

張 浚 翼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예비역 육군중장)

1. 서 론
2.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수준
3.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수준
4.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5. 한국 정부의 대북 핵정책 방향
6. 결 론

1. 서 론

북한의 핵무기가 탄도미사일에 탑재되게 되면 한국은 물론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에까지 핵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북한은 미 본토까지 사정이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규약과 그들의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 공산화통일 목표 달성을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을 이용한다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지난 2003년 3월 개최한 3자회담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히는가 하면, 제1차 6자회담에서도 “미·북 불가침조약을 먼저 체결하여 우리(북한)의 생존을 보장하라. 그렇지 않는 한 핵 역지력이 필요하다”고 핵보유 의지를 주장했다. 2002년 10월 북한이 시인했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제2차 6자회담에서 강력히 부인하는 주장을 보면, 북한이 개발한 핵과 미사일을 쉽게 포기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다. 그리고 최근 파키스탄의 A. Q. Khan 박사가 북한에 우라늄 고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샘플과 기술을 제공했고, 또 북한의 비밀지하기지에서 세 발의 핵무기(Nuclear Devices)를 목격했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핵문제가 우리의 안보문제로 확실히 다가서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북한이 비록 조잡한 핵무기라도 보유하게 되면, 전쟁억지력 균형이 깨어져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안보상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의 전략적 군사환경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처럼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의 개발과정을 살펴본 후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우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자회담 등에서 장차 북한이 들고 나올 핵처리 정책을 미리 상정해 보고 이들 정책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여 대비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수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고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핵무기

개발수준과 능력을 구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인된 북한의 핵시설에서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과 북한의 핵기술을 토대로 북한의 핵개발능력을 판단해 보고, 아울러 북한이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개발에 대해서 가용한 자료를 토대로 구명해 보고자 한다.

(1) 핵무기 개발과정과 수준(능력)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통상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핵분열시 막대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핵분열성물질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핵분열성물질을 초임계질량 상태로 만들어 핵폭발을 시키는 핵폭발장치의 개발이다. 세 번째는 완성된 핵폭발물(핵폭탄, 핵탄두)에 대한 핵폭발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핵투발수단의 개발이다. 완성된 핵폭탄이나 핵탄두를 적국의 선정된 표적에 운반하는 핵투발수단에 탑재하였을 때 비로소 핵무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4가지 단계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병행하여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4가지 단계를 현존 북한의 핵시설들과 연계시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핵분열성물질(플루토늄 : Pu) 획득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 즉 핵분열성물질인 무기급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들 무기급 핵분열성물질을 획득하는 데는 주요 핵시설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핵시설이 북한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북 제네바 핵합의가 이루어진 1994년 이전까지 북한에서는 무기급 플루토늄 획득시설들만 확인되었다.

가. 북한의 플루토늄 핵개발 시설

북한은 1985년 12월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이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 가입을 계속 미루어오다가 1992년 1월 30일 IAEA 핵안전협정 가입에 서명하였다. 북한이 1992년 5월 4일 IAEA에 제출한 최초보고서에 의하면, <표 1>과 같이 16개소의 핵관련시설들이 있음을 신고하였다. 이는 북한에 핵관련시설들이 있음을 최초로 국제사회에 공개한 것이다. 이 최초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들 핵시설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설들인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1> 북한이 IAEA에 신고한 최초보고서 중 핵시설 일람표

순번	시 설 명	수량	위 치	비 고
1	우라늄광산	2개소	황북 평산, 평남 순천	
2	우라늄정련공장	2개소	황북 평산, 황북 박천	
3	핵연료성형가공공장	1개소	평북 영변	
4	핵연료저장시설	1개소	"	
5	IRT-2000연구용원자로	1기	"	
6	5MWe흑연감속원자로	1기	"	
7	50MWe원자력발전소	1기	"	1985착공-공사중단
8	200MWe원자력발전소	1기	평북 태천	1989착공-공사중단
9	방사화학실험실	1개소	평북 영변	
10	임계시설	1기	"	
	준임계시설	1기	평양	김일성대학내
11	원자력발전소(635MWe)	3기	함남 신포	계획단계
	계	16개소		

※ 순번은 연구자가 임의로 붙인 것임.

자료 : 장준익, 『북한 핵·미사일 전쟁』, 서문당, 1999, p. 430.

이들 시설들에서 이루어지는 일(공정)들을 순번에 따라 하나하나 확인해보면,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우라늄광산(평산, 순천)

북한에는 비교적 풍부한 천연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다.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 총량은 2,600만톤에 달하며, 가채량은 400만톤에 이른다.¹⁾ 현재까지 북한에서 개발된 우라늄광산은 7개소이나 현재 채광중인 광산은 황북 평산과 평남 순천광산으로 2개소를 IAEA에 신고했다.

② 우라늄정련공장(평산, 박천)

우라늄정련공장에서는 우라늄광산에서 채광된 천연우라늄 광석을 분쇄하거나 및 화학적 처리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여 천연우라늄 순도 75% 수준으로 분리해내는 작업을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75% 순도의 천연우라늄을 통상 '옐로케이크(Yellow Cake(U_3O_8))'라 칭한다.

③ 핵연료성형가공공장(영변)

핵연료성형가공공장에서는 Yellow Cake을 성형가공하기 쉽게 이산화우라늄(UO_2)으로 고체화시킨 후, 직경 3cm, 높이 3cm 크기의 원통형으로 성형가공하게 된다. 이것을 펠릿(Fellet, 핵연료소자)이라고 한다. 그런 다음 이 펠릿을 일렬로 넣을 수 있도록 50~60cm 길이의 원통형으로 만든 피복관을 만들고, 이 속에 펠릿을 넣으면 한 개의 '핵연료봉'이 된다.

④ 5MWe 흑연감속원자로와 IRT-2000, 50MWe, 200MWe원자로

북한이 IAEA에 신고한 원자로는 모두 4개소인데, 이 중 IRT-2000원자로 는 연구용원자로로 노후되어 사용불가능하고, 50MWe원자로와 200MWe원자로는 1994년 현재 미완공 상태의 흑연감속원자로이다. 이들 두 원자로(50MWe, 200MWe)는 1994년 미·북 제네바 핵 합의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 그대로 있다.

이들 원자로 중 유일하게 5MWe 흑연감속원자로(이후 '흑연감속로'라 함)는 1980년 7월 자체기술로 제작하기 시작하여 1986년에 완공하여 가동하기

1) 『第2次 朝鮮戰爭』, Japan Military Review, 1994. 9, p. 60.

시작하였다. 이 흑연감속로의 전기출력은 5MWe로 1994년 5월까지 가동되었다. 이 원자로에 핵연료가공공장에서 제작된 핵연료봉을 인입시켜 일정기간 연소(가동)시키면 핵무기 원료가 되는 새로운 인공원소인 플루토늄이 생성되어 축적되게 된다. 이 연소된 폐연료봉을 '사용후 핵연료(Spent Fuel)'라 하는데 이 5MWe 흑연감속로를 1년간 100% 가동(연소)시키면 사용후 핵연료봉 속에는 약 10kg의 핵무기용 플루토늄이 축적된다. 일반적으로 100% 가동이 어려우므로 연간 약 4~7kg의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²⁾

⑤ 방사화학실험실(영변)

흑연감속로에서 연소된 핵연료봉 속에는 새롭게 생성된 Pu-239를 비롯해 서 중성자를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U-238과 핵분열에 참가하지 못한 U-235와, 그리고 핵분열에 참가한 후 새로 생성된 핵물질(핵폐기물)들이 포함되어 뒤섞여 있다. 이 중 플루토늄을 추출해내는 작업은 화학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데, 이것을 '재처리(Reprocessing)'라고 한다. 이 재처리과정을 통해 무기급 플루토늄을 획득하게 된다. 이 때 우라늄도 추출하게 되고 핵폐기물도 각각 분리해내게 된다. 이 과정에는 방사성 강도가 매우 높은 방사선이 방출되므로 특수한 방호시설(Hot Cell과 Glove Box)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재처리시설은 무기급 플루토늄 획득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시설이다.

이 시설은 북한이 1985년도에 착공하여 1994년 현재 토목공사의 80%, 내부 설비시설의 70%가 완료(1993년도)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6층 높이의 대형건물(180m×20m×6층 건물)로 1989~1991년 사이에 일부 시설을 가동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해낸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시설이 완공되는 경우 재처리능력은 연간 200ton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5MWe 흑연감속로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봉(50톤)의 4배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방

2) J. S. Bermudez Jr., 『Jane's Intelligence Review(SR No.9)』, Printed the U.K., 1996. 10, p. 11.

<표 2> 가동중단(일수)

'86.9	'89.3	'89.6	'91.4	'91.6	'93.8	'93.10	'94.4	'94.5
1차가동 2.5년	(80)	2차가동 1년10개월	(50)	3차가동 2년2개월	(60)	4차가동 6개월		

가동중단일수

자료 : 장준익, 앞의 책, pp. 212-213.

사화학실험실은 1994년 이후 동결되었으나 최근 재가동중에 있다.

나. 핵관련 시설에서 획득한 플루토늄 양 분석

북한은 5MWe 흑연감속로를 1986년 9월에 가동한 이래 1994년 4월에 가동을 중단할 때까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번이나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가동을 중단한 시기를 제외한 가동기간은 총 7년(84개월)이 된다. 이 기간에 북한이 획득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총량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하는 슈뢰어(Dietrich Schroer) 박사가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제시한 '플루토늄 추출량 판단근거'로 추정할 수 있다.³⁾

<플루토늄 추출량 판단근거>

1. 북한의 5MWe 흑연감속로의 전기출력은 5MWe이나 열출력은 30MWt 정도로 판단된다.
 2. 30MWt 흑연감속로의 플루토늄 생성률은 1일 1메가와트 당(MWt·day) 0.9그램이다.
 3. 30MWt 흑연감속로에서 생성되는 플루토늄의 양은, 0.9g/MWt·day×가동기간(day)×열출력MWt×가동률(%)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 1989년도에 '사용후 핵연료봉' 인출시는 8,000여개 모두 인출했고, 원자로의 평균가동률을 60%로 가정했다.

3)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통권 제9호)』, 동진문화사, 1997. 3, pp. 265, 267.

<표 3> 축적된 플루토늄의 량

차	가동 연월	가동기간	가동률 (%)	Pu 축적	Pu추출 1, 2차/3, 4차		2, 3, 4차	비 고
1차	'86. 9~'89. 3	2년6개월	60	15kg	26kg			IAEA핵안전협정에 가입(1992.1)이전
2차	'89. 6~'91. 4	1년10개월	60	11kg				
3차	'91. 6~'93. 8	2년2개월	60	13kg	2년 8개월	16kg	27kg	핵안전협정 가입 이후
4차	'93.10~'94. 4	6개월	60	3kg				
계	'86. 9~'94. 4	만 7년	60	42kg	42kg			

이를 근거로 하여 계산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5MWe 흑연감속로의 가동으로 1994년 미·북 제네바 핵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축적된 플루토늄의 양은 총 42kg이다. 이 중 1·2차 가동시 축적된 플루토늄 26kg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1994년 이전에 이미 추출하였고, 3·4차 가동시 축적된 플루토늄은 그동안 8,000여개의 '사용후 핵연료봉'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2003년도에 또다시 NPT 탈퇴 후에 재처리하여 16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플루토늄 핵폭발장치 개발과 수준

핵무기를 개발하는 두 번째 단계가 핵폭발장치의 개발이다. 무기급 핵분열성물질이 그 자체로 분열해서 핵폭발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구비해 주어야만 핵분열 연쇄반응으로 핵폭발이 일어난다. 이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요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를 핵폭발장치라고 말한다.

핵폭발장치에는 4가지의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핵폭발에 필요한 일정량의 핵분열성물질과 연쇄반응을 일으키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미국의 에너지성이 공식발표한 바에 의하면 20KT 위력의 폭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루토늄의 양(Significant Quantity)은 4kg이다. 그러나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수준의 국가는 8kg 정도가 필요하고, 기술수준이 약간 향상된 국가는 3kg, 기술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국가는 1.5kg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무기급 우라늄의 경우는 15kg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⁴⁾

둘째로, 핵분열성물질을 미입계질량 상태로 각각 분리해 두었다가 필요시 폭발상태(초입계질량)로 결합시키는 고성능 폭약장치(고폭장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핵분열 연쇄반응을 일으킬 최초의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중성자 발생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넷째는, 연쇄반응을 촉진시켜 줄 반사재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들 핵폭발장치의 요건들을 한 체제로 조립하여 종합적인 핵폭발장치가 완성되면 완제품시험(package시험)을 통해서 완전성을 점검하게 된다.

이러한 실험들은 최초 핵무기 제조국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2,500회의 실험을 실시했었다.⁵⁾ 오늘날에는 모두가 컴퓨터에 모형화(Modeling) 되어 왔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한 모의시험(Simulation)으로도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인공위성에 의해서 1980년대 말까지 북한은 70여회 이상의 고폭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IAEA 사찰팀의 영변 핵단지 현장사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특히 1993년도에 실시한 북한의 완제품시험(Package시험)에 직접 참여하고 귀순한 이충국 씨에 의하면, “1993년 10월 20일에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실시한 완제품시험은 완벽했었다”고 증언했다.⁶⁾ 그리고 미국측에 의해서도

4) 『軍事研究(2003. 1)』, p. 115.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제48호)』, 2003. 4. p. 11.

6) 李忠國, 『金正日の核と軍隊』, 請談社, 1994. 9. p. 238.

“1991년 6월 영변 핵단지에서 내폭형(Impllosion) 방식에 의한 고폭장치 폭발시험이 있었다”고 확인했고,⁷⁾ 미국의 의회조사연구소(CRS)가 1993년 2월 19일 워싱턴타임스와 회견에서 “북한은 지난 1970년대 인도가 보유하고 있던 것과 같은 핵기폭장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 미 국방성은 1996년 10월 “북한은 1991년도에 군수송기로 운반할 수 있는 조잡한 플루토늄형 핵무기를 생산했을 것으로 판단한다”⁸⁾고 했다.

이러한 평가들을 종합해 보면, 1994년 이전에 북한이 개발한 핵폭발장치는 군수송기나 폭격기로 운반할 수 있는 정도의 조잡한 형태의 폭탄형 핵폭발장치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2년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998~1999년 사이에 평북 구성지구에서 추가로 고폭장치 실험이 있었다고 보도되었고,⁹⁾ 2002년말 한국 합참의장이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안보연례회의(SCM)시 “북한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추가로 70회 이상의 고폭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북한은 고폭장치 실험을 지금까지 총 140회 이상 실시한 것이 된다.

3) 핵실험 실시

핵무기 개발의 세 번째 단계가 핵실험이다. 즉, 무기급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획득하고 핵폭발장치를 완성한 후, 완제품실험도 완료되면 핵폭탄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핵분열성물질을 핵폭발장치 속에 주입시키고 그대로 핵폭발실험을 시켜보아야 핵폭발의 신뢰성과 또 요망되는 위력이 발휘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핵무기를 제조한 나라에서는 최초 핵실험을 직접 실시하여 핵폭발과 그

7) 『SAPIO(1993. 10. 14)』, p. 25.

8) J. S. Bermudez Jr., 『Jane's Intelligence Review(SR No.9)』, p. 11.

9) 조선일보, 2002. 12. 18.

위력을 확인하고, 각종 장치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핵보유를 공식화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는 시인도 부정도 없음(NCND) 정책¹⁰⁾의 달성을 위해서는 핵실험을 유보할 수도 있다. 또 핵실험을 꼭 실시해야만 핵폭발의 신뢰성을 보장받고 그 위력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다. 예로써 일본 히로시마에 폭발시킨 세계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은 한 번의 핵실험도 없이 직접 실용화한 것이다.

오늘날은 컴퓨터의 발달로 핵무기 설계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컴퓨터에 Modeling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한 모의실험(Simulation)으로도 핵실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이론에 설득력이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을 하기 원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핵실험보다는 NCND정책을 채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핵투발수단의 개발

핵무기 개발의 네 번째 단계 핵투발수단의 개발이다.

핵무기를 목표지역으로 운반하는 방법에는 항공기, 포, 로켓, 미사일, ADM(전차 또는 핵지뢰) 등 여러 방법이 가능하다. 오늘날 핵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거리 투발수단은 탄도미사일이다. 사거리가 길고 비행속도가 음속의 수배에서 10수배나 되는 이 탄도미사일은 적의 반대 방책에 대한 가장 안전한 수단으로, 세계 각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핵투발수단이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탄두중량을 1ton 내외로 경량화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가 요구된다. 이 탄도미사일 투발수단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상세히 언급할 것이다.

10) NCND(Neither Conform Nor Deny) : 자국의 핵보유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국의 무력공격을 억제하는 핵전략의 하나이다.

(2) 고농축 우라늄(HEU) 핵개발

1) 고농축 우라늄 획득방법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우라늄 원소 속에는 U-238이 대부분(99.3%)이고 잔여 0.7% 정도의 극소량이 U-235이다. 이 U-235(92U235)가 핵분열성 물질이다. 천연우라늄 속에 0.7%밖에 없는 U-235의 함유비율을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농축(enrich)'이라 하고, 농축방법에는 기체원심분리농축방법, 기체확산농축방법, 레이저농축방법, 노즐농축방법 등이 있다.

이들 농축방법 중 기체원심분리농축방법은 U-235와 U-238의 미세한 질량 차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우라늄을 기체상태(UF6)로 만들어서 원심분리기에 넣고 초고속으로 회전시키면 미세한 무게(질량) 차이로 인해 U-238은 바깥쪽으로 몰리고, 비교적 가벼운 U-235는 안쪽으로 많이 몰리게 된다. 안쪽으로 많이 몰린 U-235를 다음 원심분리기로 보내 다시 고속회전시키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안쪽으로 몰린 우라늄 속에는 U-235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므로 그 비율이 90% 이상이 되면 핵무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급 농축우라늄'이 된다. 무기급 우라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심분리기를 수없이 반복회전시켜야 한다. 한 대의 원심분리기는 직경 20~50 cm, 높이 1~2m 정도의 소형 알루미늄 원통형이다. 물론 한 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대에서 천대까지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곳에 분리 설치할 수도 있다. 특히 지하시설과 같은 은밀한 장소에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또 저비용이라는 장점과 외부로부터 탐지해 내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시도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2002년 10월 방북시,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수년 전부터 우라늄 핵무기

개발계획을 진행시켜 왔다”고 했다. 2002년 당시로부터 수년 전이면 1990년대 말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94년도에 김일성 사망과 미·북 제네바 핵합의로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이 어렵게 되었다. 이 시기에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은 1992년도에 한·중수교가 이루어졌을 때 “믿을 것은 핵폭탄밖에 없다”고 강력한 핵개발의지를 표출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은 어렵게 되었다 하더라도 비밀리에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라늄 핵무기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 CIA는 “북한이 수년 전부터 우라늄 농축에 착수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2001년 북한이 원심분리기에 사용할 자재와 기재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을 확인했고, 최근에는 풀가동하는 경우, 연간 우라늄 핵무기 2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2005년경에 완성될 것이다”¹¹⁾라고 2002년 11월 21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한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2002년 10월 17일 “북한은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위해 최근 수년간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가스원심분리기 등의 장비를 구입해서, 2002년 7, 8월경에는 북한내 어느 비밀시설에서 우라늄을 고농축하는 실험까지 실시했음을 미국의 정보기관이 탐지했다”¹²⁾고 했다.

이상 한·미 정보당국자의 발표나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북한은 1990년대 말경(1997년 또는 1998년)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와 관련된 부품을 비밀리에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은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기술과 농축기자재를 수입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설치하여 농축을 실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축시설을 설치한 장소로는 평양 교외에 있는 국가과학원과 양강도의 영저동, 자강도 하갑의 3개소를 지목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과학원’ 실험실에서 농축우라

11) 미 CIA가 2002. 11. 21 “Unclassified Report”로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참조.

12) 小都元, 『核武装する北朝鮮』, 新紀元社, 2003. 2. p. 67.

늄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미국의 정보당국이 한국에 알려 왔다고 전해지고 있다.¹³⁾

북한이 연간 2개의 우라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의 무기급 우라늄 획득을 목표로 원심분리기를 설치하여 가동하게 되면, 앞으로 1~2년 사이에 우라늄 핵무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CIA는 전망했다.

2003년 3월 12일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농축우라늄 문제를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수년이 아니라 수개월의 문제”라고 하면서, 수개월 내에 무기급 우라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증언을 한 바 있다.¹⁴⁾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증언을 한 것을 보면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음에 틀림 없다.

위의 정보나 첩보,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현재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밀장소에 설치하고서 우라늄 농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상태로 진행되면 북한은 1~2년 이내에 연간 2발씩의 우라늄 핵무기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3.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수준

핵폭탄이나 핵탄두도 핵무기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수단을 갖지 못할 때 이들 핵무기는 적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핵무기는 그 운반수단과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때 완전한 의미에서의 핵무기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핵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핵투발수단은 탄도미사일이다.

13) www.joins.com, 2002. 10. 19자 참조.

14) www.joins.com, 2003. 3. 14자 참조.

현재까지 북한이 개발한 탄도미사일과 또 개발중에 있는 탄도미사일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구명해 보고자 한다.

(1)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1961년 한국에 5·16군사혁명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이것을 구실로 1961년 7월 소련 및 중국과 상호원조조약¹⁵⁾을 각각 체결하고, 1962년 12월에는 “경제개발투자를 일시 유보하고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국방에서의 자위’ 정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4대군사노선¹⁶⁾을 표방하였다. 특히 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여 1962년부터 1975년까지 북한은 구 소련으로부터 지대공 미사일(SA-2) 1개 대대분을 비롯하여 함대함 미사일(STYX)과 지대지 로켓(FROG-5/7) 등을, 중국으로부터는 지대공 미사일(HQ-2)과 휴대용 대공미사일(HN-5) 등 신무기를 지원받아 전방부대에 배치하여 전력을 증강시켰다.

당시 북한은 한국 전체를 사정권 안에 두는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제공할 것을 구 소련과 중국에 요청했으나 정치적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러다가 1975년 4월 17일부터 김일성은 모택동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수행한 당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 기술을 북한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중국에서도 1,000km 미만의 실전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북한과 공동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합의하였다.¹⁷⁾ 이 합의에 의해 조·중 단거리미사일 공동연구

15) 통일부, 『2000 북한개요』, 서라벌데이터, 1999. 12. p. 237(1961.7.6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1961.7.11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16) 4대군사노선: 1962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전쟁준비를 위한 군사력 증강정책으로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이다. 통일부, 『2000 北韓要論』, p. 298.

17) 『軍事研究(1994. 6)』, p. 100; Joseph S. Bermudez Jr., “북한군의 특수무기 능력과 개발전망”,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학술 토론회(1994. 9), p. 49.

팀이 구성되고, 책임자로는 중국의 첸 실란(Chen Xilan)이 임명되어 'DF-61(東風-61)'이라는 명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¹⁸⁾

'DF-61' 탄도미사일의 개략적인 제원은 사정거리 600km, 탄두중량 1,000kg,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1단로켓으로 관성유도장치(System)로 개발하기로 구상하였다.¹⁹⁾ 이 DF-61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에는 북한의 기술자들도 참여하여 약 1년간 공동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은 중국의 국내사정(문화혁명)으로 처음부터 보류되다가 나중에 첸 실란이 정치적으로 축출됨으로써 1978년에 취소되었다. 이로써 남한 전체를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꿈은 깨어지고 말았다.

DF-61 계획의 좌절은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 1979년부터 독자적으로 DF-61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국가적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2) SCUD-B 탄도미사일과 SCUD-B 개량형 탄도미사일

북한은 1980년 이집트와 '탄도미사일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²⁰⁾ 소련제 SCUD-B 탄도미사일 2기(基)와 차량이동발사대 MAZ-543P(8륜 대형트럭 및 발사대)를 비밀리에 제공받아, 1981년에 이를 분해하여 역추적 공범으로 설계도를 작성하였다.²¹⁾ 이 설계도에 따라 SCUD-B 탄도미사일을 복제

18) 위의 글, p. 50.

19) 위의 글, p. 50; 『軍事研究(1994. 6)』, p. 34; 金元奉, 『北朝鮮 人民軍의 全貌』, 三修社, 1996. 12, p. 130.

20) 『第2次 朝鮮戰爭』, p. 124.

21) Joseph S. Bermudez Jr., 『Jane's I. R.(1996. 12)』, p. 56; Joseph S. Bermudez Jr., "북한군의 특수무기 능력과 개발전망", p. 51; 『第2次 朝鮮戰爭』, p. 124; 한국통일원 관계자는 이집트로부터 SCUD-B 미사일 2기를 도입하여 역설계했다고 밝혔다(세계일보, 1993.7.9).

하는 데 3년이 소요되었고, 1984년 4월과 9월에 화대군 미사일 시험장에서 3번 이상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복제품생산 성공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신을 얻은 북한은 SCUD-B 탄도미사일 원설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1985년 새로운 미사일의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사격 결과, 사정거리가 소련제 SCUD-B 탄도미사일보다 오히려 20~40km 연장되는 성과를 거두어 북한 최초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다.²²⁾ 이 새로운 미사일 성능을 소련제 SCUD-B 탄도미사일과 비교해 보면, 탄두중량과 외형은 동일하나 사정거리가 증가된 개량형 탄도미사일이라 하여 서방측에서는 이를 'SCUD-B 개량형 탄도미사일'이라 하였으며, 사정거리가 20~40km 연장된 것은 로켓엔진(모터)을 개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북한은 1995년도에 SCUD-B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장비한 북한 최초의 미사일부대를 창설하여 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수도권은 물론 대전-군산선까지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되었다.

(3) SCUD-C 개량형 탄도미사일

북한은 SCUD-B 개량형 탄도미사일 개발로 한국의 절반 이상을 사정권 내에 두게 되어 군사적으로 큰 이점을 확보했음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1988년부터 한국 전체를 사정권 내에 둘 수 있는 장사정의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에 착수했다.

북한은 SCUD-B 탄도미사일 시스템의 간단한 개량으로 사정거리를 연장시키려고 했다. 사정거리를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미사일의 최종 발사속도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SCUD-B 개량형 탄도미사일의 연료탱크와 산화제탱크를 확장시켜 그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탄두의 중량을 감소

22) 『軍事研究(1994.8)』, p. 51; Joseph S. Bermudez Jr., “북한군의 특수무기 능력과 개발전망”, p. 53.

시킴으로써 사정거리를 연장시킨다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1988년부터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개발사업이 시작되어²³⁾ 1989년 후반에 SCUD-B 개량형 탄도미사일의 탄체 직경은 늘리지 않고 탄체의 중앙부분의 연료 및 산화제 탱크 부분만을 1m 연장하여 연료와 산화제의 탱크 용량을 증가시켰다. 탄두중량은 985kg에서 700kg으로 감소시키고,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성 유도방식을 약간 개선시킨 새로운 미사일의 시제품을 완성하게 되었다.²⁴⁾

이 시제품은 1990년 6월 함북 화대군 시험장에서 최초로 발사하여 동해에 낙하시킴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²⁵⁾ 이때 발사된 미사일의 성능은 사정거리가 600km에 달하고 탄두중량은 700kg이고, 명중률은 다소 개량되었다고 하나 사정거리의 연장에 따라 사거리공산오차(CEP : Circular Error Probable)는 1~2km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새로운 미사일은 소련의 SCUD-C 탄도미사일과 구분하기 위해서 'SCUD-C 개량형 탄도미사일'로 명명하게 되었다. 사정거리 600km는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전역이 사정권 내에 들어감으로써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완전히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1991년도부터 SCUD-C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미사일연대를 미사일여단으로 증편하였다.²⁶⁾

(4) 노동1호 탄도미사일

북한은 1988년부터 SCUD 미사일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1,000km 이상의 장사정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SCUD 미사일 시스템의 기본적 추력에 추가적인 추력을 얻어야 가능하므로 이 추가적인 추력을 얻는 방법으로 '다단계(多段階)로켓 방식'과 '집속(集束)로켓 방식'을 고려하였다.

23) 『SAPIO(1993.10.14)』, p. 26.

24) Joseph S. Bermudez Jr., "북한군의 특수무기 능력과 개발전망", p. 55.

25) 위의 글, p. 55.

26) 『軍事研究(1994. 6)』, p. 34 : 金元奉, 『北朝鮮人民軍の全貌』, p. 132.

집속로켓 방식은 1단로켓의 내부 또는 외부에 로켓엔진 여러 개를 집속시켜 동시에 점화시킴으로써 처음부터 강력한 추력을 얻어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로켓 방식이다. 그러나 집속시킨 수개의 로켓엔진을 동시에 점화시켜 모두 동일한 추력을 배출해야 하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데, 북한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고도한 기술과 기술자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북한은 소련 붕괴후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구 소련의 미사일 관련 기술자들을 다수 스카웃하여 비밀리에 북한으로 입국시켰다. 그리고 김일성은 1991년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미사일 관련 기술지원을 정식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북한 미사일 기술자들이 중국에서 기술연수를 받았고,²⁷⁾ 기술도 제공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공식적인 기술지원과 러시아 기술자들의 밀입국에 의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급진전된 결과 1993년 5월 29일 새로운 미사일이 완성되어 함경북도 화대군 대포동 미사일 시험장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미사일이 바로 '노동1호 탄도미사일'이다.

이때 발사된 노동1호 탄도미사일의 제원은 미 국방정보국과 중앙정보국이 합동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노동1호 탄도미사일은 4개의 로켓모터를 사용하는 1단로켓으로, 길이 15.2m, 동체 직경 1.2m, 탄두 770kg, 사정거리는 1,300km이며, 명중률(CEP)은 약 3~4km로 저조한 편이다"²⁸⁾라고 했다.

북한은 이동발사대차량(TEL)을 새로이 제작하여 실전배치 시험을 거친 후, 최근까지 약 100~150기 이상의 노동1호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5)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

1994년 2월 미국의 첩보위성이 탐지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대포동 미사

27) 『軍事研究(1996. 10)』, p. 176.

28) *Jane's Defense Weekly*, 1997. 5. 28.

일센터 내에 있는 '산음연구소(山陰研究所)'라는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2단 로켓 형태의 새로운 미사일 2기가 제작중인 것이 확인됨으로써 북한이 노동1호 탄도미사일보다 더 장사정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정보당국이 새로이 발견한 2기의 탄도미사일 중, 탄체가 작고 길이가 짧은 미사일을 이 지역의 명칭을 따서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로, 그리고 더 큰 미사일을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로 명명하게 되었다.²⁹⁾

북한은 1990년경부터는 장사정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강력한 추력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로켓엔진 개발과 장사정에서 오는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밀한 관성유도장치 개발, 또 대기권으로 재진입시에 발생하는 고열에 견딜 수 있는 탄두의 내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다단계 로켓 기술의 연구개발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야에 전문기술자인 러시아 및 구 동독인 기술자 30~50여명을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에 비밀리에 입북시켜 대포동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시켰다.³⁰⁾ 그리고 1994년 6월에는 대포동 미사일센터의 산음동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대포동 미사일의 추진체로 추정되는 로켓 수직분사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첩보위성에 의해서 식별된 바도 있다.³¹⁾

1996년 9월 10일 러시아가 한국측에 전달한 러시아 정보당국 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의 제원은 2단로켓 방식으로, 제1단계 로켓은 노동1호 미사일 로켓을 사용하고, 제2단계 로켓은 SCUD-B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접속시켜 사용하는 미사일로, 사정거리는 1,700~2,100km, 탄두는 1,000kg까지 탑재 가능하며, 전체의 길이는 23.3m가 되고, 직경은 제1단이 1.2m, 제2단은 0.88m로 북한 최초의 2단로켓 탄도미사일이다.³²⁾

그로부터 2년 후인 1998년 8월 31일 12:07에 새로운 다단계 미사일이 북

29) Air Space Daily紙, 1994. 10. 1, 조선일보, 1994. 3. 20.

30) 會山良昭, 『金日成の核ミサイル』, 光文社, 1994. 6, p. 2; 『軍事研究(1994. 8)』, p. 57; 『軍事研究(1994. 6)』, p. 104.

31) 조선일보, 1994. 7. 1.

32) 러시아 당국이 한국에 제공한 제원임(서울신문, 1995.9.11).

한의 대포동 미사일 사격장에서 발사되어 일본 열도를 지나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擇) 동북방 580km 지점의 북태평양 상에 탄두가 낙하됨으로써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의 실체가 확인되었다. 북한은 1998년 9월 4일 중앙통신에서 “다단식 운반 로켓에 의한 최초의 인공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단계로켓이 발사된 것은 확인되었으나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는 것은 우주공간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2단 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3단로켓이었으나, 인공위성을 탑재한 제3단로켓의 발사는 실패하고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의 제1단(노동1호)과 제2단(SCUD-B) 로켓의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발사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 ① 발사지점으로부터 탄두 낙하지점까지의 사정거리가 1,380km(한국 발표) 또는 1,646km(북한 발표)로 노동1호 탄도미사일(1,300km)보다는 장사정이고,
- ② 로켓은 2단로켓(북한은 3단이라고 발표했으나, 3단 발사는 실패)으로 노동1호의 1단로켓보다는 다단계 로켓이라는 점,
- ③ 탄체와 탄두가 분리되는 실험에 성공하였다는 점,
- ④ 발사과정의 영상을 보면, 로켓의 분사배기가 여러 개가 아니고 단일 노즐을 가진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강력한 새로운 로켓엔진을 개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강력한 새로운 로켓 엔진의 개발과 동시에 다단계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진전되어 곧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2,000~2,500km로 추정 발표했다.³³⁾

33) 국방부, 『국방백서(2000)』, 2000. 10, p. 45.

(6)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1994년 2월 미 첩보위성이 대포동 미사일센터에서 탐지한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의 외형으로 제원을 계산해 본 결과와 추가적인 각종 정보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들을 근거로 각 정보당국이 판단한 이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보면,

- 미 국방정보국(DIA)에서 컴퓨터로 모의실험한 결과,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4,300~6,000km로 추정되며, 이는 태평양의 괌도와 알래스카 정도를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³⁴⁾
- 러시아 정보당국은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은 2단로켓으로서 1단의 직경은 2.4m, 길이는 16.2m인 미확인 1단 추진체 위에 직경 1.2m, 길이 16m인 2단로켓의 노동1호를 얹고 1,000kg의 탄두를 실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사정거리는 4,300~6,000km가 될 것이며 이 탄도미사일에 몇 가지 기술적인 보완작업을 마치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9,600km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³⁵⁾
- 2002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의하면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은 신형 부스터를 1단계, 노동1호를 2단계로 이용한 2단 미사일로, 사정거리는 3,500~6,000km로 개발중이고, 또 파생형(3단계)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으며 탄도미사일의 장사정화가 진전될 것으로 판단된다”³⁶⁾라고 분석했다.

1999년 6월 18일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한 그 장소에 새로운 다단계 미사일 발사를 위한 발사대가 조립되고 있는 것이 미 첩보위성에 의해 확인되었다. 특히 새로 준비하고 있는 발사대의 높이가 23m인 종전의

34) 서울신문, 1995. 9. 11.

35) 러시아 정보보고서(서울신문, 1995. 9. 11).

36) 防衛廳 編, 『2002년 방위백서』, 財務省印刷局(東京), 2002. 9. p. 55.

발사대(대포동1호 발사대)보다 10m나 더 높은 33m인 것으로 확인³⁷⁾된 사실은 사정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바와 같이 미국의 알래스카와 하와이 주까지 도달할 6,000km가 될 것으로 판단³⁸⁾하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미국 영토의 일부가 처음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 안보상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1999년 6월 23일부터 3차에 걸쳐 북한의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미·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결과, 1999년 9월 9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및 미·북 대화가 지속되는 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지금까지 시험발사가 유보되고 있다.

이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의 제1단계 추진체로 사용될 로켓은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동풍4호(CSS-3) 탄도미사일(사정거리 7,000km)의 1단 로켓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³⁹⁾ 그 이유는 1990년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여 미사일 기술지원을 요청한 이래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구체적인 기술지원을 받아왔다는 점과, 또 인공위성에서 확인된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의 외형으로 제원을 계산해 보면 중국의 동풍4호 탄도미사일의 성능에 필적하고, 또 연료분사장치, 추진체 등 주요 구성품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⁰⁾

(7) 북한 탄도미사일의 개발현황 정리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개발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1985년부터 SCUD-B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1990년부터는 SCUD-C 그리고 1993년도부터는 노동1호 탄도미사일을 생산해 왔으며, 1998년도부터 대포동1호 탄

37) 惠谷治, 『金正日 大圖鑑』, 小學館, 2000. 6. p. 13.

38) 연합뉴스, 1999. 7. 9.

39) 會山良昭, 『金日成の核ミサイル』, p. 23.

40) 『軍事研究(1996. 1)』, p. 176.

도미사일 생산체제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나, 지금까지 생산된 탄도미사일의 총 수량이나 군사용으로 보유한 수량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각종 전문서적이나 매스컴에서 제시된 북한 탄도미사일의 제원과 보유량을 열거,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탄두에 재래식무기나 화학무기를 탑재할 것인지, 또는 핵탄두를 탑재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북한측이 결정할 문제이나, 1998년도 한국 국방부가 650기의 SCUD 및 노동1호 탄두 중 60%는 화학탄두로 만들어졌다⁴¹⁾고 한 보도는 장차 북한은 재래식 탄두뿐만 아니라 화학탄두를 사용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표 4> 북한 탄도미사일의 제원

미사일		구 분	사거리 (km)	위협범위	탄두중량 (kg)	CEP (m)	추진 로켓	보유량 (추정)
개발 완료	SCUD-B		340	대전권	985	1,000	1단	약 500기
	SCUD-C		600	남해안, 제주도	700	1,300	1단	
	노동1호		1,300	오키나와	700	5,000	1단	약 150기
	대포동1호		2,000~ 2,500	일본/대만	500~700	2,000	2단	?
개발 중	대포동2호		6,000 (최장 9,600)	알래스카	650~1,000	200~5,300 (추정)	2단 3단	

자료 : 국방부, 『참여정부의 2003년 국방정책』, 2003. 7, p. 159.

41) 한국일보, 1998. 9. 28.

4.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핵무기 능력과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앞 항에서 이미 판단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능력이 한국안보에 어떤 위협을 미칠 것인지를 군사적 측면과 정치전략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북한 핵·미사일의 군사적 위협

1) 북한 미사일여단의 운용

북한 미사일여단은 SCUD-B/C 탄도미사일 3개 대대와 노동1호 탄도미사일 1개 대대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정거리 특성상 주로 한국에 대해 전술·전략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이 미사일여단이 재래식탄두만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미사일여단은 36대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므로, 한국 내의 36개 표적⁴²⁾에 대해서 동시사격으로 각 미사일 발사대가 보유하고 있는 4기씩(예비량 3기 포함)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 표적당 4기씩의 미사일이 떨어져 다소의 피해를 내게 될 것이다, 그것보다는 국민들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보유한 650기의 탄두 중 20%인 130기는 전략적 예비로 두고 잔여 520기를 사격하는 경우, 36개 표적에는 각각 평균 14기 정도가 할당된다. 이 경우는 상당한 피해와 더불어 심각한 심리적 공황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미사일여단이 보유한 발사대 1대당 1개 표적에 사용한 단순계산상의 수치이다.

42) 북한 미사일여단이 보유한 36개 발사대와 한국 내의 중요한 시설로 선정할 수 있는 대도시(광역시 이상)와 비행장, 주요 항만, 원자력발전소, 군용시설 등을 선정해 보면 비슷한 숫자(36개)가 된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표적 우선순위에 따라 발사대의 집중과 사격량을 조절·운용하는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한국군의 주요 군사시설과 주한미군(미2사단과 7공군 등) 시설들에 집중되어 한·미 군사력 무력화와 국가 주요시설(주요 공항과 항만, 원자력발전소, 공업단지 등) 파괴, 전·후방 동시교란 등 국민의 심리적인 공황 유도과 한국군의 군사작전 차질을 일으켜 북한이 전·후방 동시전장화, 속전속결전략 달성으로 유리한 전쟁을 전개할 것이다.

재래식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공격만으로도 전·후방에 심대한 위협을 야기시키는데, 만일 총 70여톤의 화학작용제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여단이 화학무기를 탑재하여 동시에 사격을 한다면 수도권 크기 정도의 지역을 한꺼번에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650기 중 60%가 화학탄두라는 국방부 발표를 인용하면, 60%의 화학탄두는 390기가 되는데, 이 화학탄두를 주요 도시와 시설 표적 36개소에 집중적으로 투발하면 1개 표적에 6톤씩의 화학작용제 공격을 가할 수 있어 대량피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화학탄두의 사용은 그야말로 가공할 대량살상무기가 된다. 여기에 더하여 핵탄두까지 사용한다면, 그것도 단 몇 발의 핵무기로 대량살상 및 대량파괴로 대공황을 야기시키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2) 북한 전략미사일여단(-)의 운용

북한 전략미사일여단(-)의 발사대 수는 노동1호 발사대 9대와 대포동1호 발사대 9대 그리고 추가적인 장사정미사일 발사대 9대 등, 모두 27대의 발사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들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모두 1,000km가 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한반도 이외의 장거리 표적에 대한 사격이 가능하므로 전략적 운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 전략미사일부대의 운용은 평양 북방에서 사격시 그 사정거리를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섬까지 사격권 내에 두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전력을 한국에 증원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전략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전력이 한국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일본에 대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먼저 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위협이 공갈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략미사일여단(-)에서 몇 발의 재래식탄두를 일본 도쿄(東京)나 오키나와의 가테나(嘉毛納) 공군기지 인근의 가까운 지역에 위협사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생화학무기나 핵탄두로 공격할 것이라고 추가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일본과 미국 시민의 반전여론과 한국전 개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해져 주일미군의 증원과 미 본토의 지원전력이 신속히 증원되는데 제한을 받게 되면 한국군의 작전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획된 동맹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에 미치는 정치전략적 위협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의 개발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 그리고 국제사회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만일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핵보유국이 현실화되는 경우, 세계적 차원에서는 NPT체제가 흔들려 전 세계적 핵확산이 우려되고, 또 동북아지역에는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촉진시켜 동북아 전역에 핵군비경쟁을 유발하여 동북아의 불안정을 증폭시킬 것이며,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하에서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위시한 주변 4강국은 역내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유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1993년부터 양자회담 또는 다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 2차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 보면,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발단은 북한이 국제협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므로 북한이 먼저 핵계획을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를 해 줄 것을 요구”했고, 북한은 “미국이 우리(북한)를 압살하려 기도하니 미·북 불가침조약을 먼저 체결하여 우리(북한)의 국가생존을 보장하라, 그렇지 않는 한 핵억지력이 필요하다”고 핵보유를 강조하는 맞선 주장으로 별 성과 없이 진행되고 있다. 6자회담을 마치고 미국측 대표가 베이징을 떠나면서 “북 핵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긴 여정(a longway travel)이 될 것이다”라고 한 전망처럼, 앞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당면할 북한의 핵위협이 우리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 대처해야 할 것이다.

1) 북한 핵문제 처리를 위한 선택가능한 방안과 북한의 의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다자회담을 통해 볼 때, 장차 북한이 선택할 방안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나 3가지, 즉 ① 현상유지 방안, ② 핵보유선언 방안, ③ 핵포기 방안으로 집약할 수 있다.

가. 현상유지 방안의 선택

이 방안은 북한이 핵보유 또는 핵포기의 정책결정을 미룬 채 다자회담에 응하는 등, 현상태를 일정기간 유지하고자 하는 시간별기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 의도는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요건을 갖추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즉 핵탄두의 양(수)을 추가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간 획득과 탄도미사일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획득하기 위해서 현상유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여건의 조성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2004년 11월에 실시될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 협상의 유·불리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셋째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반대한다는 한국 정부의 대북 핵정책에 힘을 얻은 북한은, 한국 국내에 민족공조 여론 확산과 반미·반전 여론의 비등 등, 북한에 유리한 여론조성을 통해 미·북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대미 압박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나. 핵보유선언 방안의 선택

이 방안 선택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요건을 최소한 갖춘 후 핵보유국을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선제공격을 억제하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서 양자회담이든 다자회담이든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전개하겠다는 핵억지력의 보유 방안이다. 북한이 핵보유 선언 방안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내용들을 다음의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50년간 2대(代)에 걸친 숙원사업인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집념의 결실로 강성대국이 되었다는 자긍심으로 군부와 인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김정일의 선군정치 위업 달성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2002년 1월, 미국의 핵태세보고서(NPR)에서 핵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북한은 이미 지목되어 있었고, 또 이라크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다음 체제전복 대상은 북한이 될 것이라고 북한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체제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핵보유를 선언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할 수 있다.

셋째는 북한은 이라크의 패전을 보고 “이라크전쟁은, 앞으로 전쟁을 막고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⁴³⁾고 발표할 만큼 이라크전의 패전에 북한은 큰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6자회담에서 북한측 대표는 “우

리는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을 가져야만 하겠다는 결심을 내렸다. … 우리는 핵보유를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밝힌 바를 보면, 김정일은 이라크전의 패전을 보고 핵보유만이 전쟁을 억지하고 북한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넷째는 핵보유 선언으로 핵보유국이 되면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믿을 것이다. 특히 한국 내에 친북좌경세력들은 “북한의 핵무기는 통일이 되면 우리의 자산이 된다”는 감상적인 선동과 남북 민족공조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만 한반도에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확산시키는 등, 대남심리전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다. 핵포기선언 방안의 선택

이 방안은 북한이 지난 50년간 고난 속에서 핵개발을 지속해 온 과정이나 김정일의 선군정치 통치이념을 고려하면, 가장 어려운 선택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가와 체제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악의 상황에서 탈출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핵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전략적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이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북한이 핵포기선언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줄 내용들을 다음의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제1·2차 6자회담의 결과, 한·미·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까지도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하고, 장차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제재 등의 압박은 핵보유에 의한 북한체제 유지에 오히려 부담이 되며, 특히 중국의 경제적 압박(예를 들어, 에너지지원 및 식량지원 중단 등)은 정권의 파멸로 가는 요인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는 북한이 핵포기 대가로 제시한 조건들이 미국을 위시한 주변 4강들로부터 대폭 받아들여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불가침조약과 유사한 체제보장이나 평화협정 체결, 또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 해

43) 2003. 4. 6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표.

체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제약조건의 해제, 또 국제사회의 과감한 경제지원 등이 이루어질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지도부가 핵포기를 선언할 수도 있다.

셋째는 북한은 핵포기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고 평화적인 대남적화통일에 유리한 조건 획득으로 낙후된 경제를 회생시키는 한편, 남한의 대북지원 및 동정론을 확산시켜 대남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통일전선전략 차원에서 일시적인 핵포기 선언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상 상정한 3가지 방안을 분석해 본 바와 같이, 북한이 어느 방안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김정일의 판단에 달려있다. 첫 번째 방안은 한정된 기간에 불과하고, 또 장기간으로 끌고 가는 것을 국제사회가 허용치 않을 것이므로 북한은 어느 한정된 시점에서 제2, 또는 제3의 방안 중, 한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자력으로는 회생불가능한 심각한 경제상황과 한계에 이른 북한 주민의 불만고조, 핵불용의 국제적 압박, 체제의 생존이라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북한으로서는 어느 방안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북한의 체제 존망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북한의 선택 결정에 따라 한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다.

2) 각 방안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들 세 가지 방안 중 북한이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우리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북핵 현상유지시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 현상태를 유지하는 시간 벌기의 의도가 핵무장 완성에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핵무장에 근접하게 되고 한국의 국가안보는 점점 위협에 다가서게 된다.

다자회담이 진행되면서 협상이 순조롭지 못하고 시간을 연장하기만 하는 북한의 의도가 파악될 때,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경제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경제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⁴⁴⁾고 언급한 바 있으므로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될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군사제재 방향으로 분위기가 발전되면 해상봉쇄가 준비되고, 북한은 “미국이 공격하기 전 우리가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⁴⁵⁾라고 한 호언에 따라 군사적 대응조치가 강구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군사적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경제는 극도로 위축될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한·미공조와 민족공조로 양분되는 이념분쟁으로 한국사회는 마치 6·25 직전을 방불케 하는 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 이런 혼란기를 이용하여 대남혁명전략 강화로 한국 내부붕괴를 획책한다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과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나. 핵 보유선언시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 어느 시기에 가서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 한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당장 핵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하에서 국가의 생존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럴 경우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의 핵보유가 선언될 경우, 미국은 비핵확산정책과 대테러전 차원에서 북한의 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북한의 핵보유를 제거하기 위한 보다 단호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반도는 극도의 전쟁 위기로 치달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될 때 미국은 UN을 통해서나 아

44) 2003. 7. 28 북한 중앙방송은 “대북 봉쇄와 경제제재는 전쟁뿐”이라고 경고했다.

45) 2003. 2. 6 이병갑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평양에서 BBC와의 회견에서 “북한은 앉아서 기다리지만 앉고 필요할 경우 먼저 공격할 수 있다.”

다면 최악의 경우 단독으로라도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새로운 군사전략에 의해 선제 핵공격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이때 북한이 핵으로 대응하면 한반도는 핵전쟁으로 인하여 대량피해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위기가 점증되어 가는 시기에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친북좌경세력들은 “민족공조로 미국의 침략을 분쇄하자”,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또한 보수세력들은 “민족을 말살시킬 핵을 폐기하라, 이를 위해 한·미공조를 강화하라”는 목소리를 높여 보·혁간에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국내에는 보·혁 갈등이 분출하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공작이 이에 편승함으로써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으로 진행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미국의 대북제재 행동을 제약하는 국제정세나 한국과 미국 내의 반전 국민여론이 비등하게 되는 경우, 미국은 핵전쟁보다는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 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것을 오히려 한반도의 핵전쟁 시나리오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검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데 한국안보의 가장 큰 딜레마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핵위력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도할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다.

다. 북 핵포기시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제1방안인 현상태가 지속되다가 다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어느 시기에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함으로써 갑자기 한반도에 평화가 다가와 전쟁위험은 사라지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 방안은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핵포기 선언으로 진정 한반도에 핵위기와 전쟁위기가 사라졌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 할 수 있으나,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북한의 핵이 돌이킬 수 없을 (irreversibly) 정도로 완전한 폐기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1994년 이전에 만들어진 소위 과거핵은 완전하게 폐기되는 것인지, 또 북한의 비밀지하시설에 설치된 우라늄 농축시설들을 모두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핵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포기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는 위협 속에 있게 된다.

그리고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핵포기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 조건으로 미·북간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하거나, 한국의 핵우산 제공을 철회하거나, 또 한·미 방위동맹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들을 허용해 준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에게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해 주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는 한국의 국가생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한 문제로 우리는 국가안보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다.

또 한편으로 북한의 핵포기로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가 사라지고 평화가 다가온 것으로 한국의 국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에 휩싸이고, 북한은 민족의 공동생존을 위해서 핵을 포기했다고 선전선동을 하는 등,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공작이 활발하게 한국에 침투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국가안보상 대단히 심각한 대남적화통일공작의 위협에 함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북한의 핵포기 선언으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사라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북한이 핵포기 대가로 얻어낸 내용에 따라서는 한국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암초가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라.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종합

앞에서 북한이 선택가능한 3가지 방안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각 방안에

따른 한국의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 하나가 군사적 위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공작 위협이다.

먼저 군사적 위협은 어느 방안이 선택되든 현재의 군사적 위협보다 그 위협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하는 경우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고, 핵을 포기한다 해도 핵포기의 대가로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경우 한국은 현재의 군사적 위협보다 적지 않은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공작 위협은 북한 체제가 존속하는 한 지속될 것이며, 이는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이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핵보유시는 핵위력으로 대남적화통일전략 달성을 위하여 공작할 것이고, 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남적화통일전략 달성에 유리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므로 대남적화통일공작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그리고 현상유지책을 써서 시간을 벌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북한은 핵보유선언과 핵포기 선언시에 대비하여 대남적화통일 공작을 활발히 전개, 친북좌경세력을 확산시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붕괴를 시도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5. 한국 정부의 대북 핵정책 방향

본 항에서는 분석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에 의한 군사적 위협과 대남적화통일공작 위협 그리고 지금 다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정치·외교적 정책대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비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책

북핵문제의 위협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제3방안을 선택할 때 외형적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북한이 제1방안의 선택, 즉 현상유지와 제2방안인 핵보유 선언을 선택할 경우 북한의 핵위협은 실재한다.

북한이 제1방안 선택시 북한은 과거핵을 보유한 채 모호한 정책(NCND)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므로 우리는 북한의 실제적 핵위협에 대비해야 하며,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국의 핵우산으로 전쟁억지를 달성할 수밖에 없다는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으로 미국의 핵우산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시설과 투발수단을 제압할 수 있는 첨단정밀유도무기의 확보와 적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격미사일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선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이 제2방안 선택시 북한은 보유한 핵으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므로 우리는 제1방안 선택시의 대안에 추가하여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반입 또는 한국 자체의 핵개발을 검토해야 하는 군사적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인 대북 핵억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제3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불완전한 협상으로 북한의 과거핵이 모호하게 되는 경우, 제1방안 선택과 동일한 상황이 될 것이므로 대비책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대남적화통일공작 위협에 대한 대비책

북한이 선택가능한 3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공작은 시도될 것이다.

제1방안 선택기간에는 북한에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하여 한국 내에서 미

국을 압박하는 반미·반전 대남공작이 주가 될 것이나, 제2방안 선택시에는 남북이 민족공조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도록 유도하는 반미·반전 대남공작과, 남북이 민족공조로 미국에 대항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협박적 공작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3방안 선택시 북한은 대남적화통일 전략 달성에 유리한 요구조건 수락을 전제로 선택하는 방안이 될 것이므로, 북한은 민족공동의 평화를 위해 핵을 포기했다는 선전선동을 하고, 또 친북세력과 좌경세력을 부추겨 한반도에 평화가 다가온 것으로 온 국민을 들뜨게 만드는 대남혁명전략으로 우리의 체제 붕괴를 노리는 공작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제3방안 선택시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남적화통일전략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 제거하도록 한·미·일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정책공조 사항이다. 대남적화통일 공작은 어느 방안이 선택되든 추진될 것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공작이 한국 내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안보 차원에서 강구하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정치·외교적 정책대안(대비책)

한·미·일 3국은 북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3국 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결성하여 정책공조를 추구하고 있다. 3국 모두가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핵불용 정책'에는 동일하다. 다만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방안이 있어서는 이견이 노정되고 있다.

한국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방안으로 '대화'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으로, 대화 이외의 어떤 제재나 무력행사에는 반대하고 있다. 대화만으로 북핵을 포기시키려 한다면 북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요구사항이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이라면 우리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이다. 우리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과 '대화'만으로는 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그러

므로 '대화'만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대북 핵정책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본은 '핵불용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와 압박, 그리고 억지력의 확보'에 두고 있고, 미국은 '핵불용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화'와 압박, 그리고 군사적인 옵션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보다 강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일은 '핵불용 정책'이라는 대북 핵정책은 동일하나, 이의 실행 방책상 이견을 노정하고 있는 데, 그 강도를 보면, 미국과 일본보다는 한국이 가장 이완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화만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대북 핵정책의 기초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사태악화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면서 한·미·일 공조 중시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지금까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실체를 분석하고 북한 핵·미사일 전력이 한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군사 및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북한은 6·25 한국전쟁 기간중 미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당한 이래, 핵무장을 통해서 국가생존을 담보하고자 하는 방위전략 구상으로 전후에 핵개발에 착수하여, 초창기에는 소련의 지원으로 핵연구인력 양성과 기초연구시설의 지원으로 시작한 핵개발 연구가 1980년 초부터는 플루토늄을 생성할 수 있는 흑연감속로를 자력으로 설계·건설하여 1986년도부터 가동시켰고, 이에 맞추어서 재처리시설을 건설하여 1980년대 말에는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에 성공하여, 1990년대 초에는 조잡한 핵폭탄급 무기를 제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북한이 개발한 핵탄두의 수량은 20KT 위력 기준으로 2003년 말 현재, 8~10발을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획득했고, 여기에 추가하여 비밀리에 HEU 핵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가까운 장래에 우라늄 핵무기를 연간 2발씩 추가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수년 내에 핵억제전략 차원에서 최소한의 의미있는 양으로 판단한 핵무기 20발에 근접하게 된다.

그리고 핵탄두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85년도에 SCUD-B 탄도미사일과 1990년도에는 SCUD-C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운반체제를 완성했다. 그리고 1993년도에는 일본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둘 수 있는 1,300km의 노동1호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과 1998년도에는 일본의 오키나와섬까지 사정거리가 닿는 2,000~2,500km의 2단로켓인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의 성공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선보였다. 그 다음해에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다가 미국에 탐지되어 2003년까지 시험발사를 유보한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미 본토를 사정권 내에 두고 있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

이처럼 북한은 핵폭탄급 무기는 이미 완성했고 소형핵탄두의 보유는 임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 이를 운반할 수 있는 각종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김정일의 '핵억지력 보유' 전략은 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동기나 미·북 제네바 핵합의를 위반하고 비밀리에 농축우라늄 핵을 개발하는 북한의 집요한 핵개발의지, 그리고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핵억제력 확보전략을 감안해 보면,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선택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함에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회담을 통하여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계속되는 다자회담에서 북한은 그들의 핵전략에 따라 핵보유를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정치·전략적으로 더 큰 실리를 얻는 정책을 택할 것인지, 또

는 이스라엘처럼 모호한 핵전략으로 지금처럼 계속 끌고 갈 것인지는 불투명하나, 지난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적어도 회담에 참가한 나라들은 모두가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과 회담이 순조롭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제재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을 인지하고 내심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장차 불가피하게 채택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에 대해 우리 한국 국가안보에 미칠 위협들을 분석해 보고 군사적 대비책과 북한의 대남공작의 대비책 그리고 정치외교적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미·일 공조 우선정책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4. 6. 23,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핵, 장거리 탄도미사일, 플루토늄, 농축우라늄, 핵억지력

<ABSTRACT>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Ballistic Missiles of North Korea and National Security of Korea

Jang, Joon-ik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motive, process, and present condition and level of nuclear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present level of ballistic missiles, which is the carrier of nuclear weapons. Through this research, I intend to find the influence of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on the national security of South Korea and propose our strategic alternativ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esent development level of North Korea centering on its nuclear facilities of the first report proposed to IAEA by North Korea, I consider that North Korea has developed 8 to 10 nuclear weapons as of the end of 2003; it might develop 20KT-powered 3 to 5 nuclear bombs before 1994, and may make 3 to 5 bombs with the plutonium extracted from the 8,000 spent fuel rods in 2003.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ballistic missile, the carrier of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ucceeded the blastoff of SCUD-B in 1985, and completed the development of SCUD-C in 1989. These missiles ranges all the area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eveloped Nodong-1 in 1993, and Daepodong-1 in 1998, which range all the areas of Japan and the Okinawa Island.

Though it is not confirmed whether the warhead was miniaturized to be mounted on the ballistic missile, I have a prospect that it was completed or

will be completed in a few years. In addition, the test fire of the developing Daepodong-2 is postponed up to the present. However, if it succeeds, it means that the developmen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s completed and North Korea can threaten the mainland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on our national security, I examined three methods chosen by North Korea: (1) maintaining the status quo, (2) announcing the possession of the nuclear power, (3) abandoning the nuclear weapons. Whatever methods North Korea may choose, it means two immense threats to South Korea. One is a military threat, and the other is a communization unification of Korea.

I proposed the alternatives against these two threats and for the settlement of the nuclear problem, I proposed the strategic alternative of South Korea for the next multiple conference.

In order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we should perform two strategies: dialogue and pressure, and demand North Korea to give up the nuclear weapons through mutual strategic cooperation of South Korea, America, and Japan. In addition, South Korea should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 actively to prevent the communized unific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of North Korea not only gives the insecurity to our nation and international society, but also immensely affects our national security. With the examination of more materials and share of informations, I'd like deeper researches to be processed in connection with the 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and these researches to contribute to our national security.

Key Words : Nuclear Weapons, Ballistic Missiles, Agreed Framework, Enriched Uranium,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미국의 대외 군사개입 결정요인 분석

孫 圭 錫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서 론
2. 군사개입의 이론적 배경
3. 군사개입의 조건과 결정체계
4. 미국의 군사개입 사례분석
5. 결 론

1. 서 론

2002년 1월 29일 조지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일반교서 연설을 통해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을 '악의 축(an axis of evil)'으로 지칭하면서 반 테러전쟁의 제2단계 표적으로 이들에 대해 군사력 행사를 포함한 정권교체 및 체제전복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들 국가의 국제테러에 대한 지원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그리고 억압적인 통치체제 등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된 결과였다. 이어 9·11 테러 1주기 시점에 백악관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시에는 단독행동 및 선제공격을 불사하겠다는 공세적 안보전략인 '국가안보전략보고서(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를 제시했다.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으로 불리는 이 전략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2003년 3월 20일 새벽,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군사력을 동원해 바그다드에 대한 공습과 함께 선제공격을 단행했다. 이는 불특정 대상으로부터 불특정 수단에 의한 '비대칭 위협(asymmetric threat)'이 증가한 현 국제질서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시스템으로는 억지(deterrence)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신보수주의적 전략¹⁾에 기초한 적극적 개입주의의 노력이었다.

탈냉전 이후 단극체제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서의 균형을 추구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협력이나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가치와 제도, 국내적 이익을 앞세우는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표방한 미국은 이의 추구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 외교(coercive diplomacy)'를 선호해왔다. 패권국으로서 세계 도처의 국제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무수한 협상에 직면했던 미국은 협상의 양대 수단인 '채찍과 당근(carrot and stick approach)'이 무엇보다 필요했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당근보다도 비용이 들지 않는 채찍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미국의 군사개입을 가능하게 했던 논리의 핵심이다.

본 논문은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결코 적지 않은 비난과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주권국가에 군사개입을 단행하는가에 대한 정책결정요인을 분석·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전후 지속적으로 군사개

1) 도덕적 우월주의와 적극적 개입주의, 그리고 전쟁이 필요악이라는 이념체계를 바탕으로 한 신보수주의(New Conservatism)의 궁극적인 안보전략목표는 미국적 평화(Pax Americana), 즉 미국 중심의 단극적(unipolar) 세계를 공고히 하여 미국의 원칙과 이익에 맞는 국제안보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다. 김성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신보수주의의 미래," 『이라크전 후 새로운 국제안보질서와 한반도』(국방대학교·고려대학교 공동학술세미나 발표문, 2003. 7), p. 88.

입을 단행한 미국이 어떠한 논리와 요인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군사개입의 개념과 특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개입의 상황에 따른 유형과 적용범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군사개입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분석을 위해 개입을 유도하는 상황적 요인, 선행조건과 기준 등을 검토한 후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정당성 내지는 합법성을 이론을 통해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군사개입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실제상황 즉, 미국이 직접 수행한 군사개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사례분석을 통해 조명해 보기로 한다.

2. 군사개입의 이론적 배경

(1) 개입의 개념과 특성

1) 개입의 정의

개입(intervention)이란 국가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정사건이나 현상을 서술하는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지만 개입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확한 개념은 없다. 19세기 프랑스 정치가 페리골(Talleyrand Perigord)은 “개입과 비개입 간의 정치적 개념 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슈왈츠(Urs Schwarz)도 “국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요소인 힘(power), 이기주의(self-interest), 국제법(international law), 그리고 도덕성(morality)이 서로 만나는 중간상태²⁾”라고 말한 것처럼 개입이라는 용어는 포괄하는

2) Urs Schwarz, “Great Power Intervention in the Modern World,” in A. Buchan, ed., *Problems of Modern Strategy*(London: Chatto & Windus, 1970), p. 176.

사건이나 국제정치 현상에 따라 학자들의 견해도 상이하다. 학자에 따라 개입을 특정한 행동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행동의 근원인 의도를 중요시하기도 하며, 행동으로 인한 사후결과를 중심으로 개입의 관념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제정치의 논의에서는 국가들의 불협화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용어들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³⁾

개입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개입은 주권국가나 또는 보다 광범위하게 독립적인 정치공동체의 영역 내에서 외부의 한 당사자(party)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parties)에 의한 독단적이거나 강압적인 간섭”⁴⁾이라 설명하지만, 이는 광의적인 해석이고 협의적인 수준에서는 “다른 국가의 문제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강대국들이 선전포고도 없이 강제적으로 간섭하는 것”⁵⁾이라 할 수 있다.

어원학적으로도 개입은 “다른 국가의 문제에 대한 한 국가의 간섭이며, 그것으로 두 국가 간의 정상적인 형태의 쌍자관계를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것”⁶⁾이다. 또한 사전적 의미의 개입도 “자국의 국가목적에 저해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 그 나라의 국내외 정책을 수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⁷⁾이라 설명할 수 있다.

국제법상으로는 18세기 바텔(Emmerick de Vattel)이 확립한 개념이 아

3) James N. Rosenau, “Intervention as a Scientific Concept,” i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VIII, No. 2(June, 1969), p. 153.

4) L. Oppenheim, *International Law*, Vol. I (London, 1905), Hedley Bull, ed., *Intervention in World Politics*(Oxford: Clarendon Press, 1984), p. 1에서 재인용.

5) Martin Wright, *Power Politics*(New York, 1978), p. 191.

6) 개입의 용어상 어원은 라틴어 ‘*intervenere*’라는 동사에서 유래한다. 이는 첫째, 끼어들다(to step between, to appear, to confront), 둘째, 방해하다(to interrupt, to hinder, to disrupt), 셋째, 간섭하다 또는 중재하다(to interfere to either hinder or to arbitrate)와 같은 세 가지의 의미를 지칭하고 있다. Thomas G. Otte, “On Intervention: Some Introductory Remarks,” in Andrew M. Dorman & Thomas G. Otte, eds., *Military Intervention: From Gunboat to Diplomacy Humanitarian Intervention*(Dartmouth: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5), p. 5.

7) 동아출판사, 『동아원색대백과사전』(서울: 동아출판사, 1989), p. 13.

직도 설득력을 갖는데, 개입은 목적이 목표국가의 의지를 강제함에 있으므로 목표국가의 독립을 저해하고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개입은 사건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를 유지·수정할 목적으로 또 다른 국가의 문제에 한 국가가 독단적으로 간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입’이란 용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하다. 라즈너(James N. Rosenau)는 “한 국제정치 행위자의 다른 행위자에 대한 행동으로, 행동유형이 쌍방간의 일반적인 전형의 양식에서 급격히 이탈해 상대국의 정치권 위 구조를 변경 또는 보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⁸⁾라고 규정하며, 영(Oran R. Young)은 “목표국가의 정치권력 구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을 넘어서는 조직적이면서 체계적인 행위”⁹⁾라 주장한다. 벨로프(Max Beloff)와 리긴스(Howard Wriggins), 슈레더(Peter J. Schraeder)는 “주도국이 목표로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여러 형태와 수준의 강제 또는 위압을 동원해 다른 국가의 내부구조와 외부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한 국가의 기도 또는 일반적으로 적대행위 위협을 동반하면서 다른 나라의 내부분제와 외교정책 행위를 조종하려는 노력”¹⁰⁾이라 정의한다.

8) James N. Rosenau, "The Concept of Interven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2, No. 2(1968), pp. 166-167; "Intervention as a Scientific Concep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VIII, No. 2(June, 1969), pp. 177-178.

9) Oran R. Young, "Intervention and International System,"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2, No. 2(1968), pp. 177-178.

10) Max Beloff, "Reflection on Interven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2, No. 2(1968), p. 198; Howard Wriggins, "Political Outcomes of Foreign Assistance: Influence, Involvement, or Interven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2, No. 2(1968), p. 218; Peter J. Schraeder, ed., *Intervention into the 1990s: U.S. Foreign Policy in the Third World*, 2nd ed.(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 Inc., 1992), p. 3.

2) 개입의 특성

학자들의 개입에 대한 개념화를 운용하기 위해 기존하는 정의와 개념을 분석적으로 검토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섯 가지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¹¹⁾

첫째, 일반적으로 개입은 특정한 문제와 사건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끼여들기 내지는 참견이나 간섭'이라는 성격을 지니며, 단순한 간섭이 아닌 독단적인 간섭(dictatorial interference)이 개입을 다른 국가간의 다른 행위들과 구별해준다.¹²⁾ '간섭'이 특정한 문제나 사건에서 상대방의 행위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이라면, '독단적인 간섭'은 쌍방간의 문제나 사건에서 상대방의 행위와 의사결정과정 및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처방해서 강요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나 위압' 내지는 '적대적인 위협' 등의 표현이 개입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며, 개입의 본질은 무력사용 또는 무력사용을 배경으로 하는 협박과 강제에 있다는 것이다.¹³⁾

둘째, 국제정치에서 개입현상은 주권평등의 원칙에 도전하면서 부정하는 것이므로, 개입은 '주권의 침해(sovereignty violation)'라는 성격을 강하게

11) '개념화를 운용한다'는 것은 그 용어의 개념으로 표현되는 현상들의 의미를 분석적으로 고찰하면서 기존 용어의 정의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개념화의 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정의상의 요소들을 정리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개입의 운용화를 위한 기준은 개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현상을 서술하기 위해 포괄적이어야 하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다른 국제관계현상인 영향력의 행사, 국력의 상호작용, 국가이익의 추구, 대외정책의 상호작용(foreign policy interaction) 등과의 본질적인 구분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주수기, "외부 군사개입과 국내 정치혼란의 상호관련에 관한 인과성 분석," 『성곡논총』 제20집(1989, 성곡학술재단), pp. 234-235.

12) Ariel E. Levite, Bruce W. Jentleson and Larry Berman, eds.,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The Dynamics of Protracted Conflict*(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p. 3.

13) Max Beloff, "Reflection on Intervention," *op. cit.*, p. 199.

띠고 있다. 국가주권은 최고독립의 국가권력으로 국가의사결정의 최고원동력이며, 국가정책의 최종결정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입의 본질은 다른 국가의 주권적 의사를 강하게 강제하거나 자국의 주권적 의사와 의지 및 의도를 다른 국가의 주권에 대해 억지로 부과하거나 비자발적 복종을 강요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¹⁴⁾

셋째, 개입은 관례적인 상호작용 행태의 정상적인 범주로부터의 이탈이다. 개입현상은 개입국-피개입국 사이에서 기존하고 있던 행위유형을 일시적으로 파괴하면서 새로운 행위유형을 창출시키거나 또는 잠시 이탈함으로써 기존의 행위유형을 강화 또는 지속시키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국제정치에서는 개입주도국이 대상국가와 갖고 있는 우호적이며 전략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서 잠시 비우호적인 행위를 통해서 개입 이전의 우호적인 관계를 확실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개입은 대상국가의 정치권위체계 내지는 권력체계를 목표로 한다. 개입대상국의 사회 전체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는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책결정권자 또는 그러한 정책이나 의사결정이 형성되는 과정이나 구조를 목표대상으로 개입주도국의 행동이 전개된다. 따라서 유엔이 주관하는 저개발국에 대한 경제개발계획들은 개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섯째, 개입주도국은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개입하고자 하는 사항과 범위를 자국의 국익에 따라 결정하려 한다. 일방적 의사결정이란 개입주도국-개입대상국 쌍방 사이에서 국익의 조화나 타협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고, 개입의 과정은 대상국가의 국익을 무시하면서 개입국의 이기적인 국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이다.

여섯째, 국가간의 개입현상이 '공인된 국가의 경계에 대한 침투'를 내포한다. 개입행위는 개입주도국의 행동이 자기의 국경을 넘어서서 개입대상국의

14)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4th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3), p. 195.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개입대상국의 국경을 침투하는 현상을 수반하든지 아니면 대상국의 영토 내부에서 발생한다. 이같이 개입은 국경의 침투라는 물리적 현상을 동반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개입현상의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개입권력이 자기가 합법적으로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공간을 초월하여 작동하게 되므로 정당성의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2) 군사개입의 개념과 특성

1) 군사개입의 정의

개입과 마찬가지로 군사개입(military intervention)에 대한 개념도 학자마다 상이하다. 하스(Richard N. Haass)는 “국익을 지원하기 위한 일상적인 훈련이나 계획된 행동을 능가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 지역에 새로운 전투력 또는 추가적인 전투력을 전개시키는 것”¹⁵⁾이라 정의하고, 호프만(Stanley Hoffman)은 국익 및 외교정책목표와 관련된 국가행위로, “개입국이 하길 원하는 것을 목표국가가 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¹⁶⁾라 주장한다. 컨노튼(Richard Connaughton)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국가들의 영토나 속령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행위”¹⁷⁾라 규정하며, 나이(Joseph S. Nye)는 넓은 의미에서 “또 다른 주권국가의 국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행위”이며, 좁은 의미로는 “다른 국가의 국내적 사건에 무력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15) Richard N. Haass, *Intervention: The Use of American Military Force in the Post-Cold War World*(Washington D.C.: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4), pp. 19-20.

16) Thomas G. Otte, “On Intervention: Some Introductory Remarks,” *op. cit.*, p. 6.

17) Richard Connaughton,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1990s: A New Logic of War* (N.Y.: Routledge, Chapman and Hall, Inc., 1992), p. 3.

라 정의한다.¹⁸⁾

한편, 슈미트(Alex P. Schmid)는 군사개입을 소련의 시각에서 ① 제3세력들에 대처해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군대의 평시주둔, ② 현지정부에 경비병과 호위병을 파견하는 행위, ③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현지작전상의 계획시행을 위한 본국정부의 군사적 임무수행, ④ 탱크병, 전투기 조종사, 레이더 운영자와 같은 외국 특수군의 전투참가, ⑤ 외국전투에 참여하는 지원병들, ⑥ 외국전투에 참여하는 정규군, ⑦ 외국전투지역과 그 인근에서 해군 및 공군의 방위력 제공, ⑧ 국경지역에서의 군대동원과 활동, 그리고 전방진지로의 특수무기의 이동전개, ⑨ 전투기간중 외국에 대한 특수무기 제공, ⑩ 적국 지원부대에 도달하는 무기공급을 방해하기 위한 군대의 봉쇄행위, ⑪ 공수 및 해상수송을 통해 전투요원들에게 군수품을 제공하는 행위 같은 내용의 범주에 속하는 용어상의 개념들로 정의한다.¹⁹⁾

국내 연구자들은 “주권국가의 정치구조 변경 및 보존과 관련된 대내문제 또는 주권국가의 독립 및 영토와 관련된 대외문제에 대해, 현재 상황의 유지 또는 변경을 통해 타 국가가 자국의 국익추구를 위해 그 지역으로 새로운 군사력 또는 추가적인 군사력을 전개해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²⁰⁾ 또는 “한 국가의 대외적 독립, 영토 또는 개인적 지배권에 관해 실제 상황의 유지나 변경을 목적으로 행하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간섭”²¹⁾이라

18) Joseph S. Nye J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N.Y.: Longman, 2000), 양준희 옮김,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p. 223. 나이(Nye)는 영향력 스펙트럼을 통해 개입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스펙트럼은 강제(compelling)의 수준에 따라 연설, 방송, 경제적 원조, 군사자문 제공, 지원반대, 봉쇄, 제한된 군사행동, 군사적 침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19) Alex P. Schmid with Case Studies by Ellen Berends, *Soviet Military Intervention Since 1945*(New Brunswick, N.J.: The State University Press, 1985):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역, 『1945년 이후 소련의 군사개입』(서울: 국방대학원, 1989), pp. 273-274.

20) 계용호, 『미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11.

21) 송석천, 『소련의 군사개입 행태에 관한 연구: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대 북한 적용가능

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국내의 학자들이 주장한 정의와 개념을 종합할 때, 군사개입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나라의 국내적 사건에 국익 및 외교정책목표에 관한 의사를 강제하기 위해 무력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2) 군사개입의 특성

군사개입은 전쟁의 위험성을 수반한다. 물론 전쟁의 본성, 즉 침공 또는 개입하고자 하는 세력과 격퇴 또는 저항하려는 세력간에 적어도 둘 이상의 행위자들이 전면적이고 총력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충돌하는 본성²²⁾으로 인해 군사개입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국제정치 현실에서 군사개입의 경우, 개입주도국은 대개 개입대상국보다 월등히 우세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자간에 힘의 비대칭 현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개입대상국이 개입주도국의 행위에 항상 저항하지 않는다. 미국의 베트남 개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처럼 개입대상국이 저항을 할 경우에도 전면적이고 총력적인 저항의 경우는 드물고, 개입주도국도 자국의 군사력을 총체적으로 동원하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한다. 그러므로 군사개입으로 인한 전쟁은 전면전(total war)보다는 국지전(local war) 또는 제한전(limited war)의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개입주도국은 개입대상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대응자세와 전략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자연히 전쟁의 선택권은 개입대상국에 전가된다.

이처럼 전쟁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발생하는 군사개입은 개입대상국의 위

성을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 9.

22) 라이트는 “전쟁은 서로 다른 정치집단이나 주권국가간의 정치적 갈등을 각기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극한적인 군사적 대결”이라 정의한다. Quincy Wright, *The Study of War*, 2nd ed.(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 8, 김순규, 『신국제정치론』(서울: 박영사, 1990), pp. 326-327에서 재인용.

치와 군사개입을 결정하게 된 국제상황 및 사건들이 전쟁의 위험성을 감수할 정도로 개입주도국의 국익이나 외교정책목표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²³⁾

3) 군사개입의 유형

군사개입은 다른 형태의 개입인 비밀군사작전이나 군사원조 또는 외교적 침투 및 경제적 침투와는 구별되며, 개입당사국간의 권위체계 및 관계, 개입국가수, 개입규모 및 성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개입당사국간의 관계에 따른 유형

개입대상국의 권위체계와의 관계에 따라 우호적·적대적·중립적·혼합적인 군사개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우호적 군사개입은 개입대상국의 정부와 협조해 반정부 또는 반정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개입하는 경우다. 둘째, 적대적 군사개입은 반정부 또는 반정권 세력을 지원해 개입대상국의 권위체계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중립적 군사개입은 정부 또는 반정부 세력 어느 쪽도 지원하지 않고 개입주도국의 국익이나 대외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하는 경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입주도국의 수가 2개국 이상일 경우에 각 국가마다 개입의 성격은 서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혼합적 군사개입이라 지칭한다. 이처럼 군사개입은 개입주도국의 수에 따라서 하나의 개입주도국에 의한 단일국 군사개입과 둘 이상의 개입주도국에 의한 복수국 군사개입으로 구분되고 있다.²⁴⁾

23) Guenter Lewy, "The Properties of Military Intervention," *Parameter, Journal of the US Army War College*, Vol. XI, No. 2(June, 1981), pp. 10-12.

24)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4th ed.(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3), pp. 262-263; 주수기, "외부 군사개입과 국내 정치 혼란의 상호관련에 관한 인과성 분석," 『성공논총』 제20집, p. 241.

나. 규모에 따른 유형

군사개입은 전개되는 병력 및 사용되는 화력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 군사개입, 중간규모 군사개입, 제한된 군사개입, 군사불개입으로 분류한다. 대규모 군사개입은 투입되는 군사력의 규모가 지상군을 위주로 하는 수십만 명의 병력으로써 대규모의 해군 및 공군력을 사용한다. 병력의 전개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단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군사개입에 대한 이익과 제약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된다.

중간규모 군사개입은 투입되는 군사력의 규모와 성격이 수만 명의 순환보직 병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1989년의 파나마 개입과 1994년의 아이티 개입처럼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이다. 그리고 제한된 군사개입은 투입된 군사력이 수천 명 규모로써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개입하고 화력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개입이다. 1992년의 소말리아 개입같이 중요성이 감소된 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에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군사불개입은 외교·경제적 개입에 국한되며, 경우에 따라 공군력만을 사용하기도 한다. 보스니아 사태와 같이 중요성이 감소된 반면 상대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이다.²⁵⁾

다. 작전의 성격에 따른 유형

미국의 저강도분쟁의 작전형태에 따른 유형으로 대전복작전, 친전복작전, 평시 우발작전, 대 테러리즘작전, 대마약작전, 인종분쟁의 중재나 조정, 인도주의적 지원, 군사적 시민활동 등이 있다.

對顛覆(counterinsurgency)작전은 제3세계의 혁명적 게릴라운동을 고립, 억압하기 위한 미국의 배후정치·군사적 노력이며, 親顛覆(proinsurgency)작전은 제3세계의 친소운동을 타도하려는 반공게릴라에 대한 준군사적 지

25) 계용호, 앞의 논문, 1996, pp. 12-13.

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평시 우발작전(peacetime contingency operations)은 외교정책 수단으로 제한적이고 단기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우이며, 1983년의 그레나다 침공이 한 예이다.

對테러리즘작전은 해외의 미 국민과 시설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예방·억제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을 지칭하며, 對麻藥(antidrug operations)작전은 불법적인 마약의 미국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력의 사용이다. 그리고 인종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pacification or control of ethnic conflicts)은 인종 및 종교로 분리된 지역분쟁에의 개입을 의미한다.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은 분쟁지역이나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희생자에 대한 제반 지원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군사적 시민활동(military civic action)은 권위주의적 통치와 인권유린으로 인해 실추된 제3세계 군부의 위신을 제고하기 위해 그 국가의 지방주민을 지원하는 민간개발계획에 미군을 사용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민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활동이다.²⁶⁾

3. 군사개입의 조건과 결정체계

(1) 군사개입의 조건과 환경

무력(force)이 외교정책의 중요 수단이나, 국제문제에서는 결코 기준이 될 수는 없듯이 군사개입도 국제체제에서 하나의 특징은 될 수 있어도 기

26) Benjamin Miller, "Explaining Military Intervention: The Sources of U.S. Engagement in Post-Cold War Regional Crises,"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1995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Chicago, February 21-25, 1995, pp. 4-28, 계용호, 앞의 논문, pp. 12-15에서 재인용.

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군사개입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비개입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고, 개입주도국과 개입대상국간 관계기준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군사개입은 개입과 개입의 도덕적 관계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개입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입의 목표를 이해해야만 한다. 국제질서의 근간은 국가주권에 있다는 '베스트팔리안 주권'원칙²⁷⁾에 따라 주권 국가는 자신의 안보와 방위에 대한 책임이 가지며, 정치적인 힘을 보호·강화·확대하기 위해 스스로 무력(armed forces)을 갖추려는 국가들에게 기준이 되었다. 그러므로 군사개입은 국가들에 의한 행동이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익 및 외교정책 목표와도 관련이 있다. 군사개입의 목적 역시 외교정책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개입주도국이 하고자 하는 것을 개입대상국이 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이므로, 개입을 위

27) 스테판 크래스너 교수는 주권의 개념을 ① 공식적이고 법적인 독립성을 가진 영토국가들 간의 상호승인과 관련된 관례 등을 지칭하며, 개인이 평등하듯이 국가도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국제법적 주권(international sovereignty)과, ② 주어진 영토 내에서 권위구조로부터 외부행위자의 배제를 기초로 한 정치조직을 의미하는 베스트팔리안 주권(Westphalian sovereignty), ③ 국가내 정치권력의 공식적인 조직과 그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공적 권력의 능력을 의미하는 국내주권(domestic sovereignty), 그리고 ④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본·사람·상품·정보·생각·오염물질 등의 유통을 규제하는 공적 권력의 능력을 의미하는 상호의존 주권(interdependence sovereignty)으로 구분한다. 이들 개념 중에서 크래스너 교수는 베스트팔리안 주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아 왔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스트팔리안 주권은 정치사회를 조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영토성의 원칙과 국내의 권위구조로부터 외부행위자의 배제원칙을 기초로 하며, 국가는 특정한 영토 안에 존재하고, 그 영토 안에서 국내정치적 권력이 정당한 행위의 유일한 중재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권을 침해하는 국가간의 가능한 타협으로는 비자발적인 개입(intervention)과 자발적인 초대(invitation)가 있으며, 약소국들은 언제나 비개입 원칙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으나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에 의해 개입을 당해왔다. 베스트팔리안 주권을 침해한 최근의 사례로는 인권, 소수민족의 권리, 경제위기와 재정적 책임, 국제안보 등의 이유로 인한 국내문제에 대한 국제적 개입 등이 있으며, 실례로는 대규모 국제적 개입이 야기된 코소보사태를 들 수 있다. Stephen Krasner, *Sovereignt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김성철, "국가주권과 세계화," 『국가전략』 제6권 4호(2000년 겨울, 세종연구소), p. 154에서 재인용.

해서는 어느 정도 무력의 사용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입의 성립조건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먼저, 개입주도국과 대상국 간에 '힘의 비대칭'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개입국가는 힘에서 우위를 보여야 '독단적인 간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개입주도국은 강대국이었고, 이들이 보다 광범위한 외교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취했던 힘의 우위에 의한 일방적인 무력행위가 군사개입이다.

둘째, 개입은 무력(force) 자체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군사개입으로 간주되는 일방적인 무력행위에 있어 무력의 사용은 '일시적이고 한정된 현상'²⁸⁾이기 때문에 관련된 병력 수와 전체 활동기간으로 제한된다. 개입은 쌍자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개입이 감행되고 난 후에는 대체로 이전의 상태(status quo ante)로 복귀하려는 성향이 있다.

셋째, 군사개입은 외교정책의 한 수단이다.²⁹⁾ 즉 군사개입은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이 평이한 수단으로는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정치적으로 결정된 특정목표를 달성시켜 준다. 목표국가는 개입국가에 있어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군사개입은 주로 목표국가의 국내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교정책을 보다 약화시키려는 일방적인 무력행위이며,³⁰⁾ 방어적 행위 또는 공격적 행위가 될 수 있다. 방어적 군사개입은 대체로 정권의 보존이나 복원, 현행 외교정책의 유지에 목적을 두는데 반해 공격적인 개입의 목표는 현 정권과 정책을 변경시키는데 있다.³¹⁾

28) James N. Rosenau, "Concept of Intervention," *op. cit.*, p. 167.

29) Hedley Bull, "Introduction," in *idem.*, *Intervention in World Politics*, *op. cit.*, p. 5; Hans Morgenthau, "To intervene or not to intervene," *Foreign Affairs*, Vol. 45 (April, 1967), p. 425.

30) Stanley Hoffman, "Problem of Intervention," *op. cit.*, p. 10.

31) 방어적 개입행위에 대한 역사적 사례는 '군주적 보호주의'라는 이름 하에 행해졌던 1820년대 스페인의 네팔 개입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헝가리 및 체코 개입이 있으며, 이집트의 나세르 정권과 그의 정책에 영향력 행사를 기도했던 1956년의 영-불의 수에즈 개입, 그리고 외채청산에 관련한 1902년과 1908년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넷째, 군사개입은 개입국가(intervener)와 피개입국가(intervened) 간의 갈등을 확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외교정책수단인 강압외교는 강제자(coercer)의 의지에 부합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위협과 제한적인 무력을 사용하지만, 이는 상대방과의 적절한 대화로 조정될 수 있다.³²⁾

다섯째, 군사개입은 유연하지 못한 전략이므로 목표는 신속히 달성되어야 한다. 강압외교를 사용하는 국가의 두 가지 문제점은 위협과 관용에 있어 힘의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협박하는 것인데, 일부 개입 당사자의 태도가 너무 명확해 위협하다는 것이다.³³⁾ 무력에 의 호소는 힘이 부족하다는 신호로써, 군사개입의 중요한 정치적 목표는 힘의 회복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힘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강압외교와는 달리 군사개입의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목표는 목표국가에 대해서 양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갈등기간 동안 목표국가에 대한 양보는 개입 국가의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 힘의 회복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즉, 개입의 중요한 목표가 완전히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군사개입이 외교정책의 한 수단으로써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직면하는데, 첫째는 개입국가는 제한된 병력 수와 신속한 행동수단으로 목전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는 점과, 둘째는 상대방에게 견딜 수 없는 손상을 가함으로써 개입국가는 복종에 대한 필요성을 각인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력 측면에서의 비대칭과 목표국가에 보다 심한 손상을 가하려는 개입국가의 능력과 의지를 확실하게 강조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나 개입국가의 목표가 단기간 내에 달성되고 양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개입을 감행하려는 결정은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위험도는 커지게 된다.

공격적인 개입형태의 전형적인 사례다. Thomas G. Otte, "On Intervention: Some Introductory Remarks," *op. cit.*, p. 7.

32) G. A. Craig and A. L. George, *Force and Statecraft: Diplomatic Problems of Our Time*(Oxford-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 189.

33) T. C. Schelling, *Strategy of Conflict*(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p. 40.

개입국가가 저항에 직면하면, 이 시점에서 물러서기에는 개입국가의 이해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복행위는 불가피해진다.³⁴⁾ 따라서 상대방이 저항을 지속할 경우,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내전 그 이상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2) 군사개입의 결정요인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군사적 개입을 단행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시기와 장소,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고려사항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많은 군사개입을 주도했던 미국조차도 성공적인 개입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고려사항은 제시하지 않은 채, 유동적인 상태로 군사개입을 단행했다.³⁵⁾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던 클린턴 행정부는 소말리아 등지에서 비효율적인 군사개입을 단행했다. 그 결과, 대통령 고문인 맨델바움(Michael Mandelbaum) 교수조차도 “임시방편적이고 폐기돼야 할 개입”이라 비난하는가 하면,³⁶⁾ 이러한 개입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국민들이 알

34)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 and trans.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 15.

35) 과거의 관행에 대해서는 Mark M. Lowenthal and Robert L. Goldich, *Use of Force by the United States: Case Studies, 1950-1991*, Rpt. Nr. 92-757, Washingt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4 October 1992에 요약되어 있으며, 특히 Stanley R. Sloan은 *The United States and the Use of Force in the Post-Cold War World: Toward Self-Deterrence?*, CRS, Rpt. Nr. 94-581S, 20 July 1994에서 당시의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기초로 한 미군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군사상황은 ‘주요 지역 전쟁(major theater warfare)’과 ‘소형 전쟁(short war)’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요 지역 전쟁은 ‘원-원전략’이 적용되는 개념이며, 소형전쟁은 국가간의 또 다른 위협요소인 테러, 마약밀매, 국제조직범죄, 환경파괴 등에 대응하는 전쟁으로서, 특히 소규모적이고 단기간에 수행되는 전쟁개념이다. 문영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사상사: 국가군사전략사상사 중심으로』(서울: 을지서적, 1999), pp. 492, 496.

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와 국민의 지지는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이 군사개입을 단행함에 있어,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해외에서의 군사력 사용을 위한 시간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지 않는 한 미국은 관련 없는 그런 작전에 미국의 군사자원을 계속적으로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³⁷⁾ 따라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설정은 물론이고 보다 광범위한 군사적인 선택과 개입으로 인한 혜택이 미국민의 희생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1) 와인버거의 견해

1984년 11월 28일 캐스퍼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 국방장관은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을 통해 해외에서 위협받고 있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때 심사숙고해야 할 여섯 가지의 선행조건, 즉 '와인버거 독트린(Weinberger Doctrine)'을 제시했다.³⁸⁾

제시된 선행조건 중 첫 번째는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이다. 사활적 이익의 결정요인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는 미국의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의 토대를 이루었던 북미의 본토방위, 경제적 복지, 국제안보, 민주이념의 증진 등 네 가지의 기본적인 국익이 있다.³⁹⁾ 본토방위는 북미의 방위와 초강

36) Michael Mandelbaum, "Foreign Policy as Social Work," *Foreign Affairs*, Vol. 75, No. 1(January/February 1996), p. 21.

37) John Hillen, "American Military Intervention: A User's Guide," *The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 No. 1079(May 2, 1996), p. 1.

38) 와인버거의 테스트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Secretary Weinberger's National Press Club Speech*, Washington, Current News Special Edition No. 1244, DoO, 8 January 1985에서 입수가능한데, 9개의 다른 의견을 포함한 그 연설은 Stephen Daggett과 Nina Serafino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 *The Use of Force: Key Contemporary Documents*, Rpt. Nr. 94-805F, Washingt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7 October 1994로 제작성되었다. Joseph R. Avella, "Evaluating Criteria for Use of Military Force," *Comparative Strategy*, Vol. 10, 1991, pp. 217-240.

39) 국익의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Donald E. Neuchterlain, "The Concept National

대국의 세력균형의 유지를 포함하며, 캐나다 영토의 안보와 카리브해 지역의 안정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적 복지는 달러의 가치, 미국민의 생활수준, 국제교역의 균형, 통화교환의 영향 등을 포함하는 국제경제의 이슈에 모아진다. 국제안보는 동맹국들과의 안보지원 협정, 제3세계 갈등, 국제테러리즘을 포함한다. 민주이념의 증진은 미국식 가치의 해외전파 욕구를 포함하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 법치, 사회정의 의식을 강조하는 합법적인 정부의 개념을 옹호한다.

이러한 국익은 다시 미국식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이익(본토방위, 경제적 복지, 국제안보)과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이익(국제안보에 대한 기타의 경우, 민주이념 증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이익수준의 강도에 따라 생존(survival)이익, 사활적(vital) 이익, 주요(major)이익, 주변(peripheral)이익으로 나뉜다.⁴⁰⁾

둘째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다.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 외교정책 수단 중에서 군사개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위기시 국익추구를 위해서 외교·경제적 조치 등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대안을 사용해서 실패했거나,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개입을 단행할 수 있는데, 군사적인 선택에 앞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수단의 사용노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명확한 정치 및 군사목표(clear political and military objectives)이다. 군사개입의 경우, 명확한 정치·군사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 국익추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고, 군사력의 사용만이 요구되는 경우에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선정해야 한다. 정치목표는 목표의 서계상

Interest: A Time for New Approach," *Orbis*(Spring, 1979), pp. 76-90을 참고할 것.

40) 이익수준에 의한 분류는 Donald E. Neuchterlein, "National Interests and National Strategy: The Need for Priority," Terry L. Heyns ed., *Understanding U.S. Strategy: A Reader*(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83)을 참고할 것.

가장 우위에 있어야 하며, 정치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명확하게 정의된 군사목표를 선정해야 한다.

넷째는 분명한 승리의 의지(clear intention of winning)를 들 수 있다. 군사개입을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명확한 승리에 대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군대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정치지도자의 의지를 명확한 승리의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는 희망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의 작전지휘관에 의해서 요청되는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치지도자의 의지이다.

다섯째는 의회와 국민의 지지(congressional and public support)이다. 군사개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군사개입을 위한 군사력의 사용은 전투에 참가하는 군인, 즉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므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포함하여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쟁권한법(War Power Act) 등에 의해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제정되어 있음으로 의회와 국민의 지지 여부는 대통령이 해외에 미국의 군사력 투입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⁴¹⁾

마지막 고려사항으로 임무의 재부여와 재평가(reassessment and re-evaluation)를 들 수 있다. 미국의 목표와 병력운용의 관련성은 재평가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시 평가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본래의 계획과 목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2) 힐렌의 견해

미국 헤리티지 연구소의 정책분석가인 존 힐렌(John Hillen)은 군사개입

41) Roger Hilsman, *The Politics of Policy Making in Defense and Foreign Affai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90), p. 124. 여기에서 힐스먼은 법이 요구하는 것을 처리함에 있어 법의 개요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수많은 개입과 조치에 대한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에 앞서 행정부와 의회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국가안보이익의 수호, 안보이행능력의 안정, 군사목표의 달성, 의회와 국민의 지지, 성공의 조건창출을 위한 작전상의 자유허용을 들고 있다.⁴²⁾

첫째, 군사개입은 국가안보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국가의 사활적 이익과 중요하거나 부차적인 이익을 구별하는데 실패해 국가의 힘을 낭비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⁴³⁾ 군사개입에 사용하기 위한 자원은 병력의 수, 항공모함이나 전투기의 수 등과 같은 유형의 형태와 국민의 지지, 희생의지와 같은 무형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효과적인 지역에서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개입의 기준설정에서 전 세계적 차원의 국익 중 우선순위의 설정이 필요하다.⁴⁴⁾

가. 사활적 국익(vital national interest)

자유 및 번영국가로서 미국의 생존과 안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이익이자 국가안보이익으로서 사활적 이익에 대한 위협은 미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전쟁에 임하며, 모든 형태의 군사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사활적 국익을 수호하는 군사력은 반드시 최후의 수단만이 아닌 최초의 수단으로 사용됐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42) John Hillen, "American Military Intervention: A User's Guide," *The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No. 1079, May 2, 1996, <http://www.heritage.org/library/categories/hatsec/bg10/9.html>.

43) 클라크는 미국의 군사개입에 있어 행정부의 역할이 국익에 대한 공헌도가 아주 낮거나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티와 소말리아 등지에 군사력을 파견하려는 본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Jonathan Clarke, "Instinct for the Capillary: The Clinto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Successes'," *CATO Institute Foreign Policy Briefing Paper*, No. 40, April 5, 1996.

44) Kim R. Holmes, ed., *A Safe and Prosperous America: A U.S. Foreign and Defense Policy Blueprint*(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1994), pp. 1-19.

나. 중요한 국익(important national interest)

사활적이지는 않지만 주요 외교, 경제 또는 제한된 군사개입을 보장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중요한 이익이다. 불투명한 위협과 함께 탈냉전시대에서 미국은 사활적 국익이 아닌 국가안보 이익의 수호를 위해 제한된 무력사용을 준비해야 한다. 중요한 국익은 유럽, 중동,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안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일본 및 중국과의 보다 공개적인 무역협정을 촉진하고, 구 소련과 같은 지역에서의 민주주의와 안정을 조장하며, 테러 및 불법마약의 미국내 유입에 맞서 싸우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개입은 이런 이익을 수호하는 최후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외교 및 경제적 노력은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다. 부차적 국익(marginal national interest)

국가이익이긴 하나 국가안보이익은 아니며, 군사자원의 투입을 요구하는 우선순위에서도 뒤지는 이익을 의미한다. 부차적 이익은 세계의 발전, 인도주의적 관심, 환경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런 이익은 좀처럼 군사적인 해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책결정자들은 도덕적이고 법적인 요인과 같은 고려사항을 항상 심사숙고해야 하는 한편 국익에 대한 평가도 군사개입의 우선사항을 설정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도덕적인 고려, 언론의 압력, 법적인 특권은 국민들이 국익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명쾌한 판단력을 정책결정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덕적 분노, 언론보도로 인한 긴급사태, 불법적인 공격 등은 추가적인 군사개입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며, 자연히 정책결정자는 이런 모든 요인을 고려하게 된다.

둘째, 안보이행능력의 안정이다. 군사개입은 보다 중요한 안보이행에 직면한 미국의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은 국가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 국가안보전략은 거의 동시적으로 두 개의 주요 지역분쟁(MRCs)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승리하

는 것이지만, 부대구조는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개입하고 있는 병력은 다른 곳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것과 미국의 군사전략을 항상 지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략계획가인 웨슬리 클라크(Wesley Clark) 장군이 “미국의 군사력은 사활적인 이익의 경우에만 사용되도록 비축돼야 한다”⁴⁵⁾고 지적했듯이 부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군사개입이 미국의 군사력이나 사활적 이익을 수호하는 역량을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셋째, 군사목표의 달성이다. 군사개입은 명백하게 규정되고, 완수 가능한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입은 작전의 성패를 규정하는 정치 및 군사적 목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군사목표는 정치적인 목표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걸프전에서 군사적인 목표는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축출하는데 있었다. 미군이 임무를 완수했을 때, 정치적 목표인 쿠웨이트는 해방되었고, 쿠웨이트의 국가주권은 회복되었다. 아울러, 군사적인 목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하며, 달성이 가능해야만 한다.

넷째, 군사개입은 의회와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회는 위기 사태시 결정적으로 행동하려는 대통령의 능력을 침해하지 않고, 군사개입에 관한 의사결정의 힘을 주장함으로써 의회의 법적인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군사개입은 국민과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저항과 일부 희생을 겪고 난 후에는 와해될 수 있다.

다섯째, 군사개입은 성공의 조건을 창출하도록 허용돼야 한다. 미국은 결정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목표뿐 아니라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 군사력을 이용하려 한다. 1986년 리비아의 트리폴리에 대한 F-111기의 공습처럼 적절히 수행된 제한적인 개입은 결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개입에서는 그 목적이 정치적인 신호를 보내는데 있기 때문에 군

45) Wesley K. Clark, “Address to Reserve Officers Association Conference, Washington, D.C.,” *The Officer Magazine*, March 1996, p. 33.

사적인 요구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미 전투병력이 어떤 개입에 이용된다면 그들의 작전은 입증된 작전상의 교리와 완벽하게 일치돼야 한다.

군사적인 목표는 명확하게 규정되고, 도달될 수 있으며, 결정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군사교리와도 일치돼야 한다. 즉, 군은 이해될 수 있고, 잘 훈련된 방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이미 달성된 목표와는 차이가 있는 목표가 부여돼야 한다.

3) 콜린스의 견해

군사력의 사용이 어떤 경우에 적합한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미 의회 의정연구실 수석전문가 존 콜린스(John M. Collins)의 견해는 국가이익, 국익에 대한 위협, 정치목표와 군사임무, 전략 및 정책지침, 계획의 선택, 자원, 의회와 국민의 지지를 결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⁴⁶⁾

첫 번째 결정기준은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이다. 높게 평가된 이익이 없을 경우의 군사개입은 정당성과 명분을 잃게 된다. 자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익은 다른 모든 문제에 우선하는 것이 국제정치の本성이다. 군사행동은 실제적으로 정치 또는 경제적 이익이 강력한 때 가장 분명해진다.⁴⁷⁾ 구체적인 결정요인은 자국과 동맹의 이익에 대한 타당성과 양립성, 자국민의 생명을 희생할 만한 가치의 유무, 이익의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다.

둘째, 국익에 대한 위협(threats to national interests)이다. 국익에 대한 위협은 긴급성과 집중성 측면에서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다. 잘못 판단

46) John M. Collins, "Military Intervention: A Checklist of Key Considerations," *Parameters, US Army War College Quarterly*, Winter 1995, pp. 53-58.

47) 예를 들면, 석유에 대한 국제적인 이익은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후 강력한 연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군사개입과 같은 인도적인 동기는 미국의 일방적인 또는 다자적인 지원을 집중하는데 실패한 것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된 적과 적절하지 못한 시간에 잘못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피하려는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이 대안을 고려하고, 위협가능성을 평가하며, 각각의 위협을 최우선화할 때까지 군사적인 주도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이런 과정들은 적의 역량, 한계, 지리적 배경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피아의 자세를 냉정하게 비교하는 정보평가를 요구하게 된다. 결정요인은 가장 심각하게 국익을 위협하는 요인의 인식, 군사적으로 해결가능한 위협요인, 적의 문화·역량·지리와 자국 및 동맹국 또는 군사적으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장래의 연합파트너 등의 역량에 대한 영향력 관계, 적의 성공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 등이다.

셋째, 정치목표와 군사임무(political aims & military missions)이다. 이는 인식된 위협에 맞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군을 위해 규정하고 있다. 이익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 자원의 적용을 최우선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임무와 추상적인 요구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치목표와 군사임무는 확실한 조화를 위해 협조관계를 잘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한다.

결정요인은 정치적 목표는 명확하게 표현되었고, 군사적으로 완수가 가능한 것인가?, 미국과 유엔, 동맹국이나 연합파트너들의 목표는 조화로운가?, 정치목표와 군사임무는 상호 협조적이고 보완가능한가?, 목표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나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 등이다.

넷째, 전략 및 정책지침(strategic and policy guidance)이다. 교전수칙이 포함된 전략 및 정책지침은 계획의 준비와 목표달성을 단순화시키거나 복잡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소련과의 핵대결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냉전기 내내 군사작전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고, 미군이 대대적으로 베트남전쟁에 개입한 이후에도 전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⁴⁸⁾

48) 한국전쟁 당시 트루만 행정부는 만주지역을 특권적인 성역(privileged sanctuary)으로

사막의 폭풍작전 이후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일부 미군의 희생이 발생하거나 비전투원이 위험상태에 이르는 일부 무력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들은 초기의 결정적인 행동이 그들이 처리하기 어렵게 되기 전에 사태의 발단을 진정시킬 수 있었음에도 최후의 수단으로만 무력사용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책이 정치목표와 군사임무에 적합한가?, 일부 정책의 제한은 안전하게 해제될 수 있는가?, 자원과 희생의 측면에서 수용이 가능한 정책인가? 등이 전략 및 정책지침에 포함될 요인이다.

다섯째, 계획의 선택(planning options)이다. 국가안보 계획입안자들은 정책지도를 고려해 위협과 희생에 대한 이익과 능력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들은 군의 임무가 가장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고, 동맹국들에게 가장 양호한 상태로 남을 수 있는 외교 및 군사적 역할을 정책결정자들에게 권고한다. 계획선택에 관한 결정요인은 미국과 동맹국 또는 연합파트너들이 제출한 선택에 대해 적의 반응은 어떠한가?, 자국이나 동맹 또는 연합군들은 개입의 부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가?, 선호하는 선택이 실패할 경우 그 대안은 무엇인가? 등이다.

여섯째 기준은 자원(resources)을 들 수 있다. 잘 준비된 계획과 충분한 병력 및 자금은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다. 중요한 자국의 이익이 취약해 보이고,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보이며, 과도하게 높은 희생이 예상될 정도로 군사적 불균형이 초래됐을 때 조정이 요구된다. 할당된 자원은 현행사건을 위해 충분한가?, 남아있는 자원으로 다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 어떤 종류의 예비병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게 되는가? 등은 자원에 관련된 결정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국민의 지지(congressional and public support)가 필요하다. 국민과 의회의 지지범위는 군사개입을 단행하기에 앞서 명백해야

남겨두었으며, 쿠바미사일 위기에서 케네디 대통령과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미군으로 하여금 해상봉쇄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베트남전쟁 당시 존슨 행정부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미군에게 오랫동안 제한지역으로 묶어놓았다.

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다. 승인에 앞서 행동을 강요하는 상황이 결정되면 승인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⁴⁹⁾ 그러므로 정치적 수완은 무력개입을 포함하는 외교정책의 주도권을 위한 지지를 확대하고 유지하는데 있다. 성공을 위한 강제적인 이익, 민감한 목표, 합리적인 전망은 자국민과 동맹국의 여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여론과 관련된 결정요인은 대통령은 개입목표를 명확히 설명했는가?, 자문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명시했는가?, 국익과 목표는 충분히 여론을 유도하고 지지를 이끌 수 있는가?, 가상의 적에 대한 여론은 얼마나 중요한가? 등이 제시될 수 있다.

4) 기타 견해

군사개입의 선행조건에 관한 견해는 앞서 언급된 것 외에도 합참의장을 지낸 파월(Colin Powell)이 제시한 '파월 독트린(powell doctrine)'이 있다. 이 견해는 명확한 정치목표, 최후의 수단, 군사적 목표달성 가능성, 비용, 이익과 위험, 예상되는 결과 등 여섯 가지로서 장기적이고 추가적인 전쟁의 희생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군사행동의 전형적인 교리로 평가되고 있다.⁵⁰⁾ 또한 국방장관을 지낸 레스 애스핀(Les Aspin)은 파월이 제시한 요소와 군사적 접근방법을 요약해 최후 수단, 명확한 목적, 철수계획, 압도적 방법 등 네 가지 요소를 주장하면서, 초강대국간의 냉전적 제로섬게임의 종말에 이르러 군사개입에 관한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⁵¹⁾

49) 베트남 개입의 시발점이 되었던 1964년 8월 10일의 통킹만 결의안(Tonkin Gulf Resolution)은 미 의회에서 단 두 명만이 반대를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나, 1968년 월맹군의 구정공세 이후 의회와 국민의 지지는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50) Colin L. Powell, "U.S. Force: Challenges Ahead," *Foreign Affairs*, Vol. 72, No. 5 (Winter 1992-93), pp. 32-45.

51) Les Aspin, address to Jewis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Washington D.C., September 21, 1992, Richard N. Haass, *Intervention*, pp. 183-190에서 재인용.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은 명확하고 달성가능한 임무,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 임무종료 후 미군의 철수를 제시했는가 하면, 워렌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는 명확한 목적, 성공가능성, 의회와 국민의 지지, 명확한 탈출전략을 결정요인으로 제시했다.⁵²⁾ 또한 국가안보고문이었던 앤서니 레이크(Anthony Lake)는 미국과 미국인 그리고 미국의 동맹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공격에 대한 반격을 위해, 주요 경제적 이익수호를 위해, 대량파괴무기·테러·국제범죄 및 마약밀매의 확산방지를 위해, 미국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군사력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주장했다.⁵³⁾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수상도 “개입의 경우를 확신하고 있을 때, 모든 외교적 선택이 소진됐을 때,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착수할 수 있는 군사행동이 마련됐을 때, 장기간 개입을 준비했을 때, 국익에 관련됐을 때”라고 군사개입의 가능성을 언급했다.⁵⁴⁾

한편, 군사개입의 결정요인을 개입의 정책적인 환경과 특성을 통해 접근하는 견해도 있다. 1958년 7월의 레바논사태로부터 1999년 3월의 코소보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단행한 10건의 무력개입을 분석한 주수기(朱秀基)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지적이고 지형적인 불안정, 분명한 배후세력과 인물, 급속한 사태의 진전과 국익의 저해, 개입의 정당성과 현지 자국민의 보호, 신속한 정책결정과 집행, 역사의 교훈과 정책결정 환경이라는 여섯 가지 요인을 군사개입의 동인으로 설명하고 있다.⁵⁵⁾

52) 계용호, 앞의 논문, p. 15.

53) Anthony Lake, “Defining Missions, Setting Deadlines: Meeting New Security Challenges in the Post-Cold War World,” Speech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March 6, 1996.

54) Ronald Scott Mangum, “NATO’s Attack on Serbia: Anomaly or Emerging Doctrine?,” *Parameters, US Army War College Quarterly*, Winter 2000-01, pp. 40-52.

55) 도출된 분석결과는 주수기, “미국 무력개입의 정책환경과 특성 : 레바논에서 코소보까지,” 『전사』 제1호, pp. 275-327을 참고할 것.

이상의 여러 견해를 평가한 결과, 군사개입의 최우선 결정요인은 사활적인 국익임을 알 수 있다. 사활적인 국익추구는 군사개입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개입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두 번째는 의회와 국민의 지지로서 대통령의 대 국민, 대 의회 설득능력에 의해 조절이 가능한 요인이다. 셋째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상자에 대한 국민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요인이다. 넷째는 명확한 정치 및 군사적 목표로서 실현 가능한 정치적 목표가 있을 때, 구체적인 군사목표가 선정됨으로 군사개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는 정치지도자의 명확한 승리에 대한 의지로서 개입의 강도와 규모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 요인은 부여된 임무에 대한 재평가와 재조정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3) 군사개입의 정당성 평가

1) 군사개입의 이중성

사활적 국익을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하는 현대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군사개입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군사개입 행위 자체가 지닌 비합법성 또는 비도덕성도 국익추구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고, 개별국가들이 국익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정의하기는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개입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관련국가가 자국의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 변명과 정당화의 근거로 구성된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한 것이다.⁵⁶⁾

56) Michael Akehurst,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6th ed., 1987, 박기갑 역, 『현대국제법 개론』(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7), p. 372.

개입의 정당성 내지는 합법성에 관한 논쟁은 인권을 중시하는 입장과 국가주권을 중시하는 입장간의 오래된 논쟁이며, 전자는 주권이라는 것이 개별국가에 거주하는 개인에 속하는 것이며, 개인은 법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후자는 국가주권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불간섭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⁵⁷⁾

이처럼 군사개입은 내재된 논리의 이중성뿐 아니라 정당성에 관한 주장 역시 다양하다. 라이온스(Gene M. Lyons)와 머스탄두노(Michael Mastanduno)는 “국제공동체의 이름 하에 수행되는 월경과 주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한 개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⁵⁸⁾ 핫도리 미루노(復部實)는 “분쟁의 평화적 종결을 목적으로 하는 긍정적인 개입과 각각의 분쟁 당사자에 대해 상응한 비난을 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국제적 지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하는 비판적 개입” 모두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⁵⁹⁾ 왈저(Michael Walzer)는 자결권만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받은 원칙이므로 자결권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같은 정치이념이나 종교적인 문제 등과 같은 이유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합의된 원칙이 아니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⁶⁰⁾

57) Agostino Zacarias, ed.,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Peacekeeping*(N.Y.: Tauris Publisher, 1996).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역, 『국제연합과 국제적 평화유지』(서울: 국방대학원, 1997), p. 253.

58) Gene M. Lyons and Michael Mastanduno, *Beyond Westphalia?: Stat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Intervention*(Baltimore &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p. 5.

59) 復部實, 『現代局地戰爭論』(東京: 原書房, 1971); 국방대학교 역, 『현대국지전쟁론』(서울: 국방대학원, 1988), pp. 163-164. 핫도리 미루노는 제3자의 분쟁개입 태도를 통해 정당성의 논리를 주장한다. 그는 개입을 ‘공평한 개입’과 ‘불공평한 개입’으로 구분하고, 불공평한 개입은 다시 일방의 분쟁 당사자를 지원하여 분쟁의 승리나 유리한 분쟁의 종결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편향적인 개입’과 분쟁에 개입한 제3국에 의한 유리한 분쟁종결을 저지하고 자국에 유리한 분쟁종결을 가져올 목적으로 개입하는 ‘경합적 개입’으로 세분하고 있다.

루어드(Evan Luard)는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공평하게 시행되는 개입을 합법성을 지닌 정당한 개입이라 주장하나,⁶¹⁾ 국제기구에 의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개입도 모든 주권국가들이 원하지 않는다. 근대적 주권국가로서의 기반이 허약한 제3세계 국가들은 주권존중과 영토의 주체성을 들어 개입을 반대하며 개입대상국의 동의를 통한 개입을 주장하지만, 서구선진국들은 국제사회의 개입을 개입 주체들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탈냉전 이후 내전이나 지역분쟁 등으로 인한 주권국가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램스보탐(Oliver Ramsbotham)과 우드하우스(Tom Woodhouse)는 "인권차원에서는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개입을 단행해야 한다"⁶²⁾고 인도주의적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개입은 선한 편에 설 경우에는 정당하고, 비민주세력이 개입하는 경우에 반개입은 정당하다는 논리도 일부 존재하지만, 국제정치 규범에서의 선악의 구별과 국제정치에서의 개입과 반개입의 구분이 모호함으로 이 논리도 실효성이 결여된 것이다. 이처럼 개입의 합법성, 정당성, 도덕성 문제는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단독개입에 따른 정당성 논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보다 신속히 개입을 국제정치화하고 정당성을 희석시킴은 물론 개입 그 자체를 국제사회의 묵인 속에서 현실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제정치의 중요한 가치는 질서와 평화이고, 중요한 제도는 세력균형이기 때문에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개입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나이(Joseph S. Nye Jr.)의 주장⁶³⁾은 이러한 경

60) 이러한 논리에 관해서는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N.Y.: Basic Books, 1977)을 참고할 것.

61) Evan Luard, "Collective Intervention," Hedley Bull, ed., *Intervention in World Politic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 158.

62) Oliver Ramsbotham and Tom Woodhouse, eds.,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Contemporary Conflict: A Reconceptualization*(Cambridge: Polity Press, 1996), p. 7.

향에 보다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로 냉전기에 미국은 서반구에서 공산주의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는 명분 하에 1965년 도미니카에 군사개입을 단행했고, 소련은 '브레즈네프 독트린(Brezhnev Doctrine)'⁶⁴의 선언과 함께 자신들의 영향권 내에서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군사개입을 이용했다.

이와 달리, 세계주의자는 중요 가치가 정의이며, 중요 국제제도는 개인들의 사회이므로 개입이 정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고 선(good)한 개입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이념의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냉전기 자유주의적 세계주의자는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같은 우익 레짐이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레짐을 상대로 한 개입은 정당하다 말하지만,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자는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부나 앙골라와 모잠비크의 공산정권같은 좌익 레짐을 상대로 한 개입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주장한다. 탈냉전기 자유주의자의 사고는 좌·우파 공통적으로 전의를 진전시키는 개입이라면 정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세계 도처의 분쟁에 인도주의적인 개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⁶⁵

한편, 일정한 규칙과 국제법을 가진 국가들의 사회를 주요 제도로 여기

63) Joseph S. Nye Jr., 양준희 옮김, 앞의 책, p. 223.

64) 1968년 8월 소련의 체코에 대한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가 제시한 이 견해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사회주의국가 전체의 이익에 일국의 이익은 종속되며, 또 일국의 주권은 사회주의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制限主權論'을 주요 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구뿐 아니라 자유세계내 공산당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중국(중공)도 이를 '有限主權論', '國際獨裁論', '社會主義 大家庭論'이라 비판하는 한편, 히틀러의 '유럽 신질서', 일제의 '大東亞共榮圈'에 비유하면서 강력하게 비난했다. 정인홍 외 공편, 『정치학대사전』(서울 : 박영사, 1983), p. 722.

65) 광범위한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1992년의 소말리아 개입과 민주적으로 당선된 지도자를 복원하기 위한 1994년의 아이티 개입, 내전종식을 표방한 1995년의 보스니아 개입과 유고 대통령 밀로세비치(Milosevic)의 인종청소를 중단시키기 위한 1999년의 코소보 개입 등이 대표적인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다.

는 국가도덕주의자들은 국제정치의 주요 가치는 국가와 국민의 자치권이라 주장한다. 이들에게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 주권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법칙이며, 따라서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의 영토적 존엄성이나 외부 침략에 대해 자주권을 방어하는 전쟁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전쟁이지만, 1967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 공격했음에도 이집트가 먼저 공격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침략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처럼 오늘날의 현실과는 분명 괴리가 있다.

2) 비개입 원칙의 예외적용

유엔헌장 제2조 1항 및 7항에는 국가간의 주권평등과 국내문제에 대한 제3자의 불간섭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가를 주권을 가진 기구로 취급하고 있음과 모든 국가는 평등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권평등에 따라 개입은 분명히 비합법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정당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국가주권에 대한 제3자 개입 역시 여러 조약이나 선언에서 금지시되거나 부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베트남 개입과 소련의 체코 및 아프가니스탄 개입에서 주장한 것처럼 현지 정부의 권유로 인한 개입,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역개입(counter-intervention), 다른 강대국이 먼저 시작한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한 국가를 지원하는 형태의 개입, 자위(self-defense)를 명분으로 하여 행해지는 개입,⁶⁶⁾ 독재적인 통치자의 대외문제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개입⁶⁷⁾ 등은 정당화될 수

66) 이러한 개입의 사례로는 1976년 비행기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이스라엘 특공대의 엔테베 공항기습, 1981년 바그다드 인근의 오시라크 핵시설(발전소)에 대한 공습, 수시로 발생하는 이스라엘의 인접국가내 게릴라기지에 대한 공중폭격 등을 들 수 있다. Hedley Bull, "Introduction," *op. cit.*, p. 2.

67) 중세 오토만제국의 기독교도 억압에 대한 유럽 강대국들의 개입, 1971년 인도의 동파키스탄 개입, 19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개입과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Idi Amin)을 축출하기 위한 탄자니아 개입 등이 있다. Hedley Bull, *op. cit.*, p. 3.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어느 특정국가의 존립 내지는 번영을 보장하고, 그 주권과 자결권을 외부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면 이는 개입의 정당성이나 합법성 문제에 앞서 현실적인 개입의 명분이 될 수 있으며,⁶⁸⁾ 비개입(non-intervention) 원칙의 예외적인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알저는 전쟁 또는 군사적 개입의 정당화는 물론 비개입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⁶⁹⁾ 먼저, 국가의 영토적 존엄성과 정치적 주권에 대해 명백하고 충분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선제개입(preemptive intervention)이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의 이집트 공격과 같이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급박한 위협에 대한 행위로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회가 상실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둘째, 앞서 이루어진 개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입이 필요할 때 인정된다. 앞선 개입이 국민이나 지역주민 스스로의 운명결정을 막는다면, 그 개입을 무효화시키려는 역개입은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결정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미국이 내세웠던 논리이다. 셋째, 대량학살(massacre)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탈출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대량학살같이 국민들이 전면적인 파괴로부터 구출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자치나 권리에 대한 존중의 표시인 비개입원칙도 의미가 없다.⁷⁰⁾ 탄자니아의 우간다 침략

68) Stanley Hoffman, *op. cit.*, pp. 11-12.

69)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N.Y.: Basic, 1977). Joseph S. Nye Jr., 양준희 옮김, 앞의 책, pp. 225-226에서 재인용.

70) 내정불간섭이라는 유엔헌장의 비개입주의 원칙이 냉전종식 후 빈발하고 있는 국내적 갈등과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실효성이 상실된 구 레짐을 대체할 새로운 레짐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인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레짐의 허용 없이도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개입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개입에 따른 인도적 손실이 너무나 큰 경우, 즉 대량학살 등이 발생할 때 개입은 정당성을 갖게 된다. Michael J. Glennon, "The New Interventionism:

과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미국과 나토의 코소보 개입에 이용된 논리이다. 넷째, 분리주의자들이 대표성을 입증했을 때 분리운동(secessionist movements)을 지원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나의 국가 내에 분리된 국가를 원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그룹들이 있을 경우 그들의 분리를 돕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개입은 분리주의자들의 권리를 집결하고 국가로서의 자치권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4. 미국의 군사개입 사례분석

(1) 한국전쟁(Korean War) 개입⁷¹⁾

1) 개 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해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했다. 무초주한대사의 보고서를 접수한 트루만 행정부는 유엔안보리의 소집을 요청했다. 6월 26일에 개최된 안보리는 공산침략행위 정지요청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으로 하여금 침략을 중지하고 38도선 이북으로 군대를 철수하도록 촉구했다.⁷²⁾ 미국은 유엔의 '대북한 침략중지 요청안'이 가결된 다음

The Search for a Just International Law," *Foreign Affairs*, Vol. 74, No. 1 (May/June, 1999), pp. 31-43.

71)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사례에 대한 분석은 Joseph R. Avella, "Evaluating Criteria for Use of Military Force," *Comparative Strategy*, Vol. 10(1991), pp. 224-226을 참고로 했다. 이 논문은 '와인버거 독트린' 다시 말해, 와인버거 국방장관이 제시한 군사개입 결정기준을 역사적 사건인 제1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쿠바 미사일위기, 베트남전쟁, 도미니카 개입, 레바논 개입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저자가 미국 가톨릭 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것 중 일부를 1991년 발췌해 수록한 것이다.

날인 1950년 6월 27일부터 미 극동해군과 공군을 한반도에 전개했으며, 지상군은 주일 미 제24사단의 일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전쟁기간동안 미국은 30여만 명의 지상병력과 77개의 비행대대, 함정 261척을 한국전쟁에 투입하는 한편, 유엔의 통합군사령부 설치결의에 따라 미 극동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유엔군사령부를 창설, 한국군과 16개국의 파견병력에 대한 지휘 및 작전통제를 실시했다.⁷²⁾

트루만 행정부가 미군의 신속한 한국전 개입을 결정한 이유는 북한의 남침을 소련의 세계적화시도의 일환으로 평가했고, 이를 미·일 군사안보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해 남한이 공산화될 경우 일본의 국내안정이 흔들리고 좌경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UN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으며, 한반도 상황을 전쟁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2) 결정요인 분석

먼저, 앞에서 도출된 결정요인 여섯 가지 중 '사활적 국익추구' 요인을 보면, 사활적 국익은 북미의 본토방위, 경제적 번영, 국제적 안보, 민주이념의 증진 등 미국의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의 토대를 이루었던 네 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북미의 본토방위 측면에서 분석하면 한국은 1950년 미 국무장관 딘 에치슨(Dean Acheson)에 의해 설정된 아시아방위권의 영역 밖에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익은 주변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번영 측면에서 한국은 당시 농업 등 1차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일방적인 원조를 제외하고는 미국과의 교역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

7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168-169.

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서울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pp. 136-138.

조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적 손실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국제적 안보차원에서 미국은 일본의 재건을 위해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기울인데 반해 한국과는 상호방위조약이나 어떠한 조약도 체결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불안정은 일본 등 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었다. 넷째, 민주이념의 증진 측면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는 소련의 패권적 위협이 민주적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열망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가 뻗어나가려는 한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두 번째, '최후의 수단' 요인에서 분석하면, 북한의 남침 후 미국이 최초로 취한 조치는 외교적 조치로서 한국전쟁 문제를 UN에 상정한 것이었다. 당시 미 국무성⁷⁴⁾ 관리들은 단편적인 정보로 인해 북한의 궁극적인 의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상황이 긴급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무성 관리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한 어떠한 대안도 갖지 못했으며,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한국문제의 UN 상정을 고려했다.

세 번째, '명확한 정치·군사목표'를 보면,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목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 미 행정부의 최초 견해는 전쟁이전의 상태인 38도선 회복에 있었던 반면, 연합군사령관인 맥아더의 견해는 한국을 비공산주의 정부로 재통합하고 본래 한국의 국경인 두만강까지 국경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결국 군사적 목표가 일시적으로 흔들렸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수행과정에 있어 미국의 정치목적과 군사목표는 항상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맥아더전략 논쟁과 파문의 근본 요인이었다. 동시에 미국

74) 당시 국방장관 존슨이 극동지역을 순방중이었기 때문에 국무장관 애치슨은 자신이 당시 상황을 책임지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재가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의하였고,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였다. 김현기, "군사개입의 이론과 실제," 『군사논단』 제33호(2002년 겨울호, 한국군사학회), p. 174.

은 한국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도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추이에 따라 정치목적은 제한하고 전쟁상황의 변동에 따라 군사목표는 물론 정치목적마저 수정했다.⁷⁵⁾

네 번째, '명확한 승리의지' 요인을 분석하면, 미국으로서는 사활적인 이익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군사목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음에도 승리에 대한 의지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개입시에 적합한 자원을 분배해 승리하고자 한 명확한 의지는 1950년 6월 30일자 백악관 성명에서 잘 나타나 있다. 한국전쟁에 개입한 미 행정부의 승리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일단 방침이 정해진 후 목표달성을 위한 병력과 장비의 제공에는 거리낌이 없었으며, 전쟁이 어느 정도 격렬해질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⁷⁶⁾

다섯 번째, '의회와 국민의 지지' 요인은 미국 내에 전반적으로 고조된 매키시즘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전쟁 초기에 미 국민의 지지는 긍정적이었다. 이로 인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 국민의 군사력 사용과 한국의 지원요청에 대한 지지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휴전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국민과 의회의 여론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은 일종의 응징적 성격을 지닌 침략국에 대한 반격전쟁이었으므로,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일부 군부지도자를 제외하고는 한국전쟁 개입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 관료는 거의 없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와 상·하 양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나, 공식적으로는 의회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트루만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로 결정되었다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재부여 및 재평가' 요인을 분석하면, 한국전쟁 기간동안 미국은 전략과 목표를 재평가하고 재부여했다. 행정부는 전쟁초기에는 압록강으로의 진격에 동의했으나, 중공군이 개입한 후에는 전전상태로의 복귀를 희

75) 강병규, 『한국전쟁의 정책환경』(서울: 한림출판사, 1970), p. 78.

76) 계용호, 앞의 논문, p. 29.

망했고, 1951년에는 휴전회담을 개최했다.

3) 평 가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분석결과, 미국은 사활적인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명확한 승리의 의지를 갖고 한국전쟁에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의회와 국민의 지지 측면에서는 공식적인 의회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 비난을 받았으나, 당시 의회와 국민의 전반적인 지지 분위기가 이를 상쇄시켜 주었다. 그러나 개입초기의 명확한 정치·군사적 목표의 혼란은 한국전쟁을 장기화로 몰고 갔을 뿐 아니라 자원의 희생과 낭비를 초래한 원인이 됐다.

(2) 레바논사태(Lebanon Conflict) 개입

1) 개 요

이스라엘군은 1982년 6월 6일 레바논을 전면 침공해 8주간의 작전을 통해 레바논 내 PLO전사를 완전 철수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레바논 분쟁은 중동의 여러 국가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제분쟁의 성격으로 확대됐고, 국내 40여 개의 분열된 종파와 각 파벌간의 민병대와 정부군의 갈등이 주변 아랍국가들의 정치적 개입으로 내전화됐다. 이에 따라 레바논의 주권회복을 위한 국제평화유지군의 주둔이 필요하게 됐고, 1982년 8월 레바논 정부요청에 의해 미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과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구성해 국제적 성격을 지닌 평화군으로 주둔하면서 PLO의 레바논 철수 감시와 보호임무를 맡게 됐다.⁷⁷⁾

77) 홍순남, 『중동정치질서의 이해 : 변화와 지속성』(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7), pp. 152-160.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군의 병력 수는 몇 백 명으로 제한됐고, 주둔지도 베이루트 공항 인근의 소규모지역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다. 미군은 서로 적대적인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를 분리하는 역할로 임무를 제한하려 했으나, 결국에는 전투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고, 특히 레바논 이슬람교도와 교전은 물론 시리아군과 정규 포격전을 전개하기도 했다.⁷⁸⁾

2) 결정요인 분석

‘사활적 이익’ 요인 중 먼저 본토방위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화유지군으로서 레바논에 참여하는 것은 본토방위와는 관련이 없었다. 둘째, 경제적 번영 측면에서 레바논은 미국의 교역대상국이 아니었을 뿐더러 중동의 여타 교역대상국과의 관계에 어떠한 위험도 가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 레바논 정부의 불안정은 현지에 거주하는 미 국민에게 위협요소였지만, 그들이 위험상태에 처해 있다는 신호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유사시 레바논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조약이나 협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1982년의 레바논의 국제적 안보이익은 주변의 이익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민주이념의 증진 측면에서 살펴볼 때 1958년의 미국의 레바논 개입은 반공정권 보호를 위해 단행됐으나, 1982년의 개입은 그런 이슈가 없었다. 미국이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간의 자결이 보다 평화적인 조건하에서 달성되기를 원했던 반면, 레바논 정국에 의해 표출된 민주이념에 대한 위협은 주변의 이익으로 간주됐다. 이상의 네 가지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 레바논의 경우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번째, ‘최후의 수단’ 요인을 보면, 미국-레바논간의 정치·경제적 유대

78) Thomas L. Brewer, "Military Intervention and Assistance," *American Foreign Policy: A Contemporary Introduction*, 3rd edition(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2), pp. 210-211.

관계 결여는 미국으로 하여금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스라엘에 대한 압력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과의 협력부족으로 인해 해결을 기대할 수 없었다. 레바논 정부의 요청이 있었을 때, 직면했던 선택은 오직 평화유지 지원 여부뿐이었다.

셋째, '명확한 정치·군사목표' 요인을 분석하면, 다국적군으로 참여하고 서로 적대적인 세력을 분리함으로써 베이루트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정치적인 목표는 명확했다. 그러나 군사력(병력)의 주둔이라는 군사목표는 명확하지 않았다.

넷째, '명확한 승리의지'에 관해서는, 해병대 사령관은 레바논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규 부대병력 이외에 노련한 병사의 추가배치를 요청하였고, 이런 요청은 망설임 없이 받아들여졌다.

다섯째, '의회와 국민의 지지' 분석에서, 미국의 평화유지군 참여는 의회와 국민 모두에게 인도적인 임무로 인식됐다. 그러나 미군 영내에서 폭발물 자살공격으로 인한 미 해병대원 241명의 죽음은 레바논에 병력을 배치하려던 레이건 행정부의 결정에 관한 국민과 의회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1983년 말의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 중 45%만이 미군의 레바논 파견결정에 동의함으로써 미군의 철수를 자극했다.

끝으로 '재부여와 재평가' 요인에서, 베이루트에 주둔한 해병대는 한 달 후 정상적으로 교체되었다. 전임자보다 지상작전의 경험이 풍부했던 신입사령관은 장황한 브리핑타임을 폐기하고 자신이 제공했던 목표보다 더 명쾌한 부대배치를 명령했다.

3) 평 가

결론적으로, 1982년의 레바논 사태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와인버거의 결정기준에 의한다면, 미국은 인도주의적 임무로 인식되었던 레바논사태에의 개입을 거부했어야 한

다. 또한 1982년의 레바논 개입은 명확한 군사목표가 결여되어 있었다. 정치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군사력의 이용은 국가의 선택이며,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명확한 군사목표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3) 코소보 전쟁(Kosovo Conflict) 개입

1) 개 요

코소보 전쟁은 1999년 3월 미국을 주축으로 한 나토동맹국이 신유고연방에 대한 공중폭격을 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유고연방의 해체과정에서 불거진 코소보 알바니아계의 독립요구는 코소보 지역을 정신적인 고향으로 인식했던 범세르비아계를 자극했고, 세르비아경찰과 신유고연방군은 알바니아계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고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켰다.

1999년 2월 프랑스 랑부예에서 개최된 평화회담에서 미국 등 접촉그룹은 잠정적인 정치적 해결안과 무장평화유지군으로 지역내 평화유지를 이행하려는 계획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세르비아에 대해 폭격을 가하겠다고 통보했다. 정치적 해결안은 1989년에 박탈한 자치권을 3년간 한시적으로 코소보에 돌려주고 정부, 의회, 사법권을 갖게 하는 대신 외교 및 국방은 유고연방 관할하에 두는 내용이었으나, 밀로세비치 신유고연방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통보된 공습을 감행하게 되었다.

2) 결정요인 분석

먼저, '사활적 이익'을 구성하는 네 가지 구성요소 중 우선 본토방위 측면에서 분석하면, 코소보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인 나토의 집단안보방위 영역 밖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코소보에 대한 미국의 국익은 주변이익

에 불과했다. 둘째, 경제적 번영 측면에서 코소보는 유고연방의 자치주로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교역은 불가능했고, 유고연방 역시 지역 내의 여타 교역대상국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셋째, 국제적 안보측면에서, 밀로세비치는 '대세르비아제국' 건설을 표방하며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발칸지역을 '세르비아 대 알바니아' 대결구도로 재편, 지역적 불안정을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이념의 증진 측면에서, 코소보 알바니아계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르비아 보안군의 대학살과 인종청소는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두 번째, '최후의 수단' 요인에서, 1999년 2월의 랑부에 평화회담과 이어진 3월의 파리회담에서 미국은 접촉그룹과 함께 유고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제, 즉 코소보 주민에 대한 민주적인 자치보장과 코소보 전역에서의 안전보장, 코소보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 등을 제시하고 이 계획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세르비아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겠다고 통보했다.⁷⁹⁾ 따라서 세르비아에 대한 미국 및 나토의 공습은 가용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끝난 뒤 최후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세 번째, '명확한 정치·군사목표' 요인에서 보면, 코소보 사태에 미국이 개입하게 된 정치적 목표는 세르비아 제국주의의 출현을 방지함은 물론 발칸지역의 분쟁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이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고 코소보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데 있었다.⁸⁰⁾ 또한 코소보 알바니아계에 대한 억압 행위를 자행하는 세르비아의 역량을 와해시키기 위해 유고 전역의 군사목표에 대한 3단계의 항공작전계획을 수립했다. 제1단계는 제공권 장악과 세르비아 지휘통제의 무력화, 제2단계는 세르비아 및 코소보 지역의 군사목

79) Understanding the Rambouillet Accords, Fact Sheet Released by the Bureau of European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D.C., March 1, 1999, 손규석, "코소보전쟁시 나토의 평화유지정책에 관한 전략적 분석," 『군사』 제47호(2002.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 298에서 재인용.

80) Alan D. Zimm, "Desert Storm, Kosovo, and 'Doctrinal Schizophrenia'," *Strategic Review*(Winter, 2000), pp. 32-39.

표물에 대한 공격, 제3단계는 유고 전역의 군사목표물로 항공작전을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군사목표가 마련됐다.⁸¹⁾

네 번째, '명확한 승리의 의지' 요인에서, 미국의 동맹국이자 나토 회원국의 일원으로 코소보 개입에 관여했던 영국의 조지 로버트슨(George Robertson) 국방상은 "연합군은 단합되고 결연한 그리고 누구나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일신된 자신감으로 자신들의 응집력과 목적의식을 달성했다"⁸²⁾고 주장함으로써 전쟁승리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의회와 국민의 지지'에서 미국의 코소보 개입에 대해 미 국민은 개입 초기인 1999년 3월부터 5월까지 50% 이상의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공습개시 월인 3월에는 60%의 찬성을 보였으며, 아울러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56%의 지지율을 보여주었다.⁸³⁾

마지막으로 '재평가 및 조정'을 보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세르비아의 역량을 와해시키기 위한 3단계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작전개시 2~3일 내에 밀로세비치가 항복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3단계 작전계획 중 2단계의 일부와 3단계는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으나,⁸⁴⁾ 결국엔 작전계획을 변경해 지상군의 투입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81)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Cohen and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Henry Shelton, testimony to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October 14, 1999.

82)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the Rt. Hon. George Robertson MP, "Kosovo-Some Preliminary Thoughts," Ministry of Defence, 29 June 1999.

83) Steven Livingston, "Media Coverage of the War: An empirical assessment," Albrecht Schnabel and Ramesh Thakur, eds., *Kosovo and the Challeng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Selective Indignation, Collective Action, and International Citizenship*(N.Y.: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0), pp. 376-377.

84) Craig R. Whitney, "NATO's Plan: A Barrage, Not a Pinprick," *New York Times*, March 24, 1999.

3) 평 가

결론적으로 와인버거의 군사개입 결정기준에 따른 미국의 코소보 개입에 대한 분석은 미국이 국민의 지지하에 명확한 승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코소보 전쟁에 개입을 단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르비아가 코소보 알바니아계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대학살과 인종청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확한 정치목표에 의해 단행된 군사개입이었다.

5. 결 론

외교정책의 한 수단인 군사개입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학자마다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기존하는 국내외 학자의 견해를 종합하면 군사개입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나라의 국내적 사건에 국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관한 의사를 강제하기 위해 무력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군사개입은 자국의 국익추구 및 외교정책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개입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다시 말해 정책결정을 구성하는 요인이나 기준, 개입 자체의 정당성·도덕성·합법성 여부 등 상황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군사개입에 앞서 군사력 사용에 필요한 시간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군사자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군사개입시 고려해야 할 선행조건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된 정책결정자나 분석가, 학자들이 제시했던 것처럼 사활적 국익추구, 명확한 정치 및 군사 목표, 분명한 승리의지, 의회 및 국민의 지지, 최후의 수단, 임무에 대한 재평가, 군사자원, 계획의 선택 등 여러 요인들이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미국의 군사개입을 결정하는 요인 또는 기준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의 여

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활적인 국익추구로서 미국의 국내외 안보정책과 관련된 북미 본토방위, 경제복지, 국제안보, 민주이념 증진 등이 해당되며 군사개입 결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두 번째는 의회와 국민의 지지이다. 군사력의 사용은 전투에 참가하는 군인, 즉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포함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군사개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외교·경제적 대안이 실패한 뒤 사용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명확한 정치 및 군사목표가 있어야 하며, 다섯 번째는 분명한 승리에 대한 의지로서 정치지도자의 의지는 군사개입의 결정은 물론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국제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임무에 대한 재평가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행조건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한국전쟁과 레바논 분쟁, 그리고 코소보 전쟁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사례분석결과에 나타나듯 미국은 사활적인 국익추구를 위해 확고한 승리의 의지로 군사적인 개입을 단행했음에도 명확한 정치 및 군사적인 목표의 설정이 결여됐던 레바논 분쟁의 경우, 많은 인명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국민과 의회로부터 지지가 하락됨으로써 결국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해외의 군사개입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의사결정자는 군사력의 사용이 이러한 요인과 기준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원고투고일 : 2004. 6. 24,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개입, 군사개입, 개입주도국, 개입대상국, 무력, 국익, 사활적 이익, 강압외교, 억지

<ABSTRACT>

A Study on the Decision-Making Criteria of American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Sohn, Kyu-seok

The departure point of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by United States. For almost half a century since the World War II, American presidents have consistently claimed the right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free world and democracy against communism, even when such protection implies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of another nation. A strong argument can be made, and often has been,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en more interventionist since it adopted non-intervention as stated policy than it ever was before.

In the three cases of military intervention selected for this study (*i.e.*, Korea in 1950, Lebanon in 1982~1983, and Kosovo in 1999), American leaders recognized the troubles they invited by sending in troops, but still they chose to deploy. Why they did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is is to say, the subject matter of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with analysis of the decision-making criteria and determinants that led to intervention.

The present study, firstly, examines several important factors common to the chains of events leading to the three decisions to intervene : then, secondly, comprises an attempt to weigh the significance of the factors examined and to sketch the outline of a theory of American military intervention.

The important factors identified in the present study after probing into the three selected military interventions are : ① vital interest, ② last resort, ③ clear political and military objectives, ④ clear intention of winning, ⑤ congressional and public support, and ⑥ reassessment and reevaluation.

The analysis to the three selected military intervention indicates, first of all, an evaluation that the important factors are sound. Second, analysis indicates that there is a hierarchy of achieving positive test results, some mandatory and at least one preferable. Third, the analysis reveals certain aspects missing if the tests were to be employed as part of a formal decision process. Finally, based on the again on the use of the tests as part of formal decision-making, two of the tests are better included together, rather than subjects considered on a stand-alone basis.

Applying these conclusions, a restated list of the Weinberger tests would be:

In the absence of a humanitarian request or direct aggression, any use of military force must involve vit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merica's interests and concerns will be clearly and openly articulated.

When possible, the United States would prefer to employ other than military means to protect its national interests. While employing these other means, America will continue to clearly and openly voice its interests and concerns. There may be occasions, however, where military force is the only viable option at the time.

Military force will be used to protect vital interest when conditions provide for clear political objectives and when military objectives can realistically achieve the political goals. A military solution will also be viable when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is appropriate to the level of risk, when the needed forces are available and ready, and when personnel and material resources required are matched to the task.

Whatever means employed—political, economic, military, or some combination—actions taken will undergo constant review, and will be revised as necessary to assure that the objective will be satisfied.

Key Words: Intervention, Military Intervention, Intervener, Intervened, Force, National Interest, Vital Interest, Coercive Diplomacy, Deterrence

전환기 동북아의 대외관계

- 한·일·극동러시아를 중심으로 -

金 京 順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1. 서 론
2. 러시아 극동지역의 현황
3. 극동지역에서의 정치·안보협력
4. 극동지역에서의 경제협력
5. 결 론 : 지역협력의 전망

1. 서 론

냉전체제 와해 이후 동북아는 이념적 대립에 의한 닫힌 체제에서 벗어나 열린 체제로 이행하면서 국가 상호간 제한 없이 정치적·경제적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북아는 지리적인 인접성뿐 아니라 냉전적 유산에서 탈피하기 위한 정치적 협력 및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면에서 협력의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러시아와의 정치·경제협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탈냉전이라는 구조적 환경변화와는 달리 이들 국가간 역사적 유산, 상호 부정적 인식, 영토문제에 이르는 대립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협력을 위한 제반조건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동북아지역에서 한·일·러 3국은 경제적 이익극대화의 목표뿐 아니라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이라는 안보적 차원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지닌 경제적 역량에 따른 호혜적 교류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리적인 면과 개발 정도에 비추어 이들 국가간 협력대상지역은 러시아 극동이 될 수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소련붕괴 이후 전쟁상태에 돌입된 체첸을 제외하고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 중앙정부는 극동지역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며, 서방세계 역시 이 지역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치·경제적 악화에 대비하지 못했던 러시아 중앙은 1990년대 후반부터 극동지역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최근 러시아는 유럽중심적인 대외정책 패턴을 변화하여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아태경제체제로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다.¹⁾ 이를 위해서는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적 투자뿐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활동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외부국가의 투자와 협력없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극동지역 발전을 추동하기는 쉽지 않다.

극동지역을 둘러싼 국가간 정치·경제적 협력이 극동지역의 자체적 발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발전과 안보에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나,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협력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소련붕괴 이후 한국의 대러접근과 러시아의 대한접근 의도는 서로 달랐고,²⁾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

1) Sharif M. Shuja, "Moscow's Asia Policy," *Contemporary Review*, Vol. 272, No. 1587(April 1998), pp. 169-176.

2) Georgii Toloraia, "Korean Peninsula and Russia," *International Affairs*(Russian

이 러시아와 협력을 시작했을 때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러시아는 한국의 태도에 불평하게 되었다. 일본도 소련방해체 이후 러시아 극동의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극동지역의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에서 주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직 이들 국가간 지역 협력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논문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현황 및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의 주요 국가인 한국과 일본과의 쌍무적인 정치군사적 협력 및 경제적 협력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간 협력이 추진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러시아 극동지역의 현황

러시아 전영토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극동지역은 영토의 규모뿐 아니라 석유, 가스, 목재, 다이아몬드, 수산자원, 석탄 등이 풍부한 지역이다. 반면 인구는 약 716만 명으로 전인구의 5%에 불과, 인구가 가장 희박한 지역이다.³⁾ 10개의 행정구역⁴⁾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모스크바와 멀리 떨어져 있어 중앙정부가 철저히 통제하기 어려우며, 연방해체 이후 중앙정부의 지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독자적 정책결정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푸틴

Journal), Vol. 49, No. 1(Feb/, 2003), pp. 24-35.

3) Goskomstat Possii, *Rossiiskii statisticheskii ezhegodnik ofistial'noe izdanie 2000* (Moskva, 2000), pp. 54-55.

4) 행정지역으로는 사하공화국, 뿌리모리예와 하바로프스크 변경주(크라이)를 비롯해 아무르주, 캄차카주, 사할린주, 마가단주, 유대인자치주, 추코트카자치관구, 코랴크자치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의 강력한 국가건설이라는 기치하에 2002년 5월 풀리코프스키(Konstantin Pulikovskii)를 극동지역 전권대표로 임명하여 중앙통제의 노력이 실행되고 있으며, 지리적·인구학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으로부터 분리독립하려는 움직임보다는 동북아지역과의 통합을 통한 러시아 내에서의 안정이 모색되고 있다.⁵⁾

(1) 동북아지역에서의 협력확대 필요성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을 유럽의 일부로 인식해 왔으며, 구소련방의 붕괴 이후에도 유럽으로 통합되어 시장메커니즘을 지닌 민주국가를 형성하겠다는 친서방적 대외정책을 지향했다. 사실 구소련방 붕괴 초기 러시아는 서구유럽이 국제정치·안보적 차원뿐 아니라 경제적인 거의 모든 영역(원자재, 재정, 상품과 서비스, 노동)에서 주요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의존하고 발전을 도모할 세계는 유럽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⁶⁾ 하지만 코지레프(Andrei Kozyrev) 외무장관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친서방의 교정책은 러시아내 민족주의세력의 반대를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⁷⁾ 변화하는 국제질서하에서 러시아의 위상확립에도 기여하지 못했다.⁸⁾

5) Rajan Menon, "The Sick Man of Asia : Russia's Endangered Far East," *The National Interest*, Vol. 73(Fall, 2003), pp. 93-103. 체첸지역과는 달리 극동·시베리아지역의 분리주의적 움직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지역은 경제적·역사적·민족적으로 통합된 주체세력이 존재하지 않아 분리독립을 추구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6) V. Kremenuik, "The Ideological Legacy in Russi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A Russian Journal)*, No.3, 2001(<http://www.cionet.org/olj/iarj/krv02.html>), p. 5.

7) *Izvestiya*, 1996. 1. 10. 민족주의자들은 당시 쾨지레프 외무장관에 대해 "독립과 힘의 원칙, 민족과 국익의 개념을 망각했다"고 비난하였다.

8) 김경순, 『NATO 동유럽 확대와 러시아의 대응』, 세종연구소 연구논문98-08(세종연구소, 1998). 친서방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서유럽의 군사동맹인 NATO가 동유럽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러한 초기 대외인식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 걸쳐있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적 환경인식에 따라 변화되었다. '유라시아주의자'인 스탄케비치(Sergei Stankevich)는 서방 일변도의 외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러시아는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연계를 공고히 하면서, 중국·일본·한국 등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⁹⁾ 이러한 러시아의 대내적 인식변화와 더불어 국제질서에서 아시아의 중요성 증대 또한 변화를 촉구하였다.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세계의 중심은 더 이상 유럽에 한정될 수 없었다. 중국, 일본, 한반도 등 경제·군사적 강국이 포진해 있고, 미국의 중요한 전략지역이 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러시아도 이 지역으로 관심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러시아 자체적으로도 연방해체 이후 지원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피폐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 문제해결에 있어 유럽에 치중된 발전노선에서 소외된 시베리아·극동지역 발전의 관건이 동북아시아와의 경제통합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연방해체 이후 세계경제로의 진입에서 에너지와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유럽과의 공동개발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서시베리아지역과 달리 아직 미개척지로 남아 있으며, 적극적인 개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이었다. 또한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동북아안보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주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주변 동북아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며, 역으로 이들 주변국들의 행동 역시 러시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위치에 대한 전략적 인식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아시아에 대한 정세인식은 2000년 7월에 발표된 '대외정책 신개념'에 잘 나타나 있다.¹⁰⁾ 이 문건에서 러시아는 외교정책상에서 아시아

9) *Nezavisimaya Gazeta*, 1992. 8. 19.

10)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http://www.nanet.go.kr/file4/foinfor62-3.htm>).

의 중요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 아시아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과 둘째, 아시아는 러시아에게 안전보장을 위한 대상지역이라는 점이다. 아시아에는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군비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긴장과 갈등의 근원지가 존속하고 있는 긴장지역으로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러시아는 개발이 지연된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북아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대해야 하며,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안보적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는데 러시아 자체의 안보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불안정 해소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와 안보간에 상호 긍정적 상관관계를 전제할 때 극동지역의 발전 필요성은 지역안보 증진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는 아태지역 통합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이 지역국가들과의 쌍무적인 관계확대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동북아지역의 위상 제고와 더불어 러시아 자체적으로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의 필요성에 따른 주요한 국가적 지향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서구와 아시아의 중개자로서의 연계역할, 안보적 측면에서는 러시아 주변지역에서의 국가간 무력충돌이나 분쟁방지, 중국·인도와의 우호관계 강화, 일본과의 협력관계 회복, 한반도에 있어 남북한 균형관계의 발전, 극동지역의 발전과 대외관계의 연계축으로서 러시아의 국내 경제전략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¹¹⁾

11) M. Titarenko, V. Mikheev, "The Asia-Pacific Region and Russia," *International Affairs*(Russian Journal), No. 3 (2001), pp. 2-3.

(2) 정치·안보상황

극동지역은 지역적으로 중앙정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과거부터 관할권의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동북아지역의 위상 증대와 더불어 극동지역의 중요성도 증대된 반면, 그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체제전환기에 있어서 충분한 지원이 불가능한 조건하에서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엘친시대 초기 극동지역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중앙의 권력투쟁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것인가에 있었으나,¹²⁾ 경제적·정치적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그 원심적 힘이 증대되었고 보다 큰 경제적 자율성을 원하는 분권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극동지역의 자치적 권한은 푸틴시대에 들면서 상당히 감소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러시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집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선 직후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통령 전권대표에 의해 통제하고자 했다.

푸틴은 2000년 5월 폴리코프스키를 극동지역의 전권대표로 임명했다. 그의 전권대표로의 임명은 그가 극동지역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을 지역에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제는 각 지방의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도 못했으며, 지방의 환경이나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관료적 정책결정이 초래하는 폐해를 드러내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 정치지도자들의 정책결정권은 축소되었다. 연방경찰이나 연방법 시행으로 지방당국이 주민들의 재산과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되었다. 지역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역시 지역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12) Robert Valliant, "The Political Dimension," Tsuneo Akaha(ed.), *Politics and Economics in the Russian Far East : Changing Ties with Asia-Pacific*(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1997), pp. 3-22.

극동지역은 정치적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 안보에 있어서도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구소련시대 극동지역은 태평양함대를 위한 근거지로 거대한 군사복합체를 이루고 있었다. 연방해체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도 이념적 대결에 기반한 안보위협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1980년대초 구소련은 이 지역에 50만에 이르는 군과 200개 이상의 폭탄이 장착된 대륙간 중단거리핵미사일 및 수천대의 전투기를 배치해 왔다.¹³⁾ 이러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군사력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1989년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지상군 43개 사단이 39만명의 군을 유지하고 있었던데 반해, 1998년 사단은 15개로 축소되었고 군인원은 19만명으로 감축되었다. 태평양함대는 1989년 약 100척의 주요 전투함과 140척의 잠수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8년에는 각각 45척으로 감축되었다. 공군의 경우 구소련기인 1989년 극동에 2,430대의 전투기가 있었으나 1998년에는 900대로 삭감되었다.¹⁴⁾ 그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경제력 약화, 냉전종결로 인한 태평양함대의 전략적 중요성 감소, 중·러 관계개선에 따른 경제완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태평양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감축은 군사적 의미에서 동북아의 안정을 모색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연방해체 이후 극동지역에서 더 이상 이념적 대립이 주요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극동지역에서 안보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최근 극동지역의 안보위협으로는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체적인 극동지역의 안보위협으로 ① 한반도에서의 잠재적인 핵을 포함한 무력 갈등; ② 중국의 성장과 그에 따른 중국의 대만이나 주변국과의 잠재적 갈등; ③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본과의 긴장; ④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비합법적 무기거래; ⑤ 미국의 전략미사일 방

13)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London : IISS, 1989), p. 42.

14) *East Asia Strategic Review, 2000*(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2000), pp. 261-262.

어체계 : ⑥ 비합법적 이민과 러시아의 수자원 침해와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위협 : ⑦ 러시아 극동의 아태지역과의 분리 등을 지적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직접적 안보위협 외에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안보문제로는 미국에 대한 견제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의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미국의 독점을 막고자 한다.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확립도 동북아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차원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북한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사 역시 한반도에서 정치적 위상 확보 및 실질적 경제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 한편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독점에 대한 견제인 것이다.

또 다른 안보문제로는 극동지역의 중국화에 대한 우려이다. 역설적이지만 1980년대 이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러시아로의 중국인 유입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했다. 거대한 영토의 극동지역은 인구 7백만에 불과한 인구희소지역이다. 반면 극동지역과 접한 중국의 동북지역은 1억 3천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에 비해 인구밀도가 30배 이상인 지역이다. 더욱이 지난 10여년간 국경무역이나 이민 등으로 수십만의 중국인이 극동지역에 합법,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러시아인들은 이러한 중국인의 유입에 대해 경고해 왔다.¹⁷⁾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일시적인 것이고 편의적인 협력이라고 보고 있다.

15) Sergey Sevastyanov, "Russia Reform: Implications for Regional Policy and the Military," Judith Thornton, Charles E. Ziegler(ed.), *Russia's Far East : A Region at Risk*(Seattle and Lond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2), p. 230.

16) Rajan Menon, op. cit., 극동거주 중국인의 수적 통계는 정확하지 않다. 과장할 경우 300만이라는 보고서도 있으나 수십만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7) Viktor L. Latin, "'Yellow Peril' Again? The Chinese and the Russian Far East," Stephen Kotkin and David Wolff(eds.), *Rediscovering Russia in Asia :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Armonk, NY: M.E. Sharpe, 1995), pp. 298-299.

(3) 경제상황

극동지역은 개혁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구소련방 말기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으로 극동지역의 인플레이션은 급등했고, 산업생산은 급락했으며, 대내 자본투자는 사라졌고 실업은 급증했으며, 주민들의 실질소득은 급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의 경제체제 전환과 더불어 극동지역의 산업구조에서 기인한다. 연방해체 이전 극동지역은 태평양지역의 군사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건설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산업기반은 군산복합체였고, 이곳에서 모든 제품이 생산되었다.

고르바초프 개혁 이후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작동되는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극동지역의 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군수품에 대한 국가주문이 급속히 감소되고 자본을 非군사부문으로 이동시키자 군수산업은 작동할 수 없었다. 더욱이 옐친기에 들어서 교통·에너지·임금 등에 대한 중앙의 모든 지원이 사라졌다. 지역의 군산복합체들은 군수산업의 민수용으로의 전환을 요구받았으나, 산업체의 軍民 전환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전환했다고 할지라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다. 1991년 이후 국가주문의 감소로 러시아 군수품은 1995년까지 90% 이상 축소되었다. 1991년부터 1995년에 이르는 동안 극동지역의 모든 부문의 산업생산은 약 57% 축소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해고를 초래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극동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 1990년대 10년간 이 지역 인구는 이민으로 9% 이상 감소하였다. 극동지역에서 타지역으로의 이민은 1992~94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이민은 열악한 자연환경뿐 아니라 낮은 소득과 탈연방 이후 중앙으로부터의 지원감소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에서 기인한다. 1994년 극동지역의 일인당소득은 전국 평균에 비해 25~35% 낮았으며, 실질소득은 더욱 낮았다.¹⁸⁾ 1990년대 내내 극동지역은 시가 제공하는 열과 전기공급 등 공공서비스의 중단으로 어려움

을 겪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북부지역이 더욱 심각했는데, 극동지역 가운데 남부의 아무르주, 하바로프스크주, 연해주의 1991~97년의 인구 증감비율은 -4.5%인데 비해 북부지역은 -17.2%에 이르렀다.¹⁹⁾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은 경제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세 가지 분야에서 발전을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아직 개발되지 않은 거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동·서간을 연계시킬 수 있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자본이 풍부한 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 근접해 있어 조건이 성숙되면 지역국가들의 자본이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동지역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획득하기까지 자본유입을 위한 방법으로는 천연자원 수출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극동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에서 목재, 비철금속, 귀금속 및 수자원에 이르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동북아지역 에너지수요의 급증에 따라 동시베리아·극동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자원은 지리적으로 소련의 중앙에서 멀고 떨어져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자원의 추출비용이 높아 개발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 현재 튜멘시를 중심으로 한 서시베리아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 지역에서 유럽으로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동시베리아와 극동은 아직 개발 추진단계에 있다. 최근 이르쿠츠크와 극동의 사할린 가스·석유전의 개발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

18) Vladimir Popov, "Reform Strategy and Economic Performance : The Russian Far East as Compared to Other Region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3, No. 4(Winter 2001), pp. 33-66. 극동지역의 소득은 비슷한 생산을 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데, 이는 개혁 이전에 주택이나 사회인프라를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되었던 재원의 축소에 기인한 소득조정 때문이다.

19) Vladimir Kontorovich, "Can Russia Resettle the Far East?," *Post-Communist Economics*, Vol. 12, No. 3(September 2000), p. 367.

지 자원 외에 사하공화국의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구리, 텅스텐, 우라늄 등 수많은 금속광물 및 타이가지대와 혼합삼림지대가 위치한 시베리아·극동의 삼림자원도 풍부하다.

극동지역의 경제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으로 지리적 장점을 언급할 수 있다. 즉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에서 유럽을 잇는 철로가 완성되어 않아, 최종도착지가 극동의 블라디보스톡으로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태지만,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계되면 태평양에서 대서양을 잇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극동지역은 확대된 경제교류를 대비한 기반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러시아 시장경제로의 이행 이래 극동지역 경제발전의 주요 변수는 지역의 경제적 동력과 아태지역 경제와의 통합 정도라 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연방해체 이후 이 지역은 동북아지역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경제적 동력을 상실해갔다. 실제로 연방해체 이후 개방화와 세계시장에 의한 가격구조는 이 지역의 산업을 보호해 줄 수 없었다. 따라서 극동지역의 아·태경제와의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산업개발과 발전을 위한 외국인의 투자유치였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극동을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특성에 따라 지역에 따라 아·태지역과의 통합전략이 다르겠지만,²¹⁾ 서방국가들이 동유럽이나 러시아 유럽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반면 극동지역은 동북아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들이야

20) Nobuo Arai and Tsuyoshi Hasegawa, "The Russian Far East in Russo-Japanese Relations," Tsuneo Akaha(ed.), *Politics and Economics in the Russia Far East : Changing Ties with Asia-Pacific*(London : Routledge, 1997), pp. 157-197.

21)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극동은 3개의 하위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부 극동지역으로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아무르주, ② 어업에 종사하는 오토츠크해 주변으로 사할린주와 캄차카주, ③ 다이아몬드, 금, 에너지 추출에 의존하는 북부 극동지역으로 사하공화국과 마가단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는 상황이다. 아직 본격적 투자가 가동되지 않았으나 동북아 경제강국들과의 인접성은 극동의 발전을 위한 축이 될 수 있다.

대내적인 경제발전 및 대외적 협력의 축으로서 발전을 필요로 하는 극동 지역에 대해 최근 러시아 지도부의 개발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1996년에는 “1996~2005년에 이르는 극동·바이칼지역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극동지역을 동북아시아와 통합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국제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그리 크지 않았다. 반면 최근 중앙당국이 군산복합체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국가주문을 늘리고 있다. 또한 의회는 군산복합체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 12월 군산복합체의 파산을 보다 어렵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²²⁾ 더불어 푸틴 대통령은 극동발전을 위한 예산증액을 약속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극동지역 경제발전 결과를 빠르게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거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도자의 극동지역 경제통합의지가 확고하다면 점차 동북아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3. 극동지역에서의 정치·안보협력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러·일 정치·안보관계는 지난날 대립적인 구도에 비해서 안정화되었다. 하지만 아직 러·일간의 영토문제, 북한핵문제와 같은 긴장요인들과 그를 둘러싼 대립적 속성이 잠재해 있다. 더욱이 동북아국가간 상호 이해관계를 조절할 공동의 메커니즘을 창출하지 못한 채 변

22) Sergey Sevastyanov, *op. cit.*, pp. 224-229. 법에 따르면 군산복합체의 파산은 군산복합체의 채무가 자산보다 클 때만 진행될 수 있으며 기업은 부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전에 비해 두배에 이르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화의 속성은 지니고 있으나 지난날과 같은 동맹에 의존하고 있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²³⁾ 이러한 가운데에서 한·러, 러·일의 정치·안보협력은 속도의 완급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계는 한·일의 러시아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이라는 틀 아래서 교류확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1) 한·러 관계변화와 한반도 안정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러시아 극동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다. 한·소간 외교관계 수립 초기에 한국은 인접한 러시아 극동과의 협력보다는 북한과의 경쟁차원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중앙인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우선했기 때문이다. 연방해체 이후 한·러 간의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극동은 정치·안보적 의미보다는 역사상 한인거주지역인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문화적 관심대상이었다. 하지만 극동지역은 점차 자원의 보고로서 가치와 더불어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안보적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냉전기 동안 구소련은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고르바초프-노태우 대통령의 비공식 만남 이후, 9월 구소련과 한국은 공식 외교관계 수립으로 구소련은 남북한과 동시에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은 남북한 등거리라기보다는 한국편향적인 것이었다. 1992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엘친 대통령은 분쟁시 자동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1961년에 체결된 조·러조약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한·러 양국 대통령은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하여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① 정치·경제

23) Victor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Chap. 2.

· 과학· 문화협력을 위한 기본관계조약, ② 군사교환방문 협정, ③ 이중과세 방지조약을 조인했다.²⁴⁾ 영토문제로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어려움에 직면한 러시아측은 동북아에서 한국을 경제협력의 주요 대상국으로 보았다. 반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우위확보라는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에 고무되었다. 즉 1992년 옐친의 한국방문은 러시아측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인 반면 한국은 경제협력을 주로 외교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결국 이러한 입장차이는 양국간의 갈등적 요소로 드러났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한국이 일본을 대체할 만한 투자자도 아니라고 판단했다.²⁵⁾ 더욱이 러시아는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위상도 하락해 1994년 북한핵위기시 주요 협상대상국으로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반도에서 갖는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옐친 초기 경제적인 면에 과도히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편향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북한핵위험을 경험한 러시아는 점차 이 지역의 정치·전략적 중요성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이 지역에서의 역할확대를 희망하고 있다.²⁶⁾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는 러시아의 대외정치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요한 불안정 근원지역으로 지역안보적 차원에서 주요 관심대상이다. 극동지역의 인구 대부분이 러시아·북한 경계 수백km 내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로

24) Shim Jae Hoon & Ed. Paisley, "Trade and Trade-off: Yeltsin's Visiting Bring Profit to Seoul, Moscow,"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ol. 155, No. 48(Dec. 3, 1992).

25) Georgii Toloraia, *op. cit.*, 2002년 11월 한·러간 기본협정을 맺은 지 10주년이 되었으나, 협정 초기 예상과는 달리 경제부문에서 원하던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고 본다. 1990년대초 상당히 발전한 양국간 무역은 한중무역 총액의 1/10도 못되며, 교역의 내용 역시 러시아측에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6) Alexandre Y. Mansourov, "Russia President Putin's Policy towards East Asia," *The Journal of East Asia Affairs*, Vol. 15, No. 1(Spring/Summer 2001), pp. 42-71.

서는 극동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동북아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나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국가들의 개발투자가 필수적인데 한반도의 불안정은 이러한 투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상황이 자국의 안보에 해악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더불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남북한과 각기 관계정상화와 선린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1990년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러시아로서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느슨해진 부분을 졸라매는 것', 즉 북한과의 관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다.²⁷⁾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얻어낼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러시아연방 초기 한국편향적 외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북한과의 협력관계 재개 필요성을 논하고 남북한간 균형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²⁸⁾ 1996년초, 러시아 외무장관 프리마코프는 남북 양국과 모두 우호적 관계확대를 위한 균형외교정책을 취했다. 대북관계 현안인 1996년 9월 종료된 新조·러 상호우호협력조약의 체결문제를 1999년 외무부 차관 카라신의 북한방문으로 조약체결의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 의사도 밝혔다.²⁹⁾ 2000년 2월 외무장관 이바노프(Igor Ivanov)가 평양을 방문했으며, 8월에는 러시아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다. 2001년 4월 북한의 국방장관 김일철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군사적 협력과 군사기술 원조에 관해 러시아 이바노프 국방장관과 협정을 체결했다. 2001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차로 극동지역을 거쳐 러시아를 방문했다. 김정일은 기차여행 도중 옴스크에서는 T-80탱크공장을, 모스크바에서는 로켓제조공장, 썬트 삐쎌르부르크에서는

27) 폴로라야 G. 다비도비치, 김록양 역, 『러시아·북한관계 考察 : 러시아와 북한 : 極東의 오랜 파트너』, 『극동문제』, 2000년 No. 5(<http://www.nanet.go.kr/qhatsnew/foinfo/file/foinfofor68-3.htm>), p. 4.

28) 김경순, 『러시아 대한반도정책의 변화와 전망』, 『군사』, 제37호(1998), pp. 219-255.

29) *East Asian Strategic Review 2000*, op. cit., pp. 251-252.

터빈제조공장 및 노보시비리스크에서는 핵물리학 연구소와 Su-34 전투기 생산공장을 시찰했다.³⁰⁾ 이러한 접촉과 더불어 극동지역은 2002년 김정일-푸틴의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과의 정치·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 되고 있다. 이렇듯 푸틴의 대북한 접근이 시도된 이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러·북관계는 잦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잠수함의 구매,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관한 협상과 같은 정치·안보영역에서의 러·북관계는 러시아 극동과 관련을 지닌다.³¹⁾

한국 역시 자체적인 외교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극동지역과 개별적인 정치·안보협력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극동지역은 러시아정부의 기본적인 외교방침하에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협력의 추진과 더불어 한반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한·북·러 삼각협력의 주요한 대상 지역이 되고 있다. 두만강 경제개발계획이나 전력, 가스 등 러시아 극동의 에너지자원 관련 협력은 한반도와 더 나아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중요한 협력이 될 것이다.

(2) 러·일 관계와 국방교류 증진

구소련방이 와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일본의 정치·안보협력은 침체되어 왔다. 냉전종결 이후 러시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은 일본에게 주요 안보위협을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對아태지역정책의 표명이 양국간의 관계변화를 초래할 중요한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현안인 영토문제와 일본의 '정경불가분'정책³²⁾

30) 『世界週報』, 2000. 9. 11, pp. 50-51.

31) Young-Chool Ha, "The Dynamics of Russia-South Korean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Russian Far East," Judith Thornton, Charles E. Ziegler(ed.), *op. cit.*, pp. 397-415.

32) 홍성원,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의 일·러 경제관계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슬라브학회

은 양국간 관계진전을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로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지정학적 조건은 양국관계의 급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양국간 영토문제와 평화조약 체결문제가 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³³⁾

러·일 영토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1996년에 이르러 양국은 관계전환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1996년 후반 일본은 대러정책에서 '정경불가분'의 원칙 대신 '중층적 어프로치'를 제시하였다. 북방영토(남쿠릴섬)의 반환이 중요하지만 러·일 관계가 일면적인 것이 아니라 다층적인 것이므로 양국 정상간 회담, 러시아 시장경제이행을 위한 협력, 극동지역과의 경제교류, 문화교류 촉진 등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일본의 입장변화에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요인이 존재한다. 1996년부터 일본이 러시아에 적극적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은 영토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단순한 희망이기보다는 러·중 관계개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³⁴⁾ 동북아에서 세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외교적 운용방안의 다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NATO 동유럽으로의 확대를 수용하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협력도 요구되었다.³⁵⁾ 러시아에서도 프리마코프가 새로운 외무장관이 되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남쿠릴섬의 반환이 아닌 공동개발의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양국간 관계개선은 1997년 보다 구체화되었다. 6월말 덴버에서의 G7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대러관계에 있어 보다 유연성을 보이게 되었고, 7월 하시모토 수상은 대러외교 3대원칙으로 '신뢰, 상호이익, 장기적 관점'을

발표논문(2002. 11. 15-16), p. 98. 일본과 소련(이후 러시아)의 외교관계 단계는 '정경 분리'(1956-1979), '정경불가분'(1980-1995), '중층적 접근'(1996-현재)의 3단계로 나뉜다.

33) Hiroshi Kimura, "Putin's Policy Toward Japan: Return of the Two Islands, or More?," *Demokratizatsiya*, Vol. 9, No. 2(Spring 2001), pp. 276-291.

34) Sergey Sevastyanov, *op. cit.*, pp. 223-246.

35) Glen D. Hook(ed.), *Japan's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Economics and Security*(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1), pp. 353-354.

제시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1997년 11월 크라스노야르스크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옐친과 하시모토는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³⁶⁾ 이후 옐친-오부치간 1998년 '러·일간 건설적 동반자관계 형성에 관한 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도 2000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양국은 평화조약에 관련해 국경획정과 공동경제활동에 관한 2개 소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양국간 외교관계 개선은 안보분야에서도 일정한 변화를 초래했다. 양국간 안보적 측면에서의 협력은 주로 군고위급인사의 상호방문과 합동군사훈련 및 상호방문 등에서 이루어져왔다. 러·일 군사부문에서는 1996년부터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1996년 4월 일본 방위청장관 우스이(Hideo Usui)가 최초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그라췌프(Grachev)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으며, 이듬해인 1997년에는 러시아 국방장관 로지오노프(Rodionov)가 일본을 방문하여 양국간 군사적 신뢰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1996년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쿠라마(Kurama)호가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블라디보스톡항을 방문하여 러시아 해군 300주년 기념축하행사에 참석했다. 1990년대초 이미 캐나다, 미국, 중국, 한국 등의 해군함정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것이었지만, 이는 러·일 양국간 군사관계의 진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해군 역시 그에 대한 답례로 1997년 6월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비노그라도프(Admiral Vinogradov)호가 도쿄를 방문했다. 1998년 7월에는 일본 구축함 쿠라마와 야마기리(Yamagiri)호가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여 러시아 해군의 날 축제에 참석하였으며, 최초로 일본 북해지역에서 러·일 양국간 공동해상탐색구조훈련이 실시되었다.³⁷⁾

36) Alexei V. Zagorsky, "Three Years on a Path to Nowhere: The Hashimoto Initiative in Russian-Japanese Relations," *Pacific Affairs*, Vol. 74, No. 1(Spring 2001), pp. 75-93.

또한 1999년 8월 일본방위청 장관 노로타(Hosei Norota)는 러시아 국방장관을 공식방문하고 군고위급인사 교류, 정기적인 정책실무협의, 합정의 상호방문과 공동훈련 실시에 관한 군사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는 또한 모스크바에 이어 방문한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만나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간 핫라인 설치와 양국간 해상탐색구조훈련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1999년 9월에는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의 함정이 일본 요코스카를 방문하였으며, 2000년 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총참모인 후지타(Kosei Fujita) 제독이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다. 그는 바라그(Variag) 미사일 순양함에 승선할 수 있었으며, 러·일간 해상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또한 2003년 1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청장관이 러시아를 공식방문³⁸⁾하는 등 러·일 양국간 국방장관급 고위층의 상호방문과 특히 극동 군사지역으로서 블라디보스톡항에 기반하고 있는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와의 상호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정치·군사안보 부문에서의 교류는 한편에서는 상호간의 안보위협과 불신감의 축소에서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의 전략구도상 새로이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일본의 인식변화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탈냉전 이후에도 러시아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보아왔다. 러시아군은 극동지역에서 핵을 보유한 군사력이며, 러시아의 불안정한 경제상황하에서 러시아 방위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해 왔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여러 수준의 정치·군사교류를 통해 일본과 러시아는 상당정도 양측이 지녀왔던 불신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³⁹⁾ 유동적인 아시아의 군사전략적 상황에서 러시아도 동북아 안보 문제에 관해 일본과의 협상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⁴⁰⁾

37) *East Asia Strategic Review 2000*, op. cit., p. 254.

38) *Nezavisimaya gazheta*, 2003. 1. 15.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의 방러는 푸틴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협의사항을 양국간 실무장관이 만나서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39) Masahiro Akiyama, "Japan's Security Policy Toward the 21st Century," *RUSI Journal*, Vol. 143, No. 2(April 1998), pp. 5-9.

2000년 푸틴정부의 등장시점에서 이러한 협력조치로 러·일 양국간의 정치·군사관계는 상당히 증진되었다.⁴¹⁾ 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인 것임이 명확했다. 2000년 9월 푸틴 대통령의 일본 공식방문에서 양국은 국제분야에서 상호협력하자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러시아가 WTO와 ASEM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러시아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확보를 지지하였다. 더불어 양국은 한반도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북일관계 정상화, 북러관계 강화, 북한장거리미사일과 핵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푸틴-모리의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투자, 안보, 환경, 군사협력 등 15개 문서가 서명되었다.⁴²⁾ 그러나 양국간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의 평화조약 협상에 대한 입장에서 기인하는데, 1997년 크라스노야르스크협정에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단지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수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푸틴은 러시아의 여론이 허용하지 않는 한 영토반환이 실현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따라서 2001년 3월 러·일 양국정상은 이르쿠츠크에서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평화조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설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르쿠츠크선언'을 발표하였다. 2003년 1월 고이즈미 수상의 모스크바 방문시 양국정상은 영토문제, 경제, 국제테러 분야에서 협력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경제 등 6개 분야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실행계획(action plan)'에 서명하였다.⁴³⁾

40) Victor Pavliatenko and Alexander Shlindov, "Russia-Japanese Relations :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rospects at the Start of the 21s' Century," *Far Eastern Affairs*, No. 4(2000), pp. 13-18.

41) *Ibid.*, pp. 3-31.

42) Hiroshi Kimura, *op. cit.*, pp. 276-291.

43) Joint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Russia and the Prime Minister of Japan on the Adoption of the Russia-Japanese of Action, the Kremlin, Moscow, January 10, 2003(<http://www.ln.mid.ru> 검색일 2003. 11. 6).

4. 극동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러시아 극동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산업개발과 인프라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바라고 있으나, 시장의 제한성과 제도적 미비로 1990년대 초반 경제협력에서의 실패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적극적인 협력추진을 꺼려왔다. 최근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개발은 이러한 지지부진한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 한·러 경제협력

러시아 극동에서의 한국은 주로 천연자원과 자금의 회수가 빠른 단기적 이익에 집중해 왔다.⁴⁴⁾ 하지만 극동지역은 단기적이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대규모 자본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충으로서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 경제협력은 다음 몇 가지 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 극동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진전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극동지역에서 자본을 대고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이용한 경제협력단지를 형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한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원이 풍부하며, 토지비용이 저렴하고, 미래 시장확보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중요시여겨 왔다. 초기의 가장 큰 프로젝트로는 연해주 스베틀라야(Svetlaia) 지역에서의 현대목재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이는 환경문제로 인해 강력한 지역과 국제적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무산되었다. 또한 잘 알려진 것으로는 나호트카의 프로젝트가 있다. 이는 사실상 정치적 문제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⁴⁵⁾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 프로젝트 진전에 합의했으나 그 규모는

44) Peggy F. Meyer, "The Russian Far East's Economic Integration with Northeast Asia : Problems and Prospects," *Pacific Affairs*, Vol. 72, No. 2(1999), p. 217.

330헥타르에서 20헥타르로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토지개발 공사는 한국기업들에게 빌려줄 인프라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49년간 이곳을 임대했다. 러시아정부는 건설공사 소요기자재 반입시 관세와 조세를 면제하고 제품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다.⁴⁵⁾ 하지만 나호트카와 연해주의 기간시설 부족으로 전력난, 용수난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기간시설 확충이 공단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당한 추진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이다. 2003년 11월 13일 타당성조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개발과 건설에 한·러·중 3국이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빠른 진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일본과 몽골과 더불어 5개국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 사업은 러시아의 재정위기로 지연되다가 2000년 한·중·러 3국간의 타당성조사에 합의함으로써 새로이 출발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극동지역에서 이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은 사할린 석유·천연가스 프로젝트이다. 1~6에 이르는 이 프로젝트에 한국은 아직 구체적으로 가담하고 있지 않지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개발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송유관건설 등의 부문에서 발생하는 건설사업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주로 전자제품·식품·의류 등으로, 러시아 극동의 거주자들은 한국을 중국보다 질 좋은 물건

45) Elizabeth Wishnik, "The Regional Dynamic in Russia's Asia Policy in the 1990s," Judith Thorton and Charles E. Ziegler, *op. cit.*, p. 308. 나호트카 공단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다. 왜냐하면 연해주 두마의 경제특구입법의 논쟁으로 테크노파크 계획이 한때 무산되었으며, 연해주 前주지사과 그의 주요 적수인 前행정관이고 연해주 두마의장인 세르게이 두드니크(Sergei Dudnik)와의 사이에 부패와 정치적 투쟁으로 보다 복잡해졌다. 그런데 경제특구입법이 1998년 12월 마침내 통과되었고, 1999년 5월 러시아와 한국정부는 프로젝트를 진전시킬 것에 다시금 합의했다.

46) 한중만, 「한·러경제협력과 시베리아·극동러시아」, 한국슬라브학회 발표논문(2002. 11. 15-16), p. 123.

들의 수입처로 간주하고 있다. 1998년 러시아의 경제위기 이후에도 한국은 연해주와 사할린의 질 좋은 소비재 공급처가 되고 있다. 대략 10만명에 이르는 러시아 상인들이 블라디보스톡과 부산을 왕복하며, 소규모로 물건을 수출입해 왔다. 러시아의 재정위기는 한·러 교역을 40% 이상 축소시켰고, <표 1>에서 보듯이 극동지역에서의 무역도 1998년, 1999년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가 2000년에 들어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재정위기 동안 일부 한국회사들은 위기 이전에 보낸 상품에 대한 지급불능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TRA는 계속해서 블라디보스톡에 사무실을 유지하였고, 러시아 극동은 한국의 전자제품·

<표 1> 하바로프스크주와 연해주지역의 한·일과의 교역 1992-2000
(단위 : 백만 달러)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하바로프스크주									
한국 (수출)	5.3	28.1	52.3	44.4	31.2	32.1	24.1	10.9	14.0
(수입)	19.5	20.2	31.2	50.9	50.0	65.3	100.4	55.0	61.0
(합)	24.8	48.3	83.5	95.3	81.2	97.4	124.5	65.6	75.0
일본 (수출)	48.9	43.2	37.6	37.4	26.2	37.8	17.8	42.0	35.8
(수입)	182.5	277.4	246.0	301.0	248.4	281.1	178.5	213.0	210.0
(합)	231.4	320.6	282.7	338.4	274.6	318.9	186.3	255.1	245.8
연 해 주									
한국(수출)	114.6	13.0	95.0	107.2	143.4	187.0	113.0	100.0	127.0
(수입)	21.7	34.2	49.0	62.1	163.4	179.3	105.0	134.0	151.0
(합)	136.3	47.2	144.0	169.3	306.8	366.3	218.0	234.0	278.0
일본(수출)	98.3	66.2	76.0	57.1	71.6	91.9	61.0	38.0	32.0
(수입)	110.3	122.3	189.0	206.4	228.0	318.7	264.0	161.0	194.0
(합)	208.6	188.5	265.0	263.5	299.6	410.6	325.0	199.0	226.0

출처 : A.B. Ignatiev (et.al) Investitsionnyi Atlas, tom 1(Elizabeth Wishnick, op. cit., p. 302, 재인용)

식품·건축부문에서 강력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연해주에서 한국의 對연해주 수출액이 일본에 비해 큰 것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극동지역에 제품생산공장의 건설이다. 대표적으로 의류제조업을 들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일부 의류제조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류수출 쿼터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연해주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파르티잔스크(Partizansk) 지역의 한국의류공장은 미국시장을 겨냥해 의류를 생산했다.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고용창출로 환영했으나, 일부는 값싼 노동력 이용이라는 면에서 비판했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극동의 상호보완성을 감안해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 투자는 큰 기대를 보았지만 협력이 그리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지역은 모스크바와 극동지역으로 나누어 편중되어 있는데, 2000년 9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총 건수는 110건이며, 투자총액은 1억 4천만 달러로 한국 해외투자의 약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넷째, 통신분야의 협력도 전망이 밝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 무선통신사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은 블라디보스톡에 진출하여, 'New Telephone Company'사의 대지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하여 통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러시 CDMA방식의 상용화 분야에서 협력증진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전망은 밝다.

이 외에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분야는 다양하다.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는 수산업, 농업, 삼림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극동지역과의 농업개발협력에 대한 접근이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유권과 점유권 등의 관리문제에서 논란이 크기⁴⁷⁾ 때문에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47) Jenifer Duncun and Michelle Ruetschle, "Agrarian Reform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the Russian Far East," Judith Thorton and Charles E. Ziegler, *op. cit.*, pp. 193-222.

(2) 러·일 경제협력

러·일간 정치관계 진전이 어려웠던 만큼 경제관계 역시 순조롭지 못했다. 일본은 구소련시대에 오히려 '정경분리'원칙에 기초해 상당한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구소련의 최초 장기신용공여국이었을 뿐 아니라 1973년에는 다나카 수상의 소련방문을 계기로 소·일간 시베리아·극동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 이후 일본은 서방국가들과 더불어 대소경제제재를 실시했으며, 대소의 교의 기본원칙을 '정경불가분'으로 전환하고 '북방 4개섬'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관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1990년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계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러·일 경제관계는 진전되기 어려웠다. 더욱이 체제 와해과정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력은 협력의 동인을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의 교역관계에서 자명하게 드러났다. 1989년 러·일간 무역액은 60억 달러로 최고조를 달했던데 비해 이후에는 교역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왔다. 일·러간 수출입총액이 1990년대 내내 40~5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뿐 아니라 일본의 총무역액에서 대러무역이 차지하는 규모는 보다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일본에게 대러수출 비중은 1980년대 1.1~1.2%였던데 비해 1990년대에는 0.1~0.3%로 상당히 하락했다. 물론 이러한 통계에는 제3국을 통한 일본의 대러수출이 누락된 것이다.⁴⁸⁾ 3국을 통한 수출이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수치보다는 클 것으로 예

48) Kunio Okada, "The Japanese Economic Presence in the Russian Far East," Judith Thornton and Chales E. Ziegler, *op. cit.*, pp. 423-425. 1994년에서 1996년까지 연간 2백만대의 일본 TV가 제3국을 통해 러시아에 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 재정위기로 제3국을 통한 수출은 다소간 타격을 받았으나 2000년 이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상되지만, 이를 감안할지라도 양국간 무역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표 1>에서 보듯이 극동지역과의 교역도 예상외로 저조하다. 교역 뿐 아니라 원조와 투자부문 역시 제한적이었다. 소련방 와해 이후 일본정부는 G-7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그 원조의 주요 대상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6년초 일본의 대러원조는 인적부문과 기술부문을 모두 포함해서 3억 8천 1백만 달러에 불과했다. 원조뿐 아니라 러·일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러시아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 지속적인 영토갈등, 일본의 국내정치적 상황의 불안정 등으로 불확실해졌고, 러시아 극동에 대한 일본의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웠다. 극동지역과의 관계가 다소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하시모토 수상의 3대 기본원칙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일본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협력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일본을 극동지역에 대한 주요한 투자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기대해 왔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간에는 경제력과 발전수준 따른 산업구조의 차이, 즉 러시아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보유국이며 일본은 자본과 산업기술의 보유국이라는 상호보완성이 존재하고 있다.⁴⁹⁾ 극동지역 정부는 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인프라의 구축이며, 지리적 위치나 자본보유면에서 초기에 큰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이 사업은 러시아 중앙당국이나 다른 유럽국가가 아닌 일본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행정관리들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2000년 8월 2일 기자회견에서 사할린의 주지자인 파르후디노프(Igor Farkhutdinov)는 일본과의 지역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양국간 평화조약의 체결 필요성을 중앙당국에 제기하였다.⁵⁰⁾ 극동의 지역정부뿐 아니라 일본으로서도 극동지

49) Yevgeny B. Kovrigin, "Problems of Resource Development in the Russian Far East," Tsuneo Akaha(ed.), *op. cit.*, pp. 70-86.

역에 대한 일정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가장 큰 수입국이다. 중국이 2000년 대규모 군사물자 수입으로 하바로프스크주에서 최고 수입국의 지위를 확보했으나,⁵¹⁾ 일반적으로 일본이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국가이다. 일본이 이 지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비철금속과 귀금속, 목재, 수산물, 연료 등으로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게 극동은 좋은 천연자원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은 아직 미개발된 상태지만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동북아지역 에너지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21세기 중반에는 동북아지역이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중국도 에너지수요의 15~20%가 부족한 수입국이며, 일본과 한국의 석유소비를 감안할 때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지역은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러시아 극동에서 일본의 투자를 원하는 주요 부문은 인프라건설 부문으로 얼마간의 협력이 진행되어 왔다. 일본은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 유즈노 사할린의 공항재건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루비노 항구의 개선을 위한 투자 타당성조사에 3천만 달러를 투입하였다. 1999년 5월 연해주 행정부와 러·일 경영위원회는 일본이 자루비노의 곡물저장과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자루비노의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데 1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했다.⁵²⁾ 또한 1997년 온실가스배출 축소에 관한 교토국제회의 이후 미츠이, 미츠비시, 스미모토 등의 일본 회사들은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사할린주의 발전소 혁신에 투자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은 소비에트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나 1980~90년대 초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일본은 사

50) *RIA Novosti*, August 2, 2000.

51) 2000년 하바로프스크의 대중수출은 5억 2천 400만 달러로 일본의 2억 1천만 달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52) Elizabeth Wihnick, *op. cit.*, p. 312.

할린 대륙붕의 석유와 가스프로젝트에 일찌감치 참여해 왔다. 일본의 컨소시엄인 SODECO는 사할린 프로젝트 I의 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미츠이와 미츠비시는 사할린 프로젝트 II의 공동개발회사이다. 최근 사할린 남단에 위치한 포르드고르니예에 액화기지를 건설하여 일본, 한국, 중국 등에 LNG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다.⁵³⁾ 사할린에서 일본으로의 해저전력망과 사할린-홋카이도 가스 파이프라인이 논의중이며, 일본은 앙가르스크에서 중국 다칭으로의 송유관라인을 나호트카로 변경하도록 노력하고 있다.⁵⁴⁾

일본은 사할린에 많은 합작사를 설립해서 운영해 왔다.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주에서는 목재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연해주의 켈르노우드(Ternowood) 합작회사는 높은 품질의 건설자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하바로프스크주의 다이리쿠(Tairiku)에서는 정교한 제조공법의 적용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극동지역과의 관계에 있어 단순히 교역이나 투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러·일 경제관계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일본의 시장경제의 경험을 전달하는 문화센터의 설립, 병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 핵잠수함 해체에 따른 원조 프로그램 등도 가동하고 있다.

많은 부문에서의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본과 러시아 극동간 경제협력 역시 발달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원인으로는 영토문제의 미해결과 같은 정치적 문제도 있으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간의 교역이 단순히 극동지역 천연자원의 수출과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양국간 교류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산업구조의 현대화나 경제구조 개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에도 기인한다.⁵⁵⁾

53) 김경순, 『한러관계의 안보동학』, 『평화연구』, 제11권 4호(2003년 가을), pp. 163-164.

54) *Izvestiya*, 2003. 1. 13.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러시아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 러시아의 핵잠수함 해체에 2억 달러, 플루토늄 재활용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55) Tsuneo Akaha, Pavel A. Minakir, Kunio Okada, "Economic Challenge in the Russian Far East," Tsuneo Akaha(ed). *op. cit.*, pp. 49-69.

5. 결 론 : 지역협력의 전망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두 가지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중국과의 경제적·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일·미 등과의 경제협력이다. 잠재적으로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발전에 있어 중국과의 긴밀화보다는 한·미·일과의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보다 큰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 국익의 관점에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나 패권주의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가능하며, 러시아 무기의 가장 중요한 판매처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에 대해 러시아는 일정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극동지역에서 유럽측 러시아에 비해 중국인의 이민이 보다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은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투자자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극동지역에 어떤 인구적인 위협도 되지 않으며 중국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의 아·태경제로의 성공적 통합을 위한 주요 국가라고 본다. 극동지역은 정치적 차원의 대외관계보다는 석유와 가스, 목재, 통신 등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로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에 대해 연방해체 초기의 정치적 접근에 비해 에너지·원자재, 통신, 어업 등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 접근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고 있다. 아직 극동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이 미비되어 있으나, 석유·가스개발, 에너지송유관 건설, 해양수송, 두만강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경제협력프로젝트, TSR-TKR 연계의 의한 동북아지역 공동의 교통망 형성, 환경문제 등과 같은 협력논의가 각 국가간 쌍무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비해, 아직 실질적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이는 러시아와의 지역협력에 있어

서의 장애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련방 해체 이후 이념적 갈등이나 러시아 군사력이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안보위협으로 작동하지 않을 지라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3국간 쌍무적·다자적 차원의 협력추진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요인들이 상호 어떻게 조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극동지역에서 한·러·일간의 지역적 협력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1) 긍정적 요인

지역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각국 지도자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극동지역의 협력조건을 만들기 위한 러시아 지도자의 의지는 중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 발전에 대한 명확한 구상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푸틴은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필요성이라는 전제 외에, 개발을 위한 대외·안보정책에 있어 실용주의적 입장을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옐친시대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의 대외정책은 동북아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극동지역을 둘러싼 협력에 제동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⁵⁶⁾ 이에 비해 푸틴 대통령은 미·러간의 대결적인 입장을 최소화하면서, 대아시아로의 진출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극동지역의 개발 필요성을 직시해 왔다. 2000년 7월 대통령 당선 직후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기 전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국가로서 외교정책에서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방문 이후 푸틴은 블라고베첸스크(우무르州의 州都)에서 극동지역의 지도자들과 만나 극동지역의 발전을 논의했다. 이때 하바로프스크의 주지사인 이사에프(Viktor

56) Herbert J. Ellison, "Russia, Korea, and Northeast Asia," Nicholas Eberstadt & Richard J. Ellings, *Korea's Future and the Great Powers*(Seattle and London : University of Washington, 2003), pp. 164-187.

Ishaev)는 극동지역의 에너지위기와 인구문제를 제기하고, 러시아 중앙정부가 극동지역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철저한 수행을 제기했다.⁵⁷⁾ 푸틴도 극동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원칙에 따른 연방자산의 집중적 분배를 강조했다. 또한 이 회담 이후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된 바이칼 경제포럼에서는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동구상으로 '21세기 러시아의 아·태전략'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투자환경·우호적인 조세체계·인프라체계의 발전계획 등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극동·시베리아지역 발전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발전에 대한 러시아 지도자의 의지는 한국, 일본과의 협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러, 러·일의 협력은 동북아에서 증대하는 중국의 세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변의 국제환경도 지역내 협력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으며,⁵⁸⁾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과의 협력 못지않게 일본, 한국과의 협력이 동북아에서의 균형잡힌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에서 세력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의 급성장과 중국과 러시아의 과도한 접근을 견제할 필요를 느끼고 있으며, 이는 러·일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있다.

셋째, 경제구조상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 일본은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①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② 자원과 산업개발을 위한 노동력 증대; ③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 등이 요구된다.⁵⁹⁾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 중앙과 멀리 떨어진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동북아국가들이다. 러시아의 국내투자나 유럽의 자본은 지리

57) Sergey Sevastyanov, *op. cit.*, p. 241.

58) Rajan Menon, *op. cit.*

59) Young-Chool Ha, *op. cit.*

적, 발전수준, 시장성이라는 점에서 극동지역보다는 유럽러시아와 서시베리아지역 투자를 우선한다. 동북아에서는 서방 투자자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일본과 한국을 들 수 있다. 투자뿐 아니라 앞서 지적인 노동력의 측면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인적자원이 활용될 수 있다. 더욱이 러시아 극동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지역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넷째, 극동지역의 주민이 일본이나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극동지역의 러시아인들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못지않게,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992년 연해주 남부거주자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좋아하는 국가였으며, 그들은 대부분 일본과 보다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⁶⁰⁾ 연해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지라도 극동지역의 대부분 주민들은 경제활성화와 생활수준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의 지도자들도 역시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이 급격히 삭감된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대한의 방안은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이라고 보고 있다.

(2) 부정적 요인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많은 프로젝트와 협력 필요성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사업은 기대만큼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첫째, 이들 국가간 부정적인 상호인식이다. 러시아의 일본인식은 1904년 러일전쟁에서의 패배, 1918~22년 일본의 시베리아 간섭전쟁,⁶¹⁾ 냉전기간

60) Tsuneo Akaha, "A Paradigm Shift in Russo-Japanese Relations," Tsuneo Akaha (ed.), *op. cit.*, p. 64.

61) 남기정, 『지정학의 시대와 러일관계의 전개』, 『평화연구』, 제11권 제4호(2003년 가을), pp. 254-255.

적대국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다. 또한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일본의 남쿠릴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비추어볼 때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일본 역시 러시아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 1941년 소·일 중립조약을 위반하고 대일선전포고를 했으며, 제2차대전 이후 시베리아에서 일본인 전쟁포로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냉전시 소련의 군사적 위협 등이 러시아에 대한 인식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영토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역으로 러시아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지닌 한국은 일본에 대한 치욕과 혐오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독도문제, 교과서문제, 일본 수상의 신사참배 등으로 불거지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 한·러간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약한 편이나 러시아는 기대했던 경제협력의 부진, 한반도문제에서의 소외 등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다.

둘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대외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하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러시아로서는 해외투자 유치에 지극히 중요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건이 미비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재정체계는 불완전하고 조세제도도 발달하지 못했으며, 법률지배체제도 미발달된 상태이다. 대외교역과 투자를 위한 법적·행정적 메커니즘도 부적절하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부재와 운용메커니즘의 열악성이 마피아와 같은 세력이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들은 러시아의 외국투자에 대한 신뢰조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극동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이다.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보고인 시베리아·극동지역은 현재 전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품의 수송과 수출을 위한 도로·항만 설비의 노후화,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설도 극히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극동지역은 즉각적인 협력이나 상품생산 협력보다는 인프라설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성을 확신할 수 없으며, 대

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는 면에서 한국이나 일본의 기업단위에서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넷째, 극동지역이 아직 경제활력을 보이지 못한 채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⁶²⁾ 극동지역의 무력함은 제반 인프라의 부족에도 기인하지만 상품시장으로서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극동지역의 인구는 7백만을 조금 넘는 정도이며, 그들의 생활수준도 러시아 전국 평균이 하이다. 구매력이 극히 저조하며, 그러한 양상은 앞으로 나아지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소득증대가 어느 정도 가능하나 극동지역으로부터 타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시장성은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순, 『NATO 동유럽 확대와 러시아의 대응』, 세종연구소, 1998.
 _____, 『러시아 대한반도정책의 변화와 전망』, 『군사』 제37호(1998).
 _____, 『한러관계의 안보동학』, 『평화연구』 제11권 4호(2003년 가을).
 남기정, 『지정학의 시대와 러일관계의 전개』, 『평화연구』 제11권 제4호(2003년 가을).
 톨로랴야 G. 다비도비치, 김록양 역, 『러시아·북한관계 考察:러시아와 북한:極東의 오랜 파트너』, 『극동문제』, 2000년 No. 5(<http://www.nanet.go.kr/qhatsnew/foinfo//file/foinfofor68-3.htm>)
 한종만, 『한러경제협력과 시베리아·극동러시아』, 한국슬라브학회 연례학술대회, 2002. 11. 15-16
 홍성원,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의 일·러 경제관계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슬라브학회 연례학술대회, 2002. 11. 15-16.
- Akaha, Tsuneo, Minakir, Pavel A., Okada, Kunio, "Economic Challenge in the Russian Far East," Tsuneo Akaha(ed.), Akaha, Tsuneo(ed.), *Politics and Economics in the Russia Far East : Changing Ties with*

62) Rajan Menon, *op. cit.*

Asia-Pacific,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7.

Akaha, Tsuneo, "A Paradigm Shift in Russo-Japanese Relations," Akaha, Tsuneo(ed.), *Politics and Economics In Northeast Asia : Nationalism and Regionalism in Contention*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9.

Akiyama, Masahiro, "Japan's Security Policy Toward the 21st Century," *RUSI Journal*, Vol. 143, No. 2(April, 1998)

Arai, Nobuo and Hasegawa, Tsuyoshi, "The Russian Far East in Russo-Japanese Relations," Akaha, Tsuneo(ed.), op. cit(1997).

Cha, Victor,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 The U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Duncun, Jenifer and Ruetschle Michelle, "Agrarian Reform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the Russian Far East," Thorton, Judith and Ziegler, Charles E.,(ed.), *Russia's Far East : A Region at Risk* Seattle and Lond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2.

Ellison, Herbert J., "Russia, Korea, and Northeast Asia," Eberstadt, Nicholas & Ellings, Richard J., *Korea's Future and the Great Powers* Seattle and London : University of Washington, 2003.

Ha, Young-Chool, "The Dynamics of Russia-South Korean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Russian Far East," Judith Thornton, Charles E. Ziegler(ed.), op. cit.

Hook, Glen D. (ed.), *Japan's International Relations : Politics, Economics and Security* London and New York : Routeledge, 2001.

Kimura, Hiroshi, "Putin's Policy Toward Japan : Return of the Two Islands, or More?," *Demokratizatsiya*, Vol. 9, No. 2(Spring 2001)

Kontorovich, Vladimir, "Can Russia Resettle the Far East?," *Post-Communist Economics*, Vol. 12, No. 3(September 2000)

Kovrigin, Yevgeny B., "Problems of Resource Development in the Russian Far East," Tsuneo Akaha (ed.), op. cit(1997).

Kremenuik, V., "The Ideological Legacy in Russi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A Russian Journal)*, No.3, 2001(<http://www.cionet.org/olj/iarj/krv02.html>)

- Latin, Viktor L., "'Yellow Peril' Again? The Chinese and the Russian Far East," Kotkin, Stephen and Wolff, David(eds.) *Rediscovering Russia in Asia :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Armonk, NY : M.E. Sharpe, 1995.
- Mansourov, Alexandre Y., "Russia President Putin's Policy towards East Asia," *The Journal of East Asia Affairs*, Vol. 15, No. 1 (Spring/Summer 2001).
- Menon, Rajan, "The Sick Man of Asia : Russia's Endangered Far East," *The National Interest*, Vol. 73(Fall, 2003).
- Meyer, Peggy F., "The Russian Far East's Economic Integration with Northeast Asia : Problems and Prospects," *Pacific Affairs*, Vol. 72, No. 2(1999).
- Okada, Kunio, "The Japanese Economic Presence in the Russian Far East," Thorton, Judith and Ziegler, Charles E.,(ed.), op. cit.
- Pavliatenko Victor and Shlindov, Alexander, "Russia-Japanese Relations :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rospects at the Start of the 21st Century," *Far Eastern Affairs*, No. 4(2000).
- Popov, Vladimir, "Reform Strategy and Economic Performance : The Russian Far East as Compared to Other Region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3, No. 4(Winter 2001).
- Sevastyanov, Sergey, "Russia Reform: Implications for Regional Policy and the Military," Judith Thornton and Charles E. Ziegler(ed.), op. cit.
- Shim, Jae Hoon & Ed. Paisley, "Trade and Trade-off : Yeltsin's Visiting Bring Profit to Seoul, Moscow,"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ol. 155, No. 48(Dec. 3, 1992).
- Shuja, Sharif M., "Moscow's Asia Policy," *Contemporary Review*, Vol. 272, No. 1587(April 1998).
- Titarenko, M.& Mikheev, V., "The Asia-Pacific Region and Russia," *International Affairs (Russian Journal)*, No. 3(2001).
- Toloraia, Georgii, "Korean Peninsula and Russia," *International Affairs (Russian Journal)*, No. 1(Feb. 2003).

Valliant, Robert, "The Political Dimension," Akaha, Tsuneo(ed.), op. cit. (1997)

Wishnik, Elizabeth, "The Regional Dynamic in Russia's Asia Policy in the 1990s," Judith Thornton and Charles E. Ziegler(ed.), op. cit.

Zagorsky, Alexei V. "Three Years on a Path to Nowhere : The Hashimoto Initiative in Russian-Japanese Relations," *Pacific Affairs*, Vol. 74, No.1(Spring 2001)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 (<http://www.nanet.go.kr/file4/foinfor62-3.htm>). 『世界週報』, 2000. 9. 11.

East Asia Strategic Review 2000,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2000.

Goskomstat Possii, *Rossiiskii statisticheskii ezhegodnik ofisial'noe izdanie 2000* Moskva, 2000.

Joint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Russia and the Prime Minister of Japan on the Adoption of the Russia-Japanese of Action, the Kremlin, Moscow, January 10, 2003(<http://www.In.mid.ru>).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 London : IISS, 1989.

Izvestiya, 1996. 1. 10.

Izvestiya, 2003. 1. 13

Nezavisimaya Gazheta, 1992. 8. 19

Nezavisimaya Gazheta, 2003. 1. 15,

RIA Novosti, 2000. 8. 2.

(원고투고일 : 2004. 7. 1,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동북아, 러시아 극동, 한·러 관계, 러·일 관계, 지역협력

<ABSTRACT>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Focused on Korea, Japan and Russian Far East in Transition -

Kim, Kyung-soon

As it has transferred from the closed system based on ideology to open system since post-cold war, the regiona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have lot of potential for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Northeast Asia has mode basic conditions in terms of geographical proximity, security cooperation and complementary economic structure. However,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among regional countries have not faced up to expectations, even though Russia has transformed to market economy system.

This article intends to give a brief overview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since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describe how Korean-Russian and Japanese-Russian Relations in Russian Far East has been develop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s and examine the prospects of their relations.

Russian Far East in important for Northeast Asia in terms of its security and economic reciprocal interests. Although economic situation in Russian Far East has been complicated, it has the following merits : plentiful reserves of natural resources, the geographical location linking east-west, and the proximity to capital-rich Asia-Pacific countries. Moreover, Russia wants to establish itself as an Northeast Asian Power, but it is aware of its limited investment resources to RFE, and see neighboring countries as

sources of support for RFE's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And there is an interest coincidence of three countries in developing the RFE, a complementarity between capital-scarce Russia and resource-poor Korea and Japan. On the contrary, the political instability in Russia and the institutional and lawful defects become a factor which hampers and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Many factors including mutual perception among the countries and change of international situation have also affected relations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Korean-Russian, Russian-Japanese cooperation have great significance not only of itself but, within the context of processed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strateg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Key Words: Northeast Asia, Russian Far East, Korean-Russian Relations,
Russian-Japanese Relations, Regional Cooperation

러시아 침공 결정과정에 미친 나폴레옹 리더십의 문제점

元 泰 載

(국방부 공보실 차장)

1. 머 리 말
2. 18세기 유럽의 국제정치환경적 배경
3. 나폴레옹의 성격에 미친 가정·사회적 요인
4. 나폴레옹의 리더십과 외교정책의 특성
5. 러시아 침공 결정과정
6. 맺 음 말

1. 머 리 말

20세기는 세계인들, 특히 프랑스인들에게는 비극적인 시대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프랑스인들을 낙천주의와 낭만에 머물게 하는 위 로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프랑스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샤를마뉴(Charlemagne) 대제로부터 드골(Charles De Gaulle)에 이르기까지 선조 들이 남긴 위대한 정신유산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Napoleon Bonaparte)는 프랑스 정신의 최고봉에 우뚝 서 있다. 사실 나폴레옹만큼 프랑스 민족의 자존심을 높인 인물은 없었다. 세계를 정복했던 이 키 작은 육군 포병소위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남성적이고 가장 완전한 영웅답게 부침의 곡선이 확실한 삶을 살았다. 그는 25세에 이미 유명해졌고, 40세에 모든 것을 소유했으며, 50세에는 이름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¹⁾

나폴레옹은 징기스칸 이후 처음으로 전쟁기획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8세기 말에 등장하여 1815년 워털루 戰役에서 패하기까지 20여년간을 전장을 직접 누비며 전쟁을 지휘했다. 어떤 역사가는 나폴레옹은 자신이 좋아했던 인물들인 알렉산더 대왕이나 한니발, 카이사르 등이 싸운 전투를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의 전투를 치렀다고 말하고 있다. 1814년 프러시아의 블뤼허(Blüher) 장군은 나폴레옹이 전장에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프랑스군 4만명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²⁾

프랑스의 문호 발자크(Honoré de Balzac)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나폴레옹의 영혼은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살아 있다. 하지만 웰링턴은 우연한 존재에 불과했다. 프랑스는 아직도 나폴레옹이 그의 무덤 속에서 영국과 싸우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여겨도 된다”³⁾고까지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후세의 사가들이나 군인들은 지금까지 나폴레옹의 위대한 군사적 천재성에 매료된 나머지 그를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해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투시 그의 빠른 상황판단과 용병술은 가히 과학(science)을 뛰어넘어 예술(art)의 경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를

1) 원태재,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육사전사학과 편, 『나라를 빛낸 명장들』(서울 : 병학사, 1984), p. 215.

2) R. Ernest Dupuy and Trever N. Dupuy, *The Encyclopedia of Military History*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7), p. 740.

3) David G. Chandler, *The Military Maxims of Napoleon*(London: Greenhill Books), p. 33.

언제까지나 막연한 신화적 존재로 역사 속에 머물러 있게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를 통해 '뛰어났지만, 동시에 결점과 실수도 있었던 살아있는 장군'으로 다시 탄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폴레옹의 천재성은 이론가로서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실적인 군인이자 정치인이었다는 데에서 발견된다. 그가 내린 많은 명령서들을 보면 명령 수령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며, 심지어는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더러 발견된다. 특히 그는 1799년 제1통령에 부임하자마자, 당시 프랑스 육군만이 보유하고 있던 '열기구부대'의 해체를 명함으로써 자신의 C3I(command, communication, and control, with Intelligence) 능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

나폴레옹군의 정보수집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오판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나폴레옹이 오늘날의 위성감시장비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수집기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파리의 블로뉴 숲을 통해 진군해온 블뤼허의 프러시아군 3개 군단을 오후 1시 30분이 아니라 적어도 오전 10시경에는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랬더라면 워털루 전투의 결과는 물론, 19세기 유럽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이와 같이 전술·전략적으로 적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수는 이에 앞서 감행된 러시아에 대한 침공이라는 데 대체로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은 이보다 약 130년 후에 일어난 히틀러의 러시아 침공과 곧잘 비견되는데, 이는 두 사건이 모두 독재자들—천재이건 미치광이이건 간에—에 의해 일어났으며, 특히 측근 참모진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무모하게 감행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4) *Ibid.*, p. 19. 열기구(montgolfere)는 1783년 프랑스의 몽골피에(Montgolfier) 형제가 발명했다. 또한 1793년 플레르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군에게 탈취당한 열기구가 아직도 비엔나에 있는 오스트리아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코넬리(Owen Connelly)가 집필한 『나폴레옹시대 프랑스 역사사전(Historical Dictionary of Napoleonic France)』을 보면, 나폴레옹의 가장 가깝고도 신뢰하는 측근들과 고문들 대부분이 러시아 침공을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나폴레옹의 유능한 최고 법무관료로 대법관과 나폴레옹 부재시 파리 행정감독관을 지낸 캉바세레(Jean-Jacques Régis de Cambacérès), 러시아 알렉산더 황제 때(1807-1811) 러시아 주재 대사와 그 후 나폴레옹의 경호를 맡았던 기병대장 꼴랭꾸르(Armand-Augustin-Louis Caulaincourt), 내무장관(1804-1807)과 외무장관(1807-1811)을 지낸 샹빠니(Jean-Baptiste de Nompère de Champagny), 나폴레옹에게 가장 인정받은 유능한 행정가였으며 1811년 4월 이후 나폴레옹의 일일통신문 발송담당 국무장관⁵⁾이었던 다뤘(Pierre-Antoine-Noël-Bruno Daru), 직책상 매일 나폴레옹과 접촉했던 궁정 수비대장 뒤로끄(Géraud-Christophe-Michel Duroc), 전시 행정장관으로서 65만 침공군의 모든 보급을 관장했던 라꾸에(Jean-Gérard Lacuèe), 그리고 1811년 꼴랭꾸르에 이어 러시아 대사를 역임했으며 나폴레옹이 총애했던 부관출신의 로우(Jacques-Alexandre-Bernard Law) 등이 모두 러시아 침공에 강력하게 반대했다.⁶⁾

그렇다면 나폴레옹은 왜 이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침공을 강행했을까? 나폴레옹의 유능한 참모들 대부분이 관련정보를 잘못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도 모르는 나폴레옹만의 비밀스런 이유가 있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일단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결정이 당시 국제정세나 군사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주로 나폴레옹 개인의 독자적인

5) 나폴레옹은 전쟁시를 막론하고 부하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시를 하였다. 따라서 그의 주변에는 항상 이러한 지시를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각 부대나 일선 행정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비서관이 5~6명이나 있었는데, 통신문 발송담당 장관이 이러한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ibid.*, p. 14.

6) Owen Connelly, *Historical Dictionary of Napoleonic France*(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85), pp. 94, 103, 104-5, 143, 154-55, 160, 286-87, 357-58.

판단에 의해 내려졌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

1987년 출간된 『프랑스 역사연구(French Historical Studies)』에 실린 논문 “다시 보는 나폴레옹(Napoleon Reconsidered)”에서 파커(Harold T. Parker)는 나폴레옹의 개인적 가치관과 사회환경적 가치관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코르시카 사회와, 프랑스 사회 그리고 유럽 국제사회와 접촉하며 살아야 했던 나폴레옹의 심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⁷⁾ 그러나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건에 미친 개인적인 특성과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 및 국제외교적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는 문제들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주관이 작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에 유의하면서 18세기 유럽 국제정치환경의 영향과 나폴레옹의 성격에 미친 가정 및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에 토대를 둔 나폴레옹의 리더십이 러시아 침공 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18세기 유럽의 국제정치환경적 배경

먼저 나폴레옹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프랑스혁명 전후의 유럽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살펴보자. 이탈리아방면군 사령관이 된 나폴레옹은 1796

7) 그 이전에 이미 나폴레옹과 그가 처음 태어난 코르시카 사회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Fernand Beaucour, Dorothy Carrington, Jean Defranceschi, Thadd Hall, 그리고 Ange Rovère 등이, 또한 그와 그의 두 번째 조국인 프랑스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Jean Bertaud, David Chandler, Owen Connelly, André Corvisier, Donald Howard, John Elting, John Lynn, Samuel Scott 등이 많은 연구업적을 내놓았으며, 나폴레옹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1796년경의 국제외교상황에 대해서는 Garrett Mattingly, Albert Sorel, André Fugier, Orville Murphy, 그리고 Paul Schroeder 등이 뛰어난 서술과 분석을 해놓은 바 있다.

년 4월에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군함으로써, 오래 전부터 이미 都市國家들 간에 근대적 의미의 각축전이 전개되어온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15세기 이래 이탈리아반도에서는 플로렌스(Florence)와 밀라노(Milan), 베니스(Venice) 등 비교적 큰 국가들과 교황청(the Papal States), 그리고 나폴리왕국(the Kingdom of Naples) 간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줄곧 있어왔다. 일부 한 두 국가가 이탈리아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든 반면, 플로렌스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마치 나중에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려 들었을 때,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목표로 한 것과 같다.

나중에 전개된 유럽 국제정치상황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는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중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몇 개의 소규모 국가들이 있었다. 이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사 파견, 동맹, 최후통첩, 위협,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이용하였다. 외교관들이란, 요즈음도 어느 정도 이런 속성을 지니게 마련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그럴 듯한 약속을 해주거나 일시적인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상대국을 속여서 결국은 기습 달성을 추구하고, 적을 힘으로 격파하기보다는 적의 약점을 관통하기 위해 속임수와 교활함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⁸⁾ 인물들이었다. 플로렌스의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는 그의 고전적 저서인 『군주론(The Prince)』에서 이탈리아인들과 이탈리아 내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던 외국인들이 활개치고 있던 당시 국내정치 또는 국제정치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러나 그는 본의 아니게, 목적(권력)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탈리아식 방식과 철학’을 후세의 유럽 정치가들에게 전수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⁹⁾

8) Conyers Read, *Mr. Secretary Walsingham and the Polish of Queen Elizabeth* (Oxford: Clarendon Press, 1925), 1:24.

9) 마키아벨리의 이론은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했던 당시 플로렌스의 입장에서는 매우 현명

1494년 당시 샤를르(Charles) 8세 치하의 프랑스는 밀라노의 편을 들었고, 반면에 스페인은 나폴리의 편을 들었다. 오늘날 거의 전세계에 확산되어있는 권력쟁탈전은 그 당시 이탈리아의 소도시 국가들과 公國들 사이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18세기 유럽 열강의 중심에는 프랑스·오스트리아·프러시아 그리고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스페인이 있었고, 외곽에는 상대적으로 외부침공으로부터 안전한 대영제국(Great Britain)과 러시아가 있었다. 그리고 다소 적은 국력을 지닌 국가들이 이탈리아반도와 노쇠한 神聖로마帝國(the Holy Roman Empire) 그리고 스칸디나비아반도 내에 자리잡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열강간의 관계는 우호적이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쟁관계였다: 즉, 끊임없는 국가이익 추구, 타국의 의도에 대한 불신과 공포심,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서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계속된 군비경쟁, 동맹간의 협상과 거래, 심지어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의 과감한 전쟁 돌입 등.

황제와 왕 등 지배자들은 직접 서로 대화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통상 외무장관이나 외교관료조직, 그리고 각국 수도에 주재하는 대사들을 이용했다. 이 당시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인 프랑스식 외교의 조직과 절차 및 규범, 그리고 외교관들은 여타 국가들의 모델로 간주되었다.¹⁰⁾

이러한 국제정치세계에서 지배자와 통치자들의 끝없는 영토적 야망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북아메리카에서 영국군이 프랑스군의 요새 4곳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7년 전쟁(Seven Years' War : 1756-63)'에서 '오만한 천재(arrogant genius)'로까지 불리었던 채텀(Chatham)이 각료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았았더라면, 영국은 아마도 거의 모든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지를 휩쓸었을 것이다.¹¹⁾ 러시아의 캐더린 2세(Catherine II)女

한 방책이었겠지만, 후세에 주로 독재자들에 의해 독재를 합리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구잡이식 권력투쟁 이론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10) Edward A. Whitcomb, *Napoleon's Diplomatic Service*(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79) 참조.

11) 대(大)피트(William Pitt the elder, 1st earl of Chatham, 1708-78)로 더욱 알려진 채

帝는 아들인 러시아 왕자를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의 왕좌에 앉힐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

때때로 전쟁은 예고나 선포가 없이도 기습적으로 감행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보존을 철석같이 약속했던 조약을 위반하며 감행된 프레데릭 대왕(Frederick the Great)의 실레지아(Silesia) 침공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the War of the Austrian Succession)의 예고편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왕조들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동되었으며, 인구도 그들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이동되었다. 폴란드의 분할에서 보듯이 어떤 국가들은 쇠퇴하고 어떤 국가들은 분할되었으며, 심지어는 멸망하였다.

‘어둠 속의 전쟁터와 같은(as on a darkling plain)’ 갈등의 혼돈 속에서 야욕과 경쟁관계, 반목, 그리고 정책의 몇 가지 패턴이 등장했다. 첫 번째 경쟁관계는 독일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싸고 오스트리아와 프리시아 사이에서 형성됐다. 또 다른 경쟁관계는 오토만 제국(the Ottoman Empire) 안에서의 영토확보를 둘러싸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간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쟁관계는 1689년부터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4회에 걸친 전쟁을 통해 영국은 섬이라고 하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고 프랑스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비롯된 ‘복수(複數)의 유혹(Multifl temptations)¹²⁾을 역이용한 전략을 개발했다. 전략이란: 첫째, 대륙의 한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동맹국들에게 전쟁비용을 지원하여 전쟁을 지속토록 함으로써 프랑스

템 백작은 국무상으로 재임중(1756-61)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쾨백을 함락하는 등 북아메리카와 인도지역에서 연전연승하였으나 국내의 반전 여론으로 인해 사임하였다. 다음 연설 구절에서 그의 오만한 천재성을 엿볼 수 있다: “나는 내가 영국을 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한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Harold T. Parker, “Why did Napoleon Invade Russia,”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54 (April 1990): p. 138; “Pitt the elder, William, 1st earl of Chatham,” *A Dictionary of British History*, 1982 ed.

- 12) 프랑스가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느끼는 두 가지 유혹, 즉 ① 유럽대륙 내에서의 패권 장악이나 영토확장에 대한 유혹과, ② 지중해나 인도 북미지역 등 해외로의 팽창 유혹을 말한다(필자 주).

로 하여금 대규모 함대를 건설하여 원양함대를 파견치 못하도록 출혈을 강요하고: 둘째, 영국의 무역을 보호하고 프랑스의 무역과 이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들을 붕괴시키는 한편, 고립되어 있는 해외 프랑스 수비대로 가는 모든 증원군과 보급품 수송을 방해하기 위해 해군의 우세권을 확보하여 프랑스 해안봉쇄를 강화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들어 버린 덩굴에서 과일을 따듯이 프랑스 식민지를 접수하기 위해 영국 원정군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대륙으로의 영토확장과 지중해·북미·인도 등 해외로의 팽창이라는 두 가지 기회에 유혹을 느낀 프랑스 정부는 하지만 선뜻 어느 한 쪽을 선택을 하거나 다른 한 쪽으로 집중을 할 수 없기에 국력을 분산되어 결국은 양쪽 모두에서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¹³⁾

3. 나폴레옹의 성격에 미친 가정·사회적 요인

1980년대 미국의 많은 연구들은 임신여성들에게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선택에 주의해 줄 것을 경고한 바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들에 따르면, 태아들도 태어난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청각능력이 있으며, 태어난 후에도 태내에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형인 조셉(Joseph)은 1768년 1월 8일 태어났는데 나폴레옹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온한 태아기를 보낸 때문인지, 그는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보는 이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며 매우 행복하게 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형인 조셉보다 1년 6개월 늦게 태어난 나폴레옹을 임신한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인 레티지아(Letizia)는 프랑스군의 공격을 피

13) Harold T. Parker, "Reflections on Thucydides and Some Aspects of Modern Coalitions," *South Atlantic Quarterly*, 78(1979): 73-83.

해 코르시카의 험한 바위투성이의 산길을 노새를 탄 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겨우겨우 도망다니고 있었다.¹⁴⁾

어머니가 겪은 이러한 위기가 태아인 나폴레옹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빈약한 다리와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 그리고 야윈 몸을 지닌 어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사람들을 배척했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형인 죠셉은 부모의 방에 함께 기거하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으나, 반대로 나폴레옹은 어머니의 젖이 부족하여 여동생인 마리아 안나(Maria-Anna)가 태어나던 1771년까지도 유모와 함께 뒷방에서 지내야만 했다. 두 살이 지나서야 뒷방에서 나온 그는 아마도 자신의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들에 대해 친밀감을 덜 느끼고 심지어는 소외감까지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주의를 끌기 위해 특하면 남하고 싸움질을 했다. 1813년 그는 겨우 두 살 먹은 아들에게 이렇게 꾸짖었다: “이 게으른 녀석아, 나는 네 나이에 이미 형인 죠셉을 두들겨 뺏단 말이야.”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말썽을 부려서가 아니라 오직 성공을 통해서 남의 관심과 존경심을 얻도록 항상 타일렀다.¹⁵⁾

이러한 가족관계의 유형은 적어도 4개 유형의 심리 이론—즉,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 아들러(Alfred Adler)의 형제경쟁(sibling rivalry), 코후트(Kohut)의 자아심리, 톰킨(Silvan Tomkin)의 각본(script) 이론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어떤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파커(Parker)는 톰킨의 이론으로 나폴레옹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톰킨에 따르면, 무대에서 하나의 장면(scene)은 ① 배우, ② 부여된 상황,

14) 이때 나폴레옹 가문은 코르시카를 점령중인 프랑스군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다 쫓기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그의 부친인 카를로(Carlo)가 프랑스군에게 항복한 다음날인 1769년 8월 15일 태어났다.

15) Parker, “Napoleon,” p. 134.

③ 행위, 그리고 ④ 수반되는 감정적 상승효과로 이루어지는데, 같은 상황과 같은 반응 그리고 같은 효과가 반복되어 마침내 그 반응이 등장하는 배우의 습관이나 중요한 성향을 형성하여 관객에게 전달되도록 각본(script)은 짜여 있다는 것이다.¹⁶⁾

나폴레옹의 인생에서 두 살 때의 장면(scene) — 즉, 태아기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겪은 긴장과 궁핍, 그리고 모유 부족으로 유모와 함께 격리되어 있던 뒷방 생활을 경험하면서 타인과 외부에 대해 경쟁적으로 그리고 전투적으로 싸워 이겨야만 한다는 의식이 형성된 상황— 과 유사한 장면은 인생을 통해 계속 반복되었다. 나폴레옹은 가족 내에서 고집쟁이 야심가였으며, 그의 가족들 또한 아작시오(Ajaccio)와 코르시카(Corsica), 그리고 나중에는 프랑스에서 모두 소문난 사회적 야심가들이었다. 그의 가문은 아작시오에서 최고 명문가는 아니었으나, 후일 나폴레옹의 말에 따르면 소젼틀맨(*petits gentilshommes*) 계층 출신이었으며, 1769년 이후 신분상승을 위한 모든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나폴레옹은 어려서부터 이런 문제와 관련한 가족간의 대화와 노력에 참가했다.

이러한 상황장면은 1778년 아홉 살 먹은 나폴레옹이 입학했던 브리엔느(Brienne) 유년학교에서도 반복되었다. 코르시카 혈통의 이 ‘겉 없는 꼬마소년(the new kid on the block)’은 프랑스의 오만한 귀족 자제들로 인해 무자비한 공격적 성향이 더욱 강해졌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수학과목을 열심히 하여 뛰어난 분석력을 보여줌으로써 오기(傲氣)를 보여주었다. 또한 코르시카의 독립운동가인 파올리(Paoli)와 손잡고 프랑스로부터 코르시카를 독립시키는 환상에 잠기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환상과 학습의욕은 학생 시절 자연스럽게 코르시카 역사연구로 이어졌다.

여러 해를 뛰어넘어 이러한 각본은 나폴레옹이 제1통령과 황제가 되었을

16) 톰킨의 이론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파격적이고 정교하다. Silvan S. Tomkin, *Affect, Imagery, Consciousness*, 3 vol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62) 참조.

때 다시 반복되었다. 권력을 잡은 것 30세 된 나폴레옹의 사람됨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었으나, 사람들은 언제나 승리를 거둔 그를 믿었으며 그가 질서를 잡아 평화를 되찾고 혁명이 거둔 정치적·사회적 성과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주리라 기대했다. 참으로 그는 놀라울 만큼 지적이고 결단력이 있었으며 지칠 줄 모르고 일했으나, 야심이 너무 컸다. 혁명 덕분에 그토록 일찍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므로 혁명가로 여겨졌고 그 자신도 이 점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혁명가라기보다는 오히려 18세기적 인물이었으며 볼테르(Voltaire)의 진정한 후계자, 가장 잘 깨우친 계몽군주였다. 그는 국민주권·일반의지·의회토론 같은 것을 믿지 않았고 이성 자체보다도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더 신뢰했다. 또 무력의 지원을 받기만 한다면 계몽된 확고한 의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었고, 대중을 경멸하면서도 두려워했으며,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장 민간인 같은 장군(the most civilian of generals)'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나, 정작 자신은 본질적으로 군인이기를 그만둔 적이 없었다.¹⁷⁾

유럽 권력세계에서 전혀 새로운 인물인 그는 유럽 명문가 출신의 왕들과 황제들을 전투적이고 경쟁적 자세로 차례로 굴복시키고 권력을 접수했다. 그는 엄청난 환상을 정확한 계산과 열성에 의해 실천에 옮겼다. 그는 자신이 남에게 굴복하는 것은 물론 대등해지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지배해야만 했다. 그는 형인 조셉에게 이렇게 썼다: "당신과 나의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남을 격려하고 그들의 생각을 따르기를 좋아하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게 복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¹⁸⁾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투적으로 극복하려 드는 그의 열망이 점차 나이 들고 복잡한 국제적 상황을 겪게 됨에 따라 좀더 강제성을 띠게 되고, 그것

17) "Napoleon," *Encyclopedia Britannica*, 1970 ed., 12 : 833.

18) Napoleon to Joseph, Reims, 14 March 1814, in Napoleon Ier, *Supplément a la Correspondance de Napoléon Ier*(Paris: E. Dentu, 1887), 207, cited by Parker, "Napoleon," p. 135.

이 결국은 그를 러시아 평원으로 무모하게 몰고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물론 이 논문과 같이 짧은 글에서는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서 나폴레옹을 항상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전제군주로만 그려낼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갈등하는 감정의 복합체였다. 한 예로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칭송하고 존경했으나(그는 드러내놓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어렸을 때 단 한번 어머니가 자신을 속인 일을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St. Helena)에서조차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어린아이들을 결코 속여서는 안 된다”고 늘 말하곤 했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결점인 사치와 쾌락의 탐닉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버지가 젊은 시절 코르시카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점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프랑스 치하의 코르시카 사회에서 아버지의 소신 있고 명석한 야심가로서의 업적에 대해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형인 조셉과 경쟁하며 자랐고, 이미 두 살 때부터 그를 이기려고 들었다. 그러나 그는 조셉을 사랑했으며(그는 “나는 조셉 이외에는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형을 이겨서 형을 패배한 ‘카르타고인(Carthaginian)’으로 만들고 자신은 항상 승리한 ‘로마인(Roman)’이 되곤 했던 일을 후회하기도 했다. 조셉에 대한 애증의 이중적 감정은 1804년 황제 대관식 때의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도 드러난다. 마침 그 자리에 초대받은 나폴레옹의 어린 시절 유모가 조셉이 ‘매혹적이고 천진난만하고 미소를 잘 짓는 귀여운 아기(un joli enfant)’였다고 회상하자, 유럽의 주인이자 조셉의 주군이기도 했던 나폴레옹의 안색은 금방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졌으나 대관식을 위해 곧 그와 조셉이 화려한 예복으로 갈아입은 후에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셨더라면 좋을 텐데”라며, 자신은 아버지나 형과 갈등이 없음을 표현하기도 했다.¹⁹⁾

19) Parker, “Napoleon,” pp. 135-36. 대관식 때 그는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직접 집어서 썼다(관례에 따르면 무릎을 꿇고 교황으로부터 받아서 쓰는 것이었

나폴레옹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핵가족의 일원이었다. 가족과 가족의 이익증진을 위해 그는 온갖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충성심과 신뢰심을 보여주었다. 집중력과 영향력을 갖추고 또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데 있어서 형제들 간의 경쟁관계(sibling rivalries)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는 억제할 수 없는 야욕을 지닌 둘째 아들이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신뢰하고 있었으며 속이는 경우는 없었다.

그는 또한 어릴 때부터 8촌 형제와 종교적 代父와 代母까지 포함하여 정신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지닌 대가족의 일원이기도 했다. 그는 이들에게서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나 바깥 세계는 불신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은 다만 계산된 책략과 속임수, 그리고 기만의 대상일 뿐이었다. 나폴레옹이 소년이었을 때, 그의 從祖父인 루치아노(Luciano Bonaparte) 부주교는 이미 그가 거짓말에 능한 것을 보고 그의 먼 장래를 예언한 적이 있었다. 그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 젊은 시절, 코르시카 사회 내부의 마치 요지경과 같은 봉당적 싸움 속에서 상황과 상대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꿈으로써, 그는 이미 끊임없이 변화하는 계산적 인물로 변해 갔다. 그 이후 그의 단순한 말 한 마디 그 자체로는 신뢰할 수가 없었다. 즉, 진실일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든 교활하게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국면을 이끌어 나갔다. 그는 이미 음모가 판치는 국제정치 세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람을 다루는 재능은 일찍이 눈에 띄었으며, 나중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더욱 발전되었다.²⁰⁾

다). 즉, 그는 자기 자신이 왕관을 쟁취했음을 전세계에 선언하려 한 것이다. 다른 왕관과는 달리 로마 황제와 같이 올리브 나무 잎으로 된 관을 쓴 이유는 아마도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를 염두에 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육사전사학과 편, 『나라를 빛낸 명장들』, p. 227.

20) 그러나 나폴레옹의 이러한 특성은, 초기 이탈리아전역과 영국과의 외교관계(1801-1803), 그리고 러시아 침공(1812) 등을 거치면서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데 특히 부정적인 면

그러나 어찌되었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폴레옹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전투적이고 경쟁적이었다. 나폴레옹을 아주 잘 알며, 그의 경호를 맡은 기병대장을 역임했던 꼴랭꾸르(Caulaincourt)는 1812년초 무렵의 나폴레옹은 오직 지배만을 원했었다고 비판했다: “폐하께서는 단지 폴란드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럽 내에서 경쟁국을 허용치 않고 모든 국가들을 오직 제후국으로 만들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을 원하고 계십니다.”²¹⁾ 꼴랭꾸르의 말을 확인시켜 주듯이 나폴레옹은 1812년 2월 5일 외무장관인 마레(Hugues Bernard Maret)에게 러시아 주재 대사인 로리스톤(Lauriston)에게 서신을 보내어, “러시아는 톨지트(Tilsit) 조약 당시 러시아가 점했던 열등한 지위로 돌아가야 한다”²²⁾는 점을 강조토록 지시했다.

4. 나폴레옹의 리더십과 외교정책의 특성

1785년 사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한 나폴레옹은 초기에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 문제로 인해, 프랑스군과 마침 독립투쟁을 전개하던 코르시카의 독립군 사이를 오가며 탈영과 복귀를 반복하는 등 방황을 계속했다. 1791년 코르시카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국민군 중령에까지 이르렀던 그는 파올리 일당과의 권력투쟁에서 패하여 결국 1793년 니스에 주둔하고 있던 자신의 연대로 복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때까지 집과 학교와 부대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에서 더욱 그랬다. Owen Connelly, *Blundering to Glory: Napoleon's Military Campaigns* (Wilmington, Del: Scholarly Resources, 1987), ch. 2 참조.

21) Armand-Augustin-Louis Caulaincourt, *With Napoleon in Russia*(New York: Grosset and Dunlap, 1935), p. 25, cited by Parker, “Napoleon,” p. 136.

22) *Ibid.*

1793년 툴롱(Toulon) 항에서 영국 해군을 물리친 공로로 24세의 나이에 준장으로 진급한 그는 로베스피에르의 앞잡이로 몰려 한때 투옥되었으나 곧 풀려났으며, 1795년에는 왕당파의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프랑스군 국내 사령관이 되었다. 1796년 3월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이탈리아 방면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전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이 때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부대들을 원격 지휘해야만 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장군들과 병사들을 격려하고 이탈리아의 각 戰役과 戰鬥에서 평야지대를 가로질러 기동하도록 부대를 통제하며, 적군을 저지하고 격퇴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는 부세(Bourcet)와 기베르(Guibert)의 이론을 읽고 보병, 기병 그리고 포병의 협동작전술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예측불허의 상황하에서 매일 매일 명령을 하달해본 실제 경험은 전혀 없었다. 명석했지만 미숙했던 그는 오로지 승리의 영광을 위해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했다.

한편 그는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던 코르시카에서 성장한 관계로 부르봉(Bourbon) 왕가의 계몽전제군주제적 법률체계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인 프랑스의 장군들이 점령지인 벨기에와 라인랜드 사람들에게 프랑스의 혁명적 법령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봉착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과는 또 다른 문화적 정서를 지닌 '난해한(mystifying) 이탈리아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점령지인 밀라노의 협상대표단장인 멜지(Francisco Melzi d'Eril)를 만났을 때, 나폴레옹은 프랑스 공화국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인 밀라노 시민들의 자유를 주겠노라고 제안했지만 정작 그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²³⁾ 나폴레옹이 “그렇

23) 나폴레옹의 승리요인과 프랑스 혁명의 의의는 自由의 이념에 충실한 가운데 그 이념을 유럽 전역으로 전파한데 있었는데, 초기의 이탈리아전역 당시만 해도 아직 이곳에서는 자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오?”라고 묻자, 멜지는 “평온입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했다.

따라서 그는 이탈리아인들을 관리할 새로운 방안을 긴급하게 강구해야만 했다. 나폴레옹은 당시 이탈리아의 지배자들인 사르디니아(Sardinia)와 나폴리(Naples)의 왕들과 모데나(Modena)·파르마(Parma)·투스카니(Tuscany)의 대공들 및 교황, 그리고 오스트리아(Austria) 황제 등과 협상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했다. 이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피정복민들을 관리하며, 그리고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그의 방식은 차츰 발전하여 나중에는 ‘나폴레옹식 정책과 제도(Napoleonic policies and institutions)’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18세기 국제정치의 복잡한 환경과 이탈리아전역에서의 경험은 오히려 영리하고 정열적이며 지략이 뛰어난 나폴레옹에게 국제적 야심가로 태어나기에 적합한 토양을 제공했다. 더구나 코르시카 지역사회에서 체득한 투쟁적 가치관과 경험은 나중에 나폴레옹이 좀더 차원 높은 국제외교사회에서 생존경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그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났던 초기인 1796년부터 그는 제요소가 상호연관되어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합동작전(a combined operation)²⁴⁾—즉, 軍事戰役의 지휘, 피정복민들에 대한 관리, 외교적 협상, 그리고 필요한 財源의 마련 등—을 단독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에게는 원정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피정복지 현장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미 효율성이 입증된 발전된 프랑스의 혁신적 제도들(법 앞의 만인평등, 도량형제도의 통일, 지휘 및 보급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한계와 계통의 설정, 의회제도, 징병제도)은 군 당국의 조치와 외교협상의 확고한 기준을 제공했다.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프랑스

24) 이 경우 오늘날 공군·지상군·해군 중 2개 군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단순한 군사적 작전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전시 군사작전 외에 정치·외교·경제적 요소가 가미된 점령지에서 행해지는 국가차원의 통치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필자 주).

의 외교전문가들이 이끄는 협상을 통해 동맹국들과 연합국들을 확보해 나갔으며, 군사력과 지배를 통해 일단 한번 얻은 것들은 교묘히 기정사실화하여 나갔다.

이러한 통일된 작전지휘를 통해 나폴레옹식 리더십의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나폴레옹이 일관되고도 확고한 개성을 지니게 된 후, 전쟁에서 나타났던 특성은 협상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정열·신속성·치밀성·교활함·기만성·기민성(dexterity : 나폴레옹이 좋아하는 단어 중의 하나)·신중성·불굴의 정신·무자비성·뛰어난 상상력 등은 나폴레옹의 전쟁과 외교행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 되었다. 그는 명백하게 승산이 없는 절망적 상황하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반전의 기회를 노렸으며, 패주하는 적에 대한 과감한 추격전에서도 사기가 떨어진 채 전전공공하는 적국의 전권대사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협상에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전과를 확대하였다.

둘째, 평화시 그의 군사전략적인 결정은 흔히 외교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수단으로서의 대외정책의 의미를 지녔다. 예를 들어 강력한 해군함대를 건설하거나 주요 요새를 보강하는 것은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 외에도 상대국에 대해 전쟁 이전에 굴복할 것을 강요하는 외교적·심리적 압박수단이었다.

셋째, 만일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와 나폴레옹의 말대로 '전쟁이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나폴레옹에게 있어서 '공세적 외교란 주로 평화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나폴레옹은 각각 통합된 '작전적 전역(operational campaign)'의 결과를 나중에 좀 더 정교하게 손질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외교정책에도 그대로 반영하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자신에 대해 성찰적이었던 나폴레옹은 1806년 달베르그(Dalberg)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상주의자이기

에 사전에 준비된 시스템에 따라 행동하지만, 나는 현실주의자이기에 먼저 상황을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최대한 밀어붙입니다.”²⁵⁾ 1797년 오스트리아와의 캄포 포르미오(Campo Formio) 조약을 추진하는 협상과정에서 오스트리아 협상 팀을 밀어붙이면서 그는 향후 이 지역 외교정책에 대한 기반을 구축했다. 즉, 벨기에와 라인 국경지방을 점유하고 독일문제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간섭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알프스 산맥 이남을 포함한 이탈리아 내에서의 프랑스의 현 지배권을 기정사실화하였다. 특히 오토만제국 내부분문에 관여하고 감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유고슬라비아 남서부 지역(Dalmatian)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영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 이집트로 진출하거나 또는 나폴레옹 자신의 동방정복 야심을 채우기 위해 인도로 가는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음을 의미했다. 나중에 1801년, 1805년, 그리고 1809년 조약들에 의해 재확인되고 더욱 공고하게 다듬어졌던 이러한 정책들에 의해, 그 동안 매우 비타협적이던 오스트리아를 마침내 굴복시킬 수 있게 되었다.²⁶⁾

오스트리아가 처리된 이후, 다음 차례는 영국이었다. 캄포 포르미오 조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1797년 10월 18일, 의기양양해진 나폴레옹은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한 대단히 날카로운 분석과 유럽 지배자로서의 야망을 담은 서신을 외무장관인 탈레이랑(Talleyrand)에게 보냈다.²⁷⁾

현재 프랑스의 국경은 매우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오스트리아 황제는 지금 오직 때만 노리고 있다. 그는 우리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영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적이다. 영

25) Parker, "Napoleon," p. 141.

26) The Treaty of Campo Formio and its secret articles, dated 17 October 1797, are given in nos. 2303, 2304, and 2305 of Napoleon Ier, *Correspondance de Napoleon Ier*(Paris: Henri Plon and J. Dumaine, 1859), 3: 379-89, cited by *ibid*.

27) Napoleon to the Minister of Foreign Relations, General Headquarters, Passariano, 18 October 1797, *Correspondance*, no. 2307, 3: 390-92, cited by *ibid*.

국은 적극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대항할 또 다른 동맹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고 무역과 해군력을 파괴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식민지와 또한 스페인 및 홀랜드의 식민지를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해군에 힘을 집중하여 영국을 격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유럽은 우리의 발아래 놓이게 된다.

총명하게도 그는 자신이 조종하고 있던 국제정치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대륙과 해외로의 팽창정책 중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약삭빠르게 합리적인 대외정책을 택했다. 그는 해상통로를 확보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영국 침공(1798) 시도, 이집트 원정(1798), 루이지애나州의 프랑스 재편입(1800), 영국과 평화 유지, 강력한 프랑스함대 건설, 그리고 산 도밍고(San Domingo) 원정 등. 그러나 그는 산 도밍고에서 대패배를 당한 후, 그 동안 영국의 국가이익을 위협해온 공세적 행동—즉, 홀랜드의 지배 유지, 희망봉(the Cape of Good Hope) 장악, 호의적인 무역조약의 거부, 근동지역에 대한 첩보수집 강화, 엘바(Elba) 섬과 피에몽(Piedmont) 및 파르마(Parma)에 대한 예고 없는 병합, 그리고 스위스 침공 등—을 어쩔 수 없이 중지하고 평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루이 14세나 루이 15세와 마찬가지로 나폴레옹 자신도 어느덧 난공불락의 영국과 영국이 지원하는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양면전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전쟁기간중 지속적으로 추진된 강력한 함대 건설과 1803년에 시작된 영국에 대한 무역고립정책은 나중(1806)에 대륙체제(the Continental System)의 근간이 되었다.

이 같은 유형의 행동은 프러시아와의 전쟁(1806)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즉, 주요 전략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적에게 일부 중요한 것들을 양보해주는 것에 거의 병적인 거부(拒否)심리를 지니고 있었다. 1810년경에는 이러한 편협하고도 국부적인 성격의 정책들을 그 동안 최대한 추진한 결과, 한 때 그의 탐욕의 대상이었다는 사실만 빼고는

거의 실속이 없는 屬領과 보호령들만이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결과가 나폴레옹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들이었을까? 우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온 그의 이미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꿈과 계획들은 시기와 외부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해 갔음을 알 수가 있다. 그는 이념가라기보다는 임기응변에 능한 현실주의자였다. 브리엔느 사관학교 시절에는 그는 파올리(Paoli)와 함께 프랑스의 압제로부터 코르시카를 해방시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805년경 그의 꿈은 황제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은 '영토를 넓히고 제도를 정비하는 영웅들'의 제국을 창조하는 혈통을 타고났다고 공언하였다. 제국에 대한 개념도 변해갔다. 그는 처음에는 왕실 가족들이 위성왕국들을 나누어 지배하는 연합형태의 왕국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그의 의붓아들인 유제느(Eugene)²⁸⁾가 통치하는 북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구상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게 되자, 1810년경에는 동일한 법 제도와 법 앞에서의 만인평등, 동일한 화폐 및 도량형제도, 그리고 합리적 행정조직을 갖춘 보다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형태의 단일왕국으로 생각이 바뀌었다.²⁹⁾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과거 외교적 전통이나 관행을 점차 이해하게 되면서 그 자신의 행동과 스타일도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어느 경우에는 과거 前例나 전통에 대해 경멸과 교만한 태도로 뒤흔들어 놓았으나, 어떤 경우에는 이미 과거 프랑스가 직면했던 외교적 아젠다 내에서 짜여져 있는 기존의 틀을 놀라운 정력으로 파악하고 적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의 국제외교적 행동은 전반적으로 과거 프랑스 구체제의 국제정치적 패턴을 벗어났거나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쟁이 광역화되면서 현장에서 작전하고 있던 부하 지휘관들과의 지휘통제 거리도 점점 멀어져 감에 따라 리더십도 변화해 갔다. 원거리 지

28) 황후였던 조세핀이 나폴레옹과 결혼 전에 낳은 아들.

29) Owen Connelly, *Napoleon's Satellite Kingdoms*(New York: Free Press, 1965), pp. 333-35.

휘단계는 그가 이탈리아 원정군 지휘를 맡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강렬하고 수다스러우며 정열적이던 젊은이에서 점차 신중하며 간명하고 지휘관다운 성격으로 변해갔다. 마르세이유(Marseilles)에서 그의 사령관 취임식이 열렸을 때는 그의 옛 동료들이 포옹하기 위해 접근하다가 그의 근엄한 표정에 놀라서 멈칫하고 서버린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남을 제압하기 위해 근엄한 태도를 갖추었지만,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반복됨에 따라 그는 1810년경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지 간에 봉건군주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5. 러시아 침공 결정과정

‘나폴레옹이 왜 러시아를 침공했는가’를 단정적으로 그리고 한 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나폴레옹 개인의 성격과 당시 국제정치의 구조, 그리고 ‘양면전쟁의 함정(entrapment in a double war)’³⁰⁾뿐만 아니라, 러시아 알렉산더 황제의 성격과 러시아 사회의 특성, 톨지트(Tilsit) 조약의 모호성, 외무장관이었던 탈레이랑의 음모,³¹⁾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된 매우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나폴레옹의 성격과 동기 그리고 정책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그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환경하에서 침공을 결정했는가를 묻는다면 대답이 가능한

30) 상대적으로 난공불락인 영국과 러시아와의 동시 전쟁을 말한다.

31) 1808년 9월에 열린 에르푸르트(Erfurt) 회담에서 나폴레옹은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1세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그는 분명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알렉산더 1세의 이러한 태도는 무엇보다도 나폴레옹의 정책에 실망한 외무장관 탈레이랑이 나폴레옹 몰래 러시아와 협상하고 있었던 데서 비롯했다. 심지어 탈레이랑은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계획에 관한 정보를 러시아 측에 넘겨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Encyclopedia Britannica, 12: 835; 육사전사학과 편, 『나라를 빛낸 명장들』, p. 231.

질문이 될 수도 있다.

‘언제’라고 하는 좀더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당시의 문서들과 그의 매일 일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게 들어온 보고서와 그가 보낸 명령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러시아 침공 결정이 3단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1단계는 그 동안 우려해 오던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이 급격하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데 대한 나폴레옹 자신의 인지단계이다. 그리고 2단계는 그가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어도 러시아를 선제공격해야만 하는 한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데 대한 인식단계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공격 결정단계이다.

앞의 1, 2단계에 대한 날짜는 쉽게 확인된다. 1810년 8월 10일 그의 충실한 동맹이자 바르샤바(Warsaw) 대공국의 총독인 삭소니(Saxony) 왕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나폴레옹은 자신의 조병창을 통해 군비를 증강하고 바르샤바에 비해 러시아의 공격에 취약한 모들린(Modlin)에 주둔중인 폴란드군 성채를 보강하도록 그에게 지시했다. “(러시아와) 나와는 매우 좋으나, 군사대비태세는 이루어져야 한다”³²⁾고 그는 강조했다. 10월 6일경에 이르러 그의 의도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는 삭소니 왕에게 “지난번 전쟁 때 우리를 덮쳐온 코사크(Cossack) 기병대의 칼날 아래에서 우리를 구해 줄 수 있도록 창기병 16개 연대를 육성하라”고 지시하고, 북부 독일과 단찌히(Danzig)에 있는 자신의 군대를 증강했다.³³⁾ 12월경 그는 그의 정책노선과 그의 제국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폴레옹은, 영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대륙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틸지트에서의 엄숙한 약속에 대한 러시아 알렉산더 황제의 위반을 지적하고, 만일 러시아가 영국 식민지와 영국 본국간의 상품을 운반하는

32) Napoleon to Frederick Augustus, king of Saxony, Trianon, 4 August 1810, in Napoleon Ier, *Correspondance*, no. 16762, 21: 19-29, cited by Parker, “Napoleon,” p. 144.

33) Napoleon to Frederick Augustus, king of Saxony, Fontainebleau, 6 October 1810, *Correspondance*, no. 17009, 21: 181-87, 192-94, cited by *ibid.*

중립국 선박에게 항구를 열어주고 영국과의 평화를 유지한다면,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³⁴⁾ 그리고 알렉산더 황제가 중립국 선박에게 항구를 개방하여 사실상 나폴레옹의 영국에 대한 대륙봉쇄체제를 종식시키자, 그는 이제까지의 방어적 태도에서 공세적 태도로 전환하여 1811년 1월과 3월에 독일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각각 대육군(Grande Armée)의 건설에 착수했다. 4월 17일, 그는 군사용 대형 러시아 지도를 준비토록 지시했고, 같은 날 러시아 침공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외무장관 샹파니(Champagny)를 해임했다.³⁵⁾ 만일 이때 러시아 침공 결심을 이토록 서두르지만 않았더라면, 비록 러시아는 계속해서 식민지와 영국의 상품을 운송하는 중립국 선박들을 받아들였겠지만, 나폴레옹은 공격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훨씬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³⁶⁾

1810년 8월에서부터 1811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그는 대규모의 프랑스 해군건설, 황후인 마리 루이즈(Marie Louise)의 임신, 마세나(Masséna) 장군 부대의 포르투갈 침공과 퇴각, 위성국 통치자들인 동생 제롬(Jerome)·의붓아들 유제느(Eugene)·뮤라(Joachim Murat)·형(兄)인 조셉(Joseph)에 대한 관리, 동생 루이(Louis)의 퇴위, 그리고 홀랜드와 북해연안의 병합 등 많은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대륙을 그의 의지 앞에 굴복시키는 '대륙체제'를 강화하는데 집중

34) Napoleon to Champagny(for transmission to the ambassador Kurakin), Paris, 2 December 1810, and Napoleon to Champagny(for transmission to Caulaincourt, French ambassador at St.Petersbourg), Paris, 5 December 1810, *Correspondance*, nos. 17179, 21: 297-99, 302, cited by *ibid.*

35) Connelly, *Historical Dictionary of Napoleonic France*, p. 104.

36)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기로 결정한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독일 및 이탈리아 내에서의 군사력 건설과 군사적 대비는 1810년 10월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대비한 방어적 조치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1811년 1월과 3월에 이르러 공격을 위한 준비증강 조치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실제 공격 결심은 여러 달 동안 공표되지 않은 채 비밀에 부쳐졌기 때문에 결심이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적으로 매달려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그의 정책적 맥락에서만 보면 러시아 침공은 나름대로 과감하고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판단에서 보면 그것은 작전 현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거의 광기로 일을 추진하고, 적에게 사소한 것조차 양보할 줄 모르는 무능을 보이며, 그에게 가장 가까운 측근들에게조차도 '미친 황제(an imperial madman)'로 불리는 한 사람의 집착에 의해 계획되고 실천에 옮겨진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6. 맺 음 말

모든 사람들의 삶은 나름대로 모두 독특하지만, 나폴레옹은 그의 천재성과 시대상황, 그리고 자신의 내적인 삶의 혹독한 시련으로 인해 역사상 그 어느 인물보다도 더욱 독특하고 강렬한 일생을 살았다.

전장상황을 파악하고 부대를 기동시키는데서 나타난 그의 뛰어난 순발력은 코르시카의 소도시 환경과 가족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교활한 코르시카적 기질은 봉당한 섬 지방의 권력투쟁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군사적 천재성과 능력은 프랑스에서의 교육, 즉 브리엔느 사관학교 교육과 당시 유럽군에서 가장 먼저 개혁이 진행중이던 프랑스군에서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학과 역사에 대한 엄청난 양의 독서를 통해 강화되고 완성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그의 위대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고, 그의 우수성을 자신은 물론 대규모 대중과 역사 앞에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했다. 『군주론』을 탐독하면서 일찍이 마키아벨리즘에 심취했던 그는 역사 탐독을 통해 알렉산더(Alexander)와 카이사르(Caesar), 그리고 샤를마뉴(Charlemagne) 등 영토를 정복하고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았던 영웅들을 만났다.

국제정치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이미 형성된 그의 개성과 마키아벨리적 책략은 나중에 국제정치에서도 그 가치관과 방법면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그가 나중에 제국주의적 전문직업군으로 전환시킨 프랑스 혁명군과 그가 개선시킨 우수한 프랑스식 외교방식, 동맹군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시킨 각종 법령과 제도 등은 전쟁터와 협상 테이블 양쪽에서 모두 위대한 성공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성공은 또한 매사를 자기의 관점에서 정통하러 들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는 그의 특성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 게릴라 전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직면했던 새로운 전쟁형태에 대해 '전선없는 전쟁(a war without a front)'³⁷⁾이라고 한 정의에서 사물의 핵심을 찌르는 그의 예리함을 음미해봐야 한다. 군사작전의 측면에서 이보다 더 정확하고 간명하게 표현한 예를 찾아 볼 수가 있겠는가?

“중국이 잠들어 있게 하라. 왜냐하면 중국이 깨어날 때 세계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므로.”³⁸⁾ 나폴레옹의 이 말은 물론 노스트라다무스식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국을 우려와 경계의 눈으로 지켜보며 벌써부터 견제에 나서고 있는 미국과 서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나폴레옹의 위대한 통찰력의 무게를 더욱 느끼게 된다.

“전쟁계획을 세울 때는 적의 계획도 당연히 계산에 넣어야 한다”³⁹⁾고 한 처칠의 이야기는 전쟁계획에 관한 어떤 금언보다도 더 큰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 금언은 군사정보를 획득하고 평가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거둔 위대한 성공과 지나치게 독단적이고도 자기고

37) Chandler, *The Maxims*, p. 18.

38) *Ibid.*, p. 24.

39) *Ibid.*, p. 87. 나폴레옹은 전쟁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전쟁계획은 주변상황과 지휘관의 재능, 부대의 성격, 그리고 작전지역 특성에 따라 언제나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Ibid.*, p. 85.

립적인(self-isolation) 지휘권행사 습관으로 인해 나폴레옹은 결국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전쟁계획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그였지만, 상대적으로 난공불락의 국가인 영국과 러시아를 선불리 공격하는 국가 대전략 차원의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스스로 양면 전쟁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제아무리 선천적인 군사적 재능을 지닌 위대한 장군들이라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개념을 발전시키게 된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자만에 빠지고 오랜 전쟁에 스스로 지쳐버린 나폴레옹은 이러한 교훈을 무시하게 되었다. 그가 남긴 ‘최악의 失言’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나는 60회의 전투를 치렀지만, 내가 처음부터 몰랐던 것 중에 나중에 전투를 통해 배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⁴⁰⁾ 아무리 최고로 명석한 천재성과 재능을 갖추었다라고 꾸준히 같고 닳지 않으면 점차 둔해지고 위축되게 마련이다. 러시아 공격을 선택한 나폴레옹의 운명에서 증명되었듯이.

오늘날 공군의 역할이나 게릴라 혁명전쟁에서의 정치·군사적 복잡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점들이 부각되긴 했지만, 극도로 긴장하고 위험한 상황하에서 고차원의 지휘력과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전쟁수행상의 기본적인 문제점들은 변하지 않았다. 전쟁에서 과거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수없이 빠졌던 함정에 다시 빠지러 달려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스웨덴의 찰스 12세(Charles XII)는 고대 러시아 지역을 약탈했던 게르만 기병대를 분명히 연구했어야만 했고 나폴레옹도 1709년 6월 폴타바(Poltava)에서의 스웨덴군의 패배를 교훈 삼았어야만 했다. 그리고 히틀러도 무엇보다도 1812년의 대사건들—특히 ‘동장군(General Winter)’과 전략적 소모, 그리고 빨치산 전투—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만 했다. 러시아 전사를 연구했던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나의 전쟁 기본원칙 중의 하나는 모스크바로 진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⁴¹⁾

40) *Ibid.*, p. 240.

러시아 원정은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틸지트(Tilsit)조약과 에르푸르트(Erfurt) 회담을 거치면서 유럽의 국제정세와 러시아의 태도를 관망하면서 처음에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던 나폴레옹이 뒤늦게 공격을 결심함에 따라 서둘러 준비된 전쟁이었다. 따라서 모든 준비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바로 그의 대부분의 참모진들이 반대한 이유이기도 했다.

또한 나폴레옹의 특성인 뛰어난 현실주의적 임기응변은 그 동안의 단기전과 전술상황하에서는 미처 예상치 못한 적의 허를 찌름으로써 기발한 성공을 가져왔으나, 장기적 안목의 전략적 상황에서는 조직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합리성과 일관성의 결여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즉 러시아 원정의 경우, 전쟁준비 부족과 부적절한 목표설정, 예하부대의 혼란, 동맹국의 이탈, 그리고 국민들의 동요로 지속적이고도 통합된 전력발휘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18~19세기 프랑스 외교사를 전공한 사학자들의 나폴레옹의 국제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나폴레옹은 국제무대의 이단아(돌연변이)'였다는 것이다.⁴²⁾ 그의 행위는 과거 관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정도로 무모하고 또 기발한 착상이었다. 그는 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도 항상 기발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허를 찔렀다. 따라서 나폴레옹의 행위는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과거의 전통적 가치관의 관점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심리적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⁴³⁾

특히 러시아에 대한 원정은 당시 군사적·외교적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나폴레옹 개인의 과대망상에 가까운 야망과 광기에

41) *Ibid.*, p. 242. 심지어는 동유럽과 러시아에 있는 대하천의 동쪽 제방들이 대체로 서쪽 제방을 내려다볼 정도로 높아서 서쪽에서 공격하는 측이 불리하다는 지구물리학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Ibid.*, p. 170.

42) Orville T. Murphy, "Napoleon's International Politics: How Much Did He Owe To the Past?,"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54(April 1990): 163.

43) *Ibid.*

가까운 집착이 빚어낸 역사적 대참사였던 것이다.⁴⁴⁾ 러시아에 대한 나폴레옹의 공격 결정은 개인의 타고난 천재성이 국제정치분야에서 결국 역사적 범죄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⁴⁵⁾

(원고투고일 : 2004. 6. 17,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나폴레옹의 성격, 대륙체제, 18세기 국제정치구조, 러시아 침공, 탈리트 조약

44) 이 시기에 이르러 그의 적들도 이미 그의 혁명적 개념들을 점차 모방하여 사단·군단 체제를 도입, 중심을 갖춘 전투대형으로의 전환, 전투력 집중, 예비대 보유 등 나폴레옹의 장점들을 도입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패배한 것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잠재력이 풍부한 동맹국들에 의해 장기 소모전을 강요당하고, 지나친 강압통치에 의해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이었다.

45) Paul W. Schroeder, "Napoleon's Foreign Policy: A Criminal Enterprise,"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54(April 1990): 148.

<ABSTRACT>

Problems of Napoleon's Leadership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Invasion against Russia

Won, Tae-jae

The first coherent new concept of war-making to manifest itself since Genghis Kan had been demonstrated in the early campaigns of young Napoleon Bonaparte in Italy and Egypt. In his hands it continued to dominate warfare directly for 2 decades since 1796. One historian has asserted that he fought more battles than Alexander, Hannibal, Caesar combined.

But many historians and soldiers of next generations have overestimated Napoleon's military achievement because of his genius. Actually he made more than a few mistakes in tactics and strategy, and the greatest failure was an invasion against Russia. According to Owen Connelly's *Historical Dictionary of Napoleonic France*, Napoleon's closest and most trusted counselors advised against an invasion of Russia. Why did Napoleon overrule them and proceed?

Explaining why he invaded Russia would require a complex history too long to be told here. It would involve not only the personality of Napoleon, the social structures, international politics, and his entrapment in a double war but also the personality of Tsar Alexander,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n society, the ambiguities of the Tilsit treaties, the intrigues of Talleyrand, and much else besides. But if we ask "Why did Napoleon invade Russia?" with emphasis on his personality, motives, and policy, the

simpler question of “When did Napoleon decide to invade Russia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may yield a clue.

I examined the continuing, underlying dispositions of Napoleon’s personality, then recalled the structur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t the close of the eighteenth century, and finally interrelated the two, personality and structures.

I am concluding that great success and the habitual exercise of command from the self-isolation of his office blinded him to the reality of what was possible. Restless, illimitable striving eventually entrapped him into a double war against two relatively invulnerable powers, England and Russia. Like Louis XIV and Louis XV before him, he lost on both fronts.

Most notably, the decision to invade Russia was taken by a person who had distanced himself from the reality in which he was operating, who had pushed events to an insane degree, who continued to display an inability to yield on lesser issues important to the adversary, and who had become, as his closest advisers noted, “an imperial madman.”

Key Words : Napoleon’s Personality, Continental System, The Structure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18th Century, Invasion against Russia, The Tilsit Treaties

2004년 신간도서 소개

〈자료실 제공〉

구 분	내 용
'03년도 자료수집 목록 • 기획운영실 • 신국판 • 2004. 2. 16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당 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장서, 사료, 비도서 자료로 구분하여 목록을 제시하고 '03년도 연구/편찬산물을 소개하였다.
러일전쟁과 한반도 • 군사사부 • 신국판 • 2004. 2. 27	『러일전쟁과 한반도』는 그동안 연구소가 수집해온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한러군사관계 1차사료를 주제에 맞게 구성, 번역 편찬 것이다. 러일전쟁 전후 러·일 양국의 동북아정책, 한반도 내에서 전개된 육·해상 전투를 당시 정책결정자나 전투 참여자의 보고서를 통해 생생한 현장을 증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러일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닌 우리의 전쟁임을, 우리 한민족이 '강요된' 대일협력 이외의 '자발적' 대일 협력을 통해 민족주국활동을 전개했음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사 연구총서 제4집 • 기획운영실 • 4×6배판 • 2004. 4. 3	『軍事史』 연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불확실한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방정책 및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수록하였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한국의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에 대한 역사적 고찰, 임진왜란 전후의 조선시대 국방의식 변화와 국방전략, 러·일전쟁의 문헌을 바탕으로 한 쓰시마 해전의 승패분석, 독일군의 공격 실패 원인을 중심으로 연구한 스탈린그라드 전투, 21세기 새로운 전쟁패턴을 연구하는 정책 및 전략분야 담당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이라크전쟁의 교훈 분석 등 다양한 논문 5편은 군사사 연구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구 분	내 용
<p>군사(軍史) 제5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운영실 • 신국판 • 2004. 4. 20 	<p>군사(軍史) 제51호는 임진왜란 412주년을 맞이하여 임진왜란 재조명 관련논문 6편과 러일전쟁 100주년 특집 관련논문 4편을 싣고 있다. 특히 '전장환경과 거북선'을 통해 거북선은 포수와 사수, 격군이 최대 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3층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었으며, 러일전쟁 100주년기념 특집에서는 최근 수집한 러시아와 일본의 1차사료를 근거로 전투사를 집중조망함으로써 기존 연구성과에서 밝히지 못했던 연구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각 논문마다 학술지 논문색인 DB구축 및 이용시 필요한 주제어와 영문초록을 첨부하여 정보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p>
<p>고려의 북진정책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사부 • 신국판 • 2004. 5. 20 	<p>'영토사(領土史)' 관점에서 우리의 중세사를 살펴본 연구서이다.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삼국의 경쟁시대, 발해와 통일신라의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분열과 후삼국시대를 거쳐 형성된 고려 왕조는 대동강 이남의 작은 영토에서 출발하여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한족, 다양한 북방민족, 섬나라 일본민족들이 빈번히 침략해 왔으나, 굳건히 '자존의 삶'을 지켜 넓어진 영토를 조선왕조에게 물려주었다. 독자들은 이 연구서를 통해 부침을 거듭한 우리의 역사에서 강인한 민족역량을 키워온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p>

구 분	내 용
<p>6·25전쟁사 1권 - 전쟁의 배경과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사부 • 4×6배판 • 2004. 6. 24 	<p>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에서 1967년부터 10여년에 걸쳐 韓國戰爭史 11권의 전집을 발간하여 국내외적으로 전쟁사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이 전집은 발행부수가 제한적이고 시기가 오래되어 각계 각층에서 증보판 편찬을 요망하여 왔다. 이에 그 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특히 최근 전쟁 당사자국들이 공개한 사료와 참전자 증언 자료 등에 의거하여 총 18권 규모로 10년에 걸쳐 증보하기로 계획하여 현재 연구편찬중에 있다. 이 책은 그 첫 결실로 전쟁의 원인과 배경에 관한 내용을 망라하여 광복 직후부터 전쟁발발 직전까지의 상황을 서술하였다.</p>
<p>전사(戰史) 제6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사부 • 신국판 • 2004. 6. 25 	<p>‘戰史’는 매년 6월 25일을 기념하여 연 1회 ‘한국전쟁 특집’으로 발행되는 ‘戰史 專門學術誌’로서 전쟁의 배경과 원인이었던 정책 및 전략으로부터 전투사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에 관한 전 분야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호는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테러와 게릴라전을 주제로 한 논문 10편을 실고 있다. ‘전사’지는 전후세대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전쟁’에 대한 경종을 울려 주고, 아울러 군 장교들에게는 戰史의 사고를 심어줌으로써 군 전력증강에 기여해 왔다.</p>

구 분	내 용
<p>한국 전통병서의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사부 • 4×6 배판 • 2004. 7. 26 	<p>이 책은 현전하는 한국의 전통병서 80여 종 가운데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책들을 선별하여 발간 배경, 저자 소개, 병서의 구성과 내용, 역사적 의의와 가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단순히 내용 소개에만 그치지 않고 어떤 병서가 왜 그 시대에 만들어졌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풀이하였다. 현재 한국의 전통병서는 고려시대 이전의 병서는 남아있지 않고 조선시대 병서만 전해지고 있다. 이 책에 포함된 병서는 총 39종으로 조선전기의 경우 『제승방략』, 『계축진설』, 『오위진법』 등 11종, 조선후기 병서는 『병장도설』, 『병학통』, 『병학지남』, 『신기비결』, 『화포식언해』, 『무예도보통지』, 『징비록』, 『민보의』 등 28종이다. 평이한 설명문과 함께 다양한 도판이 수록되어 있어 한국의 전통병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라 할 수 있다.</p>
<p>국방편년사(國防編年史) (1998~20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사부 • 4×6 배판 • 2004. 7. 30 	<p>국방관련 사안을 집대성한 공간사로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민의 정부’ 국방부가 추진한 국방개혁·국방정책·국방업무성과 등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국민의 정부 국방개혁 5년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방편년사는 당대의 사실을 역사화한다는 점에서 현대사 서술의 정신·방식·형태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지난 5년간 추진된 정책집행과정을 투명하고 입체적으로 서술했다. 또 사진이나 공개된 관련 원자료를 부록화함으로써 사실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각종 국방정책과 국방업무계획·추진과정·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했다.</p>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제도·전사(戰史)에 관한 내용
- 나. 군사지 성격에 적합한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외교·군사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각주 포함)
- 나. 원고 작성은 국·한문을 혼용하고 고유명사 또는 외국어는 원어를 ()에 표기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년도, 페이지의 순서 및 방식으로 함.
-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 가. 제출하는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A4용지로 출력한 원고 1부와 디스켓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람(단, 원고, 디스켓을 대신하여 E-mail로 전송할 수 있음).
- 나. 우송(전송)시 성명(한문·영문표기), 직업(직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자의 주소, 통장계좌번호, 논제(영문표기), 논문초록(국문·영문, 각 A4지 2매 이내), 주제어(Key Word) 5단어(국문·영문)을 원고와 함께 제출하고 저작물이용허락서는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 바람. 단, 2인 이상 공저원고의 경우 대표저자의 성명에 별표를 첨자로 기입함(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소식(공지사항) 화면에서 다운받아 사용).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후 결정함.
-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라. 게재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있음.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4월 20일, 6월 25일, 8월 30일, 12월 13일)함.
따라서 2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4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6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8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 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우편번호 140-0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담당자
 - 전화 : 02-709-3188~9 • FAX : 02-709-3111
 - E-Mail : kyh5019@mnd.go.kr
-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
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 편집위원

책임연구원 장학근
선임연구원 양영조, 서인한, 백기인, 조성훈, 심헌용
연구원 정해은

□ 심사위원

책임연구원 김행복
선임연구원 서인한, 최용호
연구원 이미숙, 정해은

□ 간 사

선임연구원 김용희

軍 史 2004/8 (第52號)

2004年 8月 20日 印刷

2004年 8月 30日 發行

發行處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1가 8번지)
TEL : 709-3188 FAX : 709-3111

發行人 安 秉 漢

印刷處 신 오 성 기 획 인 쇄 사
(등록번호 : 문화 바 01997)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表紙 컷 : 兵曹之印

朝鮮時代 兵曹에서 使用하던 官印.

表紙 그림 : 홍주성 전투

을사보호조약에 분개한 전 참판 민중식이 항일 의병을 결성 후 왜군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홍주성을 공격 점령하는 장면을 그린 민족기록화.

(1906. 5. 19)